



1997 **5**

월간『바둑』·발행일 1997년 5월 1일 ·등권 358호 ·1967년 7월 7일 등록(라-906호) ·
1968년 6월 18일 국유철도특별취급증인 제108호/(재)한국기원 ·서울 성동구 홍익동 315

(재)한국기원 발행

동양증권배

조훈현 우승, 세계정상 컴백!



이창호 LG배서 유창혁에 2승
충격! 후지쯔배 전원 탈락

별책
부록

왕위전 본선리크
유창혁 : 목진석

복잡한 기술은 난 물라,
편한 게 제일이지...

항상 곁에 있는 기술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알고보면
생명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하는 LG의 기술.
LG의 기술표고는 생명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생활 속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기술, LG가 개발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LG의 첨단 기술

LG 전자미디어CU

미래형 멀티미디어 제품을 비롯, 생활가전제품, 차세대 Display 제품 등을
생산하여 멀티미디어 사회를 앞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LG 산전CU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산업을 전기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LG 반도체CU

멀티미디어 핵심인 첨단 반도체와 미디어 프로세서 7nm의
신무주자로 멀티미디어와 Network 사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LG 정보통신CU

세계 최초의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상용화, 각종 유무선
통신장비 및 PCS 단말기 생산으로 21세기 정보사회를 선도합니다.

LG 전선CU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위한 광케이블 및 각종 산업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전력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나가는 이유!



타우린 1000mg 함유, 박카스에프- 함께하면 늘 새로운 힘이 솟는다!

박카스에프와 함께라면, 하루의 피곤함도 내일을 위한 즐거움-

박카스에프에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뚝 사람들을 위해-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효능·효과: 육체피로, 지양간장
 용법·용량: 성인 1회1병(100ml) 1일1회 복용
 표준소매가격: 370원/100ml 병
 제품문의 번호 920-8248



WORLD-CLASS QUALITY,
MILD TASTE



PHILIP

SELECTED



SUPER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원인이 되며, 특
청소년의 건강

경고: 흡연은 폐암 등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

“소프트 화이트”와 나



등 각종 질병의
임신부와
해롭습니다.

등 질병의 원인이 되며,
건강에 해롭습니다.

PHILIP MORRIS SUPER LIGHTS

필립 모리스
수퍼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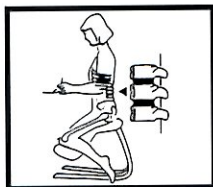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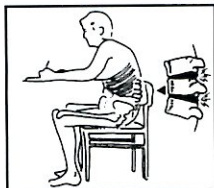
허리가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다

허리를 펴서 바르게 앉는 자세가 산소흡입량을 많게해 집중력을 증강시키고,
디스크를 예방하여 건강을 지켜 줍니다

바란스 의자는 허리를 펴줍니다

■기존의 의자

- 목, 어깨 및 척추가 앞으로 굽어
저서 새가슴, 허리디스크 위험증
가
- 산소 섭취량 감소, 혈액순환 장
애, 만성적 소화불량 근육의 긴
장, 피로 누적과 근시 위험



■바란스 의자

- 척추에 압박을 줄여서 디스크
예방과 척추교정
- 내부기관에 압박을 줄여서 호
흡, 혈액순환 및 소화촉진
- 컨디션이 좋아지므로 학습과
업무 능률 향상



바란스 이저 W248,000



바란스 파트너 W498,000



디스크 요통에는 바란스 의자가 최고입니다



저희 모자는 목덜미 요통이 심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할 정
도로 요통은 심해졌습니다.
간디다 못해서 MBC TV의 폭소 발명왕 프
로그의 "소원상회" 코너에 출연하면서 허리에
좋은 의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후 바란스 체
어를 구해서 앉고 나서부터 허리 아픈 것이 없어졌습니다. 바란
스 체어에 앉으면 허리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마치 서있을 때
처럼 허리에 부담이 줄어 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바란
스 체어 덕분에 지긋지긋한 요통으로 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값진 하루

제각 명성기의 어린이,
성장기의 청소년 특히 수험생·고시생,
정시간 의사생활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
디스크 요통환자들에게 탁월한 효과

(노르웨이 수입 안제품)

수신자부담전화 (02-909-8080)

BC카드, 국민카드 할부구입 환영
한일은행 (02-021392-13-001)

팔방물산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6-15
TEL: (02)585-6436 FAX: (02)585-6430



제 조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계
동양도탈

식 품

동양제과
오리온프리토레이

공 익

서남제단
동양오리온스

금 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중앙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알부금융
동양창업투자
에셋코리아투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스

무역·건설·유통

동양글로벌
동양시멘트 / 건설
동양애운
동양마트

정보통신

동양 Systemhouse
오리온카툰네트워크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패기만만한 젊은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한발 앞서 미래를 개척해온 동양그룹 -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동양그룹



VICJOY

SPRING & SUMMER

COLLECTION



골퍼를 만드는 골프웨어 - 빅조이

필드는 승부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곳이다

골프에 대한 귀하의 가치관을

반영한 최고급 스포츠 캐주얼 웨어

빅조이 -

탁월한 기능성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골퍼의 기품있는 스타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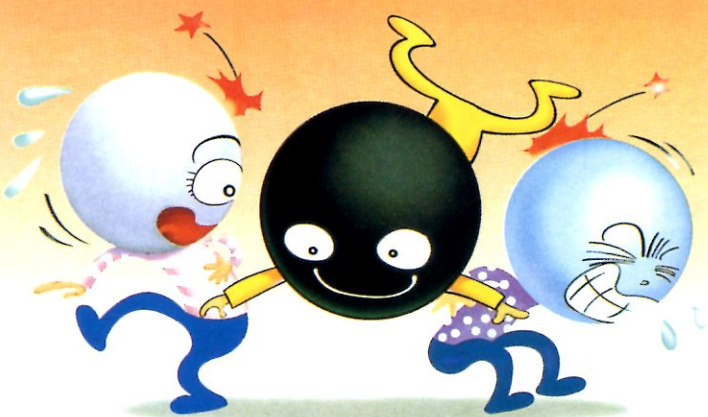
완성됩니다.



VICJOY

필드에서 입는 품격 - 빅조이

광연레포트



양상국 바둑특강

「절묘한 맥」

I · II · III · IV · V (끝내기)

脈郎生! “맥을 알아야 살길을 얻는다.”

양상국 EBS해설위원이 소개하는
 바둑 잘 두는 법의 경쾌한 해설서.
 오묘한 바둑세계에서 맥을 찾고
 그 활용을 안내하는 절묘한 맥의 세계!
 당신의 바둑이 빨리 강해지는 비결- 절묘한 맥



저자/양상국
 판형/신국판
 가격/I, II 권 4,800원 III, IV, V 권 5,800원

주요 내용

바둑 10훈 / 마늘 모의 맥
 1선에 내려서는 맥 / 건너붙이는 맥
 치중의 맥 / 끊이는 맥
 되짚히는 맥 / 1선에 한칸 뛰는 맥
 끼우는 맥 / 씌우는 맥
 날입자의 맥 / 타개의 맥
 변화의 맥 / 수습의 맥
 사활의 맥 / 패를 이용하는 맥
 끝내기의 맥/
 재미있는 바둑 상식

도서출판 광연

한국광고연구원 도서출판광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42 포스포빌딩5층 T:3473-3891 F:3473-3890

한국의 힘, 유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생활에서 따뜻한 마음이 싹트고 풍요로운 생활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자랍니다.
음식의 계절을 없애는 비닐하우스. 자기가치의 표현수단. 패션.
질병과 고통이 없는 삶을 위한 의학도구. 물질의 풍요를 넘어 마음까지 아름다운 곳.
그 곳에 유공의 화학이 있습니다.

유공은 한국의 대표 화학기업입니다

1972년 국내 최초로 석유화학 공장설립, 연산 7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보유.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물론 신소재를 이용한

패션과 화장품의 원료에 이르기까지

지금 유공이 화학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공은 한국의 대표 에너지기업입니다

1964년 국내 첫 석유류 제품 생산, 세계 20여개국에서의 유전개발.

하루 8만 배럴의 정제시설 호주에 유전단 탄광보유.

국내 수요량의 50%가 넘는 LPG 공급.

지금 유공이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공은 한국의 대표 환경친화기업입니다

대기오염의 40%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경유차매연저감장치 개발.

200여명의 환경전문가와 1조원에 달하는 투자규모,

종합폐수처리시설 및 재생연료제조시설.

지금 유공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 화학기업인 유공이
보이지 않는 한국의 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있는 조국을 위하여 —
한국의 힘, 유공**

사람이 자랄만큼
그 사람을 키우는 사람

월간 창간!

초중급 바둑팬을 위한 길잡이

월간『바둑가이드』가 다가옵니다

만년 하수의 설움에서 벗어나 반상 361로를 내달는 힘찬 들소처럼
상수의 세계로 안내할 새 바둑월간지가 탄생됩니다.

시각적인 편집, 실전에 꼭 필요한 다양한 강좌, 세계 톱기사들의
열전보, 정확하고 신속한 바둑계 소식과 취재기사 등으로 꾸며질
월간『바둑가이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기원 발행, 4×6배판, 200면, 정가 5,000원

신동아화재

자동차보험은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신동아화재에 가입하시면 아래의 긴급출동 무상서비스를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신동아 마스타카-서비스의 주요내용

무상서비스

- ▶뎀타리출전 무상서비스
- ▶잠금장치 해제 무상서비스
- ▶차량간인 무상서비스
- ▶라지아이터캡 교환 무상서비스
- ▶원도우브러쉬 고무교환 무상서비스
- ▶팬벨트교환 무상서비스
- ▶브레이크 오일 보충 무상서비스
- ▶차량사용중 이상이 있거나, 정기점검을 원할 경우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전국 각지사 방문시 무상서비스
- ▶펍키시 타이어교체 무상서비스
- ▶비상급유 무상서비스
- ▶엔진과열시 응급조치 무상서비스
-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교환 무상서비스
- ▶퓨즈교환 무상서비스
- ▶엔진오일보충 무상서비스
- ▶운행불가시 긴급출동무상서비스

할인우대서비스

- ▶자동차 검사대행비용 할인우대서비스
- ▶경정비 비용, 세차 및 용품 등의 할인 우대서비스

서비스카드 발급대상

- ▶자가용승용차 종합보험 가입자
-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한 「대형보장-안전드라이버보험」 가입자

365
긴급출동

신동아 마스타카-서비스

콜로버서비스 080-960-6300

휴대전화통화시 02-334-2702



고객과 한마음

신동아화재해상보험

격조 높은 바둑 세계로의 초대!

바둑비디오의 名品

노영하바둑비디오 총 31편

국내 최고의 해설자 노영하사범의 명강의!

예기가라면 노영하 사범의 명강의를 기억하시겠죠
13년간의 방송해설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는 책을 덮어도 좋다!

총 31편의 방대한 양에 정석부터 끝내기까지
주제별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비디오만으로도
기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대사백변, 고목정석 등 복잡한 변화를 책으로
공부하기 어려웠습니까?
지금 바로 비디오의 위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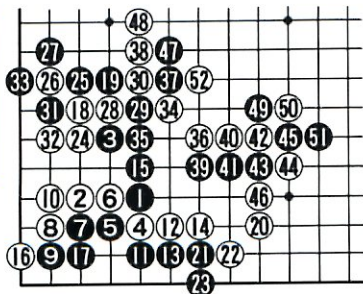


KBS 바둑해설위원 盧永夏 八段

(Tape: VHS 90분용)

상품명	Tape 수	가격(원)	비 고
정석 (상)	4	39,600	화집2, 외목2
정석 (하)	4	39,600	소목2, 고목2(3·3)
포석	3	29,700	중·고급용
행마	3	29,700	초·중급용
침입과 방어	3	29,700	중·고급용
함정수	3	29,700	중·고급용
수상전	3	29,700	중·고급용
사활	3	29,700	중·고급용
맥	3	29,700	중·고급용
끝내기	2	19,800	중·고급용

한성주 고목정석에서



부담없는 가격/필요한 부분만 구입

소비자의 직접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함으로써
유통마진을 배제하여 가격을 과격적으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1~3만원대 (편당 ₩9,900)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영하 바둑비디오 전집(총 31편)을
구입하시는 분께 드리는 특전

1. 가격할인
₩ 306,900 → ₩ 264,000
2. 봉황특호 바둑알
(두께 9.3 mm) 증정



긴 스트레이트머리, 짧은 스포츠머리는 물론 파마나 염색, 드라이,삼푸까지 자유로운 그 섬세한 기술, 밀란-이젠 스타일 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미안으로 내일로, 내일로 차이다

[illegible]

모든 브랜드를 위한 생크림
密蘭
(주) 밀란인터내쇼날

(주) 밀란인터내쇼날

전화바둑속보

700-7111



전화 한 통에 O.K

바둑정보도 700시대

걸핏하면 방송시간대를 핑계로 중단되기

일쑤인 TV바둑 중계방송.

다른 뉴스에 치여 눈썹고 봐도 찾을 길 없는

신문 바둑기사.

한달에 한번씩밖에 대할 수 없는 바둑 월간지.

그러나 이제 짜증~ 끝!

언제 어디서나

02)700-7111, (051)700-7111번을 돌리시면 최신 국내 바둑

소식은 물론 국제대회, 해외소식,

바둑 뒷얘기, 이창호 소식 등의

다양한 바둑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30초당 8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가됩니다.

7 0 0 7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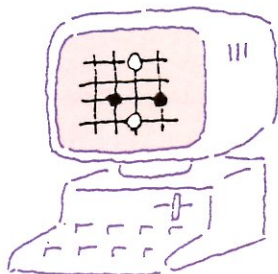
**치바바에 짜리리릭으로
로오**

**가슴 짜리리릭하게
유명기사와 만나세요!**



한국기원 제공 음성바둑서비스 내용

- ① 한국기원 종합바둑소식
- ② 바둑 뒷얘기
- ③ 이창호 기사소식



700 바둑정보를 들으려면

1. 본 서비스는 **서울(02-700-7111)**과 **부산(051-700-7111)** 중 가까운 곳으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요금 징수관계상 공중전화를 비롯해서 핸드폰이나 핸드폰과 유사한 카폰 등으로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2. 일단 전화 접속이 되면 본 정보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아리따운 목소리로 소개됩니다.
3. 한국기원 종합바둑소식 등 몇 가지 항목 중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둑용품의 모든 것

**한국의
판마장에서
찾으십시오**

- # 고급·보급용 바둑판 전시판매
- # 각종 바둑서적·비디오 완비
- # 바둑대회·행사 기념품 주문판매

구입문의

T. 291-1912
(판매장)

299-2173
(판매보급부)

본관(홍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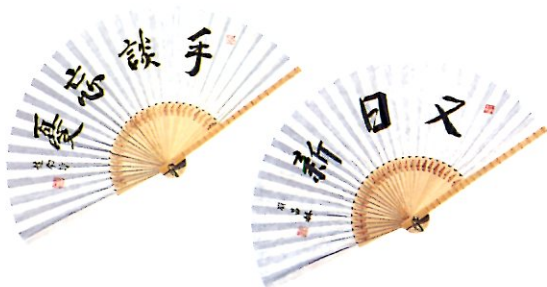


바둑인의 필수품!

■ 한국대표기사 휘호합죽선

조남철 · 김인 · 이창호 · 유창혁 九단(정가 각 ₩10,000)

※ 각 5개 이상 구입시 30% 할인



■ 한국대표기사 휘호환원자기 물컵

조남철 · 김인 · 이창호 · 유창혁 九단(정가 각 ₩5,000)

※ 10개 이상 구입시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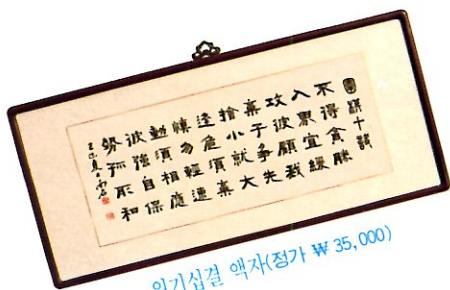
■ 다음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고 연락주시면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우송료 본인 부담)

- 외환은행 073-22-00288-7
- 국민은행 006-25-0007-471
- 농협 053-17-000900
- 제일은행 126-20-266690

(예금주: 한국기원)



위기십결 액자(정가 ₩35,000)



흑백계필이(정가 ₩7,000)



위기십결 타월(정가 ₩4,000)

「바둑사랑 인생여행」



바둑CD(정가 ₩12,000)

바둑테이프(정가 ₩5,000)

새로운 『기보의 표시방법』

발명특허취득

(발명등록 제 112091호
— 1997. 2.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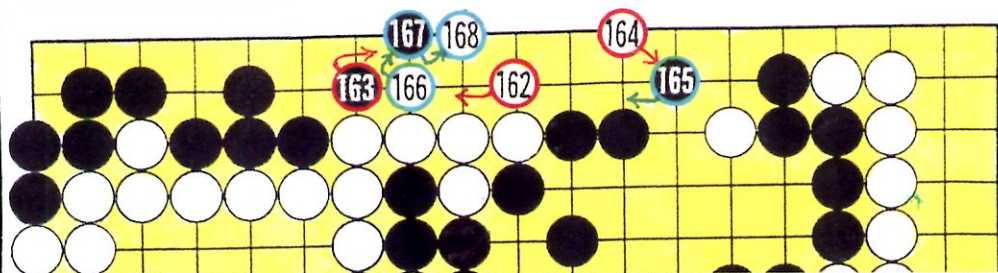
주간한겨레21 (제 144호), 주간뉴스피플 (통권 256호)
S.B.S방송 (2.10), 바둑 T.V (3.9), 중앙일보 (3.19) 보도

종래의 기보표시방법을 혁신적으로 개량한 것이며
(1) 대국수순의 **순서찾기**가 쉽고 (2) **국지전** (2수, 4수, 6수 단위의 대결상황)의 양상을 구분하여 볼수 있으며 (3) 해설문에 흑과백의 **얼굴표정** (만화식) 그림을 넣어 양대국자의 표정과 그때그때의 **대국상황**을 표시하여 해설을 아주 재미있게 하였다.

혁신적인 새로운 「기보의 표시방법」 과 해설

제 14 보 157~168

(첫수표시 157 ↓)



독점출판을 하실분을 구합니다.

1,000만 바둑애호인이 대환영하고 크게 선호할 **명국기보해설집** 을 계속
독점출판합본을 찾고 있습니다.

「바둑기보」를 “스포츠게임”
처럼 쉽게 볼수 있고
「해설」이 “만화”같이 재미있다.

- [1]출판사 단행본 시리즈, 미니출판물
- [2]주간지사 별책부록으로 매주발간
- [3]일간신문사 매일기보 3보 게재 (7단크기)
- [4]통신판매사 통신판매용 주간지 발간

(02)736-6226 우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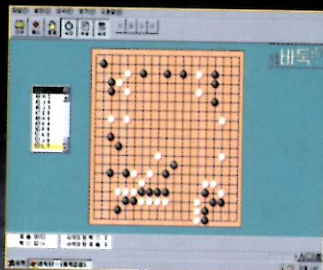
인공 지능 바둑 97

재단법인
한국기원
추천

배경 스토리

복잡한 전황을 미로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을 조합해 내는 능력의 뛰어남이 요구 되어 집니다. 컴퓨터가 자랑하는 것은 "계산량", 그러나 그 계산량 만으로 승부하는 한 강한 컴퓨터 기사는 되지 않습니다.

전황을 분석 계산량을 확보한 뒤에 '판단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하여 CPU안에 인간과 같은 뇌를 배합 하는것, 인간의 사고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기술, 이 기술의 축을 집약해서 만든 것이 "인공지능 바둑 97" 입니다. 생애 최고의 바둑 적수가 될 최강 기사의 탄생, 바로 당신 입니다.



특징

주요기능

1. "인공지능 바둑 97"만이 채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대국
2. Windows용으로 어렵다고 세련된 interface를 채용 초급자에서 중급자(8급정도)까지 즐겨할 수 있습니다.
3. 바둑판 위에 자유롭게 돌을 배치 할 수 있어서 대국을 즐길수 있는것 뿐만 아니라 바둑 연구에도 최적 입니다.
4. 한번 종료한 대국을 희망하는 상태까지 돌려서 그곳에서부터 개별의 수순으로 바꾸어 놓을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5. 1단계 ~ 4단계로 당신의 실력에 맞는 수를 택할수가 있습니다.

- **와일 :** 대국의 보존, 불러오기, 도중까지 대국을 재현 하고 그곳으로 부터 새로운 대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설정 :** 흑, 백을 사람/컴퓨터 중에 설정하고 1단계 에서 4단계까지의 강도 설정, 효과음, 위치표시, 칼라의 on/off, 광고두기(2~9), 9줄 13줄 19줄 판의 선택, 자동 생성등의 기능 있습니다.
- **대국 :** 시작 / 패스 / 물림 / 중단 / 재개 등의 바둑판 위에 임의의 위치에 돌을 둔 상태에서 대국을 할 수 있게끔 편집기능이 있습니다.
- **표시 :** 기보를 표시한다. / 시간을 표시한다. / 시석을 표시한다. / control을 표시한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80-68
세경빌딩 6층
Tel: (02)3436-4727
Fax: (02)3436-4729
http://www.mediasoft.co.kr



제8회
동양증권배
결승5번기

조훈현, 세계정상 재등극





3연속 역전 파노라마



LG배 세계 기왕전

2승의 이창호 九단

‘이제 1승이면 우승,
기세가 오를 때
화끈하게 밀어부칠 요량입니다’



● 결승2국 시작 장면





대반격 노리는 유창혁 九단

‘2패 후 3연승의
짜릿함을 모르시나요?
아직 4쿼터가 남았습니다’



●인산인해의 검토실 모습

第十回 世界囲碁選手権

主催：読売新聞社・日本棋院・関西棋院 後援：文部省 協賛：富
協力：中国囲碁協会・韓国棋院・中華台北囲碁会・米囲碁協会・欧州囲碁連盟・日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충격! 한국 전원탈락

이게 사실인가. 최강의 멤버로 출사표를 던졌던
한국이 2회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전원 탈락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지만 이진 충격이다.
주장격인 조훈현 九단은 1회전에서,
챔프 이창호 九단은 중국 신예에게 반집패...
이제 우물안의 개구리여선 안된다.

(관련상보・기사/98쪽)

世界囲碁選手権・富士通杯

主催：読売新聞社・日本棋院・関西棋院 後援：文部省 協賛：富士通株式会社
 協会：韓国棋院・中華台北圍棋会・中国囲碁協会・欧州囲碁連盟・日本棋院南・日本航空



① 이창호 九단 : 저우 허양 七단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만들며 저우 七단이 반집승.



② 조훈현 九단 : 유키 사토시 八단
 우승후보 조九단이 방심의
 허를 찔려 6집반패.

③ 3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가토 九단이 공개해설하는 장면.







결론은 이창호 유창혁 π이거

SBS배 2연패
속기 제왕 등극

이창호 九단은
조훈현 九단에 강하고
(4기 배달왕기전에서
1승1패)

조훈현 九단은 유창혁
九단에 강하다.

(32기 패왕전에서 2승 1패)

그러나 유창혁 九단은
‘세계 최강’이라는

이창호 九단에

유독 강하다.

유 九단은 제5기 SBS배

연승바둑최강전에서

이 九단을 2승 1패로

꺾고 ‘속기제왕’에

등극했다.





이창호 · 남치형 '찰떡궁합'

동갑내기 '토끼회' 바둑커플
 이창호 九단 · 남치형 初단 조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 남녀 혼성바둑인
 삼성화재초청 페어바둑최강전에서
 '찰떡궁합'을 과시, 첫 우승컵을 맞들며 우승상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 · 남 조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김영환 · 윤영신 조, 권갑용 · 권효진 조, 강훈 · 강승희 조를 연파,
 '환상의 복식조'로 탄생했다.





여류국수와 국회의원의 '첫 맞선'



3월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BTV주최, 휠라코리아(주) 후원,
한국여성바둑연맹 주관으로

제1회 여류국수·국회의원 친선바둑대회가 열렸다.

공식대국과 번외경기로 나뉘어 치러진 이날

교류전에서는 김혜순·김영·서진주 씨 등

전 아마여류국수들이 이끈 여류국수팀이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

이양희·신기남·이수인·김학원·박희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의원팀에게 7승 1무 2패의 성적으로 승리했다.

한편 평소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조훈현·서능욱 九단이 참석해 지도다면기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148쪽)

프로·아마 오픈토너먼트

주최: (재)한국기원 주관: 월간 바둑



출발!

'97프로 : 아마 오픈토너먼트

프로와 아마가 '호선맞대결'을 펼치는 '97프로 : 아마 오픈토너먼트'가 3월 26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개막됐다.

프로정상 선배들이 두점까지 만들어 놓은 치수를 패기의 신예후배들이 호선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프로 : 아마대항전에서 석점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당했던

아마정상들이 설욕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 이번 '97프로 : 아마 오픈토너 1회전에서 프로군이 3승을 올려 체면을 세웠으나 아마군의 재야강호 최철수 6단이 김강근 初단을 불계로 꺾는 '오픈파란'을 일으켰다. (관련상보 · 기사 204쪽)



- ① **대표대결** 프로군의 주장격인 김만수 2단과 아마10강전 우승자 박영훈 6단의 대표대결에서 김2단이 4집반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
- ② **아마태풍** 아마군의 재야강호 최철수 6단이 프로군의 김강근 1단을 백 불계로 꺾는 사건을 터트렸다.
- ③ **대마사냥** 백대현 3단이 전 아마국수 이용만 6단의 대마를 사냥하며 완승.
- ④ **젊은패기** 신예강호 이현욱 2단이 관록의 김동섭 7단을 패기로 누르며 흑 불계승.
- ⑤ **선전다짐** 프로와 아마측의 대표격인 김만수 2단과 김동섭 7단이 대진 추첨을 끝내고 선전을 다짐하는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관장이란?
 정부에서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란 뜻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에 대한 상징상표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인생이 보이고...

홍삼정차

마음은 고요하게 머리는 맑게

홍삼정차와 함께 하는 새벽은 무늬무상...



정관장 홍삼

최고의 효능을 발휘하는 6년근 인삼만을
 엄선하여 만든 정관장 홍삼.
 알고보면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좋은 홍삼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마크가 있습니다.

조용한 소문, 홍삼정차 -

- 진한 홍삼 엑기스를 주원료로 한
과립상 지양강장제로 4대이후
장년층의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 홍삼엑기스 특유의 진한 맛과
신선한 향기를 지녀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 술에 타서 먹으면 알콜 해독효과 및
부드러운 술맛을 내므로
매주기에게도 사랑 받습니다.
-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어느 곳에서든
홍삼정차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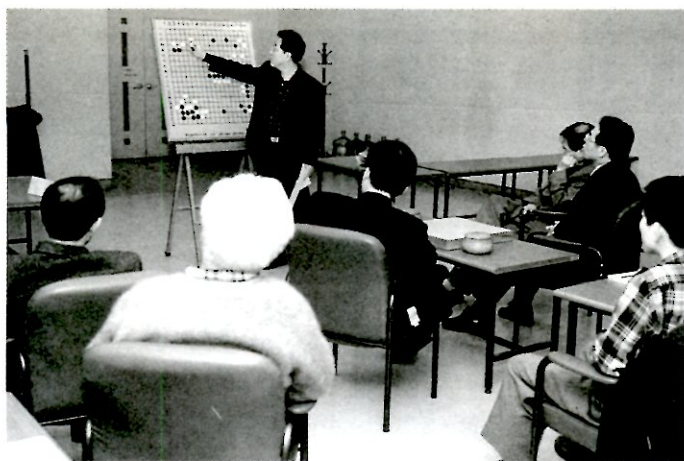
■ 홍삼정차

• 3g X 50포 : 25,000원

• 3g X 100포 : 48,000원



한국담배인삼공사



바둑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름길로 안내하는 바둑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전문기사가 직접 지도하는 한국기원 바둑강좌

※ 문의 : 한국기원 보급부(☎ 291-1912, 299-2173)

강좌명	급 수	강 사	요 일	시 각	비 고
입문반	입문~13급	한상열 四단	화·목	오후 7시 ~8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 월 50,000원 • 여성 수강자 40% 할인 • 60분 강의, 강의 후 실전대국. • 연속 3개월 이상 수강자 월간『바둑』6개월 정기구독권 증정 • 매월 첫번째 강의 무료공개 강의 <p>※ 입문반은 한국기원 종로회관 (T. 722-8039, F. 735-8174)에서 접수 및 강의</p>
초급반	12~9급	김석홍 二단	월·금	〃	
중급반	4~8급	김동면 六단	월·수	〃	
상급반	3급 이상	강철민 七단	수·금	〃	



표지이야기

조훈현은 영원하다. 94년 동양증권배, 후지쯔배를 석권,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한 조훈현이 3년 만에 세계정상 재등극에 나섰다. 세계대회 첫 우승을 노리는 고바야시 사토루의 초반 공세를 특유의 '흔들기'로 2연속 역전극을 펼친 조훈현의 눈앞에 동양증권배가 있다.

- ☐ 제자/손재형
☐ 사진/이혜성
☐ 일러스트/허 경

상보·총보

TOP기보/제8회 동양증권배 결승2국(조훈현 : 고바야시 사토루)	44
조훈현의 흔들기	
관전기 : 노승일 자전해설 : 조훈현 九단	
조명 1/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2국(이창호 : 유창혁)	64
LG배 미니시리즈—주연은 누구일까?	
관전기 : 이홍렬 자전해설 : 이창호 九단	
조명 2/제10회 후지쯔배 본선1회전(최명훈 : 저우 허양)	98
경고! 추월은 잠깐이다	
글 : 박영철 해설 : 임선근 八단	
특별기획/97 프로 : 아마 오픈토너먼트 1회전(김만수 : 박영훈)	204
'호선? 부담이 큼니다'	
관전기 : 공윤성 자전해설 : 김만수 二단	
해외기보/제11기 중국 천원전 도전4국(창 하오 : 마 샤오훈)	239
중국은 지금 세대교체 중!	
글 : 박장배 해설 : 김인 九단	

뉴스

바둑계 24시	121
확대경뉴스 1/'97대구MBC배	142
2/제3회 전국직장인 바둑최강전	144
3/제5회 김성준배 전국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	146
Woman Buduk/국회의원 : 여류국수 친선교류전	148
지구촌 바둑소식/일본, 중국, 유럽, 미국	250
오로의 트랙/'바둑용어 연구위원회'가 결실하다	42
박수동 만화/만방아저씨	267



영상취재

이 사람의 행마법 ⑦/KBS바둑왕전 정석규 PD	158
포토카툰/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외	168
모임모임/한국기원 무리수회	152

인기연재강좌

공격의 발상/유창혁 九단	186
뉴 우주류/다케미야 마사키 九단	192
초반 길라잡이/최규병 八단	198

이색연재강좌

유승엽의 통신바둑 여행/유승엽	224
인터넷 바둑영어/차민수 四단	228
체험수기/나는 이렇게 1급이 되었다/바둑TV 프로듀서 안성문	234

현상응모코너

현상요수풀이	268
윤영선의 바둑도우미/윤영선 初단	272
돌소리 글소리/독자와 함께 꾸미는 페이지	278

총보록선

이달의 기보/제4기 배달왕기전 외	114
--------------------	-----

안내

BTV 프로그램 소개	256
공고/제13회 오리온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263
연구생 모집	264
바둑사진 현상응모	185

- 별책부록 ① 명국감상
제31기 왕위전 본선리그12국(목진석 : 유창혁)
차세대 신예강호 목진석 三단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九단을 꺾고 리그선두에 진입한 역전보.
- 별책부록 ② 단·금인정 시험문제
(출제/백성호 九단)
한국기원 공인 아마단을 무료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당신도 '아마 5단'을 딸 수 있다.



'97대구MBC배 전국아마대회

박성균, 3년 만의 정상 컴백

'아마바둑계의 신사' 박성균 7단이 대구MBC배에서 우승, 94년 학초배 이후 3년 만에 정상 무대로 돌아왔다.

3월 30일 대구 동양투자신탁 사옥에서 열린 '97대구MBC배 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 결승전에서 박7단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나온 조병탁 7단을 꺾고 우승상금 300만원과 우승컵을 받았다.

이날 대국은 대구MBC를 통해 4월 5일 특집으로 방송됐다.

(관련기사 142쪽)



- ① ② 30일 오후 2시부터 유창혁 九단(사진①)과 하찬석 八단, 강만우 七단(사진②)의 지도다면기 행사가 개최
- ③ 유창혁 九단과 하찬석 八단의 결승전 공개해설 장면
- ④ 천풍조 七단과 대구MBC 이상원 상무와의 지도기 모습
- ⑤ 러시아에서 바둑유학을 온 알렉산드르 디네스타인 군과 스베틀라나 식쉬나 양이 모두 본선에 올라 기염. 사진은 식쉬나 양의 대국 장면

제3회 全國職場人바둑最



제3회 전국직장인 바둑최강전

임진영, 직장강호 새 명함

대학패왕 출신의 임진영 씨(한맥유니온)가
직장 강호로 새롭게 등장했다.

4월 12, 13일 전국의 직장고수 11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제3회 전국직장인 바둑최강전에서 임진영
씨가 역시 대학패왕 출신의 박태순
씨(공연윤리위원회)에게 승리, 직장대회 첫
우승컵을 안았다. (관련기사 144쪽)



제5회 김성준배 전국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

주최: 김성준장

주관: 이재, 한국기원, 한국기원, 강동지원



제5회 김성준배 전국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

김정민, “이제 나도 어린이 강자”

3월 15, 16일 이틀간 한국기원 대회장(예선)과 강동지원(본선)에서 열린 제5회 김성준배 전국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에서 김정민(11·개봉초등6·오른쪽 사진) 군이 김윤수(11·이수초등6) 군을 꺾고 전국어린이대회 첫 우승컵을 안았다. 96년도 전국규모 대회 32강 입상자와 오리온배, 이붕배 1·2위, 해태배단체전 우승팀, 한국기원 2군 등 전국의 어린이 강자 64명을 초청해 예선리그, 본선토너먼트로 치른 이번 대회 심사위원은 정대상 7단과 이계훈 3단이 맡았다. (관련기사 146쪽)



◆ 한국바둑보급을 위해 趙南哲 先生이 평생을 연구하여 펴낸 初級 ⇨ 中級 ⇨ 高級 수준의 棋力向上 첩경서!

趙南哲 先生의 아래 저서들은 現代바둑의 原典이며, 韓國 바둑人의 教科書이다.



간접 아홉줄 바둑

바둑을 처음 배우는 분이나 어린
이에게 가족놀이로 바둑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입문서. (부록포함)
3·6판/112면/1,000원



1 바둑 첫 걸음

바둑의 기본 "물"과 실전에 필요
한 기초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급수
초월의 필독 입문서. (10급~18급자)
국판/186면/2,800원



2 死活의 基礎

바둑의 기초인 生(活)과 死의 모
양과 急所를 익힐 수 있는 급수
초월의 필독서. (9~10급자)
국판/160면/2,800원



3 行馬의 基礎

바둑의 묘기인 行馬를 익혀 균형
과 사환의 기초를 다지는 급수초
월의 필독서. (9~10급자)
국판/236면/2,800원



4 布石의 要領

미개척지에 근거를 마련, 싸움의
대비와 집 확보의 비결을 다룬
급수초월의 필독서. (7~8급자)
국판/252면/3,500원



5 바둑 概論

布石, 중반전, 끝내기 등 실전의
전체 요령을 다룬, 특히 成年者
에게 적합한 포괄서. (7~8급자)
국판·양장/240면/3,500원



6 實戰死活集

「사환의 기초」를 익힌 다음, 더
높은 수준의 실전에서 자주 생기
는 死活의 정석집. (5~7급자)
국판·양장/204면/3,500원



7 實戰定石精解

定石은 바둑의 필수, 정석을 알
아야 포석에 능하고 전세를 유
리하게 이끈다. (5~7급자)
국판·양장/446면/4,500원



8 行馬의 急所

③집과 ④집을 익힌 다음, 고
급의 行馬法과 大勢判斷의 안목
을 높이는 필독서. (5급 이상자)
국판·양장/206면/3,500원



9 속임수(花點篇)

10 속임수(互先篇)

위 기본서를 마스트한 다음, 실
전에서의 속임수에 대비한 책.
(5급 이상자) 국판·양장/166면/3,000원
166면/3,000원

●첨언: ()안의 급수는 필자 임의로 정한 것이지만, 비록 有段者라도 ①, ②, ③, ④, ⑦, ⑧권은 필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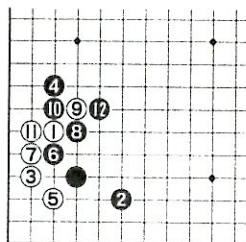
바둑은 공부로써 는다.

圖書出版 法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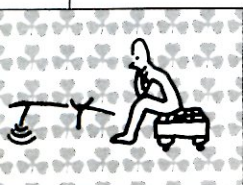
①②③-④⑤⑥ 서울 麻浦區 壘洞 161-7

TEL 703-6541~7, FAX 703-6549

바둑



1997년 5월호 제35권 5호(통권 358호)



‘바둑용어 연구위원회’가 절실하다

鳥
驚
의
뜨
락

지난 본지 2월호에 심종식 六단이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고 있다. 바둑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요지로 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진실로 정곡을 찌른 시론이다.

뜻도 모르고 ‘천왕산’이니, ‘사인방’이니 하는 말을 남용하고 ‘사천왕’ ‘비마’ 심지어는 ‘잔념’이라는 일본말을 어색한 지도 모르고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러운 느낌이 든다. 알다시피 바둑용어는 대개 일본말을 직역한 것들이다. 직역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에 잘 접목되도록 다듬어지지 않은 채 그냥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바둑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용화된 그런 용어에 익숙해져 별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바둑을 모르는 사람의 귀에는 어색하고 생경하다. 전문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둑인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바둑용어는 전문적인 학술용어가 아니지 않는가. 누구나 알아 듣기 쉽고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그런 말이어야 할 텐데 일본말을 억지로 빌어 쓰다보니 여간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 쓰기를 좋아하고(造語) 그렇게 만든 말은 일본어의 어순에 끼어 들어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지만 우리 어법의 정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바둑을 설명하는 글에서의 바둑용어는 생경하여 글 자체를 꼬르륵하게 만든다. 나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해 온 터로 부끄러운 바이기는 하나, 바둑책이 잘 읽히지가 않는 원인의 하나가 명료하지 않고 어색한 설명문 때문인데 필자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바둑글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바둑연구가 1천만 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둑 단행본의 초판본 2, 3천부가 소화되는데 몇 년씩 걸리고, 30년 전통의 한국기원

발행 월간『바둑』이 벌써 10만부가 넘게 발행되어야 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앞에서 얘기한 바둑 설명문의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 바둑글이 쉽게 읽혀지려면 문장력 자체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둑용어를 다듬고 순화해야만 글이 부드럽게 흐르고 매끄러운 읽을 맛이 나는 것이다.

바둑용어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국면의 상황인식에서 개념을 혼동하게 함으로써 기력향상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중급정도의 기력을 가진 이들의 얘기에 공격(결침 또는 다가섬)한다고 해야 할 착점을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사례인데 이는 피아의 세력권역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TV바둑을 보면 모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말의 모양(模様)과 한국말의 모양(貌樣, 模樣)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 글자가 같아서 뜻도 똑같은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물론 사전적 의미가 비슷하기는 하나 쓰임새가 약간 다르고 특히 바둑에서의 일본말 ‘모양’이 뜻하는 바와 우리말 ‘모양’과는 그 뉘앙스가 다르다. 세력이 포진된 것도 모양이라고 하고 부분적인 절충형태도 모양이라고 하니 개념상의 혼동이 온다. TV바둑의 어느 보조해설자는 침공한 착점을 치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같은 용어의 혼동 이외에도 바둑글에서 토씨(助詞)를 잘못 구사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해 사실은 필진들이 진작에 각기 연구하여 발전시켰어야 옳았겠지만, 우선 나부터 그 어떤 책임의식을 갖지 않았으니 개인에게 기대할 일은 못되고, 심종식 六단이 거론한 바와 같이 한국기원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그걸 위해선 이 방면의 충분한 경험자들과 국어학자를 동원하여 연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시일을 두고 용어문제를 다듬는 한편 차제에 파문헌 우리 고유의 바둑용어 발굴작업도 결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바둑’의 어원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끄러운 실정 아닌가. 일본바둑을 누르고 중국바둑을 꺾힘으로만 바둑계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양동환
(바둑평론가)



조훈현의 흔들기

‘무관의 제왕’

고바야시 사토루(小林覺) 九단이
거목 조훈현을 타고 동양증권배 우승컵을
안고자 현해탄을 건너왔다.

그러나 나무에 올라 놓고 흔들는 것이
조훈현 九단의 주특기임을 몰랐을까?

‘다잡은 토끼’를 연거푸 놓친
고바야시 九단이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TOP기보/제8회 동양증권배 결승5번기 제2국
백 九단 조 훈 현(한국, 1승)
흑 九단 고파야시 사토루(小林覺, 일본, 1패)
(제한시간 각 3시간, 덩 5집반, '97. 4. 2, 한국기원 BTV)
☐ 관전기/노승일(동양증권배 관전필자)
☐ 자전해설/조훈현 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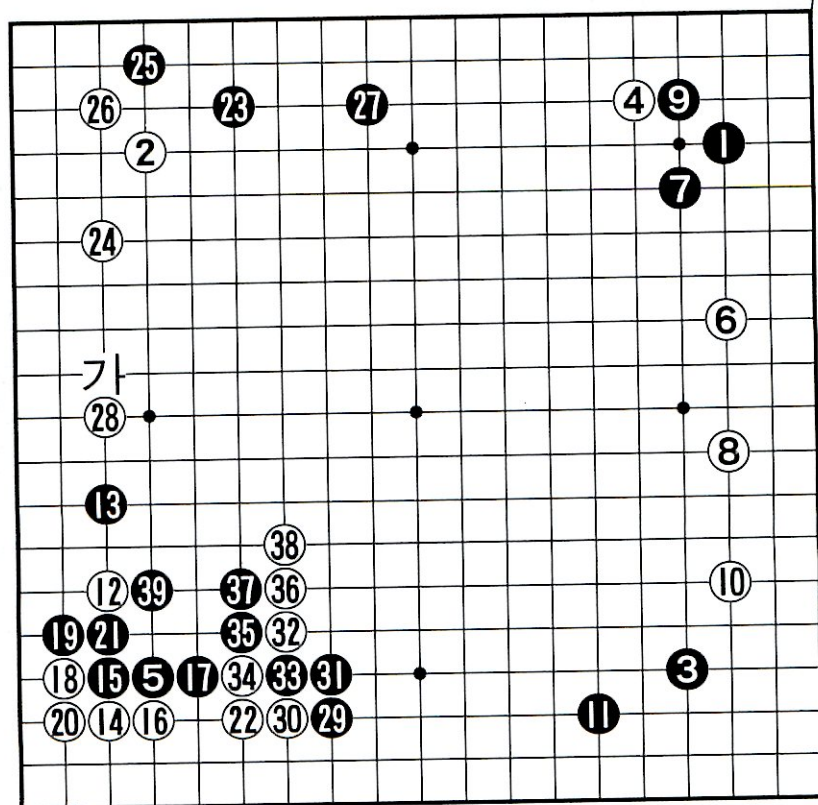
제1보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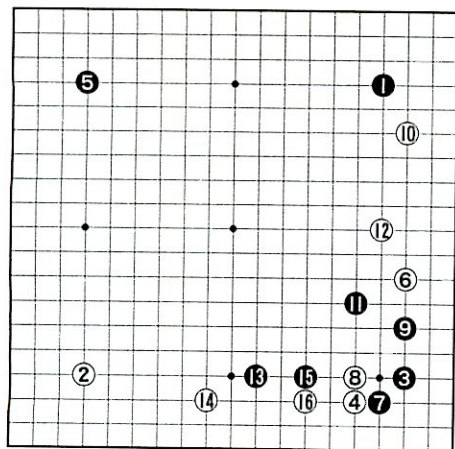
지옥길의 시작

대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은 실로 스릴 넘치는 일이다. 주인공이 역경을 어떻게 견디고 승부혼을 어떻게 지피고 흑암 속에서 빛을 어떻게 찾아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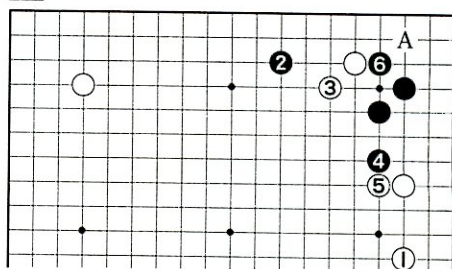
조훈현과 사토루(小林覺, 고바야시 고이치와 구별하여 편의상 이렇게 부른다)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승부란 최후에 이기는 자의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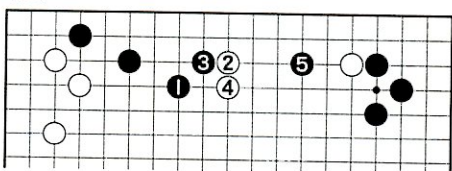
1도



2도



3도



는 생각. 상황이 불리할 때에는 과감히 모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 패배와 굴욕이 운명처럼 확정되려고 할 때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말 초인적인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 이 바둑에서 조훈현은 ‘역전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법’임을 보여 주었다.

백6은 조훈현이 즐기는 기묘한 협공. 작년에 마 샤오춘(馬曉春)과의 바둑(롯데배 한·중대항전)에서는 1도의 6 이하 16을 선보인 바 있다. 실전의 흑9는 사토루의 실리 취향. 스즈키(鈴木爲次郎)의 정석대사전에는 2도의 흑2 이하 6으로 ‘흑의 유망’이라는 소개가 나와 있다. 이 말을 했더니 조9단이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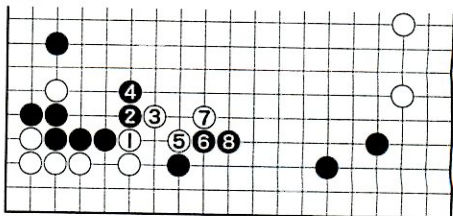
“빨리 잊어버리세요.”

백3(2도의)으로는 A에 달릴 것이라며 그 그림을 일축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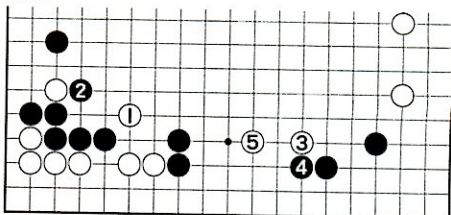
흑27에서 사토루는 7분을 숙고했다. 3도의 흑1을 궁리했던 모양인데 그것이면 백2에서 흑5까지가 상정된다. 흑이 즐거울 게 없는 그림.

백28은 조훈현류. 최대한으로 적진에 엄습하여 수단을 엿본다. 서봉수 九단(그는 이 날 방송 해설을 맡았다)은 가에 한 발 좁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4도의 백1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백32로는 5도의 백1로 뛰고 3·5로 짚는 것이 순리였다. 이 때이른 완착으로 백은 길고 긴 지옥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4도



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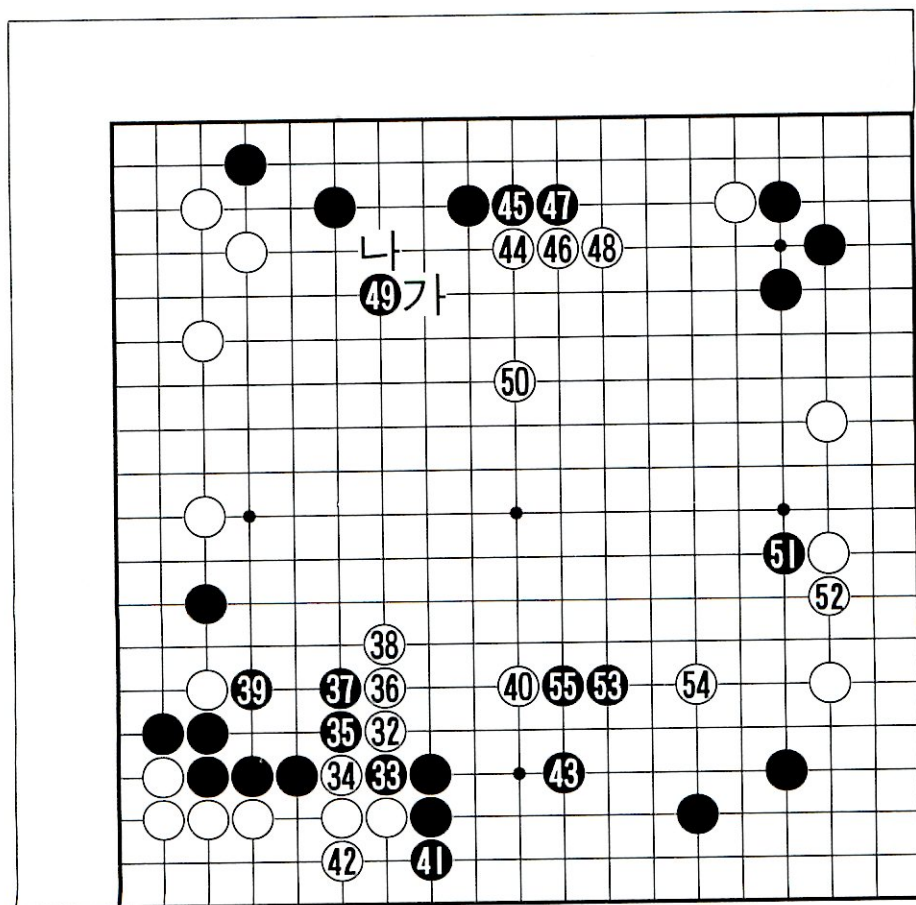
제2보

3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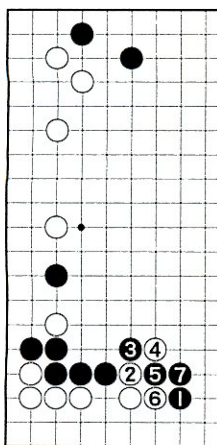
배저린 자중

백32로부터 다시 본다. 사토루는 불문 곡직 흑33·35로 끊어 버렸는데 막상 끊기고 보니 백의 형태가 말이 아니다. 수나 누기를 해보면 담박에 그것이 증명된다. 6도의 흑1 이하 5로 된 장면에 백6과 흑7을 교환한 꼴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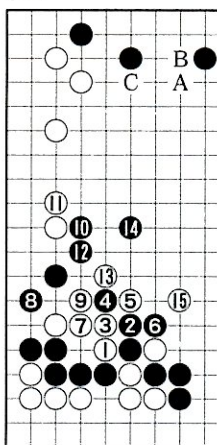
더구나 백36으로 움직인 수가 너무도 책략 부족이었다. 김토실의 임선근 8단은 7도의 백1 이하 7로 두었어야 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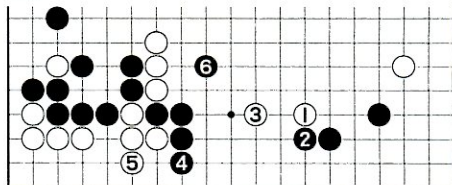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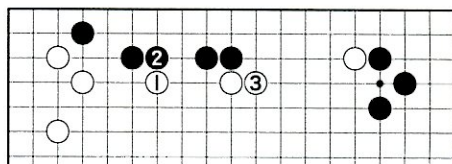
8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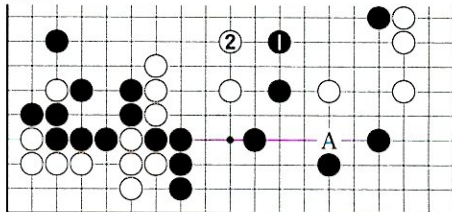
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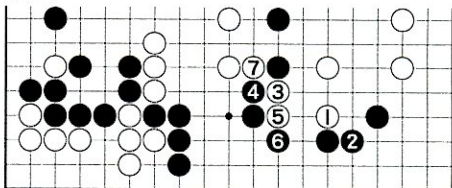
10도



11도



12도



했는데 그 까닭은 흑41에 42로 굴복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쓰라리기 때문이라는 것. 조훈현은 후일에 8도의 백1 이하 16으로 싸웠어야 했다고 자기 나름의 결론(기왕 32가 놓인 마당이라면)을 말했다. 다소 궁색한 싸움이지만 상변 쪽에 백A, 흑B, 백C의 봉쇄 수단도 있는 만큼 그런 대로 해볼 만한 난전이라는 것이었다.

백40은 장교 12분 만의 빠저린 자중이었다. 원래의 예정은 9도의 백1·3이었는데 흑4·6이면 백이 못 견뎌다고 보고 자중한 것.

흑49가 멋진 행마. 이 수로 가에 두면 백나가 노림수로 남는다. 백46으로는 10

도의 백1에 하나 눌러놓고 두었어야 했다고 조훈현은 후회했다.

백54(18분)는 고심의 응수 타진. 만약 흑이 11도의 흑1로 뛰어나오면 백2로 하나 받아두고서 A로 붙이는 수를 노릴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것이면 12도의 흑2 이하 7인데 이 싸움은 흑이 건디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실전의 55는 매우 두터운 응수라는 것이 조훈현의 말이었는데 검토실의 서봉수 九단과 차민수 四단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화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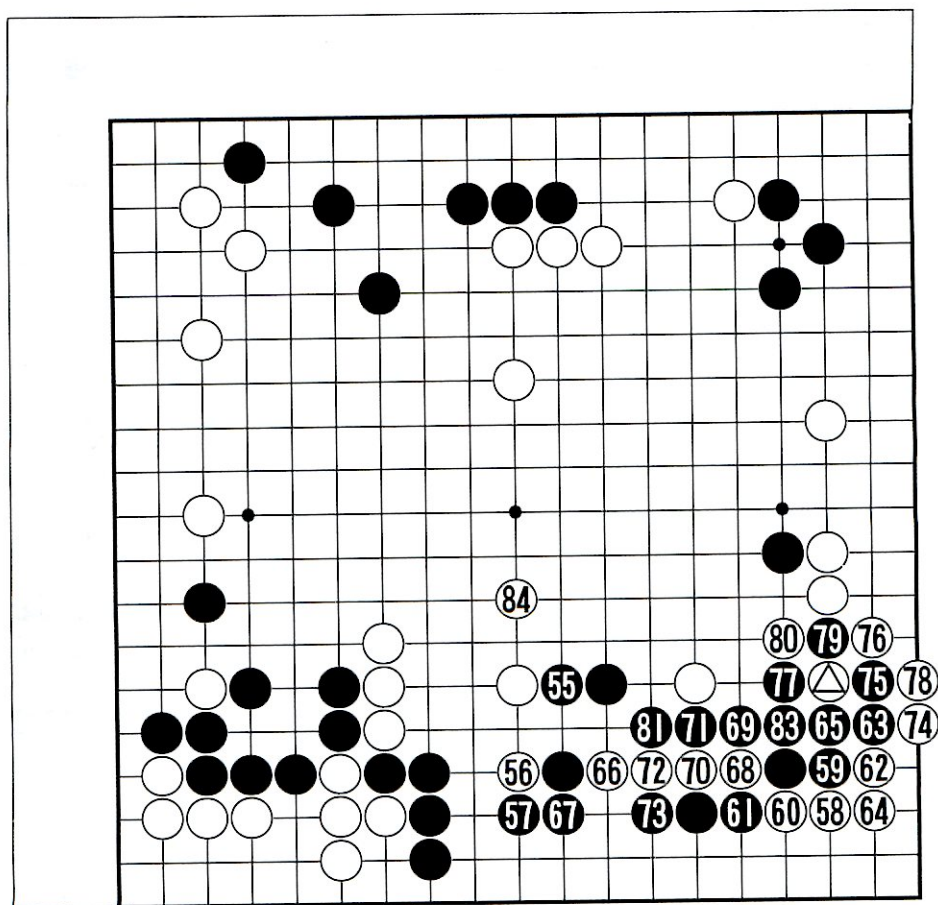
제3보

5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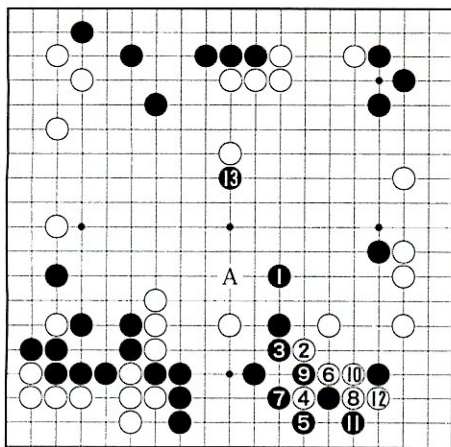
조훈현의
클린히트

82...△

서봉수 九단과 차민수 四단이 강력히 주장한 것은 13도의 흑1로 무조건 뛰고 보아야 했다는 것. 조훈현은 그것이면 A로 하나 받아두고서 6의 곳 붙임수를 노려서 백이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서九단·차四단의 주장은 '흑은 손 놓고 있나?'였다. 흑이 중원을 선제하면 백은 그런 역습을 할 찬스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백은 2로 당장 습격을 해야 하는데(나중에 사토루



1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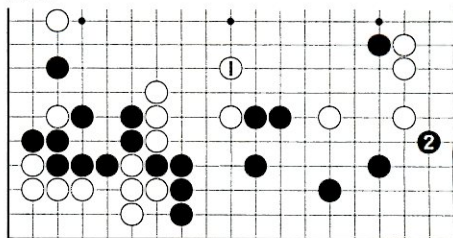
도 바로 이 수를 꺼렸다고 한상열 사단에 게 고백하였음. 한상열·김희중과 사토루는 형제애보다도 짙은 우정의 끈으로 맺어져 있는 사이임) 흑은 3 이하 11로 변신한 후 13으로 강스파이크를 날릴 수 있게 되므로 백의 고전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흑55로 웅크렸기 때문에 백은 56의 짚에 이어 하나의 플롯을 엮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장면에서 보여준 조훈현의 뛰어난 플롯은 정말로 정교했다. 상식적인 행마대로라면 백56으로는 14도의 백1이다.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흑2로 이쪽 코너가 주택단지로 굳어져 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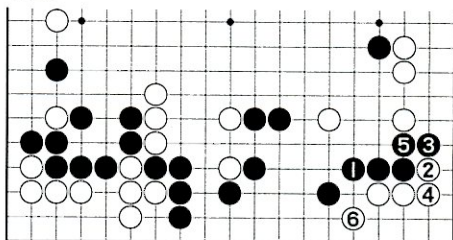
백58 이하 65까지 된 순간 전광석화같이 붙여간 백66이 묘수였다. 백68로 끊은 수가 '사석의 묘'. 순식간에 우하귀와 우변이 선수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묘기대행진이었다. 조훈현의 클린히트 성큼 따라붙었다.

결과론이지만 흑57은 67에 물러나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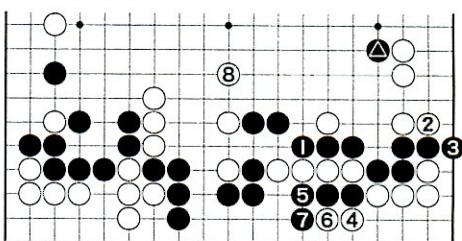
14도



15도



16도



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묻자 조훈현이 큰 소리로 한 대답.

“명석 프로가 어떻게 눈뜨고 손해를 보겠어요. 실전에선 그렇게 못 뒤요.”

검토실에서는 61로 15도의 흑1에 물러서야 했다는 설이 나왔으나 조훈현은 고개를 흔들었다. 백2 이하 6이면 흑이 실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

흑73으로는 16도의 흑1로 두는 쪽이 두터웠다. 백은 2 이하 6을 선수하고 8로 두는 정도인데 흑△가 그런대로 요석으로 작용하고 있어 흑도 팬찮다는 것.

제4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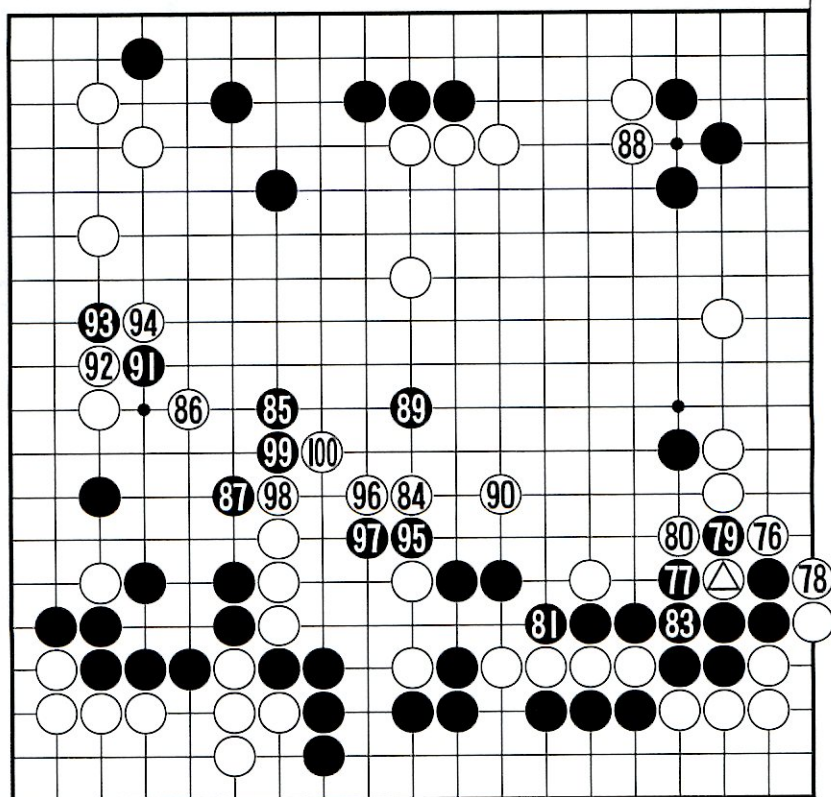
76~100

비장한 작전

⑧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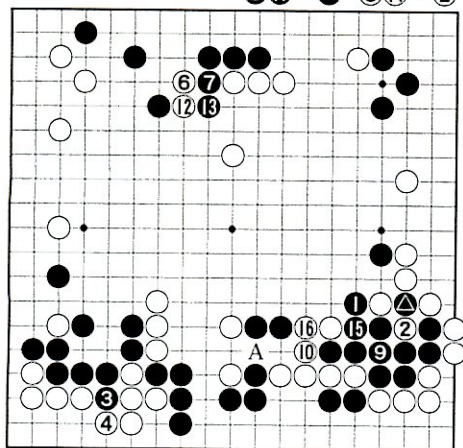
백76부터 다시 잠깐 본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백이 완벽하게 기분을 내는 플롯은 아니었는데 수순 가운데 흑77로 단수친 것이 나빴다. 이 흑77과 백80의 교환은 자충이므로 흑의 악수임이 분명하다. 이 자충이 나중에 흑에게 독약으로 작용한다.

검토실에서는 17도의 흑1·3으로 패를 강행하는 투쟁법이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이 투쟁법에 대하여 조훈현은 ‘환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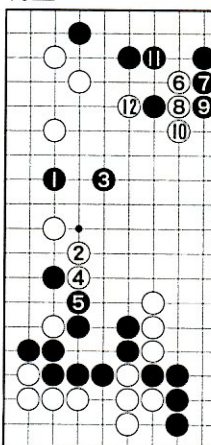


17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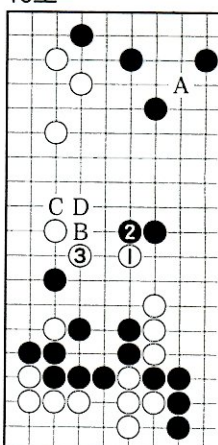
511...△ 814...②



18도



19도



었다'고 대답했다. 결국 흑15, 백16의 난전으로 귀착되는데 백에게는 나중에 A로 이득을 취하는 뒷맛이 남아 유망하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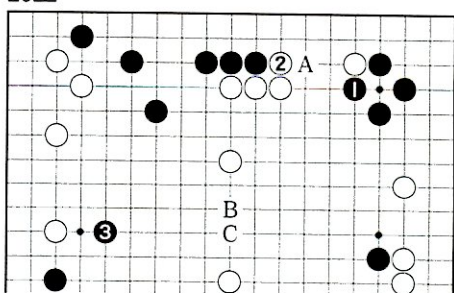
흑85가 아주 어려운 곳. 검토실 일각에서는 흑이 93의 자리에 뛰어드는 수가 어떠한 주장이 있었으나 그것은 무리(조훈현의 말)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18도의 흑1이 그것인데 백은 2 이하 12로 또 하나의 '워어내기'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실전의 흑85는 정체 불명의 이상한 수였다. 백이 86으로 장단을 맞추어 주었으니 망정이지 19도의 백1·3으로 역습했으면 흑이 곤란할 뻔했다. 백이 A로 켜는 수단(18도에 나온 그것)이 있어 흑의 운신편이 적은 것이다.

19도의 흑2로 B에 붙여 반발하면 백C·흑D·백2로 받아 이것 역시 흑이 피로운 진행이다.

서봉수 九단은 20도의 흑1을 이 장면에 서의 최선이라고 강변했다. 나중에 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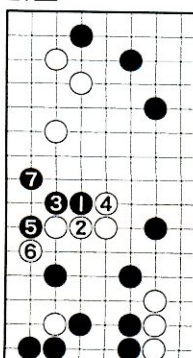
20도



현과 사토루도 의견이 같았다. 백은 2로 받는 정도(손을 빼면 흑A로 넘어 엄청난 대가가 생긴다)인데 그때 3으로 씌우거나 B 또는 C로 공격에 나섰더라면 흑이 여전히 좋았다는 것이었다.

백88과 92는 조훈현의 버티기. 21도의 백2로 받으면 흑3 이하 7로 백이 곤란해진다.

2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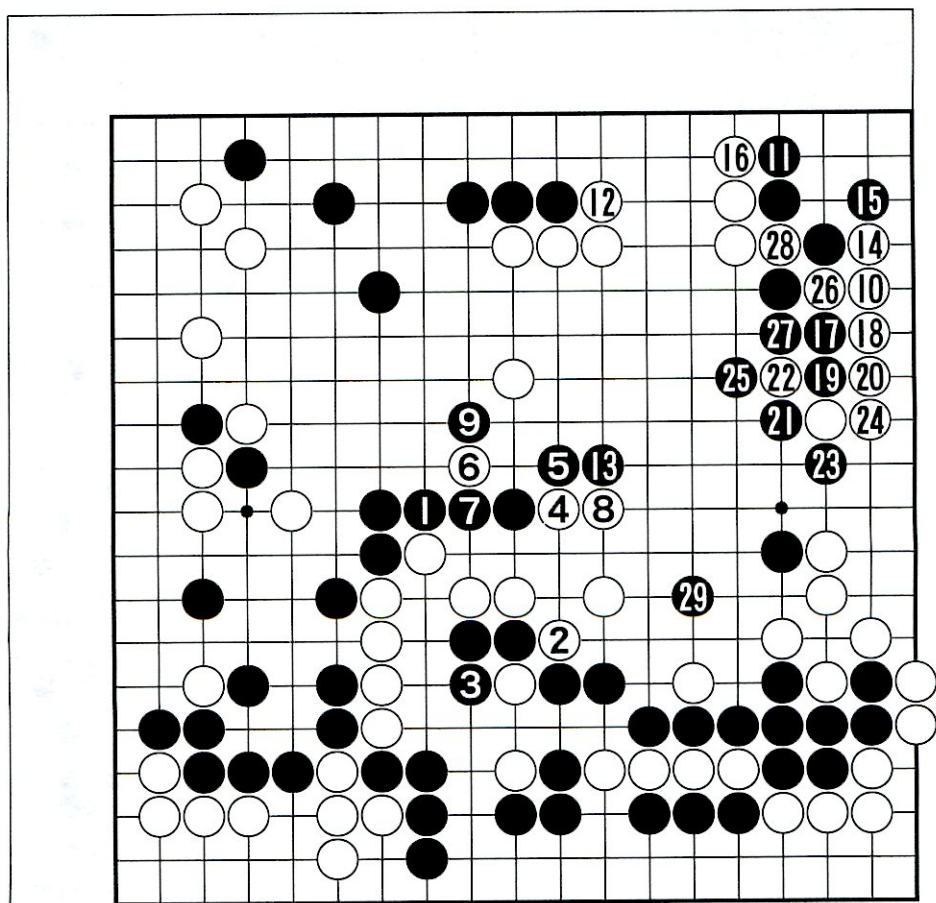
제5보

10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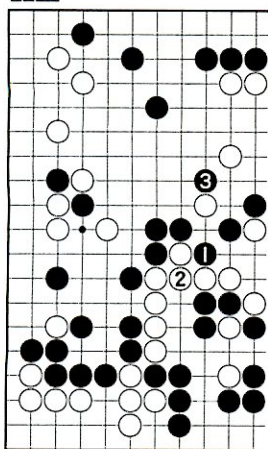
운명의 완작

쫓기면서도 조훈현은 언제나 눈이 급소에 가 있었다. 백6도 기민한 활용. 사토루는 낙관하고 있었던 듯하다. 흑7로 무심히 이은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여기서는 22도의 흑1로 반발하는 것이 날카로운 반발수였다. 백2면 흑3으로 백의 응수가 거북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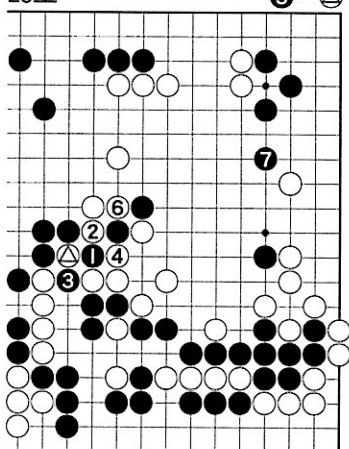
그러므로 백은 23도의 2로 찢러 백6까지로 중앙을 차지하고 흑은 7로 짚어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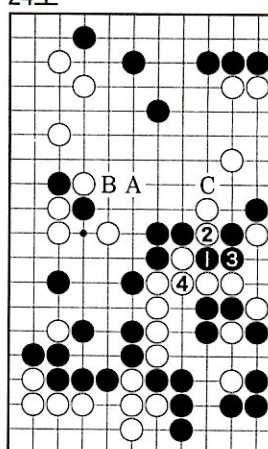
22도



23도



24도



는 바둑이 되었을 것이라고 조九단은 말했다. 검토실의 차민수 사단은 24도의 3으로 있는 강수가 있다고 했다. 백4면 흑A, 백B, 흑C로 백 2점을 잡는 수가 남아 백이 견딜 수 없다는 것. 장수영 九단도 그 말에 찬성이었다.

흑13이 운명의 완착이 되었다. 여기서는 25도의 흑1로 꼬부리는 한 수였다.

“그곳을 꼬부렸으면 절대로 이 바둑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사토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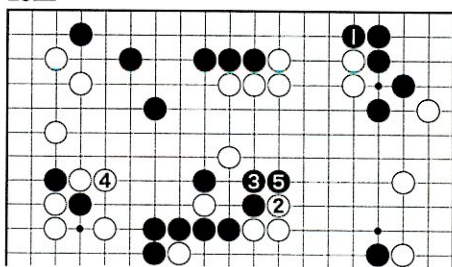
그랬으면 백은 2·4로 두는 정도인데 흑5가 상변을 위협하는 위력적인 수가 되었으리라는 것.

백16이 놓여서는 승패 불명이 되었다. 흑17로는 이제라도 26도의 흑1·3으로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실전 흑17·19로 눌렀기 때문에 백22 이하 28이라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제공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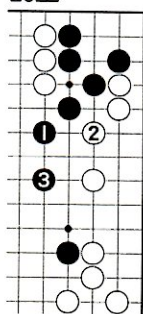
이제 흑도 중원의 백대마를 꼭 잡아야 하는 절박한 신세가 되었다. 도대체 이 백대마에 활로가 있을 것인지.

검토실의 서봉수 九단은 27도의 백1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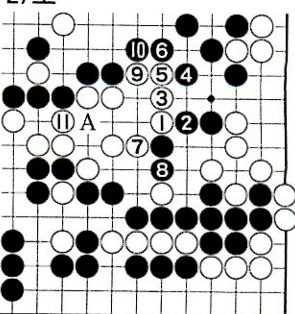
25도



26도



27도



하 11로 살아서 백승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九단은 고개를 흔들었다. 흑10으로 A에 먼저 찌히는 수가 있어 불확실하다는 것.

제6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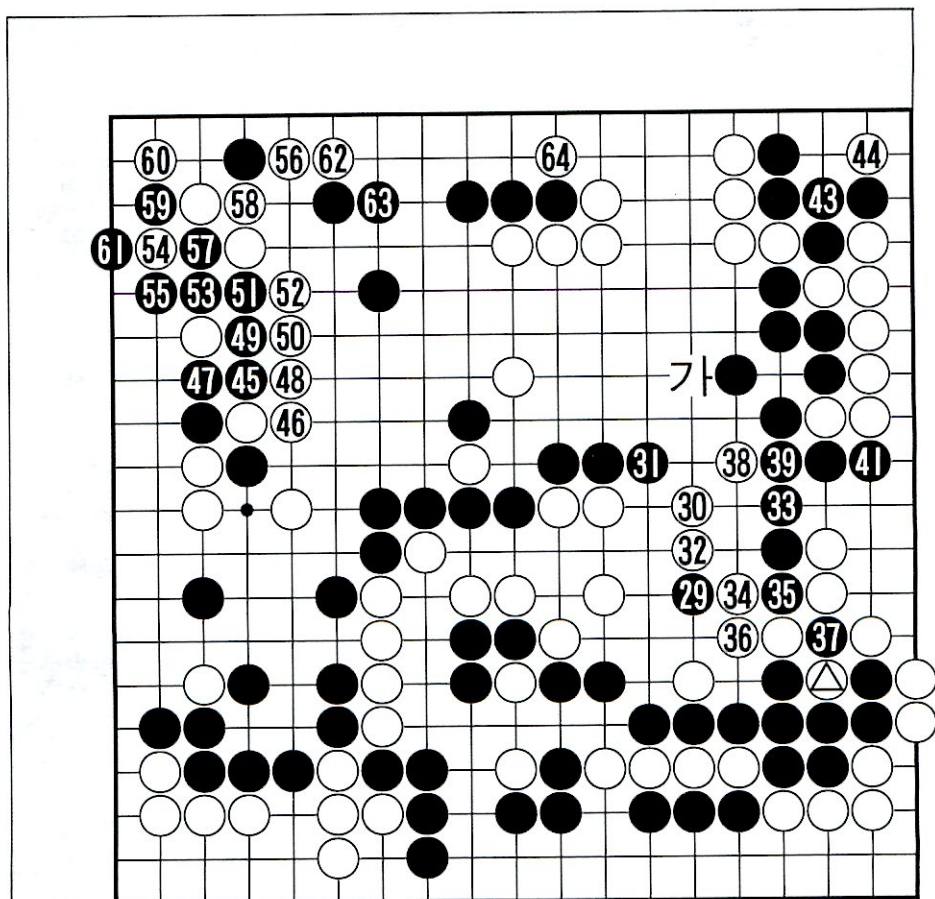
129~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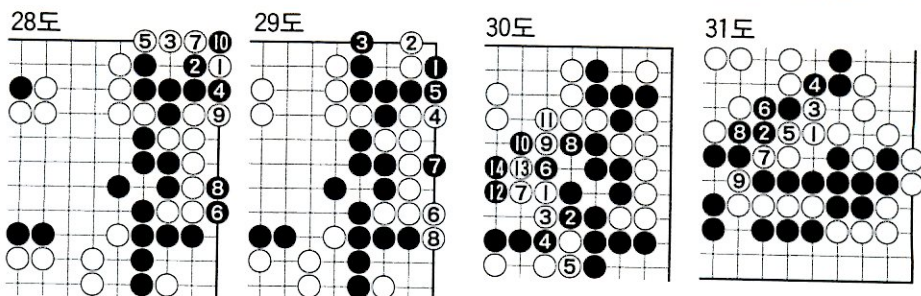
때는 이미
늦어 있다

④0...△ ④2...④7

실전은 대형 승부패가 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사토루가 헛패(흑41)를 쓰는 바람에 이 역사적인 대결장은 해프닝 극장으로 화하고 말았다.

사토루는 흑43이면 수가 난다고 본 것이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 28도가 사토루의 수읽기. 패가 나지만 흑이 먼저 때리는 패이므로 겁낼 것이 없다는 계산이었고 검토실에서도 모두들 그렇게만 읽고 있었





는데 조九단은 태연히 이 팻감을 불청하고 나서 44로 제격(노타임이었음) 붙여 버렸다.

그제서야 검토실에서는 29도의 흑1 이하 백8을 알아차리고 탄성을 발했다. 당사자인 사토루도 그것을 금세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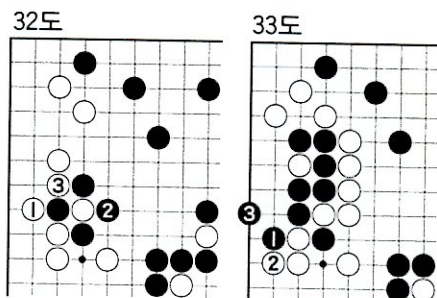
정상적으로 패싸움이 이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백이 어려웠겠지요.”(조훈현)

그러나 백도 아직 또 하나의 카드를 들고 있었으므로 승부는 오리무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 카드란 30도의 백1로 흑 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단. 흑14까지로 패가 난다.

백34 대신에 ‘쉽게 이기는 길’이 있었음을 서봉수 九단이 밝혀냈다. 31도의 백1이 얼른 발견되지 않는 묘착. 이것이면 백은 9로 보상을 찾아 미세하나마 확실히 이기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흑45 이하는 아쉬움 때문에 두어본 것. 백46으로는 32도의 백1·3으로 처리하는 것이 알기 쉬웠다. 흑55는 완착. 33도의 1·3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었으며 이 코스였으면 일단 미세한 계가 바둑이었다. 제7보의 백100으로는 129의 곳에 파호하면 흑 대마가 죽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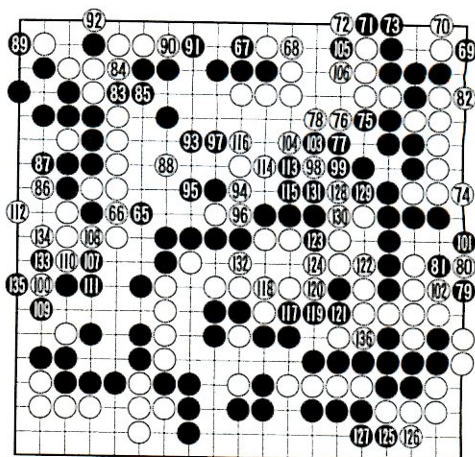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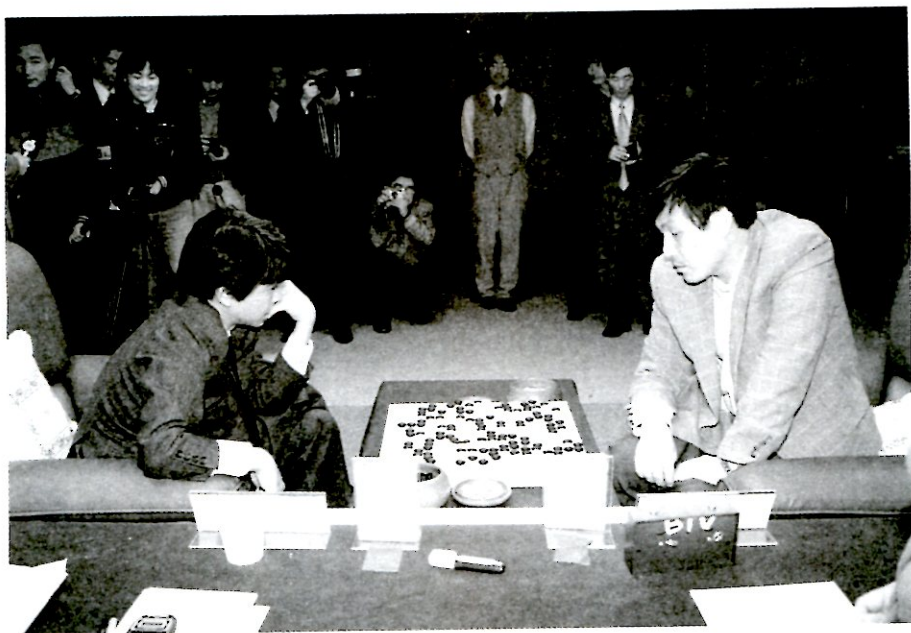
이미 승부는 떠나 있는 상태였다.

236수 끝, 백 불계승

제7보

165~236





조훈현 “동양증권배가 보인다”

고바야시 사토루에 2연속 역전승

조훈현 九단이 3년 만에 세계정상에 올라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첫 세계대회 우승 컵을 노리는 패기의 고바야시 사토루(小林覺) 九단이나, 세계정상 재등극을 바라보는 관록의 조훈현 九단이나? 한국, 일본 양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제8회 동양증권배 세계선수권대회 결승5번기 제1, 2국에서 조훈현 九단이 연거푸 대역전승을 거둬 패권을 눈앞에 두게 됐다.

조九단은 3월 31일 한국기원 1층 BTV스튜디오에서 열린 결승 제1국에서 일본의 자존심 고바야시 사토루 九단에게 중반 대역전승을 거둔데 이어 4월 2일 속개된 제2국에서도 중반 난전을 일으키며 역전에 성공, 고바야시 九단을 막판으로 몰았다. 조九단은 이번 연승으로 고바야시 九단과 역대전적 2승1패를 기록하며 앞서가게 됐다.

조훈현, 심장싸움에서 이겼다

이번 결승전은 승부감각과 심장싸움이 승부를 갈랐다. 처음으로 세계대회 결승에 오른 고바야시 九단은 초반 판은 잘 짜나갔지만 뒷심과 결정력 부족으로 자멸했다. 제1국은 유리한 바둑을 초읽기에 몰리면서 대착각을 범해 졌고, 제2국은 유리한 바둑을 후퇴를 거듭하다 졌다. 두 판 모두 고바야시 九단의 승리가 예상되는 막판에 대역전패를 당한 것이다. 이는 세계대회 3회 우승의 관록과 조 九단이 처음으로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고바야시 九단과의 심장싸움에서 앞섰다는 반증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세계정상급의 조 九단 실력상 우세하지만 체력상 하향세인 반면 '무관의 제왕' 고바야시 九단은 일본에서 조치훈 九단과 1인자다툼을 벌이며 정상언저리를 맴돌기는 하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 九단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두 판 모두 체력 열세가 예상되는 조 九단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함으로써 예상이 다소 빔나갔다.

이로써 조 九단은 준결승전에서 겁없는 셋별 김영환 四단의 돌풍을 잠재운데 이어 세계최강 이창호 九단을 꺾은 고바야시 九단마저 연파해 지난 94년 제7회 후지쓰(富士通)배 우승 이후 3년 만에 세계대회 패권을 바라보게 됐다. 조 九단은 제5회 동양증권배, 제1회 응씨(應氏)배 등에서 우승,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의 위업까지 세운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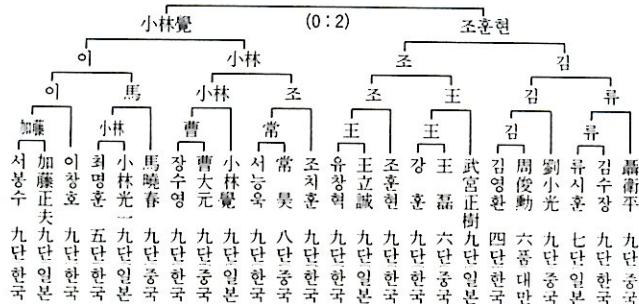
"바둑은 졌으니 탁구나 치러가자"

3월 31일 재개된 결승전 제1국. 공동주최사 BTV의 요청으로 이번 결승전 다섯 판 모두를 한국기원 1층 BTV스튜디오에서 두기로 결정.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일반 TV속기진이 아니므로 스튜디오에서 두기에는 대국자가 불편하다며 조훈현 九단이 대국장을 바꿔 달라고 요청. 하지만 이미 잡힌 일정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1, 2국은 예정대로 BTV스튜디오에서 대국.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유치한 BTV에서는 장수영 九단과 고평명 四단의 해설로 생중계.

이날 대국은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양

제8회 동양증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대진표

* 준결승전까지 대진추침





상국 七단의 해설로 무료공개해설을 해 100여명의 아마추어팬들이 운집. 해설장 옆 예선 대국실에는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임시 검토실을 마련. 검토실에는 일본측에서 일본기원 상임이사 오에다 유스케(大枝雄介) 九단, 이토 마고토(伊藤誠) 부장, 슈칸고(週刊碁) 아오키 마사루(青木勝) 기자, 데모토(根本昌治) 사진기자, 바둑전문필자 오시마 마사오(大島正雄) 씨, 일본대사관 야마자키(山崎穰一) 참사관 부부 등이 고바야시 사토루 九단을 열심히 응원하였고, 한국측에서는 김인·윤기현 九단을 비롯하여 입회인 강철민 七단 등 원로급 기사들이 검토하고 서봉수·백성호·서능욱·김수장 九단 등 중견기사들이 4층 기사실에서 BTV를 보며 응원. 오후에는 주최사 BTV 김현정 사장, 후원사 동양증권 안길룡 사장, 동

양그룹 김대인 전무이사가 검토실에 들어 모니터를 통해 대국진행을 관전하기도.

점심 이후 이상훈·윤현석·이성재 四단, 김영삼 二단, 권효진 初단 등 신예기사들은 검토에 열중했는데 이들은 중반 좌변에서 고바야시 九단이 치중수 한방으로 조九단의 대마를 몰사시키자 “바둑이 끝났다”며 모두 “탁구를 치러간다”며 자리를 떠 갑자기 2층 검토실이 썰렁해지기도.

오후 들어 4층 기사실A에는 중견기사들이 한둘씩 모이더니 이내 만원이 돼 검토에 열중했는데 역시 조九단이 99% 지는 것으로 낙착.

일본바둑경계론 대두

한편 전날 대구에서 열린 '97대구MBC배에서 지도다면기행사를 가진 유창혁 九단이

한국기원에 들러 기사실B에서 양재호 九단, 최규병 八단과 함께 BTV를 보며 검토하기도. 이때까지도 바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잠시 한담 나누던 중 최八단이 “일본바둑을 경계해야 돼. 일본의 젊은 기사들이 한국바둑을 집중 검토하는 것 같다”며 일본경계론을 펴기도. 이는 탁월한 포석감각을 자랑하는 조九단이 오히려 포석부터 밀리는 것은 일본기사들의 연구열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

한편 고바야시 九단은 조九단의 예봉을 피하며 승세를 굳히려는 듯 상변 대마 연결을 유보하고 좌하귀를 처리하자 유창혁 九단도 귀가를 서둘렀는데 이때 초읽기에 몰린 고바야시 九단이 손을 빼도 되는 좌하귀를 연결하는 대실착을 범하는 사이 조九단이 상변 백 대마를 끊어잡으며 반전.

이에 귀가하려던 유九단이 발길을 멈추고 한참 계가를 하더니 덤을 제하고도 몇 집은 남는 형세라고 전언. 이로써 조九단은 용궁에서 탈출하며 대역전승.

공개해설이 끝나고 돌아가는 한 아마추어는 고바야시 九단의 실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니, 프로도 저런 실수를 하는가?”라며 고개를 갸우뚱.

국가대표 홍종현 八단 입회 이채

4월 2일 속개된 결승 2국. 이날 대국은 공교롭게도 전날 롯데배 한·중 바둑대항전 국내선발전에서 이번 대회 4강까지 오른 젊은 호랑이 김영환 四단을 꺾고 국가대표로 발탁된 중견기사 홍종현 八단이 입회하여 이채.

이날은 덤이 6집반으로 바뀐 제6기 SBS배 연승바둑최강전 1차예선전이 열려 기사들이 많이 나온 데다 공개해설이 없어 일반 아마추어팬들이 검토실로 몰려 검토실은 입

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

오후에는 BTV 김현정 사장과 동양증권 안길룡 사장도 찾아와 검토기사들을 격려했으며 남양주시 송촌리 소재 수종사의 정동산 스님도 찾아와 검토 겸 응원하여 눈길.

이날 대국 역시 초반은 조九단이 속기로 일관. 흑 실리, 백 세력의 구도가 펼쳐졌는데 실리가 부족한 조九단이 다소 불리한 것으로 평가. 중반 들어 난해한 공중전 양상이 되자 서로 장고에 장고를 거듭.

“천하의 싸움꾼 앞에서는 출다”

중반 고바야시 사토루 九단이 조九단의 대모양으로 뛰어들지 않고 뒤로 후퇴하자, 차민수 四단, “이런 모양에서는 당연히 중앙으로 나가야지.”

한상열 四단, “조국수가 누구야. 천하의 싸움꾼 아냐. 그러니 추웠겠지.”

차민수 四단, “그래도 그렇지. 이건 기세 부족이야. 내 문하생이 이런 식으로 두면 당장 파문이야.”(실제 차四단은 문하생이 없다)

1국 때처럼 초반은 고바야시 九단이 앞서가는 국면이었으나 1국의 역전패가 마음에 걸렸는지 점심식사 이후 후퇴에 후퇴를 거듭. 결국 형세가 만만치 않다고 본 고바야시 九단이 우상귀 접전에서 귀를 포기하고 중앙 백을 잡으려가 대패가 발생했으나 헛배를 쓰는 바람에 또다시 조九단의 역전승으로 귀착.

“강자한테는 운도 따르는군.”

계가 끝나고 조九단은 고바야시 九단과 약 30분간 일본말로 복기검토를 하더니 BTV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총총히 스튜디오를 빠져나가 결승 제1, 2국이 종결.

(취재/이성구 기자)

제 1 보 1~100

백 九단 고바야시 사토루
(小林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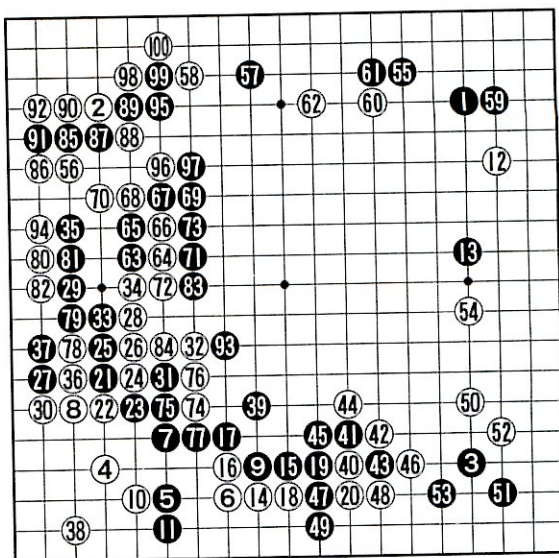
흑 九단 조 훈 현

〈제한시간 각3시간, 덤5집반,
'97. 3. 31, 한국기원 BTV
스튜디오〉

〈제1보〉

흑21의 씹음에 백22·24는 기세의 반발. 흑39까지 일단락되어 피차 둘 만하다. 흑45는 그냥 47로 두고 싶다.

흑77이 졌다면 패착. 참고도 흑1로 살고 백2로 뛰어 나갈 때 흑3으로 지켰으면 피차 어려운 바둑이었다. 백80으로 잡혀서는 백 필승 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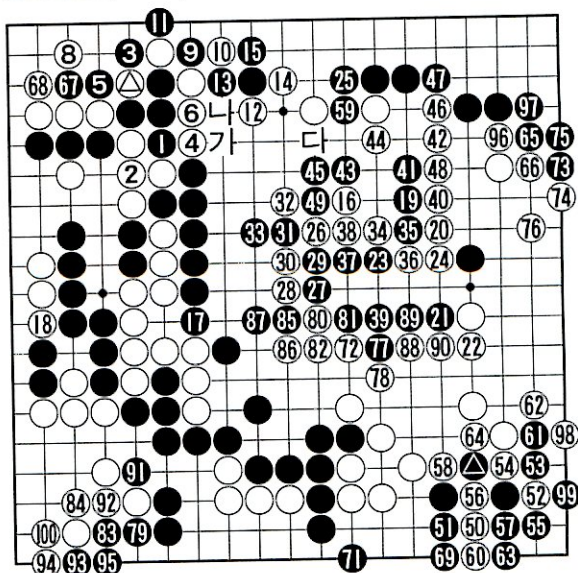
제 2 보 101~200

〈제2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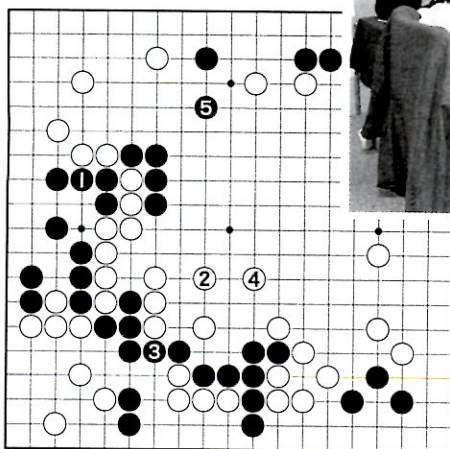
백12는 완착으로 백13, 흑가, 백12, 흑나 때 백24로 죽머리를 두었으면 확실했다.

백58이 패착. 다에 두어 백을 살렸으면 백의 승리였다. 흑59로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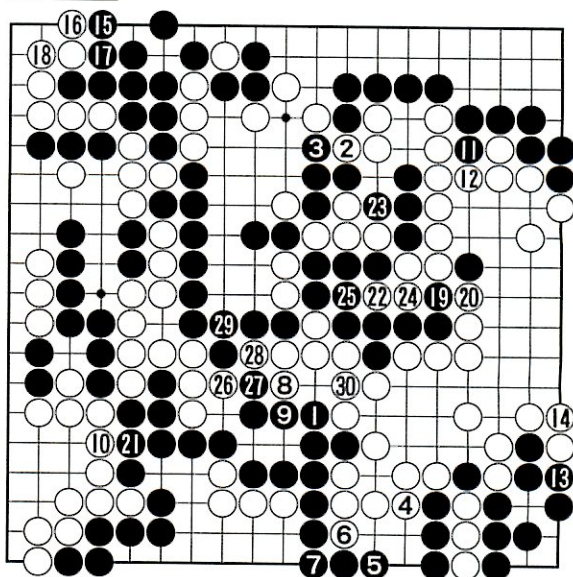
7...△ 10...△



참고도



제3보 20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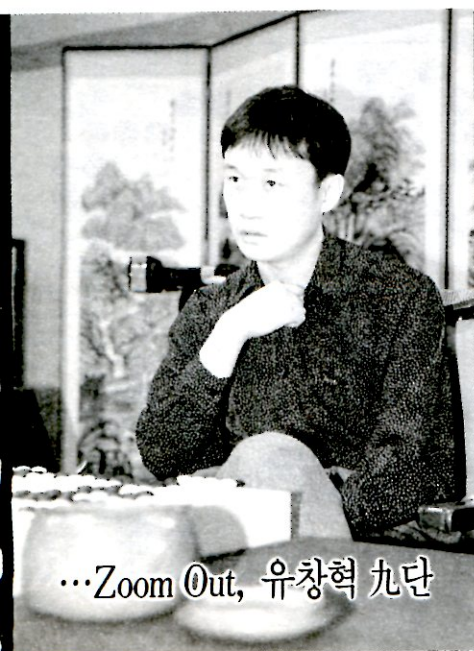


230수 끝, 흑 6집반승



...Zoom In, 이창호 九단

LG배 미니시리즈 - 주연은 누구일까?



...Zoom Out, 유창혁 九단



조명 1

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2국

백 九단 이 창 호(1승)

흑 九단 유 창 혁(1패)

〈제한시간 각 3시간, 덩 5집반, '97. 3. 19, 서울 롯데호텔〉

☐ 관전기/이흥렬 (LG배 관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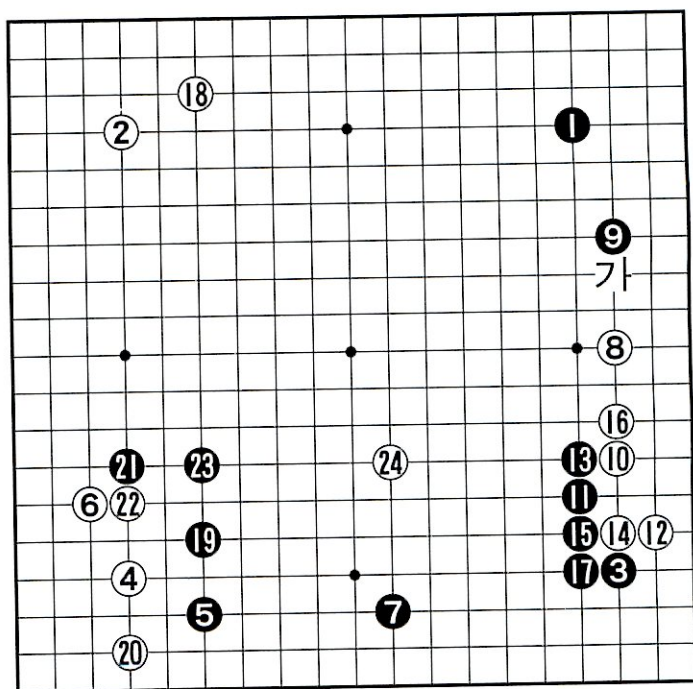
☐ 자전해설/이창호 九단





1~24

두사람



‘양창(兩昌)시대’. 조훈현 九단 이후 세대의 주역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양웅이 이제는 국내도 좁다는듯 세계대회 결승에서 맛따뜨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5번기. 우승자는 2억원의 상금과 세계 1인자의 영광을 한손에 거머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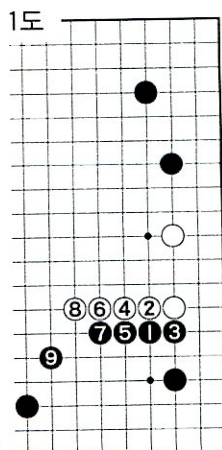
3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서 두 사람이 다시 대좌했다. 이틀전 첫판서는 흑을 켜 이창호 九단이 낙승. 유창혁 九단으로선 막판이나, 원점 회귀냐의 기로다. 그렇게 보아서인지 첫판 때보다 대국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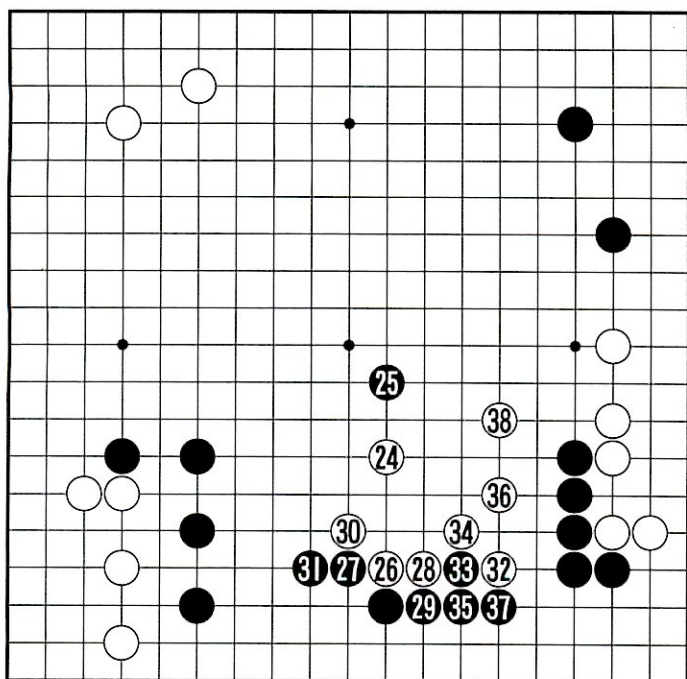
흑은 3·5·7의 미니 중국식 포진. 이

세제실(以勢制實)의 의지가 느껴진다.

흑9는 한발 아래 가 자리도 있으나 급전을 피했다. 흑 11 날일자 씌움엔 12가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응수.

백이 13자리로 밀어올릴 경우 1도의 진행이 되는데 우하귀 흑의 실리가 너무 견고하다. 백14와 흑15를 생략하면 흑에게 14자리를 빼앗기니 이것은 안될말.





2보

24~38

힘겨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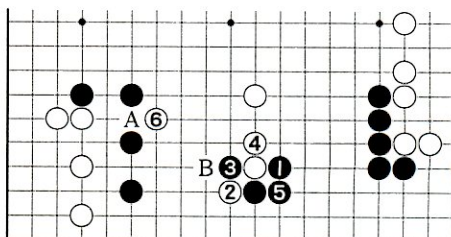
하변 흑진에의 침투점은 어디쯤이 알맞을까. 백24를 택한 이九단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창호도 모른다면 이런 곳에 대한 정답은 신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흑25 역시 기세. 하변을 지키고 있을 순 없다.

백26은 최초의 장고. 이九단은 타개를 위한 이 붙임수에 13분을 투입했다. 흑27이 놓이기까지 걸린 시간은 7분여. 이후 33끼움에만 멈췄했을 뿐 37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백38로 중앙을 향해 한칸뛰어 일단락. 흑은 어음격이던 하변 세력을 현금(실리)으로 바꿔 허리춤에 찰고, 백은 흑진을 찍어누르며 중앙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그렇다면 흑에게 27 말고 다른 응징책은 없을까. 반대쪽인 28자리로 찰힐 경우 2도가 예상되는데, 6으로 들여다본 후 A와 B를 맞보아 흑이 택할 수 없는 변화. 아직까지는 피차 의문점이 등장하지 않은 채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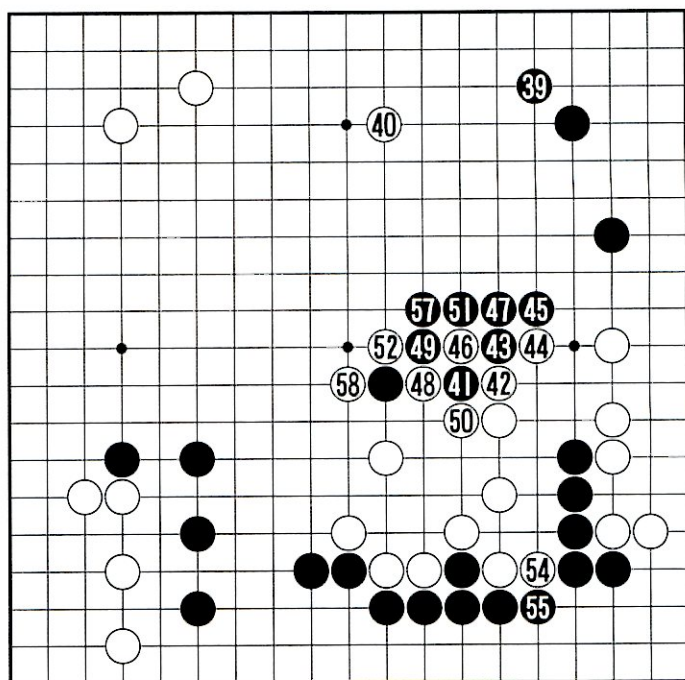


3보

39~58

53...41 56...46

감탄사



이 대회 협찬사인 LG그룹은 결승1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승자 알아맞추기’ 현상퀴즈를 했는데, 이창호와 유창혁의 우승을 내다본 응모자가 72 : 28의 비율로 나타났다. 결과가 3 : 0으로 나타난다고 본 응모자중 이九단 우세는 246명, 유九단 우세는 30명. 또 3 : 1의 경우는 1,125명과 250명, 3 : 2는 626명과 505명으로 이九단이 크게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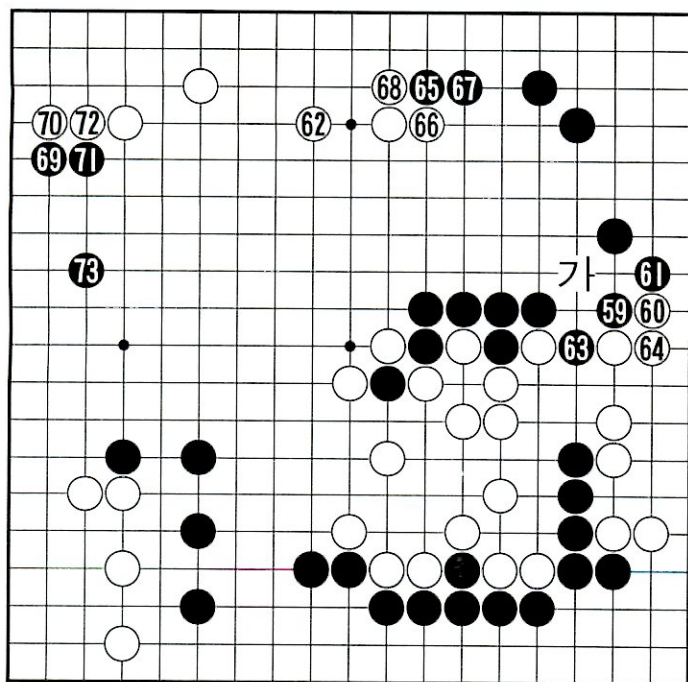
이같은 예상은 두 기사의 가장 최근 국제대회 대결인 지난해 응씨배 및 삼성화재배서 유九단이 연승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 게 사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이九단이 2승을 선집하자 팬들의

‘높은 안목’이 화제가 됐다.

유九단이 역전우승할 가능성도 물론 엄존하지만, 2연패 후의 3연승은 확률적으로 8분의 1에 불과하다. 3국 이후의 진행이 크게 주목된다.

흑39와 40은 각각 큰 곳으로 맞보기. 이로써 판의 골격이 거의 완성됐다. 흑41은 이九단이 감탄한 호수. 이후 강력한 3단 짓힘으로 중앙 흑의 등이 두터워져서는 “선착의 효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46자리에 단수치지 않고 우변으로 연결해 두는 것은 패기부족이자 중복이다. 중앙 흑세로 상변 백진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



59~73

의문수

59를 생략하면 백가로 찢고나와 모처럼 구축된 우상귀 흑진이 엉망이 된다. 백62 지킴은 시급한 곳. 백64까지 일단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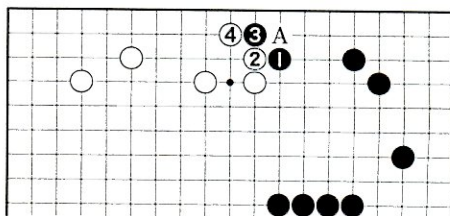
자, 흑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 유9단은 갈림길을 맞아 한없는 장고에 빠져들어 갔다. 40분이 넘어도 착수를 얹아 여기서 봉수. 점심시간에 이어 오후 대국에 들어가서도 1분여를 뚝을 들인 뒤 마침내 65의 곳에 돌이 놓였다. 소요시간 41분 18초. 점심 휴식시간에도 검토를 계속했다고 본다면 무려 1시간 41분짜리 착점이다.

이 수의 뜻은 그냥 백에게 67자리를 빼앗긴다면 집에서 뒤지므로 이를 선수로 대충 예방하자는 것. 이에 대한 66은 백에게서 나온 최초의 의문수였다. 이9단은 국

후검토 때 3도처럼 처리한 뒤 차후 백A로 끊어먹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고 지적했다.

실전은 65에 68로 막고 흑67에 66을 둔 꼴이니 손해가 명백하다. 흑이 우상귀를 선수로 처리한 뒤 69로 저공비행, 73까지 터를 잡으니 갑자기 좌변이 흰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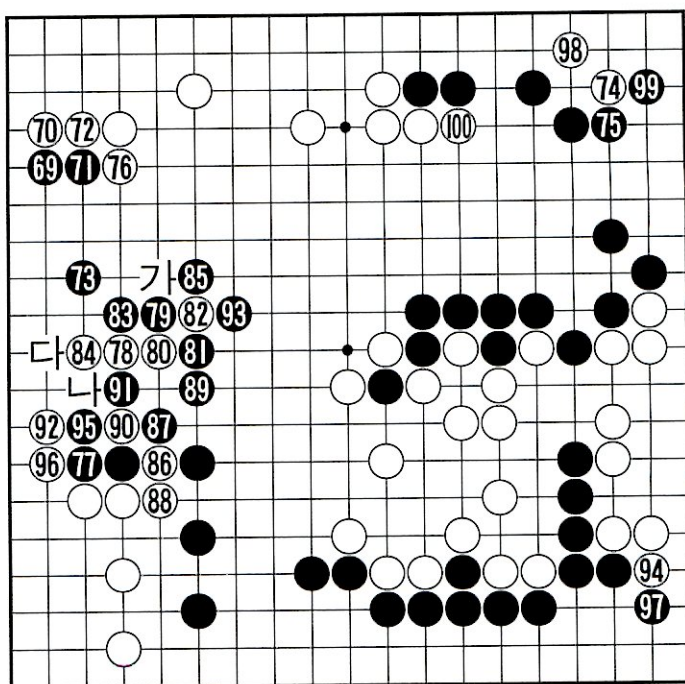
3도





70~100

부
스
러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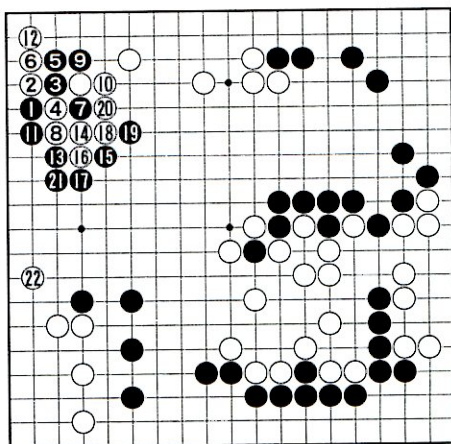


흑69부터 다시 본다. 흑71을 72에 둘 수는 없을까. 4도를 보자. 흑3으로 끼우는 정석도 있지만 이 경우 백은 5로 받지 않고 4로 바깥쪽에서 단수친다. 이후 필연의 과정을 거쳐 21까지 된 뒤 22로 미끄러지면 좌상귀 백은 위 아래로 실전보다 훨씬 알찬 반면 좌변 흑은 별 게 없다. 흑이 크게 밀지는 장사인 것이다.

백76은 완착이었다. 무조건 92의 자리에 달렸어야 했다는 것. 77이 오자 좌변 모양이 그럴듯해져 이를 방치해서는 백이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백78의 단기돌입이 급해진 백의 처지를 말해준다. 거의 눈목자 모자쇠움 정도가 정착이었다는 게 이창호 九단 스스로의 진단이다.

여기서부터가 이 바둑의 하일라이트.

4도



79와 81의 연속 강타에 백은 일단 82로 끊는 한수 뿐. 82로 5도로 쪼히고 5로 달아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백3, 흑4의 교환이 너무 속수인데다 상하 흑에 약점이 없어지고 백은 아직도 중앙과의 연결을 걱정해야할 처지여서 채택할 수 없는 그림이다.

흑85가 절대선수라고 속단한 대경술. 무조건 89의 곳으로 늘어야 했다. 6도 백2로 붙이면 살기는 한다(4 다음 5를 생략하면 A로 넘는 수가 있다). 8까지 진행된 뒤 B와 C가 맞보기. 하지만 이 결과는 중앙 흑이 견고해졌고 좌하귀 백이 다쳐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백은 7도 2로 뺄어야 하는데 흑도 3으로 내려빠져 백 석점이 살아갈 길이 없다. 4•6의 선수끝내기 정도로는 반면 10여집 차이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백86이 당연하면서도 시기적절한 끼움. 88 다음 93으로 때려내지 않고 89로 뒤늦게 뺀은 점이 패착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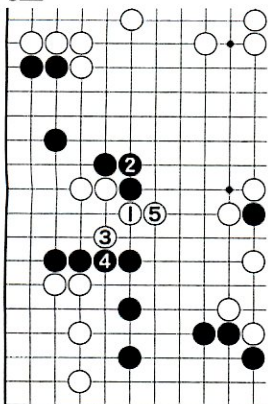
89는 92의 응수를 깜빡했기 때문. 흑91 다음 백95, 흑나, 백96에 이어 흑다로 석점

을 잡게 되면 82 한점을 때리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백92로 사뿐히 넘어가니 93으로 때리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여기서 한수 차이가 나버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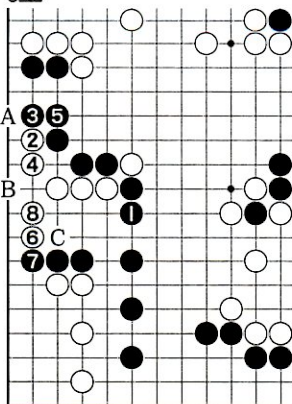
승부를 가른 좌변 싸움을 결산해보자. 5보에 돌입한 시점에서 흑은 77로 막아 좌변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가 됐다. 하지만 백100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흑이 얻은 것은 93의 빵때림에 의한 중앙의 두터움 정도. 반면 백은 76의 꼬부럼이 빛을 얻고 있고, 좌변 92•96을 둔데다 94의 큰 곳까지 선착했다. 94는 역끝내기 10집으로 20집의 가치가 있는 자리. 이래서는 백이 확실히 앞서게 됐다는 중론이다.

좌변서 78의 무모한 침입을 79로 씹워갔을 때만해도 유창혁의 본령인 ‘공격바둑’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백이 교묘하게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판세는 이창호의 본령인 ‘계산바둑’으로 넘어갈 차례인가. 우상귀 98도 이창호 일류의 끝내기 수법. 99는 옳은 응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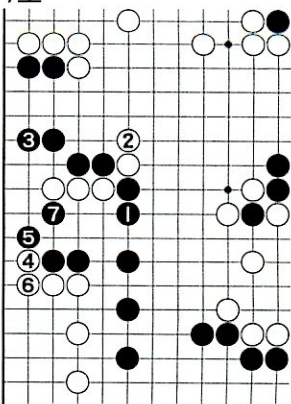
5도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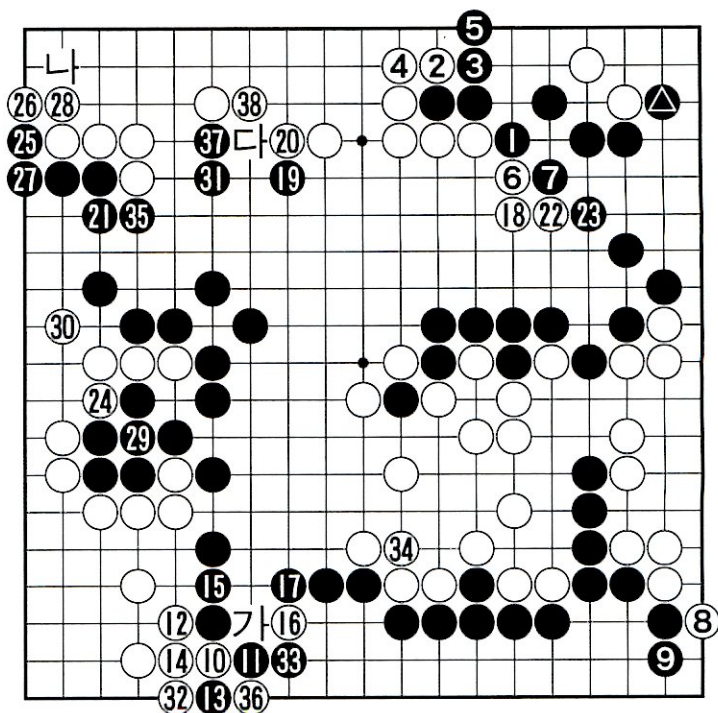
7도





101~138

자책감



LG배는 우승 상금만 2억원에 달하는 매머드 기전. 지난해까지 기왕전을 주최했던 조선일보사가 20기를 마지막으로 발전적인 해체와 함께 LG그룹의 협찬을 받아 만든 세계 기전이다. 상금 규모도 규모지만 원년 챔피언에 오른다는 영광 때문에 31명의 각국대표가 필승의 각오로 이 대회에 임했다.

결승에 오르기까지 이九단은 대만의 저우 쥔신(周俊勳) 六품, 중국의 네 웨이핑(聶衛平) 九단, 일본의 고바야시 사토루(小林覺) 九단을 누르고 준결승서 중국 1인자 마 샤오춘(馬曉春) 九단마저 일축, 결승에 도약했다. 반면 유九단은 중국 류 샤오광(劉小光) 九단, 한국기사 킬러로

불리던 일본의 요다(依田紀基) 九단, 미국 선수로 출전한 중국출신 장 주주(江鑄久) 九단에 이어 이번대회 돌풍의 주역이었던 최명훈을 눌러 결승고지를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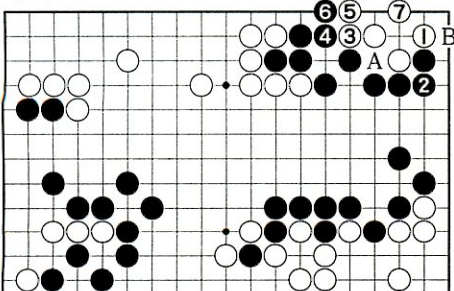
결승5번기에 들어가기 전 두 사람간의 통산전적은 55승 26패로 이창호 九단쪽이 우세. 두 사람은 국내 기전서는 결승서 수없이 만나 자웅을 겨루었으나 세계대회 패권다툼은 미니기전인 지난해 TV아시아 선수권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상귀 3·3에 자리한 백 한점은 자책로는 살 수 없다. 이 한점을 이용한 백의 교묘한 끝내기를 감상해 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전보 흑▲는 잘못된 응수였다. 흑1로 막아 백2로 찢혀 4까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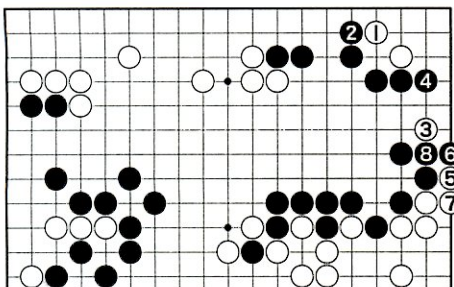
4집내기를 했다. 2·4가 왜 선수인가. 그 해답이 8도이다. 백7까지의 필연적 수순을 거쳐 A와 B를 맞보는 패. 8도에서 백1에 흑A로 선수활용을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는 어디에 두었어야 했을까. 9도 흑2가 정답이다. 이 경우 백이 준비한 수는 3의 치중. 4로 막기를 기다려 5·7의 선수끝내기를 한다. 이 크기는 두집으로, 실전보 2·4를 선수당한 것보다 흑의 입장에서 두집 이득. 이 두집은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9도에서 2집마저도 손해보지 않을 수는 없을까 연구한 것이 10도다. 백4로 내려빠지면 백5의 찢힘과 흑6의 치중을 거쳐 백13으로 끊는 수순이 돌아온다. 흑은 A로 8도



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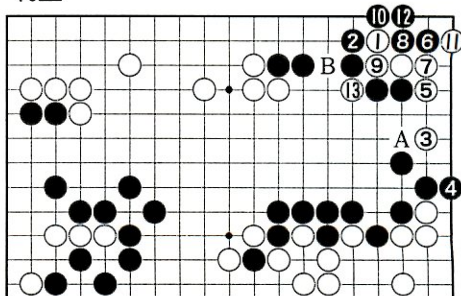


연결하는 정도인데, 백B로 밀고 들어가면 흑도 완생이 아니다. 수상전이야 물론 흑이 빠르지만 모두 놓고 가야하는 만큼 2집은 커녕 손실이 훨씬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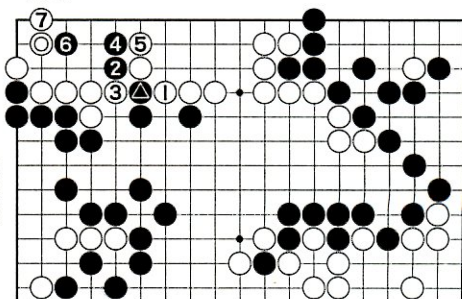
6과 8을 거쳐 백10으로 붙여 끈 끝내기가 컸다. 흑15는 16의 치중이 아프므로 가로 잇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중앙쪽으로 바서는 15가 힘을 발휘하므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결론.

백28이 이九단이 자책한 수. 한칸 위 나 곳에 호구처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흑37로 부딪쳐 왔을 때 다로 받지 못하고 38로 물러서야 했기 때문. 11도를 보자. 백㉔에 와있으면 흑▲에 1로 받아도 귀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 그레봐야 1집남짓 손해. 하지만 신산(神算)에게는 꽤 억울했던(?) 모양이다.

1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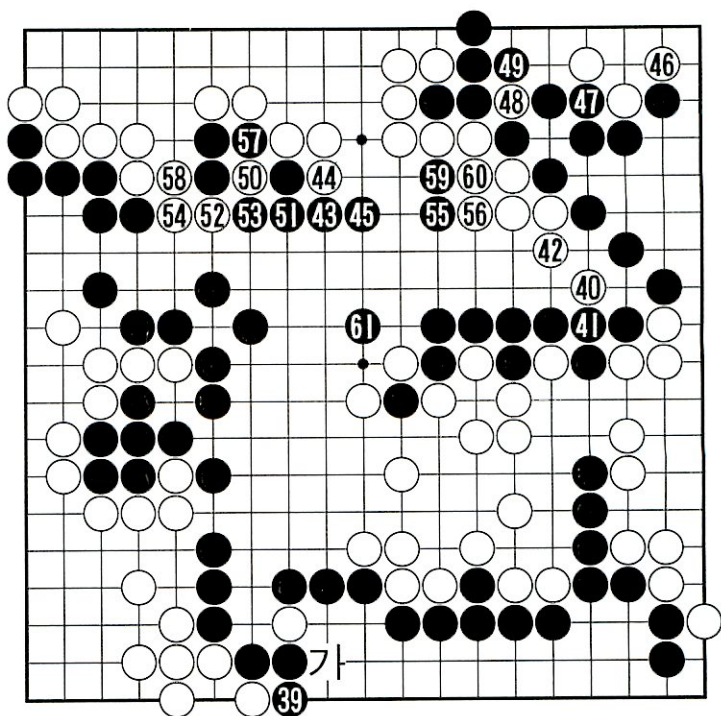
11도



7 보

139~161

피날레



유九단과 이九단은 아홉 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라이벌이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데다 팬들이 모두 둘 사이를 필생의 맞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이 대회 준결승에 임하던 무렵 이창호는 아버지 이재룡 씨에게 “결승서 창혁이 형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응씨배와 삼성 화재배서 연거푸 당한 패배를 국제대회서 되갚아주고 싶었으리라.

유창혁은 유창혁대로 이창호에게 진 빛이 많다. 5연패를 노리던 자신의 텃밭 왕위를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중요한 고비서 술하게 당했다. LG배서 멋진 승리를 노렸으나 벌써 대세가 기울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승2국 직후 벌어진 SBS 연승전 결승 최종3국서는 유九단이 통쾌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2년연속 우승을 장식했다. 비록 속기전이지만 이 대회의 승리는 분위기가 반전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5월 19일부터 속개되는 결승3국 이후의 승부는 아직도 알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흑39는 생략할 수 없는 자리. 백가에 놓아 넘어가는 수가 크기 때문이다. 흑은 대세를 뒤집기 위해 뒤늦게 중앙에서 분전하고 있지만 이九단의 정교한 마무리로 이미 역전은 없어 보인다.

8보 중앙 처리에서 흑이 1, 2집 손해를 보아 차이가 약간 더 벌어졌다. 78로 한칸 뛰었을 때 흑79가 손해수. 12도 흑1을 선

수하고 3으로 정비해 중앙쪽을 키우는 것이 약간 더 득이었다. 6보 하면 끝내기에서 흑15로 지켜 여러 집을 침식당한 보람이 없어져 버린 것. 결과론이지만 8보처럼 처리될 양이면 6보 15 대신 흑가로 받는 것이 득이었을 것이다.

이 바둑은 중반까지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으며 5보 백76의 완착으로 흑77로 막아서는 흑에게 찬스가 많았다. 특히 78의 단기돌입이 무모해 79로 씌워서는 백이 타개하기 힘든 국세였다는 게 검토실의 중론. 하지만 여기서 유9단은 갑자기 패신에 흘린듯 완착과 패착을 거꾸 두었으며 여기서 대세가 판가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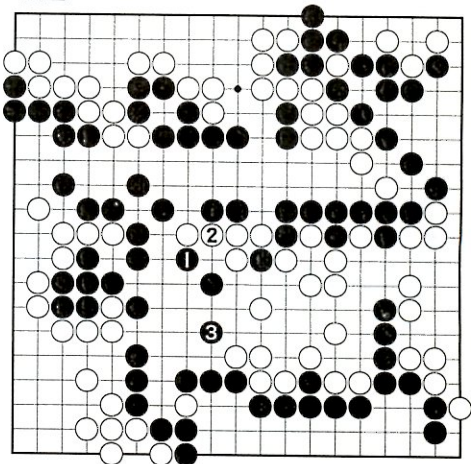
유9단의 좌변 처리는 일종의 미스터리에 속한다. 그 장면에서 85 단수 대신 89의 뺄음, 89 아닌 93 때림 등은 웬만한 아마 고수들이면 놓치지 않을 '이지 숲'이었지만 그는 링을 맞춘 채 리바운드까지 빼앗겼다. 이것은 상대가 이창호라는데서

오는 일종의 최면이 아니었을까.

국후 검토실에서 만난 두 사람이 최명훈, 이성재들과 어울려 약간은 서먹한 상태에서, 말로 복기를 나누는 장면은 승부의 비장함과 두 사람의 우의가 복합된 묘한 감동의 피날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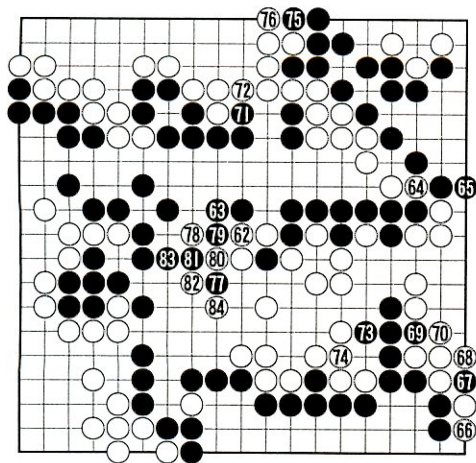
234수 끝, 백 3집반승

12도



8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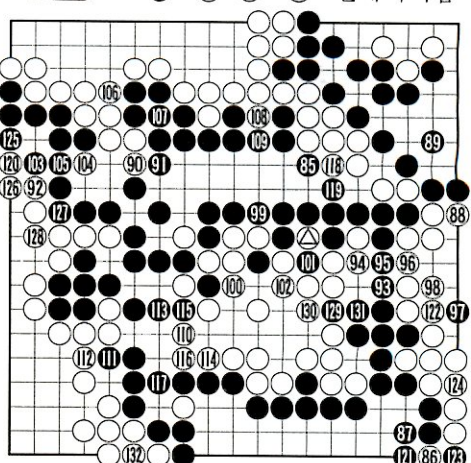
162~184



9보

185~234

183...△ 184...△ 반패 백이음





세마리 토끼 쫓는 이창호

3월 17, 19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벌어진 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5변기 제1, 2국에서 이창호 九단이 유창혁 九단에게 내리 이겨 우승을 향해 D-1을 기록하게 됐다.

이 九단은 제1국에서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쳐 일찌감치 승세를 굳히며 154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둔 후 이틀 뒤 속개된 제2국에서는 자신의 능기인 실리 전법으로 전환, 두 대국자 모두 초읽기에 몰리는 치열한 접전 끝에 역시 234수 만에 백 3집반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해 제3회 응씨(應氏)배와 제1회 삼성화재배에서 모두 유창혁 九단과의 조우에서 실패, 국제대회 전관왕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창호 九단은 대회 첫 우승과 세계 최강의 명예 회복, 그리고 '단판 승부가 아닌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이창호가 세계 제일'이라는 바둑계의 정설에 무게를 더한다는 세 마리 토끼를 쫓게 됐다.

이창호 우세설 72%

●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LG그룹이 협찬한 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전이 벌어진 소공동 롯데호텔은 TV 및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SBS방송 스태프들과 LG그룹 관계자들로 오전 일찍부터 부산한 모습. SBS는 평소보다 많은 30여 명의 스태프와 장비를 동원하는 등 이날 생중계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

작년 10월 미국 뉴욕 시에서 벌어진 8강전에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 생중계를 시도한 LG측은 그룹 홈페이지(<http://www.lg.co.kr>)와 IGS(Internet Go Service)를 통해 전 세계로 결승전 대국 상황을 생중계. 이날 대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팬들까지 포함 무려 6,000여 명이 접속해 결승전을 관람했다는 후문. 인터넷 생중계 해설은 중견기사 나종훈 四단이 맡아 평소 BTV를 통해 보여 준 매끈한 해설 솜씨를 자랑하기도.

● 방송 시간 관계상 SBS 측의 요구로 대국은 30분이 앞당겨진 9시 30분에 시작.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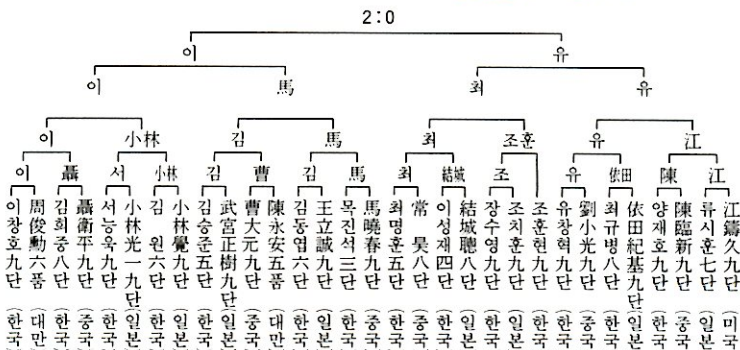
회인으로 참석한 김재구 八단의 대국 개시 선언과 함께 2억원의 우승상금과 최고의 명예를 향한 5번 레이스가 스타트.

검토실에는 오전부터 공개해설을 맡은 백성호 九단과 차수권 四단 등이 자리해 검토에 열중. 이어 최규병 八단, 김승준·최명훈 五단, 김영삼 三단 등이 속속 검토실에 등장.

● 2월 1일부터 LG그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승전 스코어 알아 맞추기 응모를 받은 결과 총 2,782명이 응모한 것으로 집계돼. 이 중 1,997명이 이창호 九단의 승리를 예측, 무려 전체의 72%를 집한 반면 유창혁 九단이 이길 것으로 내다 본 응모자는 785명, 28%에 그쳐. 이 九단 우세설을 지지한 응모자 중 1,125명이 이창호 九단이 3승 1패로 이길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결승전 스코어 맞추기 행사에는 여성 응모자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한편 연령별로는 인터넷 이용률이 많은 20대가 5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33%), 10대(7%), 40대(4%),

제1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대진표

* 준결승전까지 대진 추첨





50대(2%)의 순으로 드러나.

● 오후 2시부터 일반 바둑팬들을 위해 사파이어룸에 마련된 공개해설장에는 200여 명의 팬들이 해설자와 바둑판이 잘 보이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입장해 자리를 잡는 모습. 특히 주최측은 이창호·유창혁 九단의 대국집 각 100권씩을 기념품으로 마련,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해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기도.

거꾸로 가는 이창호?

● 제2국이 벌어진 19일. 제1국에서의 완패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떨쳐지지 않은 듯 유창혁 九단이 다소 굳은 표정으로 대국실에 등장. 이창호 九단은 평소 잘 입고 다니는 청색 재킷, 유창혁 九단은 봄을 느끼게 하는 옅은 회색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착석.

대국 진행을 지켜 보던 검토실에서는 이번 결승전을 통해 드러난 두 대국자의 기풍 변화에 대해 의아해 하는 모습. 검토에 열중이던 한 중견 기사는 “이창호는 바둑이 사나워졌고 유창혁은 부드러워졌어. 아무래도 서로 자주 싸우다 보니 장단점을 배우게 된 것

같다”면서 “보통은 젊었을 때 과격한 바둑을 두다가 나이가 들면서 온건해 지는 법인데 이창호의 경우에는 거꾸로인 것 같다”고 한 마디.

● 검토실에는 사업 관계 차 중국에 갔다가 며칠 전 귀국한 차민수 四단이 결승전을 보기 위해 들러. 차四단은 4월 10일 미국 프로바둑협회(A. P. G. A) 대표로 후지쓰배 참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벌어진 선발전에서 마이클 레드먼드 八단을 꺾고 출전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A. P. G. A 회장직을 맡고 있는 차四단은 협회일이 바빠 가급적 국제대회 참가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후지쓰배는 추천제인 다른 대회와는 달리 선발전을 치르는 까닭에 본의 아니게(?) 출전하게 됐다는 설명.

서봉수 九단에게도 훈장을

● 제2국 공개해설을 맡은 김수영 七단은 워낙 재담가에다 명 해설로 잘 알려진 기사. 보조 해설자도 없이 강단에 오른 김七단은 특유의 체치있는 입담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해설을 진행. 김七단은 해설 중 설

치된 대형 바둑판의 위치가 낮아 뒤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자 즉각 관계자를 불러 위치를 수정한 뒤 해설을 속삭이는 등 팬들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모습.

특히 김치단은 팬들을 향해 “조남철 선생님과 조훈현·이창호 九단도 모두 훈장을 받았는데 서봉수 九단은 받지 못했다. 진로배 9연승이라는 장거를 이룬 서九에게도 마땅히 훈장이 수여되어야 한다”고 주장, 박수를 받기도. 주최측은 제1국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창호 九단의 회고가 적힌 부채를 기념품으로 마련.

● 1국 때와는 달리 2국에서는 두 대국자 모두 시간을 소비해 가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 특히 유창혁 九단은 65수에 이르러 3시간의 제한 시간 중 무려 41분 18초를 장고하는 등 총력전으로 시종. 이 수가 결국 점심시간 봉수점이 됐음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시간 41분여를 장고한 셈.

대국장의 분위기는 1국 때에 비해 훨씬 냉랭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 무거운 분위기는 점심시간에도 이어져 가벼운 환담을 나누며 친근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던 1국과는 달리 서로 한 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피차 눈길조차 피하는 모습이 역력. 특히 유九단은 점심식사를 일찌감치 마치고 혼자 조명이 꺼진 어두컴컴한 대국실에 올라와 심각한 표정으로 바둑판을 바라 보며 다음 수(65수)를 연구하는 모습.

“얼굴을 봐야 유불리를 알지”

● 국제대회가 있을 때면 자주 검토실에 들르는 정대상 七단이 등장하자 이날따라 동료 기사들이 반색. 이유인즉, 정九단이 최근 왕위전을 비롯해 유창혁 九단에게 2연승을 거둔 주인공이기 때문.

동료 기사들이 “정 고수 오셨다”면서 “유창혁 보다 센 사람이 결승에 올라가야지 여기는 왜 왔느냐?”고 농담을 하자 곁에 있던 김수영 七단은 한술 더 떠 “오전에 유창혁 九단이 봉수한 것도 다 점심식사를 하며 정대상 七단에게 훈수를 받으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해 좌중이 한바탕 웃기도.

● 검토실에는 김인 九단, 정동식 五단 등 중견 기사들과 최명훈 五단, 이성재 四단 등의 젊은 기사들이 자연스럽게 연령별로 나누어 검토를 하는 모습. 종반에 이르러 유창혁 九단이 패착에 가까운 수를 두자 모두 유九단의 착각으로 단언. 이 때 최규병 八단이 한마디. “이럴 때 TV에 얼굴이 나오면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창호하고 달라서 유 사범은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 형세 판단을 위해 서라도 대국 중에 얼굴을 자주 보여 줘야 한다니까.”

● 검토실에는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에 바둑 유학을 와 마스크에 알려진 알렉산드르 디네스타인(17) 군과 스페틀라나 쇠쉬나(17) 양이 지도 사범인 천봉조 七단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 눈길. 두 젊은이는 검토실에 모인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검토에 열중하다 “한국 바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다”며 놀라는 모습. 현재 천七단 밑에서 바둑 수업 중인 두 사람은 당분간 한국어 등을 배우며 적응 훈련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입단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 국후 검토실에 나타난 두 대국자는 한동안 어색한 분위기. 그러나 최명훈 五단 등 동료 후배 기사들이 궁금한 점을 지적하며 복기를 청하자 비로소 평정심을 되찾고 기보를 보며 30여분간 손과 말로 복기를 주고 받는 모습.

(양형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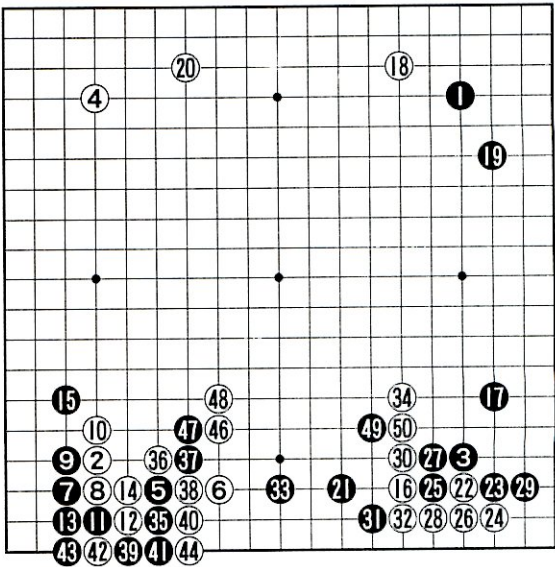
제1보 1~50

백 九단 유 창 혁
흑 九단 이 창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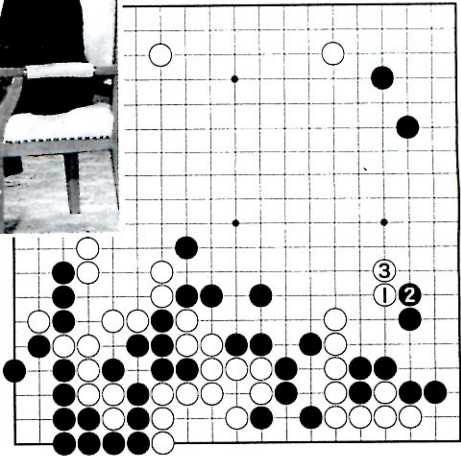
〈제한시간 각3시간, 덤5집반,
'97. 3. 17, 롯데호텔〉

〈제1보〉
백20은 취향. 흑21에 백22·24
는 상용의 수법.
흑35·37 강수이나 백46·48이
호수.

4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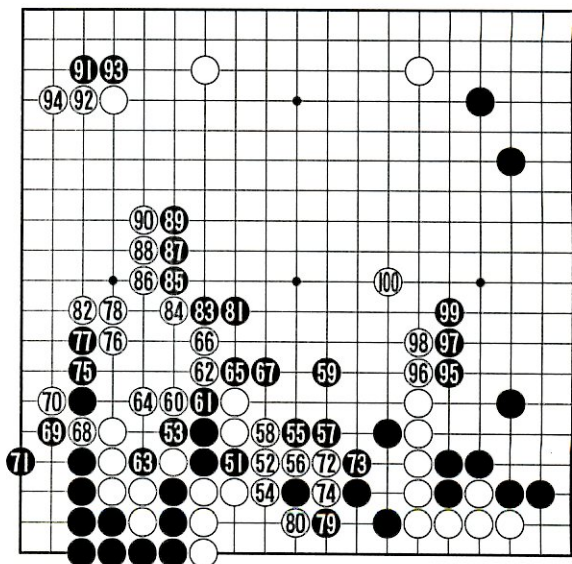
참고도



제2보 51~100

〈제2보〉

백82가 완착. 참고도 백1이 시급했다. 백86도 88로 둘 곳.
흑95가 절호점으로 흑 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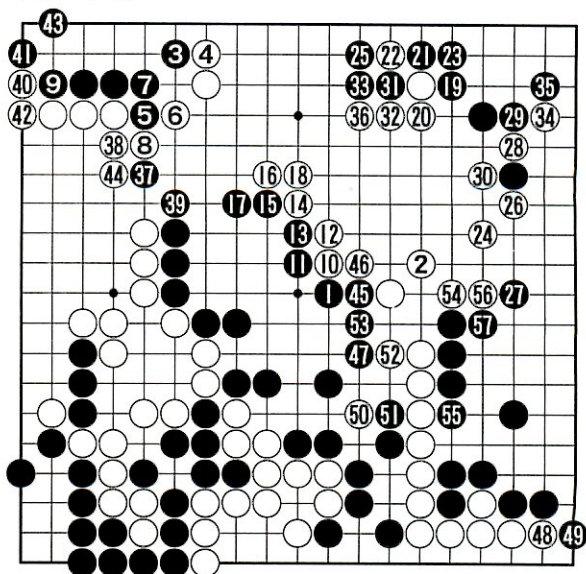


제3보 101~157

〈제3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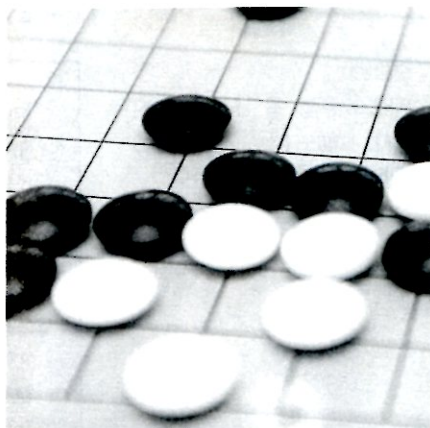
흑3 이하 흑9까지 크게 살아서는 흑 우세.

흑의 간명한 국면 운영으로 흑33의 시점에서는 흑승 결정.



157수 끝, 흑 불계승

바둑개혁의 출발점, ‘덤 6집반’



바둑의 출발선인 덤 제도가 바뀌게 됐다. 4월 1일 1차예선이 시작된 제6회 SBS배 연승바둑최강전에서 ‘덤 6집반’이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덤 6집반의 공식 적용은 기전 주최사인 SBS 측에서 요청한 상태에서 지난 3월 20일 기사총회에서 발의돼 참석 기사 대다수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재)한국기원이 ‘시대적 요청과 기전의 다양화’를 위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국기원에서는 일단 속기전인 SBS배와 준속기전인 제6회 진로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본지 92년 10월호에서 ‘특집/덤 5집반, 과연 공정한가?’를 발표한 지 4년 6개월만에 덤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 시행은 시범케이스로 전 기전 확대 방침은 아직 없지만 기전의 주관측인 (재)한국기원과 대국 당사자인 프로기사들은 대체적으로 덤 6집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전면 확대 시행은 시간 문제다. 앞으로는 지난 20년간 시행됐던 덤 5집반은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현재 덤 6집반이 기전의 다양화를

위한 한 방편인 것처럼 덤 5집반이 기전의
획일화를 피한 방편으로 화석처럼 남아 있
는 것이다.

92년 본지 특집 덤 6집반 타당성 제시

덤 제도는 1939년 일본 본인방(本因坊)
전이 창설되면서 ‘덤 4집’을 적용함으로써
생겼다. 여기에 비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가공의 수치인 반집을 도입, ‘덤 4집반’으
로 정해졌다. 이후 61년 명인전(구)이 개
최되면서 ‘덤 5집 빅 백승’을 적용하기도 했
으나 74년 제30기 본인방전부터 ‘덤 5집
반’을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수전
이 창설되면서 ‘덤 4집반’을 따랐으나 당시
는 단위를 중요시해 단위에 따라 흑백을 결
정하고 덤도 수시로 달리했다. 일본의 영향
으로 75년 한때 ‘덤 5집 빅 백승’과 ‘덤 4집
반’을 과도기식으로 혼용하다가 얼마 후 ‘덤
5집반’으로 정착,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88년 대만에서 우씨(應氏)배를 만

들면서 덤 8점(우리식으로 7집반)을 적용하
였고 또한 ‘덤 6집반이 공정하다’는 조-엘리
에이슨공식(조형준, 데이비드 엘리에이슨
공동 연구)이 발표되면서 덤 제도에 대한 관
심이 증폭돼 본지에서 3개월에 걸쳐 한국,
일본, 국제기전 등 총 3,367국을 조사, 특집
 기사를 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15쪽에 걸친
본지의 특집기사는 덤을 5집반, 6집반, 7집
반으로 가정하여 흑의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덤 5집반은 불공
정하고 덤 6집반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나 많은 프로기
사들이 동조, 여론의 반향은 컸으나 실천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여론이 숙성돼
이번에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당시 조사했던 내용을 여기서 축약해
봤다. <도표1> 국내기전 덤 승률 비교표는
85년부터 92년까지 바둑연감에 나와 있는
국내 신문기전, TV기전의 본선과 도전기
(결승)을 합친 종합도표로 국내기전 총 2,

<도표 1> 국내기전 덤 승률 비교표('85~ 92년)

구분	연도 승률	1985('84)	1986('85)	1987('86)	1988('87)	1989('88)	1990('89)	1991('90)	1992('91)	합 계
신문 기전 (9개)	5집반	122/222	139/249	137/259	141/240	122/218	135/244	118/239	143/267	1057/1938
		54.95	55.82	52.90	58.75	55.96	55.33	49.37	53.56	54.54
	6집반	114/222	130/249	124/259	134/240	113/218	122/244	114/239	132/267	983/1938
		51.35	52.21	47.88	55.83	51.83	50.00	47.70	49.44	50.72
	7집반	109/222	122/249	117/259	127/240	105/218	117/244	103/239	127/267	927/1938
		49.10	49	45.17	52.92	48.17	47.95	43.10	47.57	47.83
TV 기전 (2개)	5집반	2/4	8/16	11/19	7/18	5/12	10/17	11/18	8/15	62/119
		50.00	50	57.89	38.89	41.67	58.82	61.11	53.33	52.10
	6집반	2/4	8/16	11/19	7/18	5/12	8/17	10/18	8/15	59/119
		50.00	50	57.89	38.89	41.67	47.06	55.56	53.33	49.58
	7집반	2/4	8/16	11/19	7/18	5/12	8/17	10/18	8/15	59/119
		50.00	50	57.89	38.89	41.67	47.06	55.56	53.33	49.58
종합 (11개)	5집반	124/226	147/265	148/278	148/258	127/230	145/261	129/257	151/282	1119/2057
		54.87	55.47	53.24	57.36	55.22	55.56	50.19	53.55	54.40
	6집반	116/226	138/265	135/278	141/258	118/230	130/261	124/257	140/282	1042/2057
		51.33	52.08	48.56	54.65	51.30	49.81	48.25	49.65	50.66
	7집반	111/226	130/265	128/278	134/258	110/230	125/261	113/257	135/282	986/2057
		49.12	49.06	46.04	51.94	47.83	47.89	43.97	47.87	47.93

057국을 종합한 결과 덤 5집반에서는 흑의 승률이 54.40%에 이르며, 6집반으로 가정했을 경우(흑 반집승을 백이 이긴 것으로 계산)에는 50.66%로 근사치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7집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47.93%로 백 쪽에 승률이 높다.

그러나 속기전에서는 흑이 유리하다는 속설과는 달리 TV기전에서는 5집반에서 52.10%로 신문 기전에 비해 2% 정도 떨어졌으며 6집반 및 7집반의 경우 똑같이 49.5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사 대국수가 119국으로 현저히 적어 오차가 많은 데다 승률도 들쭉날쭉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런데 <도표2> 일본기전 1,186국의 경우 5집반에서는 흑의 승률이 50.25%이며 6집반으로 했을 경우 47.81%, 7집반으로 했을 경우 44.69%로 절반의 승률에서 현격히 떨어졌다. 일본 쪽에서는 5집반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씨(應氏) 측에서 조사한 78년에서 87년까지 총 2,333국에서는 5집반의 경우 흑이 53.41%로 역시 높고 6집반의 경우 근사치인 50.71%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5집반에서의 흑의 승률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5집반에 적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쨌든 92년 당시에도 덤 5집반은 불공정

하고 6집반이 적절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덤 6집반에서도 흑 승률 53.61%

이에 덤 6집반이 과연 공정한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처음으로 적용된 제6기 SBS배 연승바둑최강전 예선전과 당시 조사가 안된 SBS배와 진로배 및 제한시간이 3시간으로 일반기전보다 짧은 세계대회,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국내 대국이다.

또한 참고로 승부와 덤에 민감한 정상4인방의 지난해 흑빈 승률을 알아보았다.

먼저 덤 6집반이 첫 시행된 제6기 SBS배 예선전의 경우 <도표3>를 보면 총 102국 중 기권 5국을 제외한 97국 중 흑이 52국을 이겨 6집반에서도 흑의 승률이 53.61%에 이르렀다. 이를 5집반으로 환산했을 경우는 55.67%로 더 올라가며 7집반으로 했을 경우에

<도표 3> 제6기 SBS배 예선전 덤 승률 비교표

구분	승률	1차 예선	2차 예선	합 계
5집반		27/52	27/45	54/97
		51.92	60	55.67
6집반		26/52	26/45	52/97
		50	57.78	53.61
7집반		25/52	25/45	50/97
		48.08	55.56	51.55

<도표 2> 일본기전 덤 승률비교표('88~ 92년)

구분	연도	승률	1988('87)	1989('88)	1990('89)	1991('90)	1992('91)	합 계
본선 및 도전기 (7개)	5집반		117/232	124/240	116/239	116/236	123/239	596/1186
			50.43	51.67	48.54	49.15	51.46	50.25
	6집반		108/232	117/240	110/239	113/236	119/239	5671/1186
			46.55	48.75	46.03	47.88	49.79	47.81
	7집반		98/232	109/240	105/239	103/236	115/239	530/1186
			42.24	45.42	43.93	43.64	48.12	44.69

는 51.55%로 떨어지나 이 때도 흑의 승률은 50% 이상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6집 반으로 했음에도 여전히 흑이 승률이 높아 속기전에서는 더욱 흑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五단 이하의 저단진이 겨루는 1차예선보다 六단 이상 고단진과 1차선발진이 맞붙는 2차예선에서 흑의 승률이 57.78%로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어쨌든 덤 6집반의 1차 시험은 비록 판수가 적고 예선전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타당성이 입증된 셈이다.

한편 이번 SBS배에서 덤 6집반 적용으로 흑 반집배의 쓴잔을 마신 가사는 신예강호 최명훈 五단과 중견강호 허창희 七단이다. 최五단은 4월 1일 첫날 1차예선 1회전에서 중견 박종열 四단에게 패했으며 허七단은 4월

4일 2차예선 1회전에서 유명호 七단에게 일격을 당했다.

속기기전 및 세계대회도 6집반 타당

〈도표4〉는 제1기부터 5기까지 SBS배 연승바둑최강전에서의 흑의 승률을 조사한 것으로 5집반에서는 52.98%로 흑의 승률이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집반으로 환산했을 때도 50% 선을 지켰다. 또 결승전에서는 올초 열린 제5기 결승3번기가 백번필승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13전 중 흑이 8승을 올려 승률 61.54%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제5기에는 특이하게도 3연승자가 역대 최대인 6명이나 탄생하면서 백의 승률이 월등한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세계대회인 진로배 세계바둑최강전 역시

〈도표 4〉SBS배 덤 승률 비교표

승률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5집반	22/36	19/33	18/34	20/33	10/32	89/168
	61.11	57.58	52.94	60.61	31.25	52.98
6집반	19/36	19/33	17/34	19/33	10/32	84/168
	52.78	57.58	50	57.58	31.25	50
7집반	17/36	18/33	15/34	18/33	10/32	78/168
	47.22	54.55	44.12	54.55	31.25	46.43

〈도표 5〉세계기전 덤 승률 비교표('92~ 96년)

기전 \ 연도	승률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진로배	5집반	8/14	4/14	8/14	9/14	7/11	36/67 53.73
	6집반	7/14	3/14	8/14	9/14	5/11	32/67 47.76
	7집반	7/14	3/14	8/14	8/14	5/11	31/67 46.27
동양증권	5집반	15/27	18/28	15/30	12/29	11/22	71/136 52.21
	6집반	13/27	17/28	15/30	12/29	10/22	67/136 49.26
	7집반	11/27	15/28	13/30	10/29	10/22	59/136 43.38
후지쯔배	5집반	9/23	14/23	14/23	13/23	10/24	60/116 51.72
	6집반	6/23	10/23	12/23	9/23	10/24	47/116 40.52
	7집반	5/23	8/23	11/23	9/23	10/24	43/116 37.07
종합	5집반	32/64	36/65	37/67	34/66	28/57	167/319 52.35
	6집반	26/64	30/65	35/67	30/66	25/57	146/319 45.77
	7집반	23/64	26/65	32/67	27/66	25/57	133/319 41.69

〈도표5〉에서 보듯 5집반에서 흑의 승률이 53.73%로 높았다. 더불어 동양증권배와 후지쯔(富士通)배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도 5집반에서 흑의 승률이 52.21%, 51.72%로 각각 높았다. 그러나 반집승부 및 1집반승부 등 박빙의 승부가 워낙 많아 종합 환산했을 경우 6집반에서 45.77%, 7집반에서는 41.69%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 덤 8점(7집반)을 적용하는 응씨(應氏)배의 경우는 〈도표6〉에서 알 수 있듯이 7집반에서 흑의 승률이 48.15%로 떨어졌다. '88년 제1회 대회의 경우 흑의 승률이 57.14%로 높았지만 이후 대회에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제3회 때는 41.38%까지 떨어졌다. 이는 7집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백을 선호하게 되지만 흑쪽에서 적극적인 강공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바둑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들쭉날쭉한 것이다. 응씨배를 발표할 때 인용한 80년에서 86년까지 대만 3대기전(덤 7집반) 602국에서도 7집반에서는 역시 흑의 승률이 48%로 낮았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덤 5집반은 불합리하며 특히 속기전에서도 흑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 덤 7집반은 아직까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고수일수록 흑의 승률이 높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기전을 조사해 보았다. 〈도표7〉에서 보면 5집반에서 흑의 승률은 53.97%로 여전히 좋았으며 6집반 52.38%, 7집반 50%로 높았다. 이중 도전기의 경우 흑의 승률이 5집반 61.90%, 6집반 61.90%, 7집반 53.97%로 본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고수일수록 흑이 유리하다는 반증이다.

이에 정상4인방의 지난해 성적을 조사해 보았다(〈도표8〉 참조). 지난해 성적이 좋은 이창호 九단과 조훈현 九단은 흑변 승률이 월등했다. 지난해 93전 63승(승률 67.74%)을 거둔 이창호 九단의 경우 흑을 잡았을 때 5집반에서 75.61%로 높았다. 또 본선

〈도표 6〉응씨배 덤 승률 비교표

연도	1988	1992	1996	합 계
승률				
6점(5집반)	14/21	15/31	13/29	42/81
	66.67	48.39	44.82	51.85
8점(7집반)	12/21	15/31	12/29	39/81
	57.14	48.39	41.38	48.15
10점(9집반)	8/21	13/31	11/29	32/81
	38.10	41.94	37.93	39.51

〈도표 7〉96년 국내기전 덤 승률 비교표(본선 이상)

구분 승률	본 선	도전기	합 계
5집반	165/315	39/63	204/378
	52.38	61.90	53.97
6집반	159/315	39/63	198/378
	50.48	61.90	52.38
7집반	150/315	34/63	189/378
	47.62	53.97	50

〈도표 8〉96년 정상4인방 덤 승률 비교표(본선 이상)

승률 \ 기사	이 창 호	유 창 혁	조 훈 현	서 봉 수	합 계
5집반	31/41	18/32	43/57	12/26	104/156
	75.61	56.25	75.44	46.15	66.67
6집반	31/41	16/32	43/57	11/26	101/156
	75.61	50	75.44	42.31	64.74
7집반	28/41	14/32	41/57	11/26	94/156
	68.29	43.75	71.93	42.31	60.26



▲ 덩 6집반이 처음 시행된 제6기 SBS배 연승 바둑최강전 예선 전경.

이상 84전 60승(71.43%)보다도 높아 강자 일수록 흑번 승률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조훈현 九단(108전 71승 65.74%)도 75.44%로 높았다. 하지만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유창혁 九단(71전 46승 64.79%)과 서봉수 九단(58전 31승 53.45%)은 각각 56.25%, 46.15%로 본선 승률 64.41%(59전 38승), 45%(40전 18승)보다도 낮거나 비슷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흑의 승률이 66.67%로 본선 승률 63.94%(330전 211승)보다 높았다. 이것으로 볼 때 강자일수록 흑을 잡으면 잘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덩 6집반은 시대적 요청이다”

다음은 이번 덩 6집반 시행에 따른 대국

당사자인 프로기사들의 견해를 들어왔다.

(재)한국기원 사무국장인 정동식 五단 “덩 6집반 시행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둑이론이 발달하고 수준이 올라간 만큼 먼저 두는 흑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흑의 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속기바둑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흑 쪽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번 S-B스배 연승바둑최강전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는 덩 6집반은 기사총회에서 기사들의 공감대를 얻은 데다 주최사 SBS 측의 요청이 일침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최사에서 요청해 오면 대국여건을 감안해 받아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덩은 선택의 가치에 따른 것



정동식 五단(이사·사무국장)

“덤 6집반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기전 주최사가 요청해 오면 수용하겠습니다.”

으로 바둑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큼니다. 지금까지의 덤 5집반은 선착의 가치를 10집으로 계산하는데서 나온 것으로 백이 그 뒤를 쫓는 형국이므로 그 절반인 5집이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둑수준이 선착의 효과는 더 큼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착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흑의 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둑학전공이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교수 정수현 八단 “덤 5집반에서는 흑을 잡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6집반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덤 5집반은 한수의 가치를 10집으로 본데서 나온 것입니다. 6집반이 확대된다면 바둑 형태가 변할 것입니다. 흑 쪽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7집반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7집반이 되면 흑이 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레서는 바둑이 이상해집니다.”



서봉수 九단

“그동안 불합리한 룰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사회장 천풍조 七단 “기사총회에서 발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덤 6집반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데다 시대적 추세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냈습니다. 기사들 대부분이 동감했는데 SBS 측에서 마침 6집반으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해와 속기전이므로 시험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기전 주최측의 요청이 있다면 전 기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김인 九단 “이전부터 기사총회에서 덤을 올리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승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정상급 일류기사들은 승부의 흐름과 덤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데 이들이 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속기전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흑이 단연 유리합니다. 따라서 제한시간 10분의 초속기인 SBS배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훈현 九단 “흑 5집반은 일반적으로 흑이 좋다고 하고 나도 그런 편입니다. 특히 속기

바둑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덤 6집반이 좋은지, 어떤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해 봐야 압니다. 어쨌든 덤 6집반 시행은 시대적인 추세며 재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봉수 九단 “당연히 6집반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룰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덤 제도를 고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집반도 흑을 들고 싶습니다. 7집반은 아무래도 백이 좋은 것 같으니 약 7집이 덤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유창혁 九단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덤은 6집반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덤 5집반은 아무래도 흑이 편합니다.”

이창호 九단 “지금까지 덤 5집반에서는 흑이 편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덤 6집반이 되면 백이 좋을 것 같지만 두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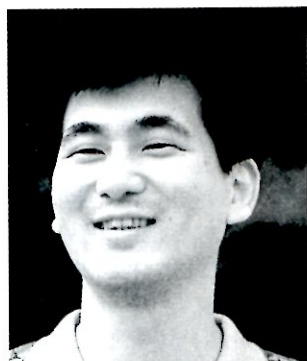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

중국 출신의 객원기사 우쑹성(吳淞筭) 九단 “바둑두는데 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는 어차피 실리바둑도 아니고 집도 항상 부족하므로 더욱 관계없습니다.”

미국프로바둑협회장 차민수 四단 “미국에서는 지난 7월 미국프로바둑협회가 발족하면서 덤 6집반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잉 창치(應昌期) 씨가 후원하는 대회나 일본 후지쓰(富士通)사에서 후원하는 대회는 각각 8점, 5집반의 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덤 제도는 가장 자유로운 편입니다.”

SBS배 연승바둑최강전에서 처음으로 흑을 들고 반집을 진 최명훈 五단 “덤 6집반 시행의 첫 희생양이 돼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덤 6집반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집반에서는 아무래도 흑을 잡고 싶고 7집반이라면 백을 잡고 싶습





최규병 八단

“기전의 다양성 측면에서 덩 6집반 시행은 적절한 시행입니다.”

니다. 따라서 6집반이라면 흑 이든 백이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병 八단 “기전의 다양성 측면에서 덩 6집반은 적절한 모색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점진적인 확대가 요망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수의 가치를 14집으로 봅니다. 이를 나눈 7집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건재 六단 “SBS배에서 시험적으로 덩 6집반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지난 진로배 최종국에서 진 마 사오춘(馬曉春) 九단이 공식 인터뷰 자리서 ‘진로배에서 백만 무려 7차례나 잡았습니다. 백을 잡으면 힘을 못 쓴다. 오늘도 백이어서 졌다’고 말했는데 당시 조훈현·유창혁 九단 등이 이에 공감함으로써 후원사 진로그룹에서 (재)한국기원에 건의, 결국 SBS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준속기에서는 덩 5집반은 흑이 유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덩 6집반은 많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덩 6집 빅백승’의 의견도 있으므로 더 연구해 봐야 합



김승준 五단

“진작에 했어야 했으며 전 기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니다.”

김승준 五단 “진작에 했어야 했습니다. 전 기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덩 5집반은 90% 이상 흑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곧 흑이 좋다는 반증입니다. 6집반이라도 절반 이상이 흑을 선호할 것입니다. 매일회(소소회 중 소모임)에서는 올해 1월 6집반리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기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덩 6집반이 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들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는 몰라도 덩 7집반도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바둑 이론이 발달하면 할수록 주도권을 잡고 있는 흑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덩도 차츰 차츰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심판이 없어도 되는 바둑, 하지만 출발선이 공정치 못해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이번 덩 6집반 적용은 세계바둑계를 앞서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속기의 제왕은 유창혁

국내 속기의 제왕은 유창혁 九단이었다.

유창혁 九단은 지난 3월 25일 SBS서울방송 별관 B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5기 연승바둑최강전 결승3번기 최종국에서 이창호 九단을 맞아 261수 만에 백 1집반승을 거둬 종합전적 2승 1패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SBS배는 다음 제6기부터 덤을 현행 5집반에서 6집반으로 변경, 시행하므로 유 九단은 덤 5집반 시대의 마지막 속기 제왕으로 남게 됐다.

올들어 처음 열린 두 사람의 속기 정상대결에서 유 九단은 3월 4일 열린 제1국에서 2집반승을 거뒀으나 바로 속개된 제2국에서 반

격을 당해 불계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유 九단은 이날 제3국에서 심기일전하여 극적인 1집반승을 거둬 KBS바둑왕과 함께 국내 양대 속기전 패권을 지켰다.

특히 이번 결승 3번기는 속기전에서는 보기 드물게 ‘백번필승’이 연출돼 관심을 모았는데 유 九단의 이번 우승은 이 九단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유 九단은 지난해에도 SBS배와 KBS바둑왕을 거푸 제패하며 이창호 九단의 타이틀전 연승 행진을 20에서 막은 바 있다. 이는 현 바둑계 판도를 이 九단의 일인독주시대에서 이·유 ‘양왕시대’ 또는 이창호·유창혁·조훈현 九단의 ‘정상3인방시대’임을 밝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편 4월 7일 SBS서울방송 12층 사장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SBS 윤혁기 사장(아래 사진 가운데)을 비롯해 10여명의 관계인 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자 유창혁 九단에게는 2,000만원의 우승상금이, 준우승자 이창호 九단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제1보 1~100

백 九단 유 창 혁

(1승 1패)

흑 九단 이 창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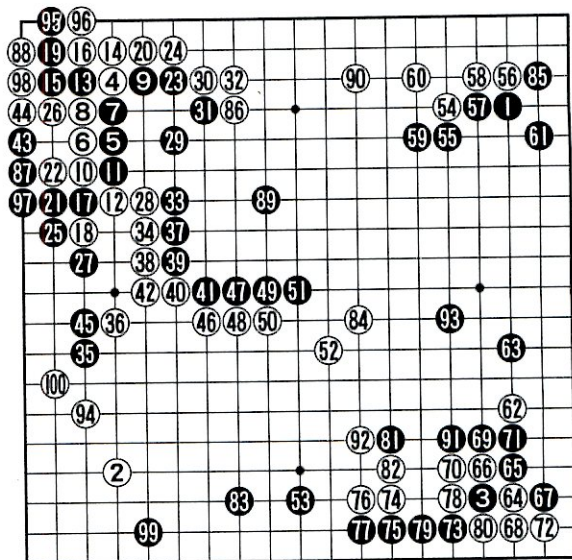
(1승 1패)

〈제한시간 각10분, 덤5집반,
'97. 3. 25, SBS스튜디오〉

〈제1보〉

백36이 주문을 거스른 호수. 백
52까지 신행은 흑이 약간 편한 모
양.

흑73은 호착으로 83까지 흑 유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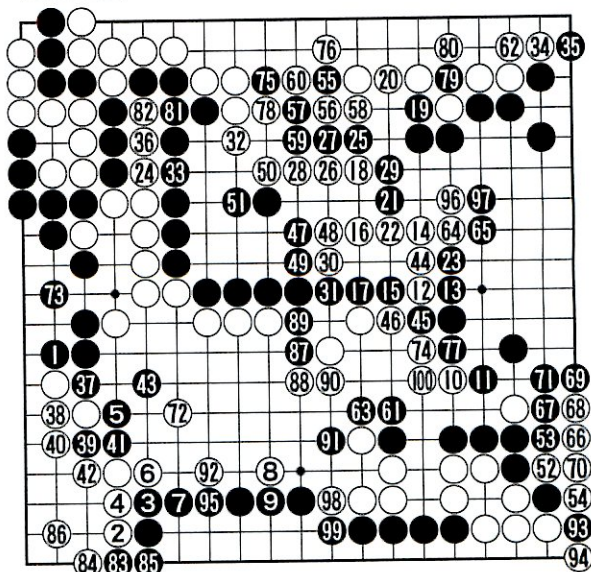


제2보 1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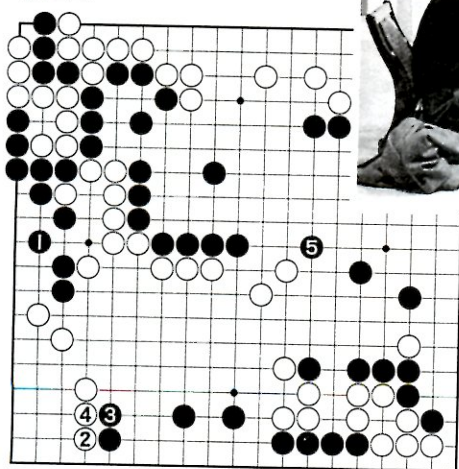
〈제2보〉

흑1이 패착. 참고도 흑1로 살고
백2로 둘 때 흑5로 두었으면 흑 우
세였다. 실전은 흑5로 후수보강할
때 백12의 삭감을 당해서는 미세하
나마 역전.

백52의 마지막 큰 끝내기를 두어
서는 백승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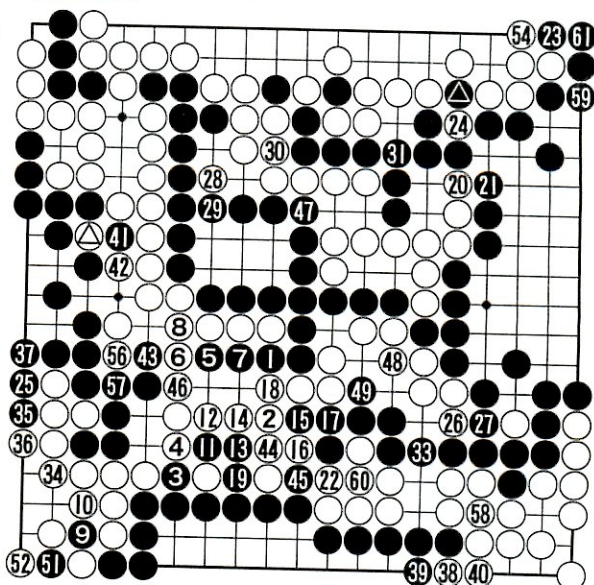
참고도



제3보 201~261

〈제3보〉

32...△ 50 55...△ 53...41



261수 끝, 백 1집반승



이창호-남치형 ‘환상의 바둑커플’

‘찰떡궁합’ 과시하며
페어바둑 초대챔프 등극

국내 최초의 남녀 혼합복식 바둑대회인 삼성화재초청 페어바둑최강전에서 ‘환상의 복식조’ 이창호 九단·남치형 初단 조가 첫 우승컵을 맞들며 국내 최고의 바둑커플로 탄생했다.

이창호·남치형 조는 4월 7일 한국기원 1층 BTV스튜디오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사제시간인 강훈 九단·강승희 初단 조를 맞아 119수 만에 가볍게 흑 불계승을 거둬 국내 페어바둑최강임을 과시했다.

당초 이번 대회는 여류기사가 강한 쪽이 유리한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창호·남치형 조의 우승은 남녀기사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한 이창

호·남치형 조는 75년생 동갑내기 토끼회 회원으로 비록 이九단이 세계최강으로 손꼽히지만 서울대 영문과에 재학하며 공부에 치중한 남치형 初단이 상대적으로 약해 우승후보 군에서 누락됐었다. 그러나 이창호·남치형 조는 강력한 우승후보인 동양증권배 4강의 김영환 四단과 국내 여류최강인 프로여류국수 윤영선 初단 조, 권갑용 六단·권효진 初단 부녀기사조를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순번 착오로 시간패 해프닝

중앙일보, MBC문화방송, UNITEL에서 공동 주최하고 (재)한국기원이 주관하며 삼성화재(주)가 후원하는 이번 페어바둑최강전은 여류 프로기사 16명이 인척, 스승, 친구 등 친분이 있는 남자 프로기사와 파트너로 출전, 국내 최강의 혼합복식조를 가리는 특별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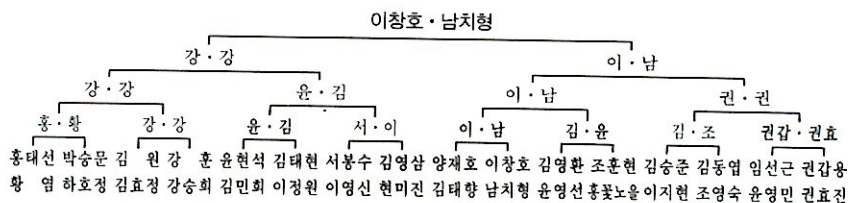
우승상금 700만원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 5분에 40초 초읽기 3회의 초속기전. 흑 쪽의 여자기사부터 시작, 백쪽의 여자기사, 흑쪽의 남자기사, 백쪽의 남자기사 순으로 번갈아 대국하는 혼성연기바둑.



상담이나 수신호 등 훈수는 반칙이며, 투석 시기만 상대가 가능하며, 착수 순번이 틀릴 경우 3집의 벌점이 부과되는 이색대회. 이에 따라 8강전에서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서봉수 九단·이영선 初단 조가 윤현석 三단·김민희 初단 조에 대국 순번을 놓쳐 시간패를 당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MBC바둑초대석」을 통해 방송됐으며, 유니텔에서도 기보를 게재했다. (이성구 기자)

삼성화재초청 프로페어대회 대진표



제 1 보 1~50

백 강 훈 9단·강승희 初단

흑 이창호 9단·남치형 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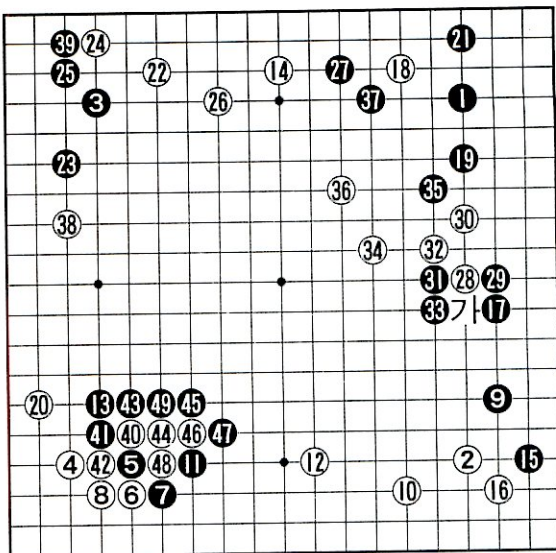
〈제한시간 각5분·40초, 덤5집반,
'97. 4. 7,
한국기원 BTV 스튜디오〉

〈제1보〉

흑33은 가로 둘 곳.

백46은 대실착으로 참고도 백1
이하 백5까지 둘 곳.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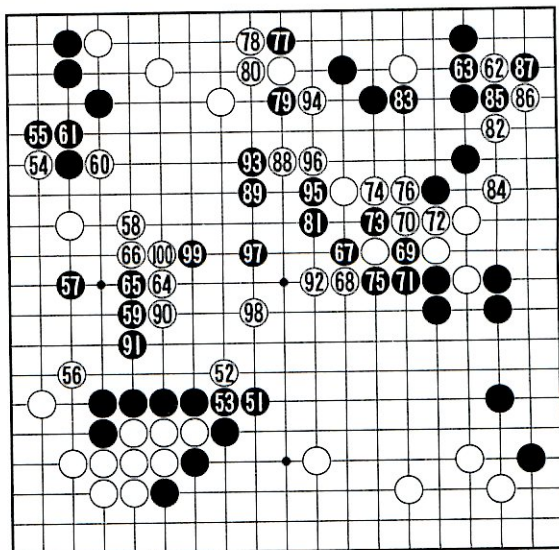


제 2 보 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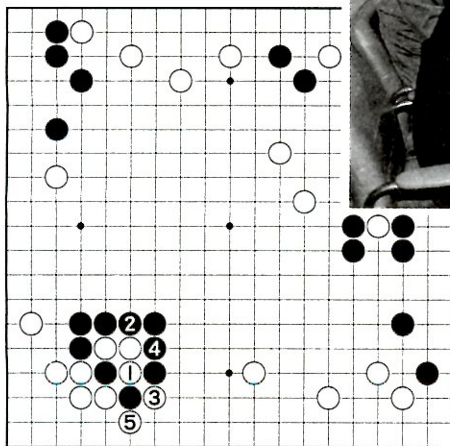
〈제2보〉

흑53까지 되어서는 흑 우세.

흑67이 결정타로 흑75까지 흑 승
세.



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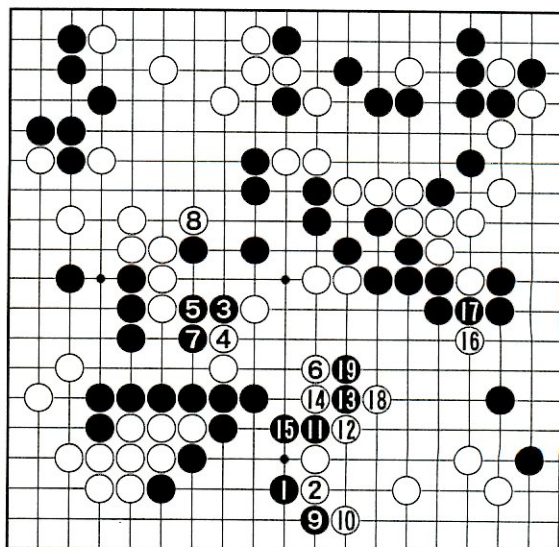


제3보 10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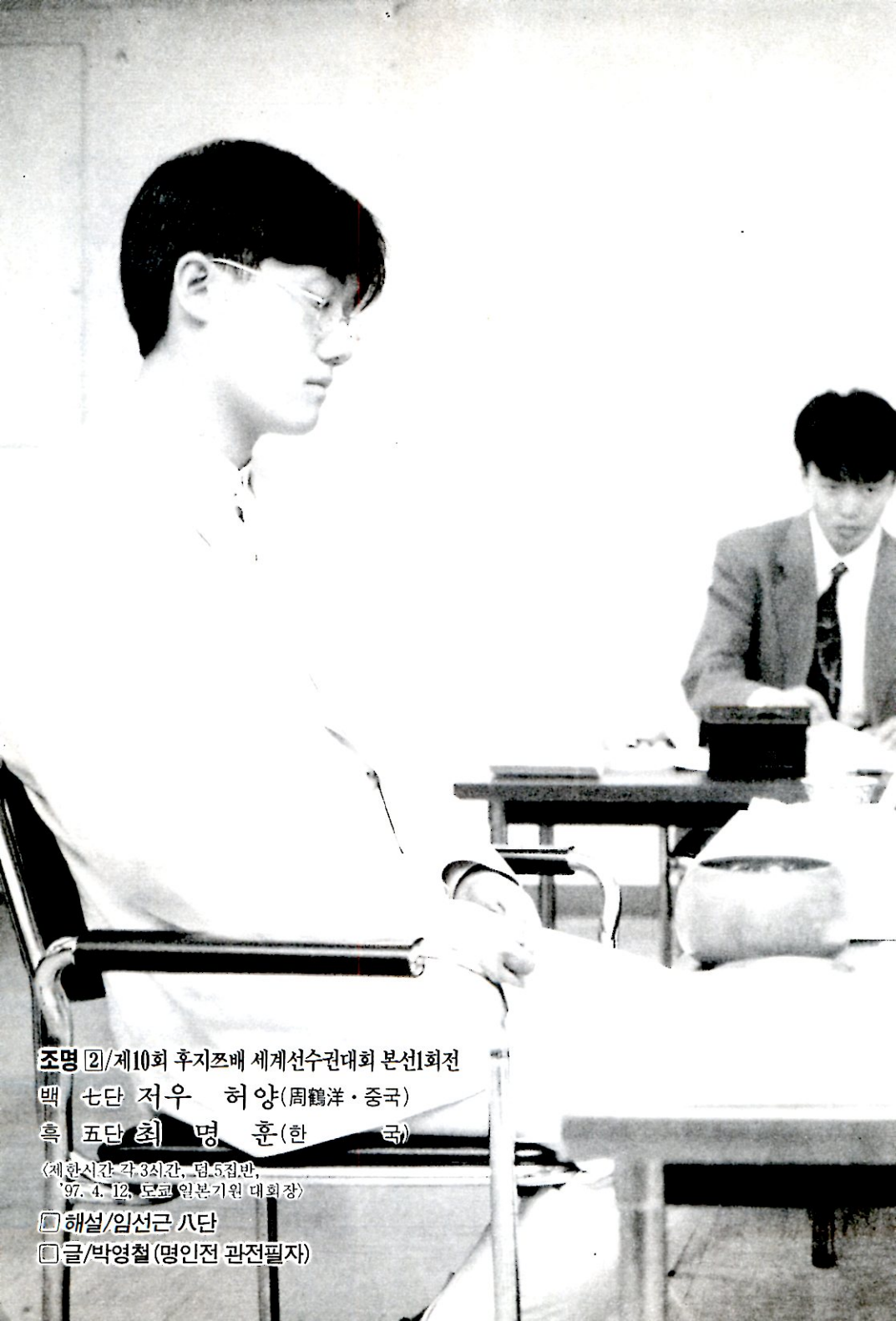
〈제3보〉

흑11·13은 끝내기 안타로 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흑 완승국.



119수 끝, 흑 불계승



조명 2/제10회 후지쯔배 세계선수권대회 본선회전

백 七단 저우 허양(周鶴洋·중국)

흑 五단 최명훈(한국)

〈제한시간 각 3시간, 덤 5점반,
'97. 4. 12, 도쿄 일본기원 대회장〉

□해설/임선근 8단

□글/박영철(명인전 관전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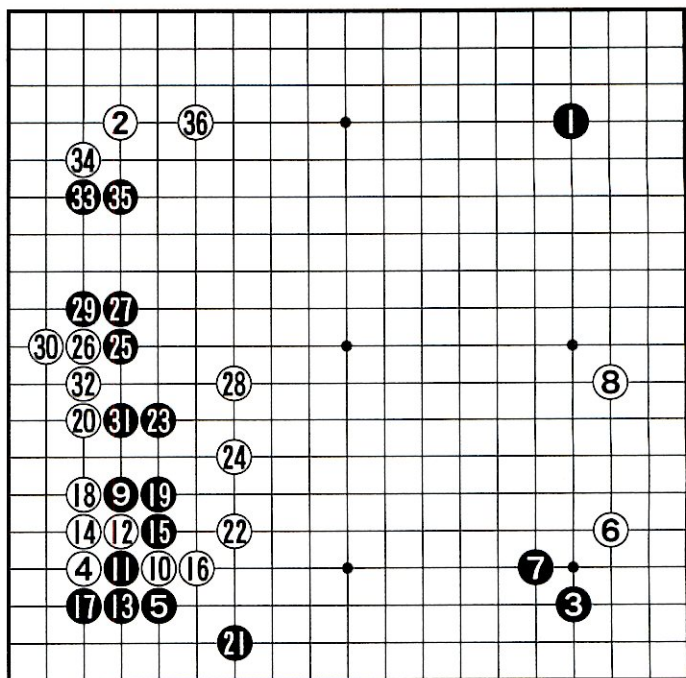
경고! 추월은 잠깐이다

21세의 자우 허양 정도는
최명훈 선에서 저지될 줄 알았다.
비록 중국 원로 네 웨이핑의 제자라 해도
'세계4강' 최명훈의 상대가 되라 싶었군...
그러나 우리는 잠깐 즐겼다.
추월은 잠깐, 경고는 강력했다.



1~36

라이벌



올해 후지쓰배 세계대회에는 한국에서 이창호·조훈현·서봉수·유창혁·양재호 九단, 최명훈 五단 등 6명의 기사가 출전했다. 앞의 다섯 명은 모두 작년에도 출전했던 구면들인데 올해 처음으로 최명훈 五단이 후지쓰배 본선무대에 얼굴을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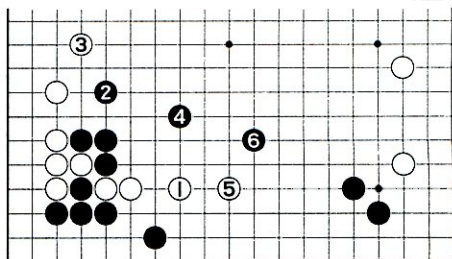
최五단은 1회전에서 역시 중국의 신예 유망주 저우 허양(周鶴洋) 七단과 만났다.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선두주자들의 대결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기라성같은 정상급 기사들의 대국 못지 않게 국내외 바둑계의 관심을 끌었다.

흑1부터 백4까지 화점과 소목의 절충형 포석이다. 흑5의 걸침에 백6으로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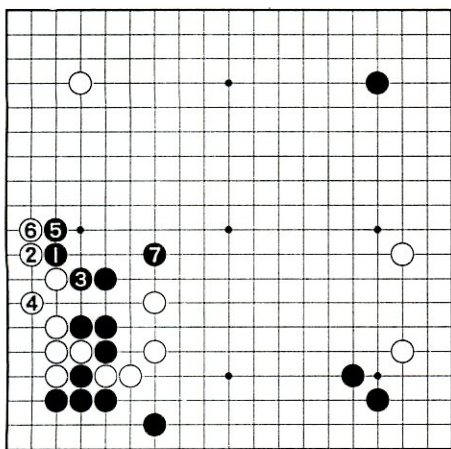
신예다운 패기가 넘쳐 흐르는 듯하다.

최五단은 흑7을 선수, 백8과 교환해 두고 흑9로 난해하기로 유명한 대사썩음을 들고 나온다. 아마도 장래의 라이벌을 맞아 일종의 파워 테스트를 해볼 심산인가 보다. 흑21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 진행.

1도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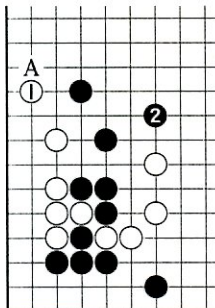


백22가 약간 색다르다. 보통은 1도 백1로 한칸뛰는 것이지만 지금은 흑2·4 후 백5 때 흑6으로 덮어 씌워 오는 것이 싫었던 듯하다. 흑23 때 백24는 기왕에 내친 걸음. 하지만 흑도 25를 차지하게 되어 불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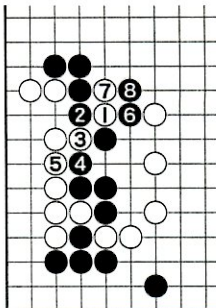
한데 이 장면에서 임선근 八단은 흑25로는 2도처럼 두는 것이 보다 확실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마도 최五단은 흑25면 백이 3도 백1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흑2로 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3도의 진행이면 나중에 흑이 A에 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서 2도 보다는 흑이 좀 더 나은 모양이다) 하지만 실전에서 백26을 하나 선수한 후 28로 뛰어 나간 것이 임기응변의 수법. 물론 흑에게 29 자리를 틀어 막히는 것이 통렬하기는 하지만 좌변 흑 대마 전체를 통째로 공격하자는 작전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심코 선수 행사라고 둔 흑31이 다소 문제였다. 이 곳은 흑이 손을 뻗다 하더라도 당장 무슨 수가 나는 것은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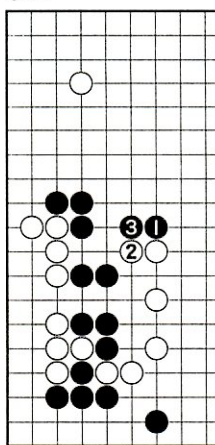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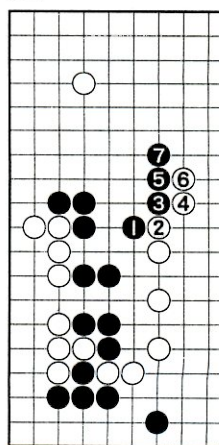
아니다. 예를 들어 백이 4도 1로 건너붙여 온다 해도 백4의 빈삼각이 선수여서 끊어지지 않는다. 실전은 흑31과 백32가 교환됨으로서 다음에 실전진행에서도 나오듯이 백38 자리가 절대선수가 되어 다음의 흑의 행마가 편안치 않다.

흑33은 방향착오. 이쪽 방향으로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면이다. 이 수로는 차라리 5도나 6도처럼 두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 백이 간명하게 34·36으로 응해 버리니 흑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괜히 좌상귀 백진만 굳혀 준 셈이다.

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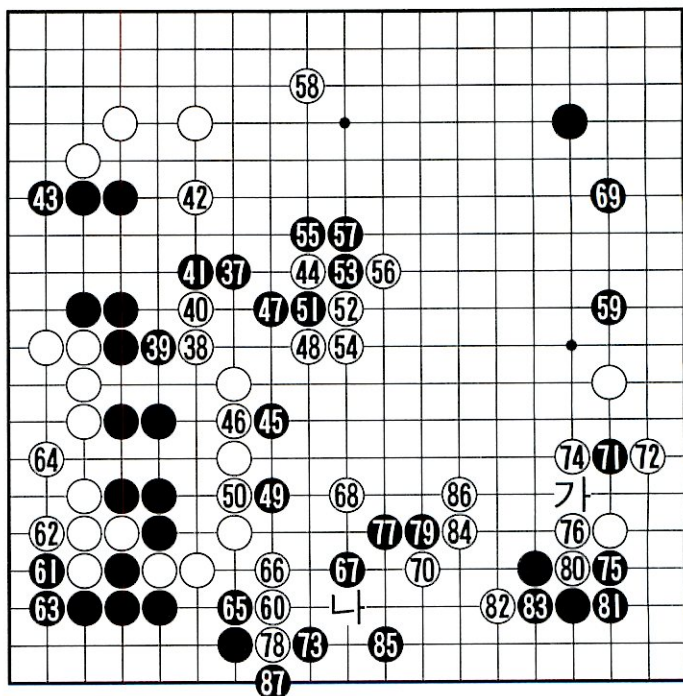


6도





37~87



백 리드

최五단과 저우 七단은 두 기사 모두 한국과 중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차세대 선두주자. 저우 七단이 76년생으로 올해 스물한 살. 최五단이 스물두 살이니 나이도 엇비슷하다.

저우 七단은 네 웨이핑(聶衛平) 九단의 제자로 8살부터 바둑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88년 입단 이후 92년 중국 청소년배 우승, 96년 중국 전국대회 우승 등 요즘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는 신예기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난해 제3회 한중신예대항전에 중국대표로 출전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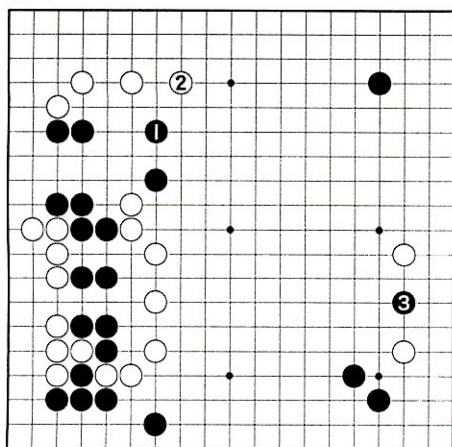
이에 맞서는 최五단은 이제 신예라는 형용사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국내 바둑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힌 ‘무서운 아이’.

지난해 명인전과 기성전에서 도전자로 선 발데 세계 최강 이창호 九단과 막판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며 제1회 LG배에서 당당히 4강까지 진출, 세계무대에도 정상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백40 때 흑41로 막은 것에 대해 임八단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건 완전히 손따라 둔 수입니다” 하면서 7도를 그려 보인다. 흑4이면 백2 정도가 불가피할 때 흑3으로 침입하는 것이 발빠른 작전이었다는 것.

이어서 백42가 또한 통렬한 급소 일격. 흑43은 적절한 응수가 없어 고심 끝에 둔 수지만 백44로 씌움을 당해서는 백이 활발한 모습이다.

7도



결국 흑57까지 대마가 가까스로 탈출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백58로 큰 곳을 차지, 초반 좌하귀 대싸움에서부터 비롯된 제1라운드의 공방에서는 백이 한 발 앞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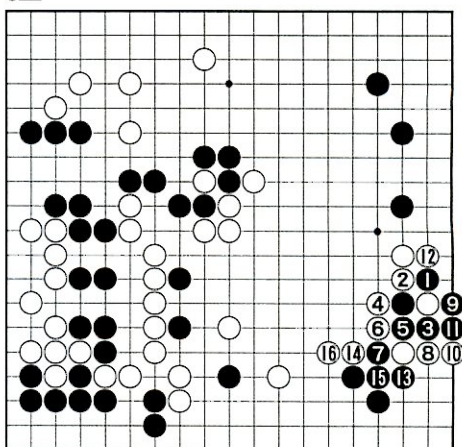
흑59는 반상 최대의 곳. 형세가 별로 좋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렇게 바짝 다가가야 할 곳이다. 이 때 백60이 완착. 이곳은 별로 급한 곳이 아니다. 이 수로는 가 자리에 지켜 두는 것이 평범하면서도 견실했다.

흑61·63은 항상 이렇게 될 곳이고 65·67을 선수한 후 69의 곳을 차지하게 되어서는 이제는 흑도 한 숨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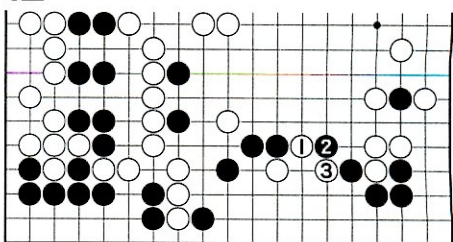
백70도 이상했다. 역시 지금이라도 그에 두어 우편을 안정시키는 것이 보다 쉽게 이기는 길이었다. 저우 七단은 이상하게 아까부터 하변에 너무 미련을 갖는데 이 부근은 피차 그렇게 큰 집이 날만한 곳이 아니다.

백72 때 흑이 바로 움직이는 것은 어떨을까. 예를 들어 8도 흑1이면 대충 백 16

8도



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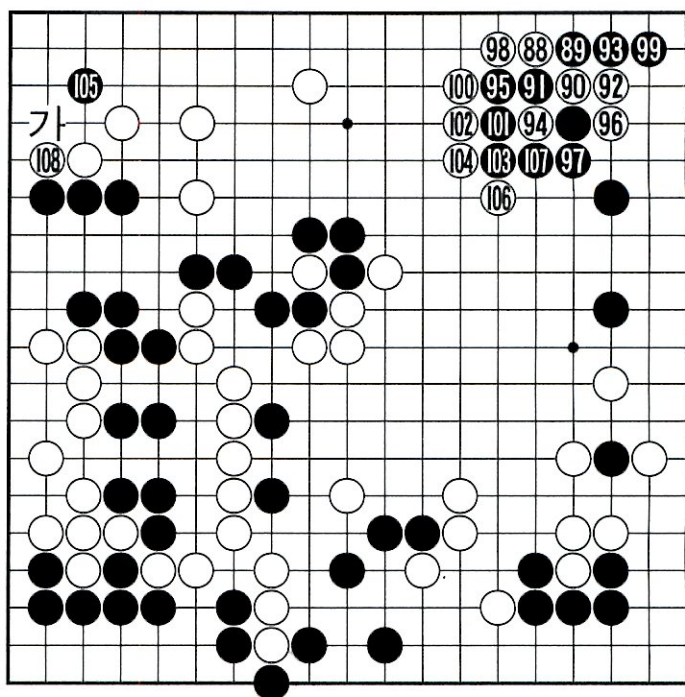
까지의 진행인데 물론 흑의 실리도 상당하지만 백도 중앙이 두터워져서 이것은 흑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반대쪽에서 찢히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므로 논외. 따라서 흑은 일단 움직이는 것을 보류하고 73으로 손을 돌린 것이다.

백78 때 흑79는 기세이자 정수이다. 여기서 무심코 87로 넘으면 당장 나로 건너 붙여서 흑이 괴롭다. 이때 백은 80을 선수하고 82·84로 타개책을 모색했는데 이 수는 약간 무거웠다는 임八단의 총평. 이 수로는 9도 백1이 더 맵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인데 실전의 진행과 확실한 득실을 논하기는 어려울 듯.



88~108

패착성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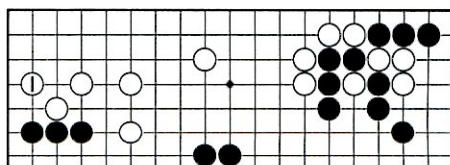
이번 대국에서 저우 七단은 초반 좌하귀 전투에서 독특한 작전을 구사, 일찍이 우세한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88부터 103까지는 거의 정석화된 수순. 여기서 백은 104로 두텁게 밀어 갔는데 이 수가 자칫했으면 패착이 됐을지도 모를 완착이었다. 이 수로는 10도 백1로 두어 좌상귀를 튼튼하게 지켜 두는 것이 확실하게 승리로 가는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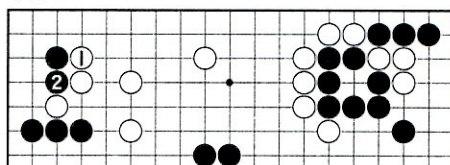
흑이 105로 좌상귀 3·3에 침입한 것이 기민했다. 이때 백은 108로 막아 반발을 시도했는데 11도 백1로 막아놓고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이 더 확실했다. 108은 좌변에서 중앙으로 뺀어나온 흑 대마를 노리는 수이나 다음보에서 보듯 흑이 귀에서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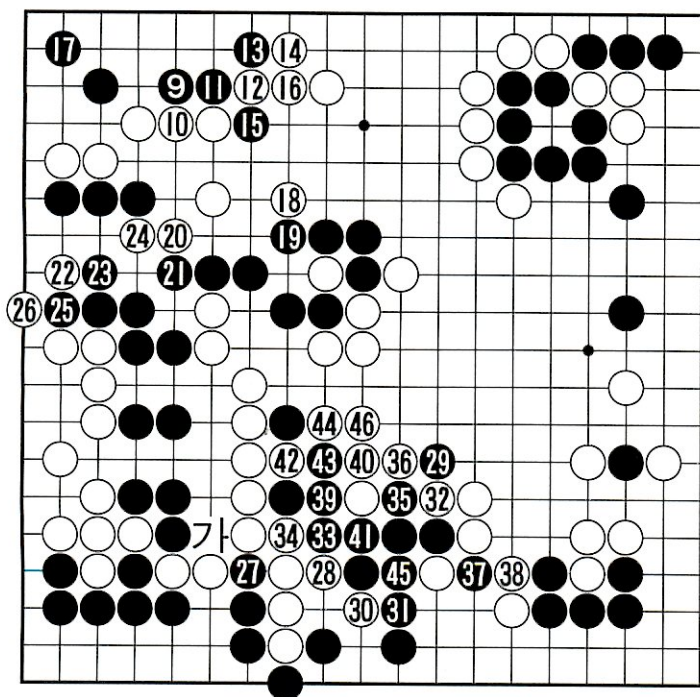
살아서는 미세한 국면이 됐다.

10도



11도





4 보

109~146

4귀생

흑9부터 17까지는 외길 수순. 일단 흑은 좌상귀 백 귀를 도려내는 데 성공했다.

자, 이제는 백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보니 흑은 4귀생의 형태. 현재 확정이 면에서는 오히려 흑이 얼마간 앞서 있는 형세이다. 백이 믿고 있는 곳은 중앙의 두터움이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집으로 환산될 수 있을지 바둑은 아주 재미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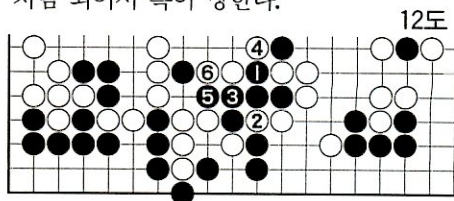
백은 당연히 18을 선수, 흑 한점의 준동을 견제한 후 20으로 마늘모, 흑 대마에 대한 일제공격에 나선다. 하지만 백20은 너무 시기가 빨랐던 것이 아닌가 싶다.

백26 때 흑27로 응수를 살피는 것이 멋진 타이밍이었다.

여기서 백이 가 자리를 이어줄 수는

없다. 흑 대마를 확실히 잡는다는 보장도 없이 후일 흑이 34 자리에 끊어오는 수단을 남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28은 교육지책인데 여기서 흑29로 뛰어 나간 수가 결과적으로 약간 이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백32부터 46까지 이 부근을 백이 선수로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면 백32 때 흑33은 생략할 수 없다. 무심코 35부터 두었다가는 12도처럼 되어서 흑이 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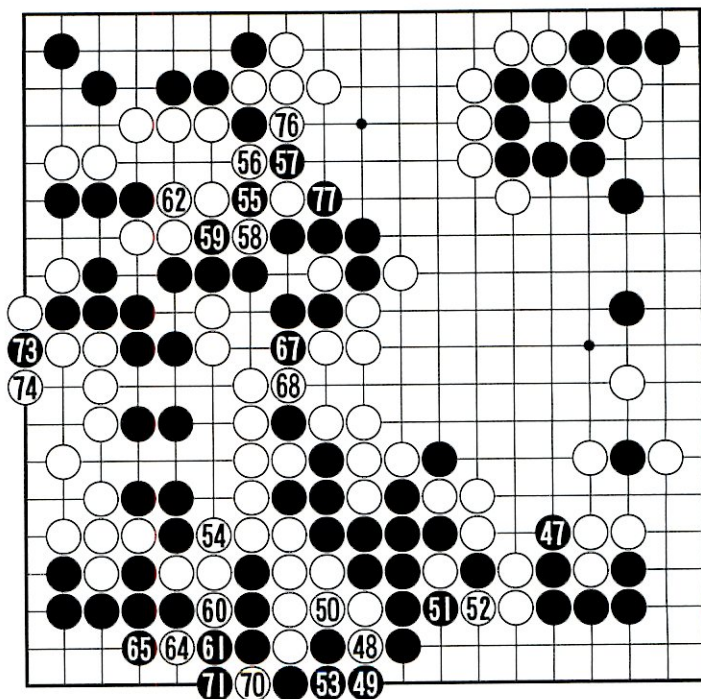




147~177

63 69 75...65
66 72...58

패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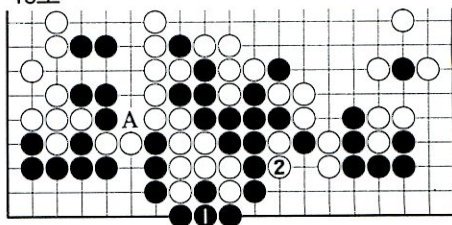
흑47 때 백48·50은 선수활용. 이때 흑51로 먼저 백 한점을 따낸 것도 긴요한 수순이다. 이 수를 생략하고 그냥 53자리에 이어서 넘어가면 반대로 백이 13도 2로 두는 것이 선수가 된다. (백A가 절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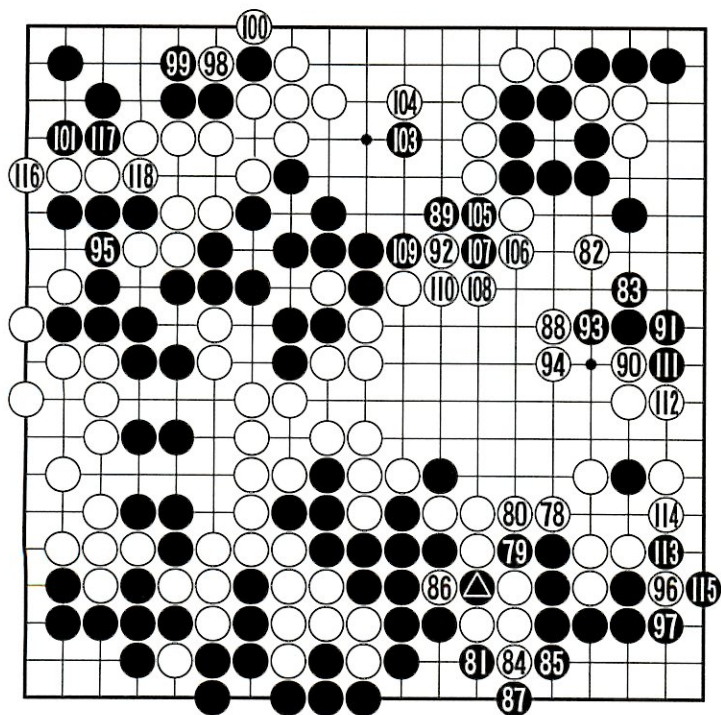
백은 다시 54에 이어서 일시 중단했던 좌변 흑 대마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 하지만 흑은 55로 끼운 후 백56 때 흑57로 단수치는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백58 때 흑59·63으로 패싸움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흑은 자체팻감이 많을 뿐 아니라 이 패는 오히려 백쪽에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백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패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백60을 먼저 선수해 둔

것은 약간 이상했다. 쓸데없이 절대팻감을 하나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가 여차피 패싸움은 백이 이길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 몇 번의 팻감 공방 끝에 백은 76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흑도 77로 백 한 점을 따내고 완생 형태를 갖춰 좌변의 대마 공방도 일단락이 됐다.

13도





178~218

102...▲

끝내기

이 바둑은 위낙 초반에 좌하귀에서 대형 정석이 나와서 좌변 흑 대마의 사활을 둘러싸고 두어 차례 전투를 하고 나니 어느 틈에 반면이 좁아져 끝내기 단계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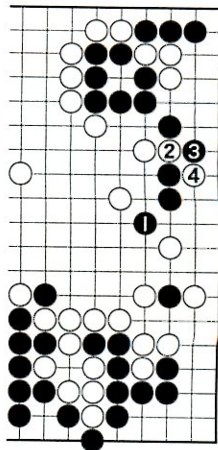
백78은 반상 최대의 곳. 백78·80으로 봉쇄하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것이 흑의 불운이었다. 더구나 흑으로서는 86의 곳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쓰라리다. 결국 흑은 81부터 87로 두어 넘어가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곳을 소흘히 해서 반대로 백이 먼저 두면 86 자리에 두어 흑▲를 따내는 것이 선수여서 우하귀 흑의 사활이 이상해진다.

백88로 중앙을 둘러싸게 되어서는 미세

한 반집승부다. 흑89는 14도 흑1로 뚫고 나가는 것이 더 커 보이지만 그것은 백2·4로 나와 끊었을 때 대책이 없다. 즉 실전백 90이 언제나 선수가 되는 자리인 것이다.

흑95와 백102는 거의 맞보기성. 백116이 의외로 큰 곳이다. 이 곳을 백이 둬으로써 백이 약간 두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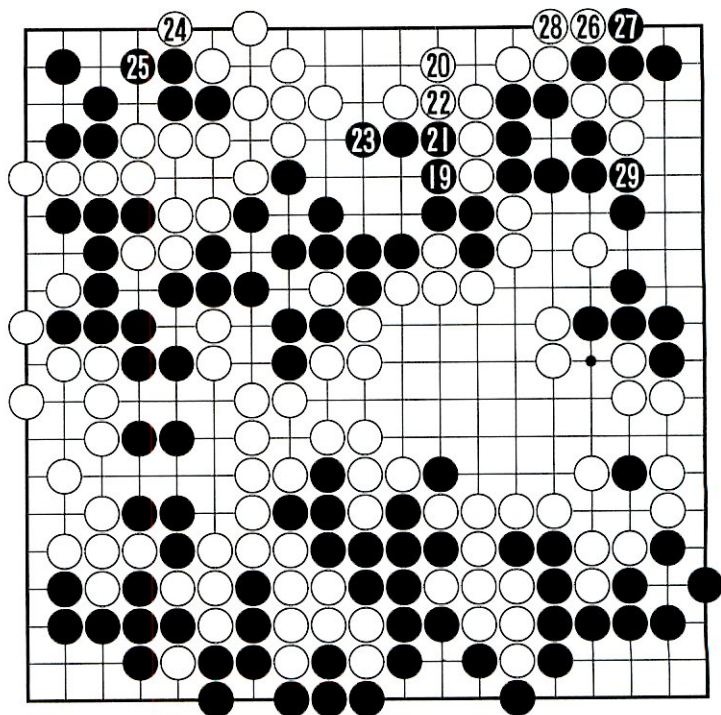
14도



7 보

219~229

안간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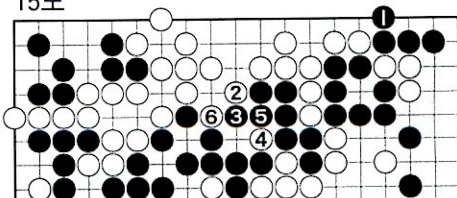
이즈음에는 두 대국자 모두 마지막 1분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누가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최五단은 흑19에서부터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추격해가고 있지만 이즈음에 이르러서는 아무래도 흑이 이기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는게 임선근 八단의 안타까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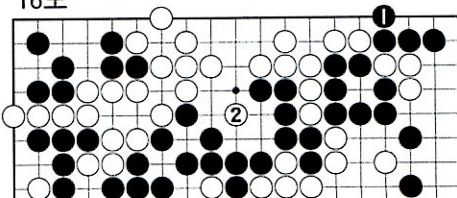
흑23 때가 마지막 고비였다. 이 수로는 15도 흑1 자리에 먼저 두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백2·4·6으로 패가 승부인데 이 패는 백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백은 16도처럼 두는 수가 있어 이것은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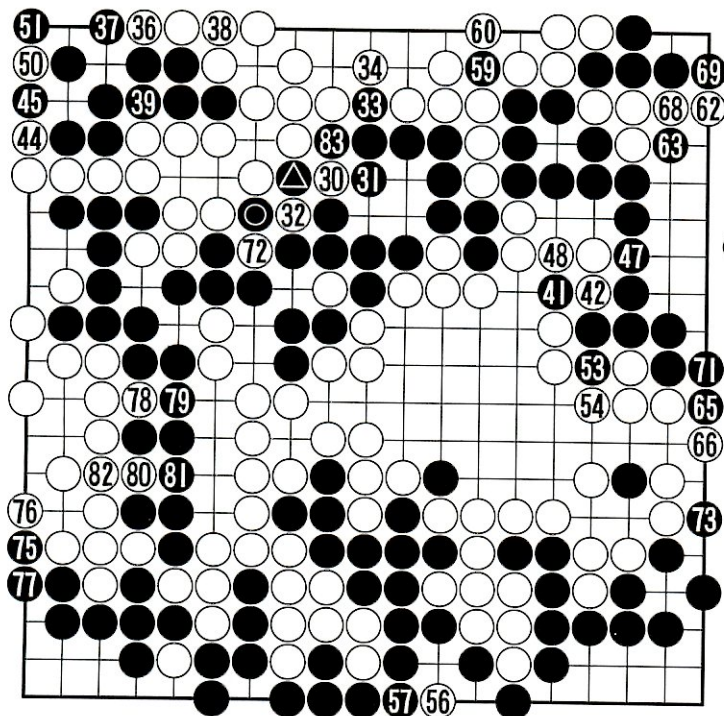
흑이 손해다. 결국 실전의 수순이 최선이 있다는 결론이다.

15도



16도





230~284

35 43 49 55 61 67 84...△
40 46 52 58 64 70...32
74...●

허무함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패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국 흑이 패를 한 번 굴복하고 마지막 반패마저 백이 잇는 수순이 돌아와서는 백의 반집승이 확정됐다.

작년에 LG배 세계대회에서 4강에까지 진출했던 최五단이기에 선전을 기대했지만 그만 1차전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역시 아직까지는 좀 더 국제대회 경험을 쌓아야 하는가 보다.

한편 올해 후지쯔배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이창호·조훈현·서봉수·유창혁 등 4인방에다가 양재호·최명훈 등이 가세한 초호화멤버로 역대 대표팀 사상 최강의 전력이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막상 두 경을 열고 보니 결과는 판판이었다. 상당

수 독자들께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한국팀은 이번 대회에서 출전선수 전원이 1, 2회전에서 몽땅 탈락하는 세계대회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1회전에서 조훈현 九단과 양재호 九단, 최명훈 五단이 각각 고배를 마셨고 2회전에서 유창혁·서봉수 九단은 물론 믿었던 이창호 九단마저 믿기지 않는 패배를 하고 만 것이다.

세계 최강 이창호 九단을 2회전에서 물리친 기사가 바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저우 허양 七단이다. 저우 七단은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세계대회 8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284수 끝, 백 반집승



한국, 후지쯔 참변

한국바둑이 '4. 14 참변'을 당하며 일본열도에서 전원 퇴각했다.

세계대회로는 가장 먼저 출범했고(88년 4월) 우승상금 규모로는 랭킹 4위(1억 5천만원)인, 유일의 일본 주최 세계대회 제10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가 4월 12, 14일 도쿄 일본기원 대회장에서 본선 1, 2회전이 개최됐다.

애초 한국은 본선1회전에 5명(조훈현 九단, 서봉수 九단, 유창혁 九단, 양재호 九단, 최명훈 五단), 2회전에 1명(전년도 우승자 이창호 九단)이 출전하여 호화군단의 면모로 우승컵을 곧 접수할 기세였다.

특히 제6회 우승자 유창혁 九단, 제7회 우승자 조훈현 九단, 제9회 우승자 이창호 九단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고 최근 국가대항전 진로배에서 9연승의 신화로 일본, 중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서봉수 九단도 가세하여 '이번엔 내 차례노라!'며 전의를 불태운 바 있었다. 거기에 중견 양재호 九단과 신예 강호 최명훈 五단도 호시탐탐 상위 입상을 노리며 일본기원 대회장에 들어섰었다.

4월 12일 1회전의 대진운은 그런대로 썩

참다는 평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는 실망에 가득찬 성적표였다. 대표선수 주장격인 '황제' 조훈현 九단이 일본의 신예 유키 사토시(結城聰)八단에게 잡힌 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다. 일본측에서도 황홀한 충격으로 여겼을 정도였다.

양재호 九단이 최근 일본 랭킹5위권을 자랑하는 왕리청(王立誠) 九단에게 패퇴한 것은 아쉬움 정도였지만 차세대 기수로 공인 받는 최명훈 五단이 중국의 저우 허양(周鶴洋) 七단에게 반집 차이로 물러선 것이 한국 팀 사기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쇼크에 다름 아니었으니... 서九단과 유九단은 아마추어들과 겨루었으므로 논의.

2차쇼크는 2회전에서 발발했다. 시드를 받은 이창호 九단을 합해 3명이 올랐고 일본 6명, 중국 5명에 비해 숫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은 것은 그 3명이 명실상부한 일당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손색 없는 우승후보임은 현지 분위기에서도 감지되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대진운부터가 먹구름이었다. 서봉수 九단은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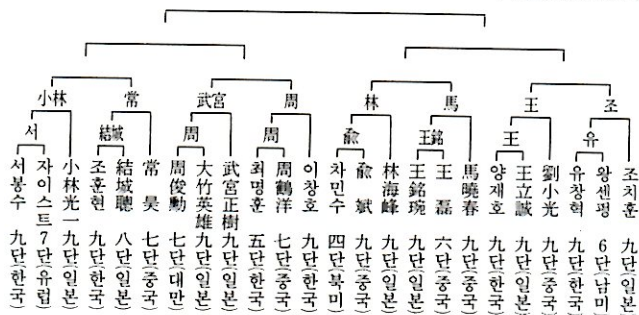
단을 만났고 유창혁 九단은 '대삼관' 조치훈 九단과 일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창호 九단은 최五단을 이기고 올라온 저우 허양 六단을 만나 친구의 복수는 물론이고 8강에 쉽게 진입하리라는 예상이었다.

4월 14일 오후4시부터 패전보가 속속 날아 들었다. 서봉수 불계패, 이어 유창혁 5집반패, 마지막으로 이창호의 반집패배가 확정되면서 모든 무지개는 사그러 들었고 '4. 14 참변'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우 七단은 네 웨이핑 九단의 직계제자이면서 금년 21세의 신예. 끝내기의 달인 이九단이 경계대상도 아니었던 후배에게 많이도 아니고 반집을 졌다는 아픔이 이번 후지쯔배 쇼크를 상징하고 있다.

한국이 8강에 단 1명도 진출하지 못하는 이번은 제1회때 이후 9년만의 일. 일본 5명, 중국 3명이 겨루는 모습을 건너다 봐야 하는 한국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절치부심을, 중국의 후진 급상승을 가버이 보았다는 증좌이다. 특히 2군양성의 백년대계가 마련되지 못하면 바둑한국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영욱 편집장)

제10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대진표

* 준결승전까지 대진추정



제10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2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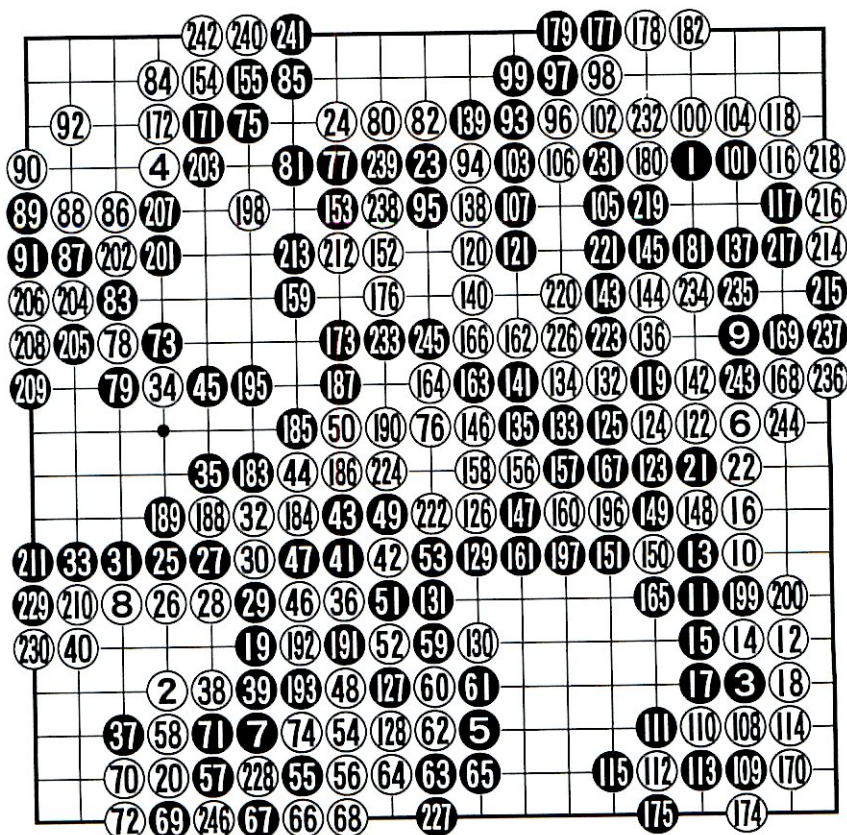
백 이 창 호 九단(한국)

흑 저우 허양 七단(周鶴洋·중국)

(제한시간 각 3시간, 덤 5집반, '97. 4. 14, 일본기원)

246수 끝, 흑 반집승

(194...191) (223...42)



제10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2회전

백 유 창 혁 九단(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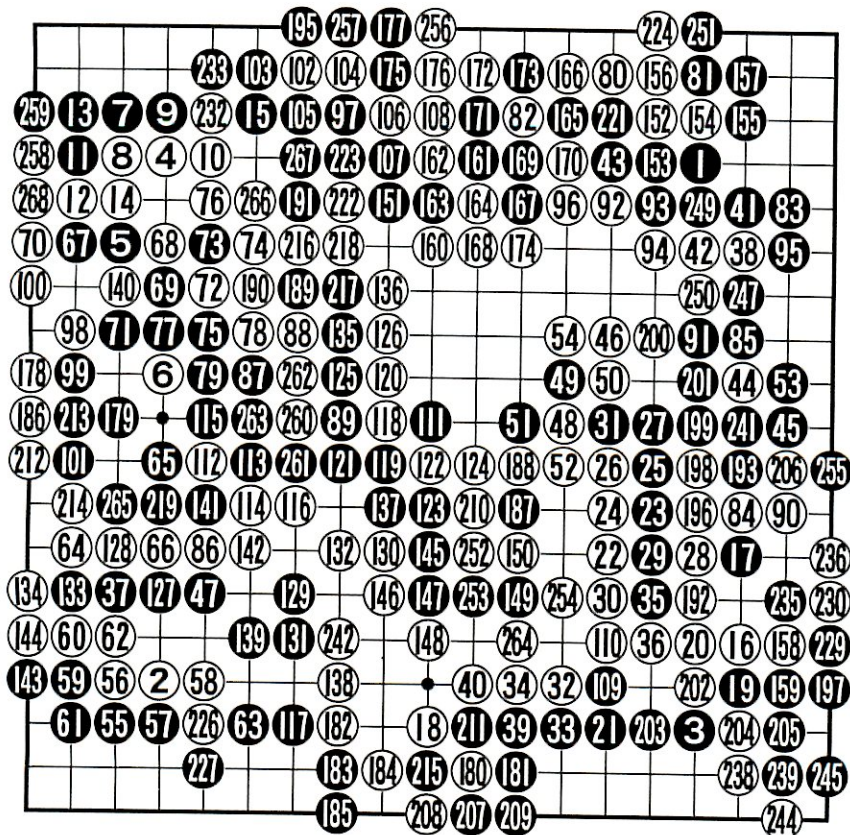
흑 조 치 훈 九단(일본)

(제한시간 각 3시간, 덤 5집반, '97. 4. 14, 일본기원)

268수 끝, 흑 5집반승

(194... (82) 220 228 234 240 246... (180)

225 231 237 243 249... 215



제1보 1~50

백 九단 이 창 호

(배달왕·1승)

흑 九단 조 훈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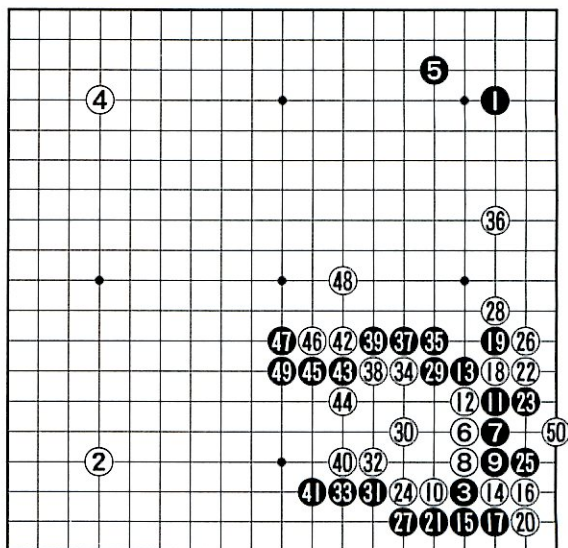
(도전자·1패)

〈제한시간 각5시간, 덤5집반,
'97. 3. 24, 한국기원 특별대국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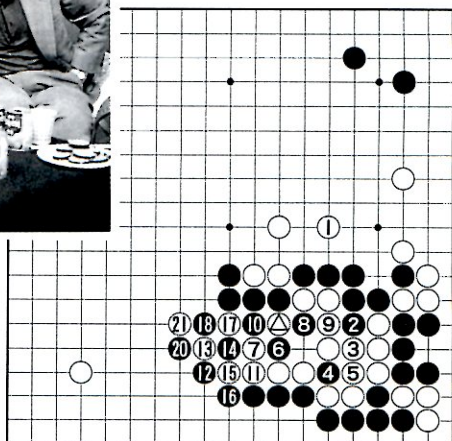
〈제1보〉

흑37은 흑63, 백64, 흑38도 유력
한 수법.

백42, 흑43은 쌍방 기세.



참고도 ①9...①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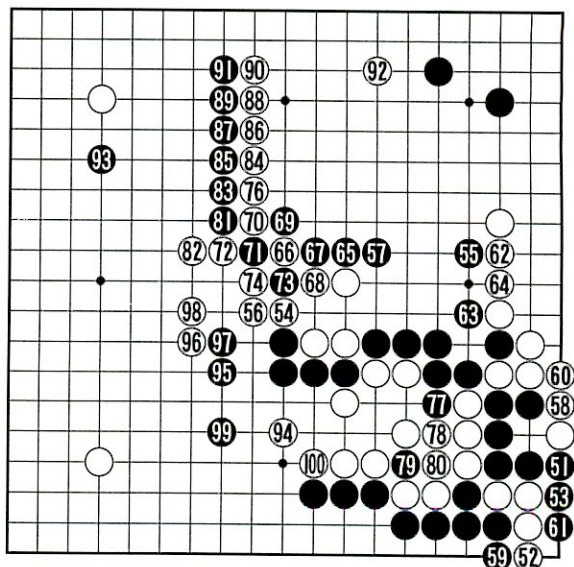
제2보 51~100

〈제2보〉

백54로 참고도 백1로 두는 것은
흑2 이하 외길수순으로 흑22까지
백이 망함.

흑81이 예상치 못한 강수로 흑91
까지 밀어올려 흑이 승기를 잡았
다.

7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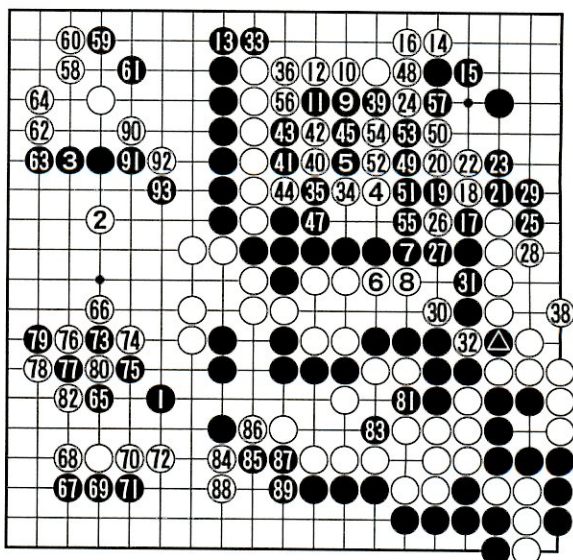
제3보 101~193

〈제3보〉

백4 이하는 승부수이나 흑49의
묘수로 흑57까지 흑 우세 부동. 흑
79는 결정타로 흑81·83으로 흑승
결정.

흑 회심국.

37...△ (46...40)



193수 끝, 흑 불계승

제1보 1~100

백 九단 조 훈 현

(도전자)

흑 九단 이 창 호

(배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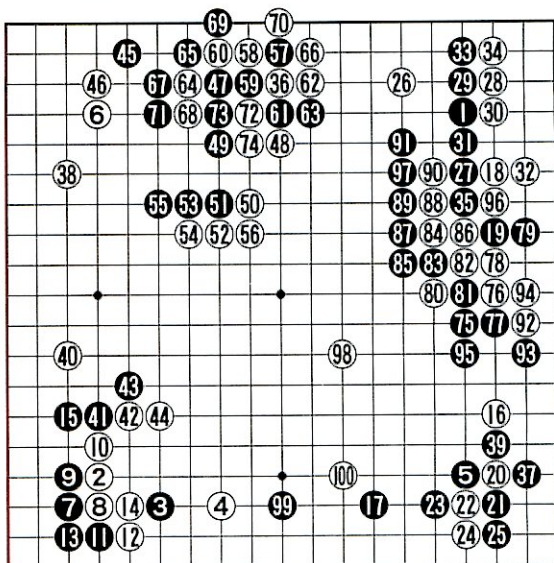
<제한시간 각5시간, 덤5집반,
'97. 3. 12, 한국기원 특별대국실>

<제1보>

흑23·25가 강수로 백의 응수가
곤란하다. 흑39까지 흑이 두터운
형세.

백48로는 74로 씌우고 싶다. 백
74까지 흑이 불만없는 모양.

백76은 승부수이나 흑97까지 두
터워 흑 우세.



제2보 101~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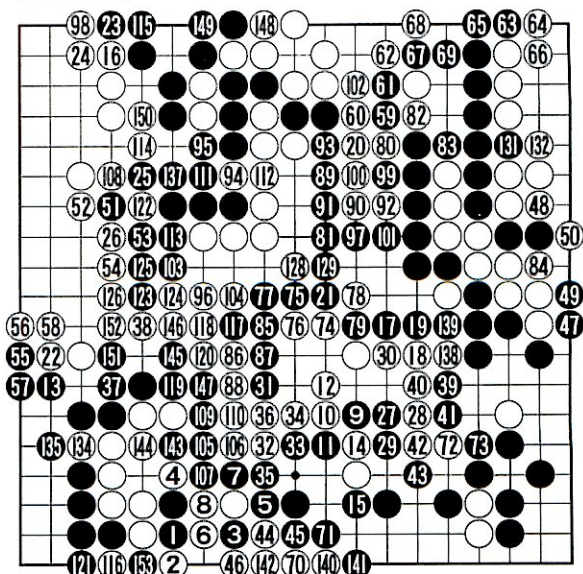
<제2보>

흑1 이하 흑7을 선수하고 흑9의
갈라침이 결정타로 흑승 결정.

흑 원승국.

127 133 151... 51 100 136... 122

155... 116



255수 끝, 흑 3집반승

제1보 1~100

백 九단 유 창 혁

(도전자·1승)

흑 九단 조 훈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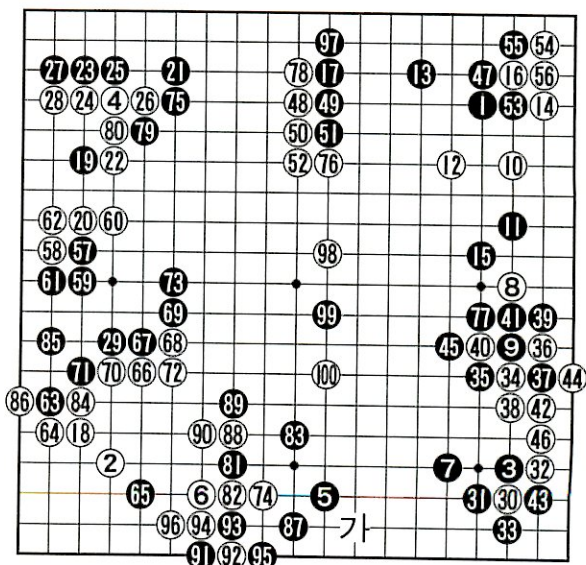
(패왕·1패)

〈제한시간 각5시간, 덤5집반,
'97. 3. 27, 한국기원 특별대국실〉

〈제1보〉

백34는 백점이나 백46까지 흑이
두터운 모양.

흑65가 과수로 백66 이하 72를
선수하고 백74로 크게 잡아 백 유
망. 백84·86이 실착. 백119, 흑가
백87로 둘 곳. 흑87이 큰 곳으로 형
세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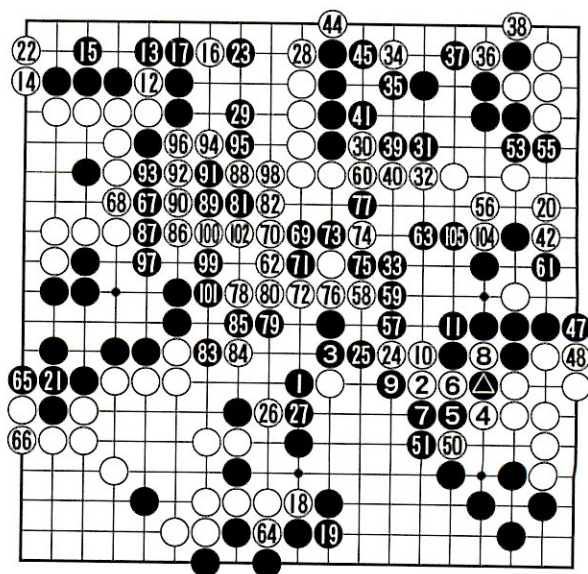
제2보 101~205

〈제2보〉

흑3이 승착으로 흑11까지 흑 우
세

흑69의 치중이 통렬. 흑101까지
백 대마가 죽어서는 승부 끝.

43 49 54...△ 46 52...⑧
103...69



205수 끝, 흑 불계승

제 1 보 1~100

백 九단 조 훈 현
 흑 九단 유 창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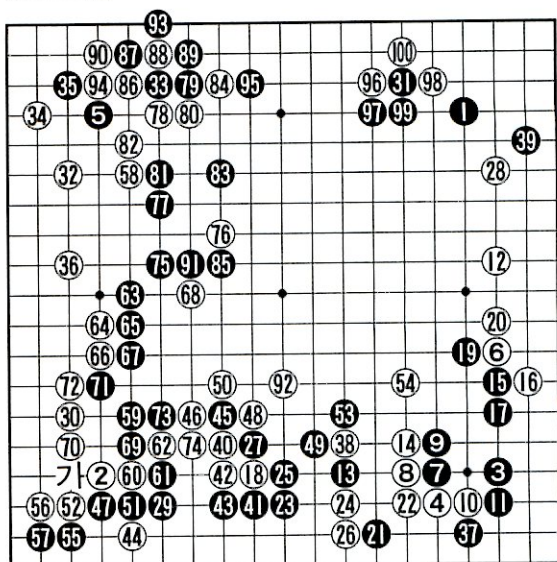
〈제한시간 각5시간, 덤5집반,
 '97. 4. 4, 한국기원〉

〈제1보〉

흑23이 호수로 27까지 흑이 편한 형세.

흑47은 백점. 흑49로는 가에 두는 수도 유력했다.

흑63의 삭감에 백68로 공격해 이 곳 수습이 승부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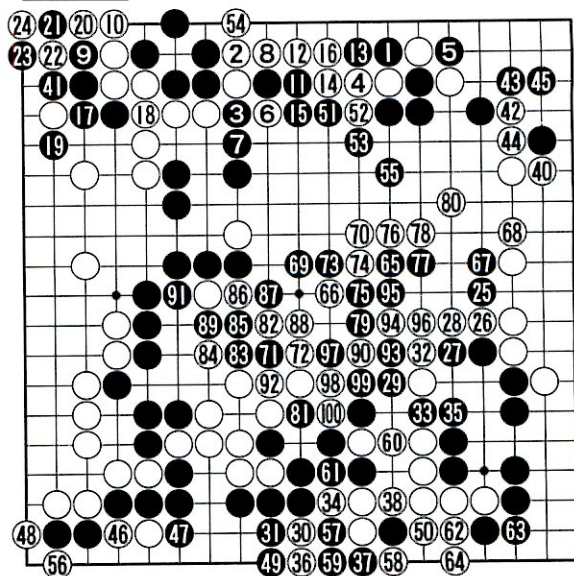


제 2 보 101~200

〈제2보〉

흑9는 승기를 놓친 수로 참고도 흑1 이하 15까지 단패를 했으면 흑우세였다. 흑23으로 패가 되어 흑45까지 되어서는 미세한 형세.

3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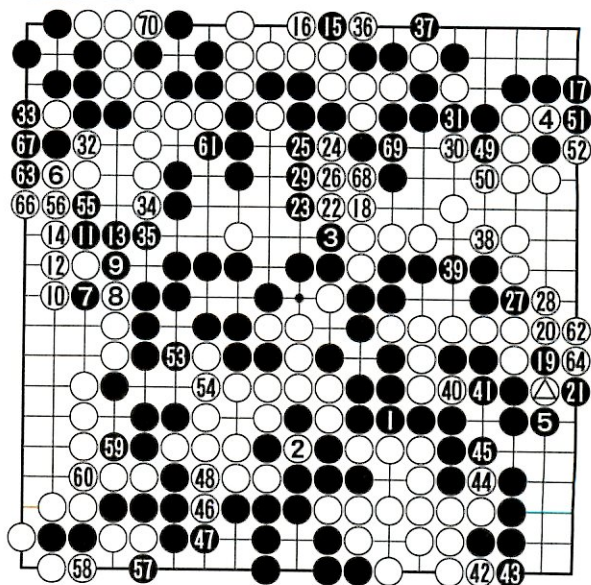
제3보 201~270

〈제3보〉

흑3이 패착. 4가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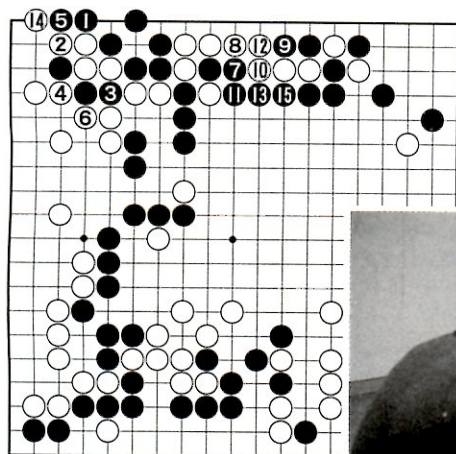
백14는 17에 져힐 곳.

65...△



270수 끝, 백 반집승

참고도





‘돌부처’, ‘강태공’,
‘신산(神算)’으로 회자되는 이 시대의
영웅, 이창호 九단. 바둑의 개념부터 천재의
정리까지 바뀔 놓은 청년 이창호 九단.

이번 II권은 I권에 이어
스승 조훈현 九단을 상대로
‘국수’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본격적인 국내 타이틀 사냥을 벌여
한국바둑 제1인자에 오르고
세계최강자 린 하이펑(林海峰) 九단을
꺾고, 세계바둑 정상에 오르는 한편의
드라마로 구성되었다.

이창호 九단의 자전해설에 바둑평론가 이인환 씨가
정리를 맡았으며 부록에는 ‘이창호론’이
견들여져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 대표기사 걸작선 3 이창호II

이창호 해설·이인환 정리/한국기원 발행
신국판·320쪽/정가 8,000원

월간『바둑』 자매지 제호공모 당첨자 발표

초중급 바둑팬을 위한 길잡이 월간『바둑가이드』!!

한국바둑의 총본산 (재)한국기원이 날로 늘어나는 바둑팬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일
자매지 제호를 ‘바둑안내, 길잡이’란 뜻의 월간 『바둑가이드』로 정했습니다.

월간『바둑』 창간 30주년에 즈음해 오는 7월말 8월호부터 선보일 초중급자 대상의 자
매지 제호를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619명의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었습
니다. 제호공모에 참여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공모자 중 『바둑가이드』란 제호를 보내주신 분을 추천해서 ‘특
선’ 1명을, 그밖의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에서 ‘가작’ 2명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시작적인 편집, 체계적인 강좌, 다양한 취재물로 꾸며질 새 바둑월간지 『바둑
가이드』에 초중급 바둑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특선(1명) : 이창호 九단의 친필휘호 고급바둑판 세트와 월간 『바둑가이드』 평생정기
구독 회원권

김인빈 : 전남 목포시 호남동 566번지 7/2

가작(2명) : 동양매직 정수기

이강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4-1 조종사A 마동 236호

이정재 : 대구시 중구 남산1동 687-37

바둑계 24시

「바둑계 24시」는 지난 한달간의 프로기전의
진행상황, 국내외 프로 및 아마바둑계
최신 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타이틀 보유자 현황



이창호 九단
왕위·배달왕·
기성·국수·명인·
국기·박카스배 천원전·
최고위·대왕·
동양증권배·후지쯔배·
TV바둑아시아선수권



유창혁 九단
테크론배·SBS배
연승바둑최강·
KBS바둑왕·
응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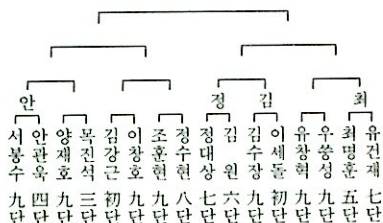


조훈현 九단
기왕·패왕·
비씨카드배

윤영선 初단
여류국수

제2기 테크론배 프로기전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테크론 : 유창혁 九단
LG-Caltex 정유 후원
<총규모 300,000,000> <우승상금 4,000만원>



제31기 왕위전

중앙일보사 주최 왕위 : 이창호 九단
<총규모 270,000,000> <우승상금 3,500만원>

	유	조	서	최	김	정	최	목	결과
유창혁 九단					○	×	×	×	1승 2패
조훈현 九단					○	○	○		3승
서봉수 九단					×	○	×	×	1승 3패
최규병 八단					○	○	×	×	2승 2패
김수장 九단	×	×	○	×					1승 3패
정대상 七단	○	×	×	×					1승 3패
최명훈 五단		×	○	○					2승 1패
목진석 三단	○		○	○					3승

제9기 기성전

세계일보사 주최 기성 : 이창호 九단
<총규모 160,000,000> <우승상금 1,800만원>

성명	최	조	안	유	윤	서	양	임	결과
최명훈 五단									
조훈현 九단									
안조영 三단									
유창혁 九단									
윤기현 九단									
서봉수 九단									
양재호 九단									
임신근 八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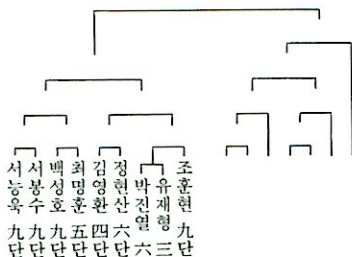
제4기 한국이동통신배 배달왕기전

한국경제신문사 한국PC통신 주최 배달왕 : 이창호 九단
<총규모 150,000,000> <우승상금 2,000만원>

	이창호 九단	조훈현 九단
1국	255수 끝, 흑 3점반승 ○	× '97. 3. 12, 한국기원
2국	'97. 3. 24, 한국기원 ×	○ 193수 끝, 흑 불계승
3국		
4국		
5국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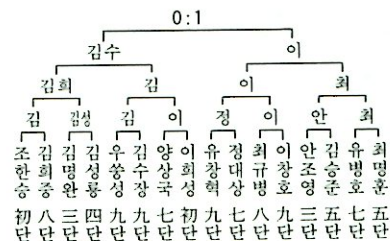
제41기 국수전

동아일보사 주최 국수 : 이창호 九단
<총규모 200,000,000> <우승상금 2,200만원>



제7기 비씨카드배

스포츠서울 주최 비씨카드 : 조훈현 九단
<총규모 130,000,000> <우승상금 1,100만원>



제32기 패왕전

서울신문사 주최

<총규모 100,000,000>

패왕 : 조훈현 九단

<우승상금 1,200만원>

	조훈현 九단	유창혁 九단
1국	'97. 3. 6, 한국기원 X	○ 281수 끝, 흑1집반승
2국	286수 끝, 흑불계승 ○	X '97. 3. 27, 한국기원
3국	270수 끝, 백반집승 ○	X '97. 4. 4, 한국기원
4국		
5국		
결과		

제2기 박카스배 천원전

스포츠조선 주최

<총규모 110,000,000>

선수권자 : 이창호 九단

<우승상금 1,100만원>

윤	김	김	목	최	최	이	김
권	윤	황	김	정	김	최	최
갑	현	일	대	대	동	만	만
용	석	환	상	현	중	수	희
六	八	八	七	九	八	六	八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제15기 대왕전

매일신문사 주최

<총규모 73,000,000>

대왕 : 이창호 九단

<우승상금 800만원>

이	유	이	서	김	서	최
성	제	세	봉	만	능	규
형	돌	돌	수	수	육	병
四	三	初	九	二	九	八
단	단	단	단	단	단	단

제5기 SBS배 연승바둑최강전

SBS 주최

<총규모 160,000,000>

선수권자 : 유창혁 九단

<우승상금 2,000만원>

	유창혁 九단	이창호 九단
1국	288수 끝, 백2집반승 ○	X '97. 3. 4, SBS
2국	'97. 3. 4, SBS X	○ 252수 끝, 백불계승
3국	261수 끝, 백1집반승 ○	X '97. 3. 25, SBS
결과	선수권 획득!	

제1기 유공가스배 신예프로10걸전

유공가스 주최

<총규모 100,000,000>

<우승상금 11,000만원>

A조	김	이정	박	이상	노	결 과
김영삼 二단		○		X	○	2승 1패
이정우 初단	X		X		○	1승 2패
박지훈 初단		○		○		2승
이상훈 四단	○		X			1승 1패
노준환 四단	X	X				2패

B조	양	안	최	이	김	결 과
양 건 四단		X		X	X	3패
안조영 三단	○		○		○	3승
최명훈 五단		X		○		1승 1패
이현욱 二단	○		X			1승 1패
김명환 三단	○	X				1승 1패

'97 한국기원 기사전적표 (4월 1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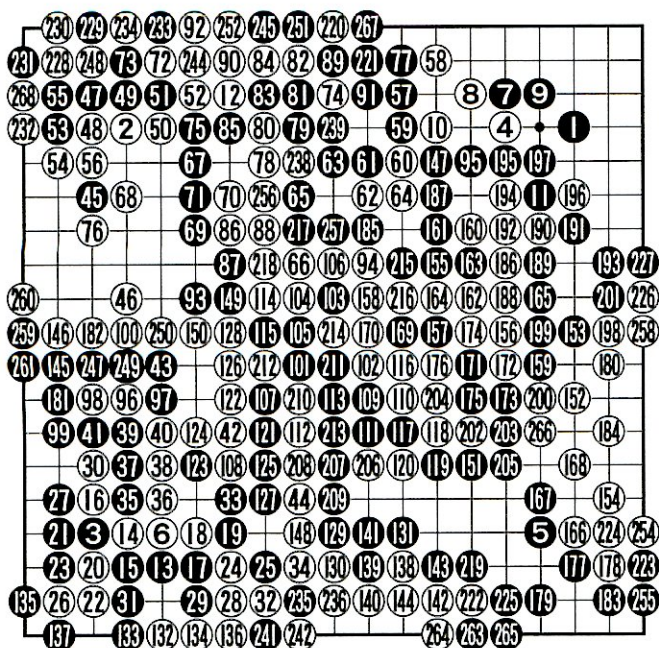
총143명 ○승 ●패 □빅 (괄호 안 숫자는 다승5)

단	기사	승 패	승률(%)
九	조남철	② ●	0
	김 인	③ ●	37.50
	윤기현	⑦ ●	63.63
	조훈현(2)	⑱ ●	76
	서봉수	⑨ ●	56.25
	장수영	⑩ ●	55.55
	백성호	⑥ ●	50
	서능욱(5)	⑪ ●	68.75
	김수장	⑤ ●	31.25
	강 훈	② ●	20
	양재호	⑦ ●	53.84
	유창혁	⑧ ●	40
	이창호(1)	⑳ ●	74.19
	우쑥성	② ●	33.33
八	김재구	② ●	40
	하찬석	●	0
	노영하	③ ●	30
	홍종현	⑦ ●	58.33
	김희중	③ ① ●	35
	정수현(3)	⑭ ●	70
	김일환	⑨ ●	75
	최규병(4)	⑫ ① ●	65.78
	황원준	⑧ ●	57.14
	허장희	⑥ ●	54.54
	임선근	⑩ ●	66.66
	조대현	⑦ ●	53.84
七	강철민	⑤ ① ●	45.83
	고재희	⑥ ●	50
	김수영	② ●	28.57
	유병호	① ●	14.28
	유건재	② ●	28.57
	천풍조	① ① ●	18.75
	전영선	③ ●	33.33
	양상국	④ ●	50

단	기사	승 패	승률(%)
七	이동규	② ① ●	31.25
	김덕규	⑤ ●	41.66
	김좌기	① ① ●	21.42
	문명근	④ ●	44.44
	홍태선	① ●	16.66
	강만우	② ① ●	27.77
	정대상	⑩ ●	52.63
六	최창원	① ●	16.66
	심종식	●	0
	이봉근	① ●	14.28
	권경언	① ●	16.66
	장두진	③ ●	37.50
	김학수		
	박진열	② ① ●	41.66
	권갑용	④ ●	44.44
	임창식	① ●	16.66
	박상돈	② ●	25
	이홍열	④ ① ●	34.61
	김동엽	⑨ ●	52.94
	김동면	⑨ ●	64.28
	오규철	③ ① ●	35
	김 원	⑥ ① ●	50
	정현산	⑦ ●	70
五	이강일	●	0
	김학수	●	0
	백홍수	② ●	28.57
	정동식	●	0
	김성훈	●	0
	이준학	●	0
	김윤태	① ●	14.28
	이상철	⑥ ●	60
	이기섭	② ●	25
	한철균	④ ① ●	50
	김승준	⑤ ●	55.55

단	기사	승	패	승률(%)
五	윤성현	②	⑦	22.22
	최명훈(1)	①⑨	⑨	67.85
四	김태현		⑥	0
	고재봉		②	0
	양건모		④	0
	염찬수	①	②	33.33
	강문철	②	⑥	25
	한상열	⑤	⑥	45.45
	박종열	③	④	42.85
	임순택	③	④	42.85
	나중훈	③	④	42.85
	문용직	⑤	④	55.55
	차수권	⑦	⑥	53.84
	김영환	⑥	⑥	50
	고광명	④	⑦	36.36
	이상훈	⑤	⑤	50
	윤현석	⑨	⑤	64.28
	노준환	⑦	⑨	43.75
	김성룡		②	0
	안관옥	⑦	⑥	53.84
	양 건	⑤	④	55.55
	이성재	⑧	⑧	50
	차민수			
三	윤종섭		⑥	0
	이형로	①	④	20
	이계훈	⑨	⑥	60
	공병주	②	⑦	22.22
	김종준	⑩	⑥	62.50
	김종수	④	⑥	44.44
	박승문	①	⑥	14.28
	이상훈	③	①	75
	김준영	⑨	④	69.23
	김기현	④	⑤	44.44
	장명한	⑤	④	55.55
	유재형(4)	①⑦	③	85
	안조영(4)	①⑦	④	80.95
	김명완	①④	⑤	73.68
	백대현	①③	⑥	68.42

단	기사	승	패	승률(%)
	목진석(2)	①⑧	⑤	78.26
	서무상	⑧	③	72.72
二	고광락		④	0
	조영숙	②	⑥	25
	박영찬	⑩	⑨	52.63
	김철중	⑦	⑤	58.33
	이관철	③	④	42.85
	김영삼	⑤	⑤	50
	김만수(2)	①⑧	④	81.81
	황 염	⑥	④	60
	김석홍	⑤	⑤	50
	조한승	⑫	④	75
	이현옥	⑬	④	76.47
初	남치형		⑥	0
	이영신	②	⑥	25
	윤영민	③	⑥	33.33
	김민희		⑤	0
	윤영선	⑤	⑦	41.66
	하호정	②	⑤	28.57
	이지현	②	⑤	28.57
	강승희		⑥	0
	이정원		⑥	0
	김태향	①	⑥	14.28
	현미진	④	④	50
	이세돌	⑬	④	76.47
	이희성	⑩	④	71.42
	권효진	⑫	⑤	70.58
	김강근	⑦	⑥	53.84
	권오민	③	⑤	37.50
	김효정	③	④	42.85
	한종진	③	⑤	37.50
	안달훈	⑤	③	62.50
	박지훈	⑧	③	72.72
	이정우	⑥	④	60
	홍꽃노을	④	⑤	44.44
	김성래	⑨	④	69.23
	강지성	⑨	④	69.23



제28기 명인전 본선 제2국

백二段 김 만 수
흑九단 서 능 욱

〈제한시간 각4시간, 담5집반,
'97. 3. 18, 한국기원
본선대국실〉

269수 끝, 백 12집반승

231 232... 233 240 245... 249
253 259... 151 255... 245
백 반패이음

제28기 유공배 명인전 김만수, 8강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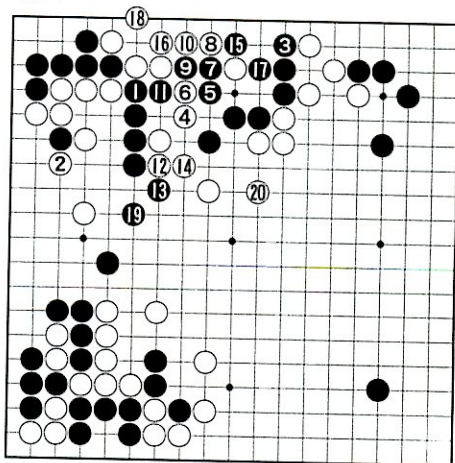
김만수 二단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3월 18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벌어진 제28기 유공배 명인전 본선1회전 제 2국에서 김만수 二단이 서능욱 九단을 맞아 200수 만에 백 12집반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현재 18승 4패(4월 10일 기준)의 성적으로 저단진 다승 2위에 올라 있는 김 二단은 유창혁 九단과 김승준 五단과의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겨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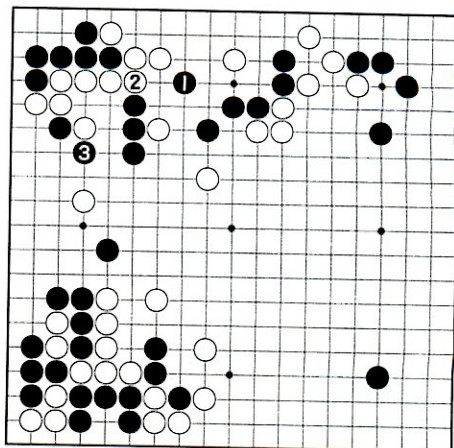
장면도 흑1은 과수. 백4가 호착으로 백20까지 두터워 백 유망의 국면. 참고도 흑1로

백2를 종용하고 흑3으로 수습했으면 무난했다.

장면도



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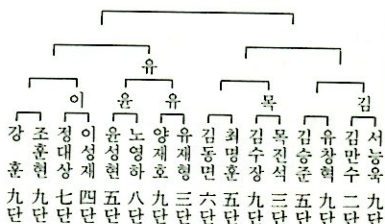
제28기 유공배 명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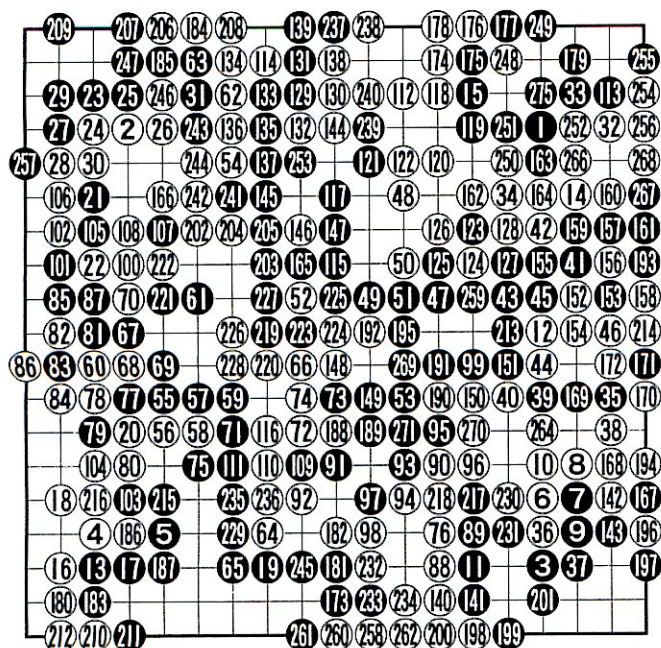
한국일보사 주최

명인 : 이창호 九단

<총규모 300,000,000>

<우승상금 4,000만원>





제15기 KBS바둑왕전 제29국

백 八단 정 수 현

흑 九단 장 수 영

〈제한시간 각30초 5회, 덤5집반,
'97. 2. 19, KBS〉

276수 끝, 백 7집반승

253 276...153 255...123
272...161 273...124 274...156

제15기 KBS바둑왕전

정수현, 승자조 결승까지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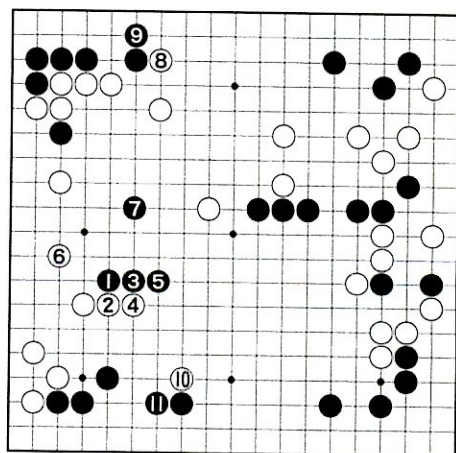
3월 15일 KBS별관 B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15기 KBS바둑왕전 승자조 준결승전에서 '바둑교수' 정수현 八단이 장수영 九단을 276수 만에 백7집반 차로 이기고 승자조 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정八단은 3월 31일에 열린 승자조 결승전에서 이창호 九단에게 불계패, 패자조로 밀려난 뒤 4월 9일에는 조훈현 九단에게 패자조 결승에서 또다시 패해 결승3번기 진출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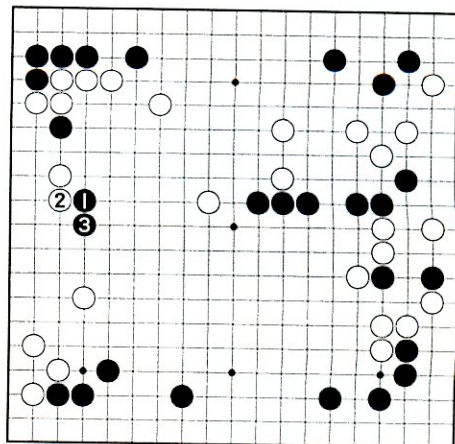
장면도 흑1의 착각은 나약한 수로 백6으로 실리를 챙기면서 백12까지 공격해서는 백

의 호조 참고도 흑1로 깊숙히 쳐들어가 승부하고 싶다.

장면도



참고도



제15기 KBS바둑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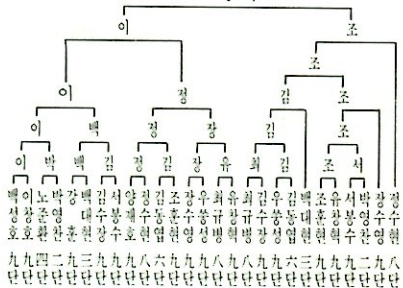
KBS 추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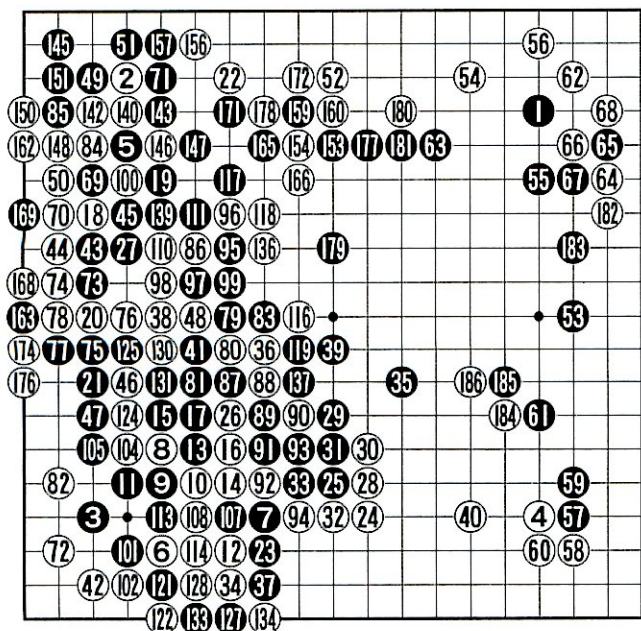
바둑왕 : 유창혁 九단

<총규모 960,000,000>

<우승상금 1,100만원>

0 : 1





제4회 롯데배
한·중 대항전 국내선발전

백 八단 홍 중 현

흑 四단 김 영 환

〈제한시간 각3시간, 텀5집반,
'97. 3. 28, 한국기원
본선대국실〉

186수 끝, 백 불계승

03 09 15 23 29 35 41...69
06 12 18 24 30 36 42...100
49 55 61 67 73...5
82 88 94 100 106...146

제4회 롯데배 한 중바둑대항전

홍종현, 대표선발 막차에 올라

3월 31일 한국기원 예선대국실에서 벌어진 제4기 롯데배 한·중바둑대항전 국내선 발전에서 중견기사 홍종현 八단이 김영환 四단을 맞아 186수 만에 백 계승을 거두고 마지막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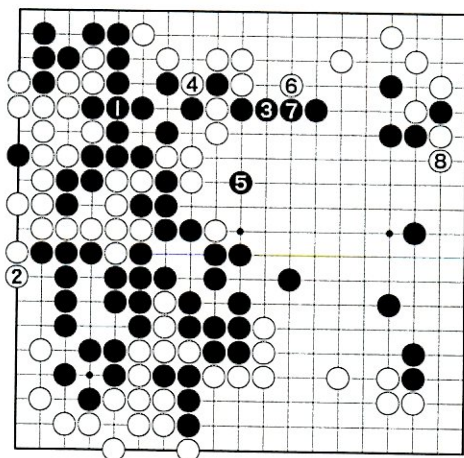
오는 9월 중국 상하이(上海) 시에서 열릴 롯데배 한·중바둑대항전은 현재 중국이 2승 1패로 앞서 있으며 한국은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유창혁·조훈현 九단과 홍종현·정수현·최규병 八단, 목진석 三단 등 7명의 기사가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장면도 흑1은 대착각으로 백2로 연결하여 승부가 났다. 뒤늦게 흑3·5로 지켰으나 회복 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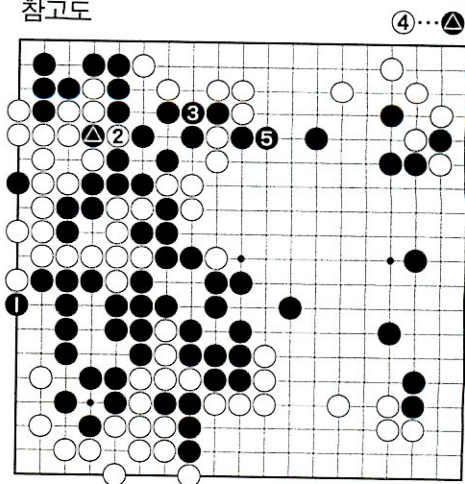
참고도 흑1로 받고 흑3으로 패를 계속했

으면 백4로 패를 해소할 때 흑5로 중앙집을 완성시켜 흑 유망의 국면이었다.

장면도



참고도



제4기 롯데배 한·중 바둑대항 선발전

국제신문사 주최

〈총규모 360,000,000〉

최		정		목		홍	
김	최	윤	정	목	강	홍	김
김종수	천봉조	김명환	최규병	이홍열	윤성현	박진석	정수현
三단	七단	三단	八단	六단	五단	三단	八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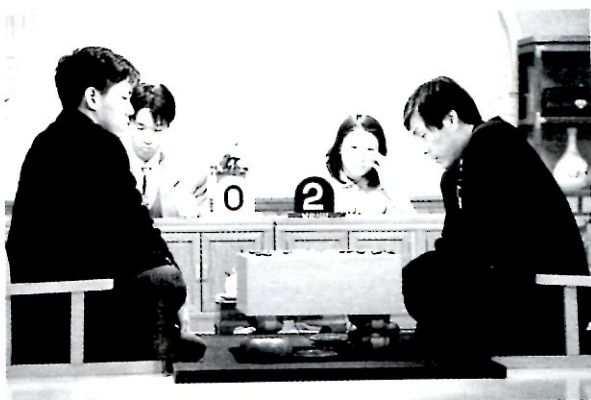
제15기 KBS바둑왕전

조훈현, 바둑왕이 보인다

조훈현 九단이 KBS바둑왕전 선수권 획득을 향해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4월 9일 KBS별관 B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15기 KBS바둑왕전 패자조 결승전에서 정수현 八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한 조九단은 이어 속개된 결승3번기 제1국에서 이창호 九단을 상대로 297수 만에 흑 3집반승을 거두고 서전을 장식했다.

한편 조훈현 九단은 이날 대국을 포함, 최근 11연승



을 기록하고 있는 등 패조의 권 쟁취가 유력해 보이고 있다.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선수 다.

제32기 패왕전

조훈현, 방어 1승 남겨

일진 일퇴, 패왕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4월 4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벌어진 제32기 패왕전 도전5번기 제3국에서 조훈현 九단이 도전자 유창혁 九단을 맞아 270수 만에 백 반집승을 거둬으로써 2:1로 리드하게 됐다.

이날 승리로 조九단은 유九단을 상대로 통산 전적 50승 1무 38패를 기록하게 됐다. 울들어 두 대국자 간의 첫 도전기 대결인 패왕전은



지난 31기 때 조九단이 이창호 九단으로부터 쟁취한 바 있다. (관련 기보 114쪽)

제7기 비씨카드배

이창호, 도전권 향해 순항

이창호 九단이 도전권을 향해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4월 4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벌어진 제7기 비씨카드배 도전자결정3번기 제1국에서 이창호 九단이 김수장 九단을 맞아 178수 만에 백 불계로 승리, 도전권을 눈앞에 두게 됐다.

현재 비씨카드배 타이틀 보유자는 조훈현 九단으로 지난 해 이창호 九단을 중



합전적 3:0 스트레이트로 꺾고 타이틀을 따낸 바 있다.

제4기 한국이동통신배 배달왕기전

조훈현, 1:1 추격 개시

1:1, 타이틀의 향방이 불투명하다.

3월 24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벌어진 제4기 한국이동통신배 배달왕기전 도전5번기 제2국에서 도전자 조훈현 九단이 이창호 九단을 상대로 19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1국의 패배를 실목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한편 2,000만원의 우승상금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이



단이 3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기보 110쪽)

(재)한국기원 정기이사회 개최



4월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66회 (재)한국기원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1일 임기 만료된 현재현 이사장을 만장일치에 의해 제13대 이사장으로 재추대

했다.

현재현 이사장(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93년 3월 제12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이번 연임으로 2001년 3월까지 직무를 맡게 됐다.

한편 김우중 총재(대우그

룹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정기 이사회에는 16명의 이사(7명 위임)가 참석해 96년 회계 연도 사업 실적, 결산 보고, 97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주바둑최강전 열려

3월 22, 23일 이틀간 경주시 노동동 중앙기원에서 제25회 경주바둑최강전이 열렸다.

지역 내 4급 이상 기력자 3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김세권 5단이 우승을

차지,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이 대회는 경주 지역 아마 강자를 집중 육성해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목적으로 경주 최강자회(회장·김기열)가 주최하고 경주 기우회가

주관해 이루어졌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1~4위순)

■ 김세권, 김대웅, 정새원, 윤상준, 김상한(감투상)

제73회 승단대회

김좌기 六단 등 5명 승단



김좌기 七단



장명한 三단



백대현 三단

김좌기 六단을 비롯 5명의 기사들이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3월 21일 한국기원에서 벌어진 제73회 승단대회 갑조 제2국에서 김좌기 六단은 강만우 七단과 무승부를 기록, 총 30국의 대국을 통해 총점 1,960점, 평균 65점으로 구체(具體, 七단의 별칭)에 올랐다.

또한 장명한 二단은 같은 날 벌어진 을조 제2국에서 남치형 初단에게 승리, 총 17국, 총점 1,230점, 평균 72점으로 승단했으며, 백대현 二단은 3월 20일 벌어진 을조 제1국에서 이영신 初단에게 승리, 총 12국, 총점 900점, 평균 75점을 얻어 三단으로 승단했다.

한편 서무상 二단은 을조

제1국에서 이계훈 三단을 꺾고 총 11국 중 총점 870점, 평균 79점의 성적으로 三단이 됐으며, 조한승 初단은 을조 제2국에서 하호정 初단에게 승리, 총 12국, 총점 900점, 평균 75점으로 약우(若愚, 二단의 별칭)에 올랐다.

경남지사배 공무원대회 성황

3월 15일 경남 도청 도민홀에서 제3회 경상남도지사배 공무원바둑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내 시·군을 대표해 3인 1조로 구성된 36개팀이 참가, 단체전으로 치룬 이날

대회 우승은 거제시청을 꺾은 진주시청에게 돌아갔다.

경남도청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장에는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참관했으며 박진열 六단을 초청, 지도다면기 행사를 가졌다.

다음은 입상팀 명단(1위 ~3위순)

■ 진주시청, 거제시청, 경남도청, 김해시청·마산시청(감투상)

서봉수 九단, 기자단 초청 만찬회

4월 8일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한식당 「신라」에서 서봉수 九단의 주최로 기자단 초청 만찬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난 2월 제 5회 진로배에서 9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서九단이 평소 취재와 보도에 힘써준 기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박치문(중앙일보) 전문위원, 이흥렬(조선일보) 부장, 신병식(SBS) 부장, 임형두(연합통신) 차장, 이승일



(진로) 차장, 오택식(매일경제) · 정충신(문화일보) 기자 등 각 신문 · 방송사 관계

자들이 자리해 만찬을 즐겼다.

산본지원장배 어린이대회 열려

3월 15, 16일 이틀간 경기도 군포시 (재)한국기원 산본지원(지원장 · 김동호)에서 산본지원장배 어린이바둑대회가 열렸다.

산본어린이바둑교실협회(회장 · 노상수)와 군포시의회 유삼중 의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한편 산본지원 지도사범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준
五단이 참석, 지도다면기와

사인회 등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삼성화재배 아마예선-아마바둑최강전 개막

4월 7일 한국기원 예선대 회장에서 제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에 출전할 아마추어 기사를 선발하기 위한 삼성화재배 아마예선-아마바둑최강전 제1회전이 열렸다.

지난 해 전국 규모 아마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24명의 아마강자를 초청해 치르는 이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오는 6월경 개최될 제2회 삼성화재배 1차예선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회 대회 2차예선부터 외국 기사(아마추어 2명 포함)에게 오픈해 판관을 일으킨 삼성화재배가 이번 대회부터는 국내 아마추어에게도 문호를 개방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중앙일보, 문화방송, 유니텔이 공동 주최하고 (재)한국기원이 주관하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후원해 5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에 걸쳐 치러질 이번 대회에는 200만원의 우승상금이 걸려 있으며 매판 10만원(지방 기사 20만원)의 대국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대국은 각자 5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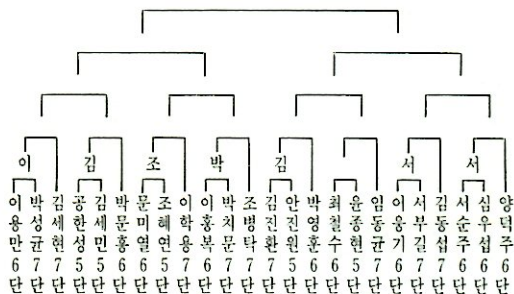


진행되며 이 중 10국을 선정해 문화방송이 녹화 방송한다.

한편 대회일 오후 12부터는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선

수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삼성화재초청 패이바둑최강전 시상식이 열렸다.

삼성화재배아마예선-아마바둑최강전 대진표



탐라배, 전국으로 확대 개최

아마추어를 위한 제주도 최대의 바둑 잔치, 탐라배가 성황리에 마쳤다.

3월 15, 16일 이틀간 탐라기우회 주최와 (재)한국기원 주관, 제주일보사 후원으로 제주일보사에서 열린 제5회 탐라배 바둑대회에는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특히 최강부라 할 수 있는 탐라배부는 지난 대회까지 지역 도민에 한해서만 출전권을 주었던 것에 반해 이번 대회부터는 참가 대상을 전국으로 일부 확대, 전국의 아마강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김동근·조민수·이문희·서부길·박성균·김동섭 7단 등 아마정상급 기사들이 겨룬 탐라배부 우승은 수년 전부터 제주 어린이 바둑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한성 5단이 심우섭 7단을 꺾고 차지했으며 박순천·최진복 5단이 공동3위에 올랐다.

우승자에겐 상패 및 부상 1백만원이 수여됐고 동호인조, 아동부까지 시상이 됐다.

한편 장수영 9단이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탐라기우회 홍성칠 회장이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인근 한식집으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다.

현재 제주 지역은 아마기사가 3개 초등학교에서 초빙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아마기사들의 어린이 바둑보급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제5회 탐라배 바둑대회 대진표

공한성															
공								심							
공				최				심				박			
공	강	김	최	오	심	박	박	공	강	김	최	오	심	박	박
공	김	고	강	임	김	최	박	오	김	오	심	김	박	안	박
한	동	성	경	희	준	진	인	행	태	경	우	영	성	병	순
성	근	종	호	철	식	복	구	조	균	환	철	집	균	학	천
5	6	5	5	5	5	5	5	5	5	5	6	5	7	5	5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LG전선·히타치, 도쿄서 교류전 가져

30년 가까이 합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LG전선과 일본의 히타치(日立)전선이 바둑교류전을 가졌다.

4월 5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LG·히타치 바둑교류전에는 양사에서 각각 16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3회전을 치른 결과 24승 1무 23패의 성적으로 LG전선팀이 신승했다.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1차 교류전에서는 LG전선이 26승 4무 18패로 압승을 거



둔 바 있다. 한편 기우회 지도사범인 백성호 九단이 동

행해 선수지도 및 다면기 행사를 가졌다.

박영진 7단, 일심배 우승차지

3월 15, 16일 이틀간 부산시 푸른기원과 태양기원에서 영남 지역 바둑애호가 1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일심배 부산아마바둑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부산 지역 바둑모임인 일심회 주최·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 우승은 결승에서 조병탁 7단을 누른 박영진 7단에게 돌아갔다.

한편 일심회 지도사범인 김준영 三단이 심판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종준 三단과 함께 결승전을 공동 해설해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우승자 박영진 7단에게는 200만원의 우승상금과 상패가

수여됐고 8위 입상자까지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됐다.

박병규·이영구, 세계청소년 대표로 뽑혀

박병규(16세·대원고1) 군과 이영구(10세·동작초 등4) 군이 4월 12, 13일 이틀 간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제14회 세계청소년바둑선수권대회 국내선발전에서 각각 시니어부와 주니어부 대표선수로 뽑혔다.

각 부문별로 12명씩, 총 24명이 참가한 이날 선발전은 6명 2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치른 뒤 본선토너먼트를 통해 대표선수를 가렸다.



두 사람은 오는 8월에 대만에서 개최될 세계청소년

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제2회 어린이 승단·급 심사대회

4월 13일 보라매공원에서 제2회 어린이 승단·급 심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재)한국기원과 전국바둑교실협회 주최·주관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분할 실시됐으며 서울 대회가 열린 보라매공원에는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평소 연마한 기량을 평가받았다.

심사는 실기와 필기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심사위원



장인 박종열 四단을 포함, 임동균·김동섭·박성균·김진환 7단, 심우섭 6단 등

아마강자들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비씨카드 어린이대회, 전국 순회 개최



전국에 비씨카드 어린이 바둑대회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비씨카드사 후원으로 마련된 제1회 비씨카드 통일꿈나무 어린이바둑대회가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을 순회하며 개최, 전국에 어린이 바둑붐을 일으키는 데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3월 30일 전남 광주시 효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대회에는 이 지역 93개 초등학교에서 총 53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날 대회장에는 구선희 비씨카드 상임감사, 박종철 비씨카

드 상무이사, 김정열 전바협 광주·전남지부장 등 내빈이 참석했으며 오규철 六단이 지도다면기 행사를 가졌다.

3월 23일 부산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부산지역대회에는 628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이요섭 비씨카드 전무이사, 김철중 전바협 부회장이 자리했다. 한편 김종준·김준영 三단이 참석해 지도다면기 행사를 가졌다.

광주·전남지역대회 입상자 명단(1~3위순)

- 5·6학년부 : 온소진, 임성철, 나진주
- 3·4학년부 : 노진수, 김

준영, 정석용·김수용

■ 2학년부 : 박성훈, 김황영, 조영남·김은성

■ 1학년부 : 오택준, 반인준, 윤찬희·임채준

■ 유치부 : 류민형, 조태환, 김희영·정준호

부산지역대회 입상자 명단(1~4위순)

■ 고학년부 : 김태은, 이정민, 배성준, 윤태호

■ 중학년부 : 지재일, 최원석, 정현철, 강병욱

■ 저학년부 : 이동현, 장성원, 최태혁, 지재섭

■ 여학생부 : 이하나, 김지예, 구나영, 허지영



박성균, MBC타고 육일승천



박성균 7단이 대구MBC배에서 우승, 94년 학초배 이후 3년 만에 전국정상을 밟았다.

3월 29, 30 양일 간 전국의 아마강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동양투자신탁 2층 대강당에서 열린 '97 대구MBC배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박성균 7단이 조병탁 7단을 246수 만에 백 5집반승으로 일축, 우승상금 300만원과 우승컵을 받았다.

박7단은 93년 세실배·96년 덕영배 결승전에서 조7단과 만나 두 번 모두 우승을 양보했으나 이 대회에서 그 동안의 빛을 돌려주었다. 조7단은 97년 들어 국수전, 아마10강전, 일심배에 이어 이날도 준우승에 그치는 불운을 보였다.

—먼저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3년 만의 우승인데 감회는 어떠신지?

물론 기쁩니다. 조7단과는 그동안 결승전에서 몇 번 만났지만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징크스… 같은 게 있나… 생각 했는데, 조7단을 결승전에서 처음 꺾었습니다. 대구 대회에서 처음 우승해 더욱 기쁩니다.

—대구로 오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요?

열차 안에서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내용 위주로 열심히 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승을 가장 기뻐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덕영배의 후원자인 나덕중 사장(덕영건설 대표)입니다.

—프로로 입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근 아마추어 동료였던 김성래 初단의 입단을 대단하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무척 고마웠습니다. 연구생이 아닌 일반인 아마추어의 위상을 제고시킨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경우에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입단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나이 어린 인재들이 많이 입단하여 한국바둑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프로기사는 누구입니까?

조남철 九단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한국바둑의 뿌리는 무척 빈약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동균 7단과 박희재 6단은 노장의 저력을 과시하며 공동 3위에 입상했다. 한편 한국에 바둑유학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디네스타인 군(17)과 스베틀라나 쉼쉬나 양(17)은 예선리그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으나 본선 토너먼트 1회전에서 탈락, 한국바둑의 매운 맛을 실감했다. 또한 97년 아마10강전 우승자인 박영훈(11) 군이 8강까지 올라 최근의 성적이 결코 '운'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박지은(14) 양이 김세현 7단·심우섭 6단을 제치고 16강에 올라 '우먼파워'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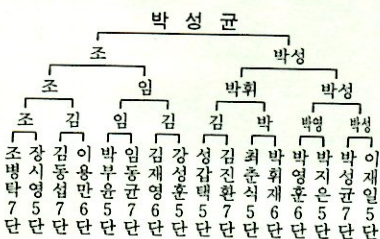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려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29일 오후 4시부터는 천풍조 七단과 강만우 七단의 지도다면기가, 30일 오후 2시부터는 1회(74년) MBC배 참가자인 유창형 九단과 영남 지역의 고수인 하찬석 八단, 강七단이 아마추어 바둑팬들을 위한 지도다면기를 가졌다. 곧

이어 5시부터는 유九단과 하八단의 공개해설이 벌어져 대구지역 바둑팬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바둑팬들은 4월 5일 3시 50분부터 약 한시간 동안 방영된 『특집』 '97대구 MBC배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PD 이청배)를 대구 MBC통해 이날 바둑을 감상했다.

〈구승준 기자〉

'97 대구 MBC배 본선 16강 대진표





임진영, 대학강호에서 직장강호로

대학강호 출신의 임진영 씨(한맥유니온)가 직장최강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92년 대학패왕전에서 우승, 대학강호로 위명을 떨쳤던 임진영 5단이 제3회 전국직장인바둑최강전 결승에서 역시 90년 대학패왕전에서 우승했던 대학강호 출신의 박태순 5단(공연윤리위원회)을 285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 3집반승을 거두고 직장대회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임진영 씨는 지난 세실배 16강에 올랐던 유충균(한성과학고)·이시연(삼양사) 5단 등 직장강호들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임진영 씨는 그동안 직장단체전인 후지쓰배, 총재배 등에서 우승하기는 했지만 직장개인전에서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여 3월 12,

13일 이틀간 전국의 직장고수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이번 전국직장인바둑최강전은 직장바둑의 저변 확대 및 순수아마바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4년 창설된 국내 유일의 직장바둑개인전. 그동안 우승자에게 아마5단증을 수여했으나 이번 대회부터 전국대회로 격상, 일반대회와 같은 아마6단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우승한 임진영 씨는 아마6단증과 함께 우승상금 150만원을 수여받았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직장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예선전부터 계시기를 사용하여 제한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계시기 사용에 익숙한 3위 채영석 5단(한진여행사, 88년 대학패왕전 4위), 4위 이시연 5단(85년 KBS바둑큰잔치 대학부 준우승) 등 대학강호 출신들이 대거 입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됐던 아마강호 김세현 7단(대우)은 13일 본선1회전에서 대국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시간패당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노장 은동기 씨(중도일보사)는 8강까지 진출, 노익장을 과시했다.



임진영 6단

“순수아마추어로 남겠다”

—우승을 축하한다. 소감은?

“대학 졸업 이후 직장단체전에서는 몇 번 우승했지만 개인전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척 기쁩니다. 특히 제1, 2회 대회에서 연속 8강에 머물렀는데 막혀 있던 것이 뚫린 기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고비가 있었다면?

“결승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전에 하마터면 예선탈락의 고배를 마실 뻔했습니다. 막판에 지면 3자동물로 추첨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다 진 바둑을 반집 이겨 고비를 넘겼습니다.”

—평소 바둑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주말에 신촌기원에 나가 바둑을 두는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지난해 입단한 김성래 初단, 아마강호 양덕주 6단 등 강호들이 많아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바둑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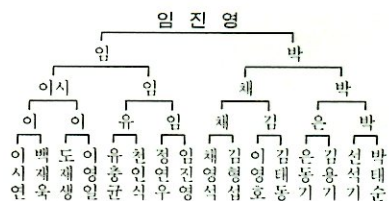
“처음에는 직장바둑강팀인 해동화재에 입사했다가 서울방송, 그리고 한택유니온에서 바둑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둑에 대한 포부가 있다면?

“특별히 없습니다. 직장에 충실하며 순수 아마바둑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취재·인터뷰/이성구 기자〉

제회 전국직장인 바둑최강전 대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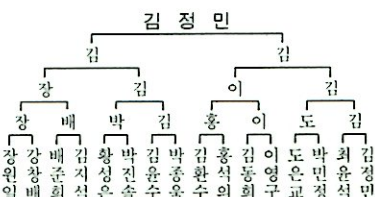
성준배 전국어린이 바둑선

15~16 최:김성환 회장:(재)한국기원,한국기원



김정민,
김성준배에서
활짝 웃다

제5회 김성주배 어린이 비둘기대회(본선 16강 대진표)



김정민 군(11·개봉초등 6년)이 김성준
배를 안고 활짝 웃었다.

3월 15·16 양일 간,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예선을 거치고 한국기원 강동지원에서 본선을 각각 치른 제5회 김성준배 전국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에서 김정민 군(사진 앞줄 오른쪽 끝)이 김윤수 군(11·이수초등 6년)을 맞아 234수 만에 흑 반집승을 거뒀다.

이로써 김정민 군은 우승상패와 함께 100만원의 장학금을, 김윤수 군(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은 50만원을 각각 받았다.

우승을 차지한 김 군은 96년 해태배에서 16강에 오른 후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단숨에 스타로 부상했으며 준우승의

바둑상사병에 걸린 김정민 군

김정민 군의 우승 뒷얘기는 아주 각별하다. 7살 때 친구를 따라 우연히 들른 바둑교실에서 바둑을 처음 접한 김 군은 1년 만에 3급이 되었다. 김 군의 기재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아이가 바둑을 너무나도 좋아하자 부모님은 바둑으로 빠지는 것을 저어하기 시작했고 김 군은 머리,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 몇 년 동안 순천향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들은 병명조차 모르더라는 것. 바둑공부를 제대로 못하자 욕구불만이 신체적 질병으로 전이된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본격적으로 바둑을 가르치자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으며 성격 또한 명랑하게 바뀌고 있다고 한다.

우승을 축하해요. 바둑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바둑교실(한국기원 광명지원·영재바둑

교실)에서 하루 5~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현현기경, 발양론, 기경중요를 보며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원 연구생리그에도 참가하고 있구요.”

어머니(목갑선)에 의하면 김 군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바둑공부를 하며, 바둑교실을 못 가게 하면 울음부터 터뜨린다고 한다.

오늘 바둑은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초반에 바둑을 많이 그르쳤지만 중반 이후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기사가 이창호이고요. 원래 초반보다 중반 이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있다면?

“전문기사로 입단해서 바둑을 평생 두는 것이 꿈입니다.”

광명지원장 설인후 씨는 “단기적으로는 일반인 대회에 참가시켜 스파링을 시킬 예정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입상권에 들지 않을까요?”하고 말한다.

김윤수 군은 32강전에서 강호 조혜연 양(11·수원 정자초등 6년)을 꺾는 등 파란을 일으켰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3·4위전에서는 이영구 군(9·동작초등 4년)이 장원일 군(10·인천 백학초등 5년)을 맞아 169수 만에 백 8집반승으로 제압, 3위에 올랐다.

불의의 사고로 요절한 아들 김성준 군을 기려 장학기금을 적립, 김성준장학회(회장 김동선)가 주최하고 (재)한국기원이 주관한 이 대회는 촉망받는 기재를 가진 어린이들을 발굴하고 전국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취지로 93년 첫발을 디딘 이래 올해까지 제5회째를 맞고 있다.

개회식 자리에 특별히 참석한 조남철(한국기원 명예이사장) 九단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바둑을 이끌어 나갈 동량임을 의식하고 열심히 기도에 정진한다면 제2의 이창호가 나올 것”이라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예절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대회는 96년도 전국규모 어린이대회 32강 입상자와 오리온배, 이봉배 우승·준우승자, 해태배 단체전 우승팀, 한국기원 2군 등 전국의 어린이강자 64명을 초청해 예선 각조 4명 풀리그, 본선토너먼트로 치렀으며 심사위원은 정대상 七단, 이계훈 三단이 맡았다.

〈구승준 기자〉



여류국수·국회의원, '19로 성대결'

연맹 수원 지부 창립 총회 열려

여류국수와 국회의원이 만나 흥겨운 바둑 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3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열린 제1회 여류국수·국회의원 친선 바둑대회에는 공식대국 선수와 번외경기 선수, 국회 관계자 등을 포함, 70여명이 자리해 수담을 통한 훈훈한 오후를 보냈다.

바둑TV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바둑연맹이 주관하며 힐라코리아(주)가 후원해 열린 이날 대회 대회장장을 맡은 신상우 장관(해양수산부)은 축사를 통해 “반상에는 춘추필봉(春秋筆鋒)으로도 다하지 못할 오만가지

조화가 담겨 있어 정치인들이 웅대한 구도를 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바둑의 이점을 언급한 뒤 “착박한 국회에 아름다운 여류국수님들이 방문해 주어 기쁘며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바둑 보급에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단에 오른 이정무 의원(자민련 원내총무)이 “정치인들이 모두 바둑을 둘 줄 안다면 오늘날 우리 정치 판도가 크게 달라졌을 것. 오늘 모처럼 지역구인 대구에 내려갔다가 바둑을 둔다고 해서 서둘러 상경했는데 의원직을 맡은 후 오늘처럼 마음 편히 국

회 정문을 들어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 기도.

한편 마지막으로 강단에 선 박희태 의원(신한국당 원내총무)은 “평소 여야로 나뉘어 싸우던 우리가 오늘은 여류국수님들을 맞아 단결해야 할 때”라며 “대변인 시절 정치적 표현에 바둑 용어를 많이 써 먹기도 했는데 특히 지금 정치 9단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단을 인허해 준 것”이라 말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벌어진 공식 대국에서는 김해순·김영·서진주 씨 등 전 여류국수들이 이끈 여류국수팀이 이양희·신기남·신상우·이수인·안동선 의원 등이 참가한 국회의원팀을 종합성적 7승 1무 2패로 이겼다. 한편 공식 대국과는 별도로 한일랑 여성바둑연맹 회장, 조영숙二段, 이인제 경기도지사, 김경재 의원(국민회의) 등이 참가한 가운데 번외경기가 치러졌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이옥순 여성연맹 부회장은 “대회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애써 주신 이원복 의원(신한국당)과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성연맹 고윤정 어린이부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교류전을 매년 또는 격년제로 실시, 좋은 뜻을 계속 살려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대회장에는 평소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조훈현·서능욱 九단이 참석해 지도도다면기를 벌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류국수·국회의원 친선바둑대회 기선수명단

공식대국선수

·여류국수팀 : 김해순·김영·서진주·윤

성혜·김선희·정애경·고형옥·곽계순·고윤정·안윤희 5단

·국회의원팀 : 신상우(해양수산부) 장관, 김학원·박희태·원유철·이원복·이재명(이상 신한국당)·신기남·안동선(이상 국민회의)·이양희(자민련)·이수인(민주당) 의원

번외경기선수

·여류국수팀 : 한일랑(여성연맹회장), 신덕순, 신용주, 야마자키 후미코(山崎史子), 조영숙 二段, 이후자 5단

·국회의원팀 : 김기춘·변정일(이상 신한국당)·김경재·이상수(이상 국민회의)·이정무(자민련) 의원, 이인제(경기도지사)

수원 지부 창립 총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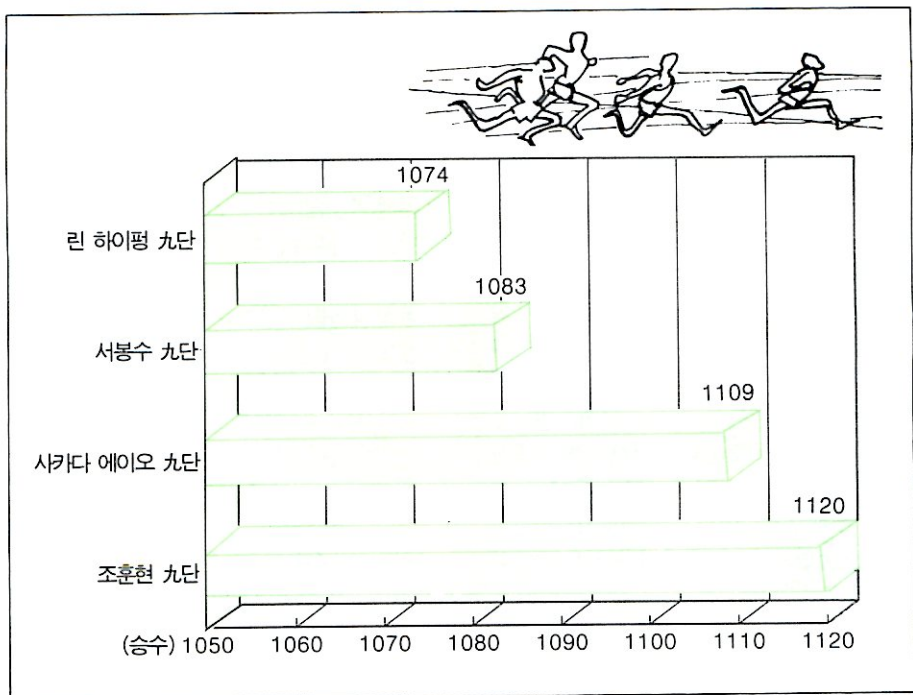
3월 29일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여성회관 강당에서 한국여성바둑연맹 수원지부 창립총회가 열렸다.

수원지부의 회원은 약 60여명으로 지난 95년 여성회관에 바둑과가 개설된 이후 수료생 들끼리 모임을 가져오던 중 이번에 정식으로 연맹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여성회관 바둑과 강사를 맡아 오며 수원지부 창설에 큰 역할을 담당한 정우영(한국기원 수원지지원장) 씨는 앞으로 수원지부는 분당, 안양, 산본 지역 등을 포괄해 한국여성바둑연맹의 산하 단체로 창설될 예정인 경기도여성바둑연맹의 일원으로 경기도 지역 여성바둑보급에 앞장서 나가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장에는 평소 수원 지역 바둑보급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유병호 七단이 자리했다. (양형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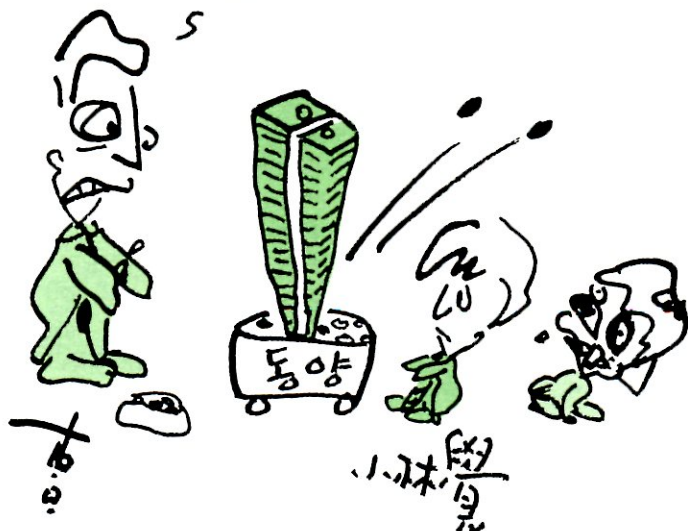
세계 최다승기록



세 계에서 가장 많이 이긴 기사는 누구일까?
 조훈현 九단이 지난 3월 9일 열린 제8기 동양증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김영환 四단을 이김으로써 1,110승 1무 391패를 기록(일본 유학시 기록은 제외), 이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던 일본의 사카다 에이오(坂田榮男) 九단(1,109승 16무 628패)을 1승 차이로 따돌리며 세계 최다승 기사가 됐다.
 4월 9일 현재 조훈현 九단은 1,120승 1무 392패로 갈수록 2위와의 격차를 벌이고 있으며 사카다 九단(1,109승 16무 629패)의 뒤를 이어 서봉수 九단(1,083승 3무 586패)과 린 하이펑(林海峰) 九단(1,074승 3무 621패)이 차례로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 박수동 주파수 ❖

님살
명화야!
네 우편수를
가르아주마!



“아닙니다. 스승님도 목돈 한번
만져 보시라고……”

바둑
월간

광고부 직원채용

같이 일할 파트너 두분을 찾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월간『바둑』의 멋진 얼굴이 되실 적극적인
성격의 지망자는 연락 주십시오.
남녀 불문하고 용모단정한 전문대졸 이상자로서
운전이 가능하면 환영합니다.

문의 : (전화) 3661-2750

광고부장 김 중 섭



하수들이란 게 원래 그렇다. 중국의 패자(覇者) 마 사오춘(馬曉春)도 이창호 앞에서는 벌벌기는 하수다. 영업부의 이석주 과장(무리수회 회장)만 해도 동네기원에 가면 모두들 그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지만 한국기원에서는 마냥 ‘봉’일 뿐이다. 한점이라도 센 상수가 있으면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비굴하게(?) 몸 사려야 하는 게 하수의 설움이다.

하늘같은 프로그사과 ‘바둑병기’ 연구생들, 그리고 갱1급인 관전필자들이 득시글거리는 한국기원. 그곳에 무리수 던지길 밥먹듯 하는(?) 이들이 있다. 이름하여 ‘무리수회’. 회의하고 조직표 그리고 회비건어 시작한 게 아니다. 머리 맞대고 바둑두다 보니 어느덧 태어나 있었다. 물론 당시 사업부에 근무하던 임동균 7단도 크게 일조하였다. 그 즈음이 95년 가을, 바둑광대회가 있다면 나가 봄직한 인물들(영업부의 신대섭 대리라든지 출판부의 박정호 주임 등)이 ‘기원결의(棋院決議)’ 하고 ‘목욕계계’하여 리그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모인 인물들이 약 20여명. 출판부, 사업부, 영업부, 보급부, 홍보팀, 기사실, 매장까지 모든 부서의 요석들(?)이 뭉쳤다.

이들은 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알짜배기들이다. 첫 번째는 ‘검손계’. ‘내가 아마 몇 단이네’ 하고 까불어 봐야 위층에 이창호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검손해질 수밖에 없다(참고로 한국기원 사무국은 3층, 주요 도전기가 열리는 특별대국실은 바로 위층인 4층이다). 자신이 하수임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둑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원에서 근무하니 오죽하겠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계 정답이다. 일이 밀려 며칠 동안 바둑 한판 못 두는 날이면 빈 속에 깡소주 먹듯 쓰러진 심정을 아는 이들은 안다.

여직원들이 많은 활약을 하는 곳이 또한 무리수회다. 한국기원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바둑을 못 둘 리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모두 새까맣게 깔고 배우는 수밖에 없다. 덕분에 오목만 두던 그녀들도 오로지력에 중독됐으니.

이들은 두달 쫓돌 돌아가면서 리그전을 치르고 각 리그전 우승자끼리 왕중왕전도 치른다. 이관진(5단·홍보팀 팀장), 정동환(3단·해외부 주임) 사범의 고급, 중급반 강지도 잘 나가고 있다. 게다가 한국기원 안에서만 두는 것도 모자라 올 봄에는 바둑판을 짊어지고 야유회도 갈 계획이란단다.

나중이라도 잊지말자. 한국바둑의 한면은 사무국의 바둑광들이 젊어지고 있음을. 바둑광이 아니면 못할 고된 업무를 달갑게 젊어지는 이들이 있음을… (글/구승준 기자·사진/이혜성 기자)

내일은 나도 상주

한국기원 '무리수화'



① 권진원 ② 이판진 ③ 김경동 ④ 차재호 ⑤ 양형모 ⑥ 이석주(회장) ⑦ 강만우(교문) ⑧ 이영신
 ⑨ 송현희 ⑩곽수향 ⑪ 이은희 ⑫ 구승준 ⑬ 김은영 ⑭ 황복현 ⑮ 강효숙 ⑯ 유성희 ⑰ 김진숙 ⑱ 정동환
 ⑲ 신대섭 ⑳ 이종근 ㉑ 박정호

업종마다 그 업종을 대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둑용품에는 한일바둑이 있습니다.

40년 전통의 한일바둑
우리의 바둑 역사와 함께 하여 왔습니다.



盤中至寶 櫃盤兩存 天下逸品 銘盤堯舜

- 보급용 Set : 3만원~5만원 (기원용, 탁자용)
- 가정용 Set : 10만원~15만원
- 소장용 Set : 20만원~50만원
- 본비자 Set : 50만원 부터

전통과 신응의

한일바둑 상사

- 강남 (서초)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3 (지하철 2호선 서초역 ①번 출구 앞)
TEL. (02)523-2346~8 FAX. (02)523-2349
- 강북 (종로) 영업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23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⑧번 출구 앞)
TEL. (02)265-7858, 269-7858 FAX. (02)273-0354
- 구리시 공장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595-1
TEL. (0346)66-2912 FAX. (0346)66-2913

지방취급점

부산	진양바둑 864-9282	대전	대산바둑 932-6200	창원	바둑신문 87-7456	울산	양재호 바둑교실 65-1357	익산	흑백바둑 834-3080
	반도기원 624-6757	광주	무등기원 222-1805		한일기원 68-6047			진해	한국기원 44-6453
	성보기원 625-1113	전주	바둑도장 77-0640	구미	중앙바둑 456-2198	여수	기 립 방 652-2850	인천	대한바둑 867-2313
대구	동백기원 426-3981	마산	한국기원 61-3883	포항	동남기원 44-5593	점촌	제일바둑 555-3383	대구	수담기원 629-5367
	유흥문구 424-5018		정석바둑 41-8070	목포	유달기원 76-0995	충무	한국기원 645-4882	대전	홍명공예 257-6532



“담배도 9단이던 제가
금연초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담배처럼 피우면서 담배를 끊는 금연초 - UDS금연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금연초를 왜 기적의 금연보조제라 하는가?

- 인체에 전혀 무해한 금연초를 담배처럼 피우기만 하면 금연에 성공하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 최소 3일에서 최장 3주일내에 금단현상 없이 저절로 담배가 싫어져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금연보조제와 달리 일시금연 효과가 아닌 영구금연할 수 있는 놀라운 금연 보조제입니다.

공동체 두레마을 대표 김진홍 목사께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초와 함께 하는 금연운동을 후원해주시고 계십니다.

금연초의 놀라운 효과를 이 분들이 입증하고 계십니다.

■ 한국기원 초대 바독황제 - 조훈현	■ 서남대학교 환경공해과 교수 - 임영욱
■ 덕원고 교감 선생님 - 이성환	■ 중앙일보 바독전문위원 - 박치문
■ 덕원고등학교 선생님 - 도승호	■ 매일신문 상무이사 - 김영무
■ 성광고 인사담당 주임선생님 - 이규수	■ 대구 동부지방법 - 최종영
■ 성광고 연구부장 선생님 - 김정서	■ 현대 자동차 성서영업소 - 윤동일

* 금연초로 금연을 시도한 공인들을 금연에 성공한 분류중에서 지역부족상 및 분한 소개해 드립니다.



제품내용

- 금연보조흡연제(금연초) 35일분
- 담배 라이프, 이동보조 케이스
- 햇갈 담배맛 제거 함
- 니코틴제 35일분
- 사용설명서, 보증서 제공

(소비자 보급가격 ₩178,000)

기업체에서 금연교실상담이나 자료 및 강사의 초빙을 환영합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UDS금연연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6

본 사 (02)924-8885

부 산: (051)819-3990
대 구: (053)656-4501

정서 함양을 위한 품위와 격조를 더해주는

한국바둑판 평생보장제도

한국바둑상사는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27여년동안 명반제작에만 심혈을 기울여온 전문 기반사가,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품질의 고급화! 친절한 안내! 영구적 사후보장제도로 애기가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고바둑판을 더좋은 바둑판으로 교환시 구입가 100%보장해 드립니다.)



● 탁상용 특품 세트



- 신비자20호 극상. 봉황특호, 주합통 정가 120,000원

● 소장용 특선품



- 신비자60호 극상 조개바둑알30호, 주합(특), 카바

● 소장용 세트



- 신비자50호 기성석, 주합통, 카바

● 특별세트



- 아가지스50호 극상 명인1호, 주합(바) 정가 180,000원

● 고급세트



- 아가지스40호 극상 수출석, 수출통 정가 130,000원

● 일반세트



- 아가지스30호 극상 화이버, 명인2호 정가 80,000원

기원 바둑교실 설비시

1. 대국사진 4매
2. 위기십결 2매
3. 기도오독 2매
4. 고급장기판 2조

● 주요사업내용

- 기우회 바둑대회상품 (설비 및 용구대여)
- 기원 및 바둑교실 시설상당
- 옷줄 바둑판 제작수리
- 각종선물용 (입학, 졸업, 승진, 이사, 개업)
- 바둑비디오 강좌
- 바둑 컴퓨터

공장직영 생산공급하는



한국바둑상사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1-3
(신사전철역입구 국민은행1층)

대표: 강 동 진

전화 514~6191(대) 514~7120(FAX겸용) 야간: 483-6929

서출판매점

지방판매점

대전/태우공예사 257-8289
청주/한국기원 68-5326
서산/한국기원 665-4374
충주/대한기원 851-6649
춘천/호반바둑교실 56-0755
광주/한국바둑 264-9541

영동포점/화랑기원

부산/대하상사 806-4294
미산/한국기원 43-5311
원주/최우수바둑 732-9984
여수/푸른바둑 652-2232
진주/한국기원 42-5665
대구/이학용바둑 423-1501
거창/아름바둑 43-0035

광주첨단/세종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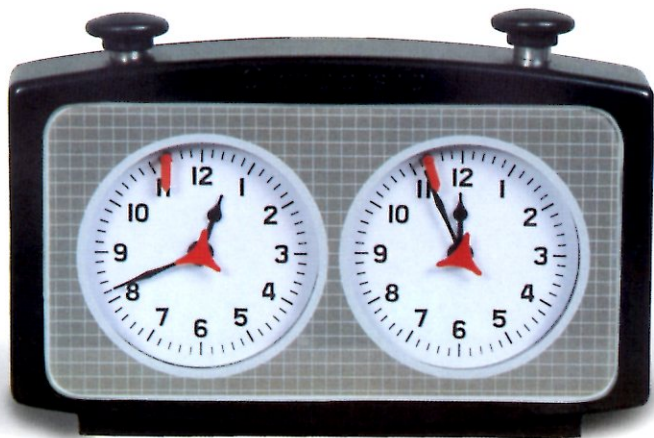
광주첨단/세종바둑 971-3959
울산/기성바둑 67-3907
광명/영제바둑 809-7663
창원/한국기원 81-7575
상주/상주기원 34-1456
부천/한국바둑총관 613-0866
제주/청남바둑 44-9874

광주/한국기원

광주/한국기원 675-3448
강릉/최고수바둑 42-9362
구미/구미바둑 53-8004
거창/한국기원 43-4919
목포/한국기원 44-8237
천안/시민바둑 61-0004

조시계의 새역사 창조
시판개시

바둑계시기의 국산화 성공!



● 특징

- 기존의 고가인 수입계시기에 비해 터치가 넓고 부드럽다.
- 디자인이 수려하고 정확도가 확실하다.
- 세계 바둑계의 속기화 추세에 맞추어 계시기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가격 또한 저렴하게 산정되어 부담이 없다. (정가 50,000)

● 대국 제한시간 계시 기능

정확한 아날로그 무브먼트를 사용 대국자의
제한시간이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 일반 탁상시계 기능

평상시에는 일반 탁상시계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모집

소자본으로 자기사업
하실 적극적인 분을
초대합니다.

제 조 원 : (주) 황해

판 매 원 : 인천바둑협회

및 A/S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6동 989-1 르네상스 타워 11층 5호

TEL: 420-1711~4 FAX:420-1715

구입코자 할때는 본협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행마법 17

KBS바둑왕전 프로듀서

정석규 PD

■ 취재/양형모 기자

■ 사진/이혜성 기자

“키 라이트 조금만 죽여 주세요. 오디오 준비됐습니까? 스튜디오! 계시의 멘트가 끝나면 바로 인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준비됐으면(비디오를) 돌려 주세요. C.G¹ 빼고…, 대국자 F.S²! 루 스탠바이 ~ 캣!”

KBS 별관 B스튜디오 부조종실. 바둑왕전 녹화가 있는 날이다. 엔지니어들 틈에 앉아 스위칭³ 작업에 여념이 없는 정석규PD(43세)의 모습이 보인다.

“언제부터 바둑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지요?”

“바둑왕전은 90년대 초반에 잠시 맡았다가 다른 프로 때문에 손을 뗐었어요. 그동안에는 주로 바둑 특집을 만들었죠. 동양증권배 생방송이라든가, 이창호-류시훈 특별3번기, 보해컵 결승전,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 등입니다. 바둑왕전은 얼마전 위성 방송 쪽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맡게 됐습니다.”

금테 안경에 평범한 취재 슈트, 옥스퍼드 먼 셔츠와 흰점무늬 넥타이에 크로마키⁴된 켄컬한 목소리가 첫 만남에서 그가 내민 명함이다. 아무리 뜯어 봐도 요즘 젊은이들이 몸살 깨나 앓아 가며 선망한다는 신세대PD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생면부지의 사람끼리도 수담 한수 나누고 나면 10년지기 마냥 친해지고 마는 우리 바둑동네 사람답다. 하지만 첫 인상만 가지고는 기사를 쓸 수 없다. 몇 마디 물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한다.

77년 KBS입사. 처음에는 행정일을 보다가 84년에 PD가 됐다. 「6시 내고향」, 「문화가산책」, 「십야토론」, 「아침마당」 등이 그의 대표작. 하지만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는 누가 바둑프로 하나 할라치면 ‘가서 정○○ 허락부터 받고 오라’고 할 정도로 ‘바둑=정석규’로 통한다.



- 주. 1) C. G : Character Generator. 화면에 문자를 삽입하는 장치.
2) F. S : full shot. 화면에 전경(全身)을 담는 것.
3) 스위칭 : 각 카메라의 영상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교차
조작하는 일. 알뜰의 풀을 편집과 같다고 보면 된다.
4) 크로마키 : chroma key. 두 개 이상의 화상을 중첩시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기법. 흔히 일기예보 등에서 배경으로
보이는 화면이 크로마키에 의한 것이다.



- ▶ 아들아슬한 수상전. 모니터에 한눈 팔다가는 자칫 방송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 ▶ 조연출 김정은 씨에게 무대 세팅을 지시하는 정PD.



꽤

짙었던 1급인 그도 역시 바둑에 관한 한 가슴 아픈 추억 하나를 물어 두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친척 아저씨에게 바둑을 처음 배운 그는 참고서 살 돈으로 바둑책을 사 보는 엄청난 모험(?)도 불사하는 '바둑아(바둑+문제아)'였다. 당시 꼬질꼬질하게 손때를 묻혀 가며 모은 용돈으로 산 「정석정해」(조남철 저). 이 책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절로 1급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묘한 마력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빨리 건조기의 타이머처럼 어김없이 다가왔다. 책꽂이에 꽂힌 바둑책들과 대입 수험서의 비율이 엇비슷해지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것들은 마당 한구석에서 불꽃과 함께 운명을 다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선 아들의 의도(?)가 영 못마땅하신 듯 아무 말씀도 없이 「기계(棋界)」(원간「바둑」의 전신)지를 한 권씩 불길 속으로 던져 넣고 계셨다. 바둑에 미쳐 있던 시절, 그에게도 제자가 있었다. 학교 급우였던 친구는 한 번 바둑에 재미를 붙이더니 스승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였다. 대학에 진학해서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 나가 입상했다는 소식까지는 그럭저럭 들었는데 그 이후는 소식이 감감했다. 최근 우연히 고교 동창생 명부를 받아 보니 대학 졸업 후 한때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지금은 부산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지 뭐냐? 정PD 역시 바둑프로로 업을 삼고 있으니 스승과 제자가 모두 바둑계에 투신한 셈이다.



▲ 녹화 전 스튜디오에서 이창호 九단에게 족석 지도기 한수. 바둑 프로를 만들다 보면 간혹 이런 행운이 따르기도.

“바둑프로는 시청률 의식하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PD들 보면 쇼나 드라마 같은 소위 ‘남들이 알아 주는’ 프로만 맡으려고들 해요. 하지만 방송은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바둑프로를 고집하는 데는 내가 바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전국의 아마추어들을 가슴 설레게 했던 KBS바둑대축제. 당시 이 프로를 진행했던 그는 자신이 잠시 다른 프로를 맡는 사이 대회 자체가 산화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때 그는 ‘프로그램이 살아 남으려면 제작자 스스로가 회사에 대해 강한 제작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바둑 프로를 만들면서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종종 욕 먹을 일도 생겼다. 동양증권배 중계를 맡았을 당시 배짱도 좋게 협찬 예고를 최고의 골든 타임인 저녁 9시 뉴스 앞뒤에 끼워 넣었을 때는 주변으로부터 “정PD가 언제부터 ○○그룹 홍보직원됐어?” 하는 놀림을 감수해야 했고, 양담배 판금 시절 한 프로기사가 대국 중 피우던 ‘버지니아 슬림’갑을 화면에 내보이는 바람에 엄청난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때는 정말 혼이 났다)

“바둑에서도 신촌 등 인쇄 매체보다는 방송 쪽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특히 바둑프로는 ‘오픈니언 리더’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만 봐도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비싼 돈 들어간 드라마는 안 봐도 바둑왕전은 꼭 보시거든요. 바둑왕전 시청률이 5~6% 정도인데 이는 1000만명 중 50만명이 시청한다는 얘기죠. 현재 KBS위성방송은 중국 산둥 반도와 엔벡, 일본 관서 지방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하와이나 호주에서도 다른 위성을 통해 바둑왕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기사들도 일본 기사들처럼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이미 프로기사는 국제적 ‘스타’입니다.”



월간 『바둑』은 월간지기 아니디?

월간 『바둑』을 두고 월간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의 월간지들이 세상에 나와 딱 한달간의 시한부 생명을
산 뒤 미련없이 버려지는 데 반해 월간『바둑』은 언제나 독자
분들의 책장 제일 좋은 자리에 꽂혀 있는 책입니다.
일단 손에 들면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어 버려야 성이 차는
잡지.

버릴 데라고는 단 한군데도 없는 ‘신토불이 한우’ 같은 잡지.
다 읽은 후에도 남에게 결코 빌려 주지 않고 직접 사보기를
권하게 되는 잡지.

월간『바둑』은 10년이 흘러도 늘 신간같은 잡지입니다.

월간 『바둑』을

편안히 앉아서 받아보십시오



월간『바둑』을 사시러 서점에 가셨다가 떠나고 없어 낭패를 보신 일은 없으세요?
이제부터는 정기구독으로 매달 집에서 편히 월간『바둑』을 만나세요.

정기구독을 하시려면

- 책 속에 끼워진 우편엽서를
이용하시거나, 시중은행의 지로용지
또는 우체국에 비치된 대체구과 용지를
이용하십시오.
(우편엽서로 구독신청하시는 구독자께서는
잡지와 함께 자세한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또는 직접 본원 **영업부로**
전화(02-299-2172, 02-294-4001)를
주시거나 오시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본원 영업부로 하십시오.

정기구독을 하시면

- 1년분 구독자에 한하여 2가지
사은품 「'97바둑연감」, 「명국선집
1·2·3·4」 한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무료 증정합니다.
- 연중2회 정기구독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고급바둑판(희망하는 프로기사의
휘호入) 2조를 증정합니다.

※ 월간『바둑』의 1년 구독료는 60,000원, 6개월
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 발행일은 매달 1일이며 25일이면 시중 서점에
있습니다.

※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정기구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외구독 일람표(우송료 포함)

구분 지역	국 명	1년예약 항공	우송료 (1권)
1지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84,600원	2,600원
2지역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94,800원	2,900원
3지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사우디, 쿠웨이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11,000원	4,250원
4지역	폴란드, 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러시아	118,200원	4,850원

(제)한국기원이 발행한 주옥같은 비독전문서

정통바둑강좌 시리즈

① 맥의 백과 실증식 저/5,000원

실전 맥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백과사전.

②③ 현대정석 ① ② 서봉수·정동식 공저/각권 5,000원

승리의 관건은 정석 선택, 최신행정석마스터.



초반30수

포석은 바둑의 절반
학구와 양재호 9단의 테마포석서
'침입과 삭감', '정식 선택' 등
주제별로 설명한 실전포석서
양재호 9단 저/신국판·288쪽/6,000원



동형반복실전사활 ①

사활이 약하십니까?
여기 특효약이 있습니다.
실전사활을 유형별로 꼼꼼히 해설.
황원준 저/신국판·384쪽/7,500원



행마법 마스터

행마의 A·B·C부터 X·Y·Z까지 모든
행마법이 이 한권에!
아마의 행마와 프로의 행마를 비교해가며
이론과 실전을 설명.
백성호 9단 저/신국판·280쪽/6,000원

대표기사 걸작선 시리즈



정석선택의 기로

정석을 많이 안다고 포석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단순한 정석 암기를 넘어 정석의 선택과
운용법을 제시한다.
정수영 9단 저/신국판·288쪽/6,000원



이창호 ①

'돌부처', '강태공', '신산'으로 불리는
바둑영웅 이창호의 생생한 대국집.
조훈현 사사에서 국제무대까지.
이창호·이인환 공저/신국판·320쪽/8,000원



현대포석

3연성·중국식에서 흉내포석까지
정상급 프로기사들의 공식대국에서 선정
현재 유행하고 있는 포석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집대성
권경언 저/신국판·280쪽/6,000원



유창혁 ①

'일지매', '세계최고의 공격수'로 불리는
한국바둑의 희망 유창혁의 화려한 대국집.
천재소년기에서 기성 정취까지.
유창혁·백재욱 공저/신국판·320쪽/8,000원

육형제 바둑의 장인정신



저희 육형제는 모든 제품을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만들겠습니다.

- 육형제 일동-

취급품목

바둑판: 본비자 3치~7치, 신비자 2치~7치, 피나무 4치~7치,
엘로시다 2치~7치, 아가지스 2치~7치, 은행목 4치~7치,
수출가공판 1.5치~5치, 보급용 3부~1치

바둑알: 보급용 3천원~1만원, 고급알(봉황, 봉황특호)
조개알 21호~45호, 천연석(돌바둑알)

바둑통: PVC 보급용통, 목통 1만원~5만원
의사봉, 지휘봉, 옷, 휴대용 자석바둑 · 장기
기원 및 바둑교실 설비용품 일체



육형제바둑

본사 · 공장 TEL:(0346)65-7318, 69-8277 FAX:(0346)556-3235
서울 매장 TEL:747-1746, 766-0878

전국 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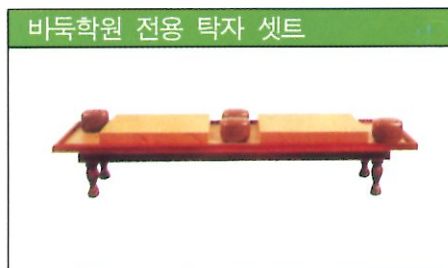
인천/고	려	아문	766-0097
부평/한	대	백	503-7032
부평/한	대	백	518-4402
부평/한	대	백	514-8083
부평/한	대	백	664-3964
부평/한	대	백	255-7282
부평/한	대	백	46-7787
부평/한	대	백	45-1521
부평/한	대	백	793-8504
부평/한	대	백	712-1776
부평/한	대	백	975-2203
부평/한	대	백	997-1787
부평/한	대	백	503-5911
부평/한	대	백	49-3750
부평/한	대	백	410-5020
부평/한	대	백	45-9988

부평/한	대	백	846-3244
부평/한	대	백	655-3945
부평/한	대	백	242-0608
부평/한	대	백	42-5050
부평/한	대	백	2-2992
부평/한	대	백	43-4100
부평/한	대	백	569-8983
부평/한	대	백	52-2032
부평/한	대	백	257-8289
부평/한	대	백	26-9146
부평/한	대	백	257-3712
부평/한	대	백	257-3047
부평/한	대	백	256-9050
부평/한	대	백	748-3700
부평/한	대	백	54-2155
부평/한	대	백	2-3267
부평/한	대	백	77-0123

부평/한	대	백	47-4281
부평/한	대	백	643-0487
부평/한	대	백	245-8143
부평/한	대	백	41-1605
부평/한	대	백	46-2259
부평/한	대	백	2-4789
부평/한	대	백	73-7073
부평/한	대	백	84-5166
부평/한	대	백	535-2875
부평/한	대	백	51-3449
부평/한	대	백	223-0759
부평/한	대	백	528-7121~3
부평/한	대	백	373-5841
부평/한	대	백	774-6095
부평/한	대	백	63-1929
부평/한	대	백	82-3616
부평/한	대	백	44-1177

제주/인천문화당 064)57-3257 FAX)51-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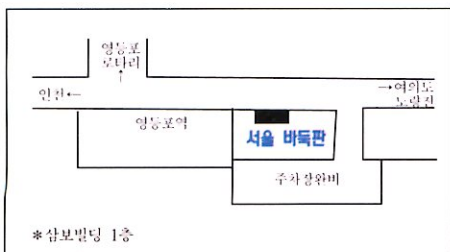
바둑용품 전문메이커 — 서울 바둑판
서울 바둑판은 항상 愛棋家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기원 · 바둑교실 설비 상담 환영
 ○학교 · 회사 상담 환영

*전화나 서신 문의 주시면 안내서 발송하여 드립니다.
 *잘못된 제품은 언제나 책임 교환하여 드립니다.

◎ 계좌번호 (온라인) ●국민은행 : 014-24-0128-321
 ●상업은행 : 117-08-164139
 ●농협 : 023-02-145186
 ●중소기업은행 : 077-13-0176-391
 예금주 : 이 희 권



바둑용품 전문 메이커
서울 바둑 상사

代表 李熙權

☎ 150-0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143-3(영등포역 옆)
 TEL. 678-6347 • 3753 633-3670 FAX. 678-3670

아니! 조훈현바둑비디오를 그냥 준다구?



새로운 바둑문화 창달을 목표로 창간된 주간바둑361은 국내유일의 정통 바둑신문입니다.
창간기념으로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조훈현 바둑강좌 비디오 테이프 1질(전8개 시가180,000원)을 무료로 드립니다.
주간바둑361도 보고 1급이 되기 위한 포석에서 끝내기까지 바둑 황제 조훈현 9단의 친절한 지도를 받아보십시오.

바둑361 주요내용

주간 핫이슈 · 대국 해설기사 및 상보 / 국내외 최신 바둑뉴스 / 헬로! PC바둑통신
강철수만화 · 내청춘 만패불청 / 노승일 실명소설 · 소설 차민수 / 조훈현과의 대화
양재호 · 최명훈 · 김성룡 바둑특강 / 서봉수 접바둑특강 · (속)천하늬점 / 조치훈 隨想錄 · 그러므로 이겨야 한다

주간 **바둑361**

정기구독 문의

02)6340-361

● 1부 정가: 1,000원 ● 1년 정기구독료: 50,000원



▼ LG배 기왕전 결승2국

이九단이 완승을 거두고 복기없이 퇴장한 후
검토실에서 우연히 조우.
기보를 앞에 놓고 피차 자존심때문에 눈싸움 중.
(유창혁 九단 : 이창호 九단)



▼ 동양증권배 결승2국

크게 유리한 바둑을 진 고바야시 9단.

불리한 바둑을 역전승한 조9단.

국후 상반된 표정으로 '손가락 복기'를 하는 장면.

(조훈현 9단 : 고바야시 9단)



玄玄 바둑연구실



임선근 八단 · 이홍열 六단

한국바둑계를 대표하는
중견기사
임선근 八단 · 이홍열 六단이
프로기사 연구의 장 및
아마추어 교육의 장인
玄玄바둑연구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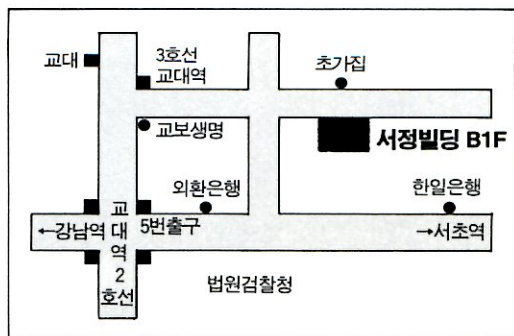
입단지망생 지도
프로기사 지망 연구생 모집
일반인 회원제 운영

玄玄바둑연구실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지하1층

TEL : 521-0977

FAX : 521-0978





1천만 바둑팬의 아늑한 휴식처

종로회관 일반회원실

일반회원실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수시로
사범들의 지도
다면기가 실시됩니다.

찬조회원실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최고급
설비로 꾸며졌으며,
사범들의 특별지도가
있습니다.

대 실

바둑행사에 대실을
하며, 사범들이
행사진행을 지도해
드립니다.

특별 지도

단체 및 개인을 위한
특별지도를 합니다.

한상열(4단) 사범이 다정한 벗이 되어 친절하고 자상하게 얘기가
여러분들의 기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전화 : 722-8038 · 722-8039

프로기사가 직접 지도하는 정통 바둑수업도장



체계적인 기력향상을 책임지는 지도 사범진

본 양천지원에서는 프로지망을 위한
연구생 제도를 실시 운영하며
기재있는 우수한 어린이들을
육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 ♥ 다양한 프로사범진과의 개인지도 시스템운영
- ♥ 전국대회 최강부 우승 및 입상자들
다수가 벌이는 조별리그전 실시
- ♥ 철저한 실전기보 연구 및
복기검토
- ♥ 강한 승부사와 여유있는
인격도야를 위한
자세 및 인성교육 실시

- 연구생 집중개별 육성반
- 예비 연구생반(4급 이상)



두텁고 중후한 기풍의
프로기사 김동엽 六단



쾌속행마와 정통포석감각의
프로기사 김종수 三단



실전적인 전투적 기풍의
프로기사 박영찬 二단



성실한 실전파트너
아마국수 이용만 6단



자세 및 인성교육 담당
양천지원장 임향재 5단

실전담당 지도사범 :
객원 프로기사 및
아마정상급기사

■ 위치 : 목동 APT 1403동 앞길 현대,
삼성, 청구, 쌍용 APT 쪽 하나은행 뒤
1호선 구로역, 2호선 양천구청역
5호선 오목교역, 서틀버스 연계

☎ 648-7689
FAX 644-3417



재단
법인

한국기원 양천지원 양천바둑도장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99%를 진행해놓고 1%의 소홀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마지막 1%의 완벽한 마무리 - 이상준패션의 신념입니다.”



부분 전체탈모 에서해방!



기존 가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첨단 기법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이상준패션이 인공모발의 특징과 축적된 기술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드리는 글입니다.

현대 탈모증?

원인은 확실히 않지만 유전적·정신병리학적·면역학적 원인으로만 알려져 있고, 임상고찰 결과로 정신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가발(전체) 부분모발(이마에서 정수리) 가리기(이마)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하게 뒤집어 쓰는 불결하게만 생각되던 가발. 그러나 지금은 귀하의 실제 머리보다 훨씬 정결하고 착용 간편하며, 착용감이 가볍고, 전체가발이든 부분가발이든 전혀 표시가 없고, 남들이 몰라 본다면 어떻습니까?

얼마전만 해도 소수의 선택된 분들만이 음성적으로 언급되어온 것에서 탈피하여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양성화·실용화하여 살처럼 실제와 똑같은 인공모발에 머리를 심고 임시 착용이 아닌 평생스타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조머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손쉽게 착·탈하고 귀하의 현재 모발과 같은 성질의 엄선된 사람 머리만을 사용하여야 바람이 불어도 뜨지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길어지고, 퍼져나 드라이 사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샤워, 취침, 수영도 자유자재로 할수있고 본머리처럼 똑같이 굽을수도 있습니다. (독자적 노후추진)

30년 앞을 내다보고

15년을 준비했습니다.

귀하의 인상이 귀하의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비속된 스타일 리스트에 의한 한눈에 구별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음에 놀라 기술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28 - 1

15년전 수출만 하던 가발, 국내에 아직 이분에게대한 “무”에서 전체가발, 부분가발, 가리기(이마) 등 타제품과 비교 검토가 될수없는 다년간의 경험과 아무도 흉내낼수없는 다양한 스타일기법, 즉 디자인과 파마, 컷트의 기술. 가발이란 표시가 전혀없는 자연스런 모습을 유지하는 축적된 기술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30년앞을 내다본 장기계획과 15년전부터 축적해온 기술 및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신제품과 기술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언제나 경험이 풍부하고 세심한 기술로 자연탈모, 부분탈모 전체탈모 이전의 모습을 책임지겠습니다.

인공모발 / 디자인·망설이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모발점의 선택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기존 가발점에서 만족치 못하신분은 그대로 오십시오. 그 상태에서 손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검토·평가해 주십시오.

디자인(재단, 다팅(머리삼기), 컷트(스타일)의 삼위일체가 되었음때 고귀한 하나의 작품과 탈모이전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대머리·흉터·화상·약물치료의 환자나 필요로 술이 빈약하신분 현재 가발 사용하시는 분이나 전체가발 및 여성 상담도 환영.

상담시간 평 일 : 오전 9 : 30 ~ 오후 7 : 30
일요(공휴)일 : 오전 10 : 00 ~ 오후 6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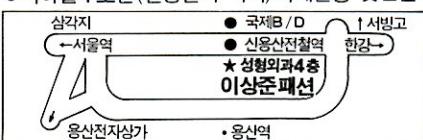
● 상담 및 문의전화 : 790-1107 ~ 8792-4087

야간 : (0344) 64-5895

* 정기휴일 : 매주 月요일

이상준패션

● 지하철 4 호선(신용산역 하차) 국제빌딩 맞은편



★ 이태원(구·리브러더즈패션)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폐사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문기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手談 친구입니다.



- 어떻게 해야 전문기사를 초청할 수 있을까?
-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닐까?
- 더 이상 이런 고민으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기원의 소속 전문기사는 바둑이 있는 곳이면
-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는
- 여러분의 정다운 바둑친구입니다.

한국기원 소속 전문기사 지도 대국료

구 분 단	개 인			직장, 단체, 기우회	
	1 회	4 회	월 8 회	1 회	4 회
初・二・三단	80,000원	300,000원	600,000원	300,000원	800,000원
四・五・六단	100,000원	400,000원	800,000원	400,000원	1,000,000원
七・八・九단	150,000원	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1,200,000원

* 타이틀 보유자의 지도료 및 초청료는 별도로 정합니다.

- 전문기사 초청시 한국기원 지원, 인가 바둑교실, 직장, 단체, 기우회 아마단 심사후 인허료의 50% 할인
- 지방 출장지도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개인 1회 지도인 경우 1국(약 2시간) 기준으로 정합니다.
- 개인・단체지도 내용은 다면기 해설 등 초청단체의 계획에 따라 정합니다.
- 위 내규는 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신청부서-보급부 TEL. 299-2173

기원·바둑교실 매매
알선 및 종합 컨설팅

기원이니 바둑교실을 운영하시렵니까?

위치 선정에서부터 시설,
광고내용, 성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성공의 노히우기 여기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여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자본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기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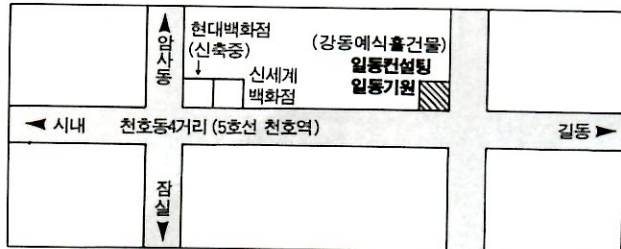
❖ 전화 주실분 ❖

- 각종 바둑용품 구입하실 분
- 기원·바둑교실 매매 하실 분
- 기원·바둑교실 경영난으로 고민하는 분
- 기원·바둑교실 개업하실 분

일동컨설팅 일동기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15
TEL : 486-8572 (바로처리)

〈약도〉



연구생을 위한 전문바둑도장

바둑 엘리트 코스 개설!!

21세기 한국바둑 및 세계바둑을 선도할
바둑 꿈나무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모집대상

- 바둑 전공 희망자
- 프로기사 지망생
- 강1급(아마5단) 이상을
목표로 하는 지망자

- 연구생 전담 사범
-유경남 6단
- 프로 지도 사범
-강훈 9단, 정대상 8단
- 초빙 사범
-김진환 7단, 박희재 6단

구 분	정 원	교 육 내 용
연구생 특반 (개인 지도반)	10명 이내	전담사범 지도대국 주 5회 이상 프로기사 지도대국 주 1회 이상
예비연구생반 (준개인 지도반)	15명 이내	전담사범 지도대국 주 3회 이상 프로기사 지도대국 월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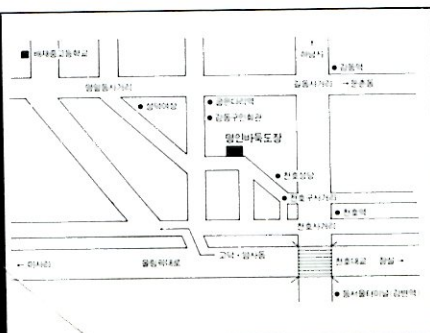
- 연구생 기보 전산관리 등 과학적 체계적 관리
- 바둑관련 각종 참고서적 완비
- 컴퓨터통신 대국실, 바둑TV 및 비디오, 전자바둑판 등 첨단장비 구비
- 연구생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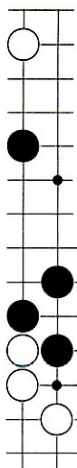
명인바둑도장

(솔빌딩 3층)

교육상담 475-7757
(FAX 474-9606)

■ 원장-최화길 5단





인천시민의 바둑휴식공간 —

(재)한국기원 인천동암지원

프로기사 조대현 八단 바둑연구실

- 일반실 운영
- 각 기우회 활동 지원
- 분기별 바둑대회(회원중심제 리그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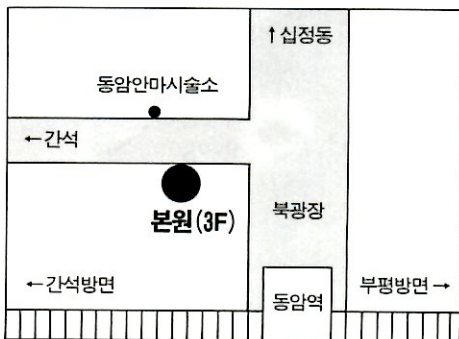


■ 프로기사 조대현 八단 바둑연구실

- 프로지망생 모집 — • 중급(4—6급) 약간명
- 어린이프로지망생 모집: • 고급(1—3급) 약간명

원 장 : 아마5단 조 갑 희
지도사범 : 프로8단 조 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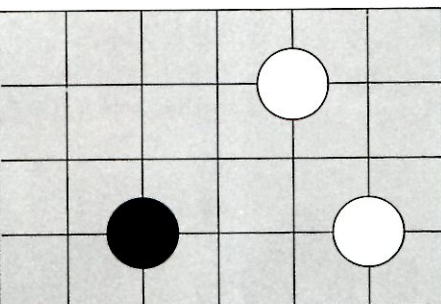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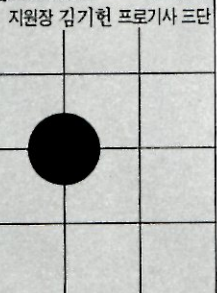
■ 위치 : 인천광역시 동암역 북광장
032) 425—0456



평택시 유일의 정통바둑도장

평택지원 어린이바둑도장

(김기현 바둑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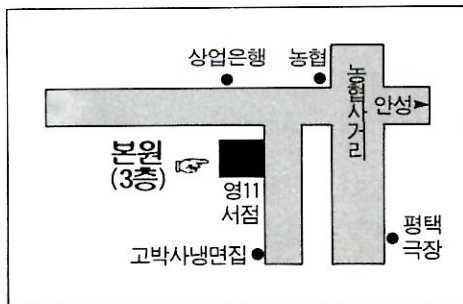
	
	<p>지원장 김기현 프로기사 3단</p> <p>평택시 유일의 정통바둑도장 한국기원 평택지원 부설 어린이바둑도장에서는 프로기사를 지망하는 어린이를 체계적인 지도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급반 전문기사 직접 지도 ○초급·입문반 모집 ○프로지망생 진로 상담 및 모집 ○현재 연구생 육성중

한국기원 평택지원

부설 어린이바둑도장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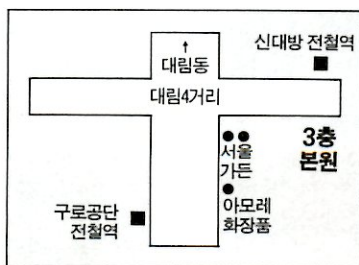
0333) 657-8828
657-2944



기원 · 바둑 교실의 운영 방법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십시오!

기원 · 바둑교실을 운영하시려는 모든 분께
20년의 경험을 돌려 드립니다.
지금 전화 하십시오!

성민기획은 신속 · 정확합니다!
성민기획은 많은 사업정보가 있습니다!
성민기획은 전문인입니다!



지도사범	프로기사	김좌기	六단
대표		권기화	아마 5단
원장		권기태	아마 5단

❖ 기원, 바둑교실 하실분 · 파실분
지도사범 쓰실분, 하실분 전화 주십시오!

성민기획 · 성민기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2
832-3440-1

고양시민의 휴식처

재단법인 한국기원 일산지원

- 80석 규모의 최고시설
- 각 기우회 활동지원 (기우회는 연락 바랍니다)
- 분기별 바둑대회
- 금연가를 위한 특별대국실 운영
- 초, 중급 강좌 개설
- 여성기우회 운영

고양시 바둑큰잔치 행사



원장 프로四단 차수권
강좌사범 아마5단 최성신

○ 강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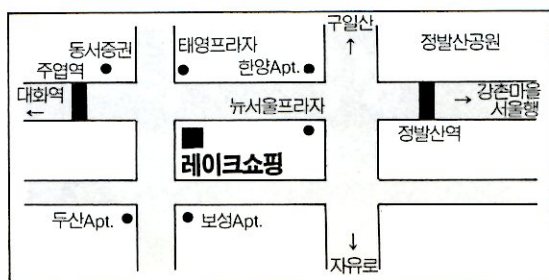
과 정	기력수준	요 일	시 간	회 비
초 급	10~7급	월, 수, 금	오후8시~9:30	월 100,000원
중 급	6~4급	화, 목, 토	〃	〃



재단법인 **한국기원**
일산지원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83번지
(강선마을 레이코쇼핑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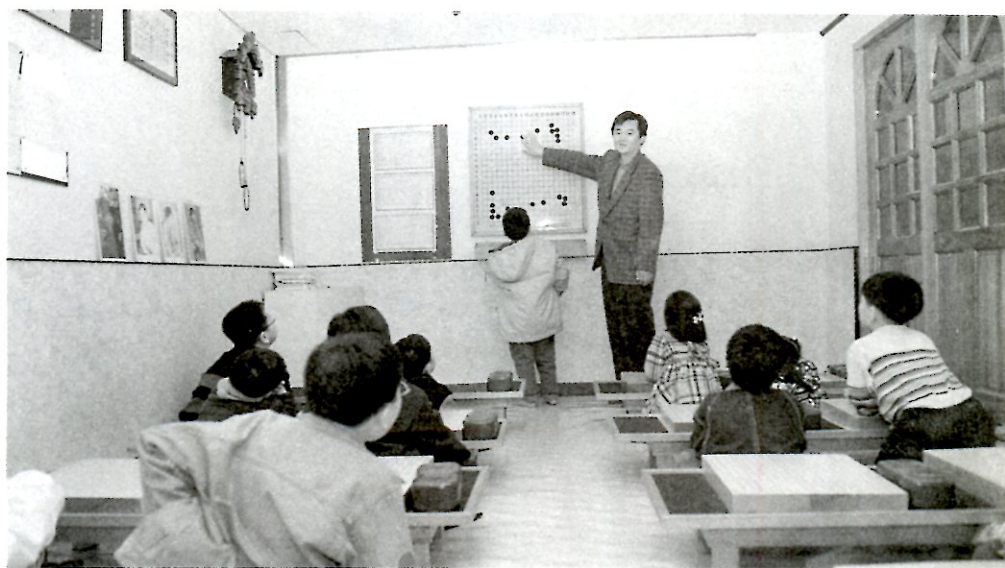
(0344) 911-7535



고양시 최고의 바둑전문도장

차수권 바둑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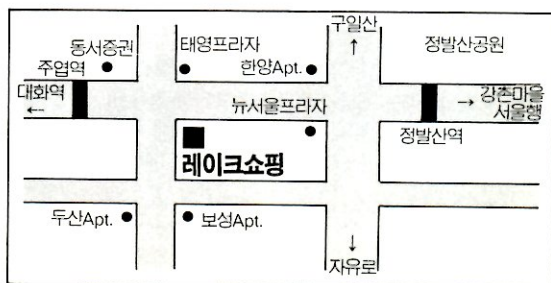
- 초, 중, 고급반 전문기사 직접지도
- 중, 고급반 운영
(기재가 있는 9~1급 어린이를 집중 육성합니다)
- 프로 지망생 모집, 진로 상담
- 현재 연구생 육성중



관인 차수권 바둑학원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83번지
(일산신도시 강선마을 레이크쇼핑 5층)

(0344) 912-6344~5



아마단 인허 안내

조남철 九단
·
김 인 九단
·
조훈현 九단



한국바둑 3대 國手가 인정하는 한국기원 공인 아마단을 받으십시오!



유단자임을
뽐내면서
아직도

한국기원 공인

아마단증이 없으십니까?

아마단증은 애기가에게

기력 신분증과 같습니다.

아마단은 아무나 인허받을 수 있는 치장품이 아닙니다.

아마단은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전문 면허증입니다.

한국기원 공인 아마단 인허료

인 허 단	초 단	2 단	3 단	4 단	5 단
인 허 료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 본원 소속 전문기사의 추천 및 심사에 의해서 인허합니다.

※ 승단시에는 해당 인허단의 차액만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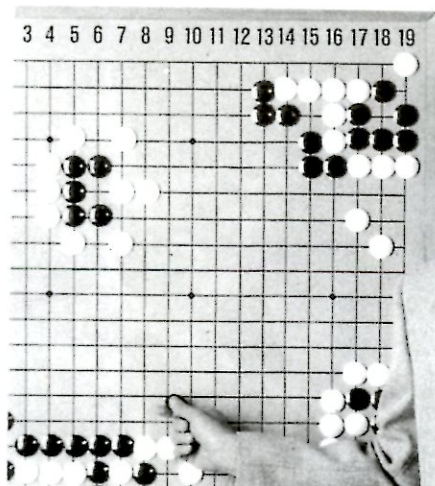
(예 : 초단→2단 : ₩100,000원 4단→5단 : 100,000원)

※ 표구비 ₩35,000원 별도(표구는 원하는 분들께만 해드립니다)

접수 및 신청부서—총무부 TEL. 299-1292

맥을 알아야 살길을 얻는다

양상국 비디오 바둑특강 脈



- 교육방송 (EBS) 의 바둑해설 위원
- 한겨레 신문에 <바둑칼럼> 집필 중

현대바둑 50년 기념
바둑구독자에 한해

20% 할인

예리하다! 교묘하다! 통렬하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기수묘수의 화려한 맥 —
양상국 7단이 명쾌한 해설로 그 깊은 묘미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상급자는 물론 초급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전적으로 지도하는
양상국 비디오 바둑 특강 —
기력향상의 올바른 맥을 짚어드립니다.



■ 가격: 188,000원 → 128,000원

- *비디오테이프 (전8권)
- *400여가지의 맥을 총망라한 단행본 2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양상국 7단: 현재 EBS 바둑교실 강의중 (일요일 오전 10시~11시)

■ 대리점 모집

■ 판매원: 청원기획/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종합상가 B동 3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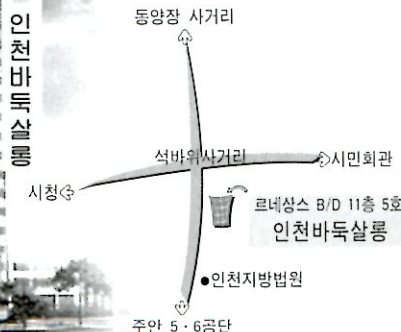
TEL: 420-2606, 423-3453 FAX: 476-3435

인천 최초의

『바둑살롱』개관!

사은품 증정
바둑살롱을 찾아주시면
기념품을 드리며 애용자
여러분께는 바둑시계 및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인천지역의 바둑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바둑살롱」을 2월 15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애기가 여러분의 휴식의 공간이 되고
따뜻한 교우의 장이 될수 있도록 격조 높은 시설과분위기로
바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찾아오시면 프로기사, 아마사범들의 정성어린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기우를
만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범

프로기사

서능욱 九단, 유병호 七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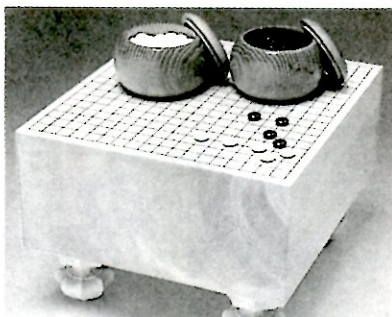
아마추어

서부길 7단, 이문의 7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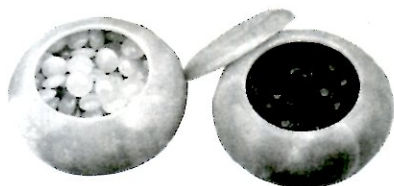
대표전화 420-1716

인천바둑협회 부설 인천바둑살롱 원장 전 익 하

연중무휴 (토,일,공휴일도 개장함)



최우수상(2백만원 상당 · 한일바둑 제공)



우 수 상(35만원 상당 · 코밀츠 제공)

— 월간『바둑』 창간30주년기념 —

“바둑사진” 현상응모 안내

한국바둑의 정론지, (재)한국기원 발행 월간『바둑』이 오는 97년 8월호로 창간30주년이 됩니다. 1967년 8월호로 창간된 이래 만 30년, 통권 361호가 될 동안 단 한권의 결호나 합병호 없이 굳건하게 자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월간『바둑』은 한국바둑의 심장부에 우뚝 서서 바둑계의 융성을 지켜 보았고 정보 전달, 여론 형성, 보급의 일선에서 밤을 잊어왔습니다. 또한 애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질책으로 한국 바둑언론 중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발행부수, 유구한 전통을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8월호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애독자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마련코자 합니다. “바둑사진” 현상응모를 통해 바둑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의 이벤트로 푸짐한 상을 걸고 다음과 같이 잔치마당을 준비했으니 애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호응을 기대합니다.

❖ **작품내용** : 바둑에 관련된 모든 사진. 가족, 친구들의 대국장면이나 대회 장면.
인물사진이나 재미있는 포즈 등 제한이 없음.

❖ **작품크기** : 3×5 또는 5×7(입상자는 추후 필름 제출)

❖ **제출방법** : 우편이나 직접 내왕 제출. 성명, 전화번호 기입. 간략한 사진설명을 첨부.

❖ **마 감** :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 출 처** : 서울 성동구 홍익동 315번지(우편번호 133-030)

한국기원 월간『바둑』 사진응모 담당자앞 (전화 : 299-2170, 1)

❖ **상 품** : 최우수상(1명) - 희망하는 기사의 휘호를 넣은 고급 비자 바둑판과 조개알 세트(한일바둑 제공)

우수상(2명) - 마노옥 보석바둑알 · 통 세트(코밀츠 제공)

입선(10명) - 이창호걸작선1, 유창형걸작선1(한국기원제공)

가작(20명) - 대표기사 휘호합죽선(한국기원 제공)

❖ **발 표** : 월간『바둑』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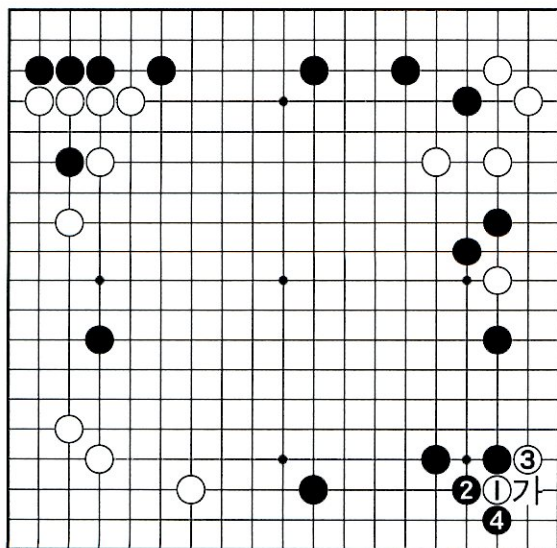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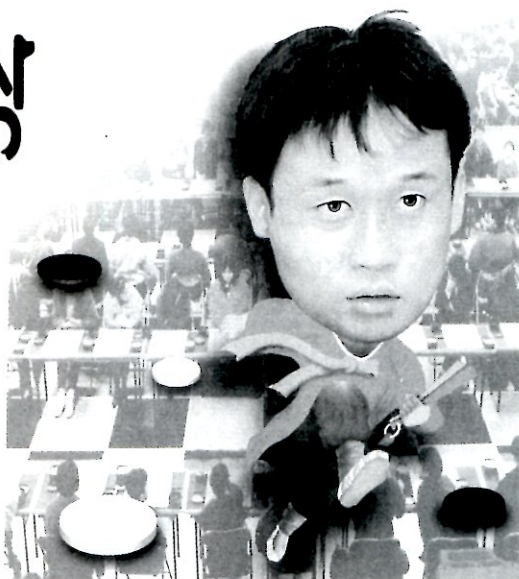
❖ **게재 · 전시** : 월간『바둑』에 1년간 게재하며 7월중 바둑사진전을 개최함.
입상자 전원을 창간30주년 기념리셉션에 초청함.

(재)한국기원 월간『바둑』

바둑황제 유창혁의 공격의 발상

공격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마를 잡기 위한 공격,
수비를 위한 공격,
집차지를 위한 공격이 있는가 하면
접근전을 통해 급전으로 유도하는
치열한 공격과 반대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히 죄어 가는 공격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력으로 바둑황제에 오른
'유창혁류의 공격'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만수 二단



장면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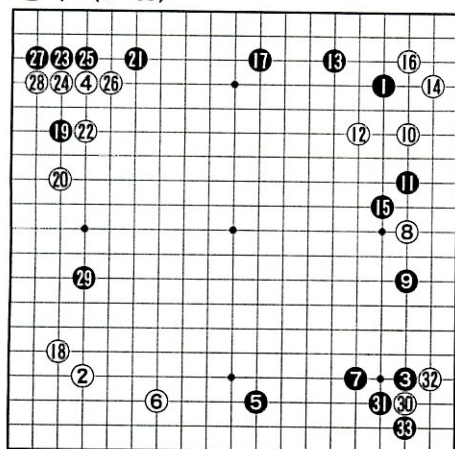
제32기 패왕전 도전2국
으로 조훈현 九단(흑)과 둔
바둑입니다.

205수 끝, 흑 불계승

장면도 I

백1·3의 응수타진에 흑
은 가로 두지 않고 4로 받
아 변화를 꾀한 장면입
니다. 백의 대책은 무엇일
까요?

경과도(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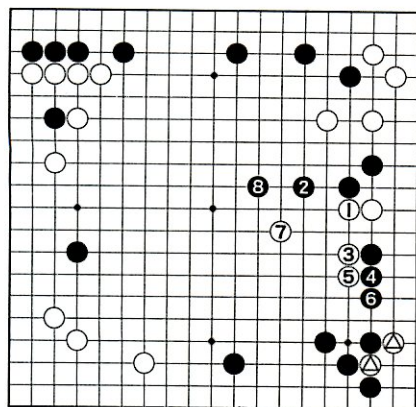
경과도(1~33)

흑17까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포석. 백 24는 옳은 방향. 백30・32로 중반전투가 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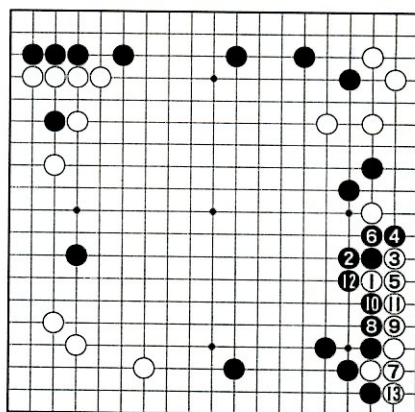
1도(백 무책)

백1로 나가는 것은 흑의 주문으로 응수타진이었던 백△가 악수로 변해 버리므로 백의 불만입니다.

1도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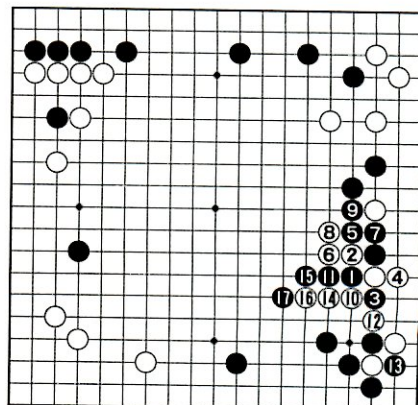
2도(백 성공)

백1 불임이 이런 모양에서의 맥입니다. 흑 2로 순순히 받는 것은 백7의 이음이 좋은 점으로 13까지 크게 살게 됩니다. 이 결과는 백 우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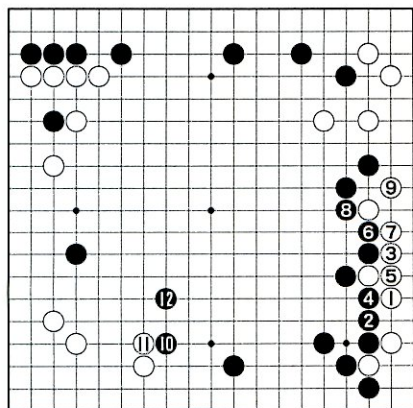
3도(백 곤란)

흑1이 최강의 반발. 백2 맞꿴음이 역시 강한 반발이지만 흑3・5가 침착한 응수로 17까지 백은 살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3도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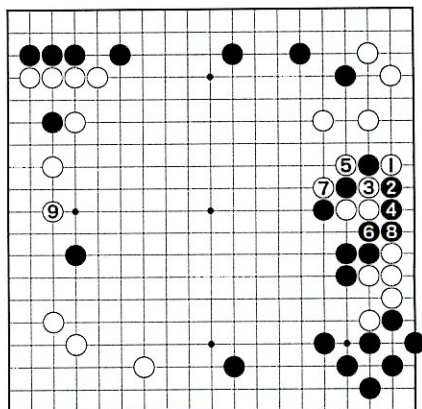
4도(흑 우세)

백1 마늘모 응수는 흑2로 받고 6·8로 중앙을 틀어막은 다음 백9로 살 때 흑10·12로 하면 흑 모양을 넓혀서 흑 우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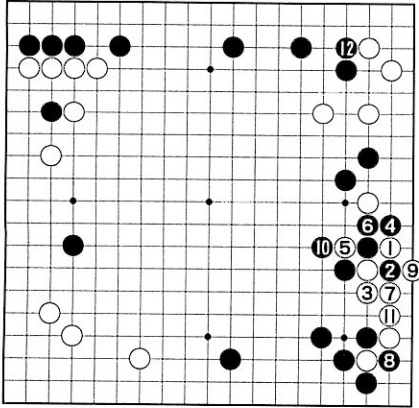
5도(백 무리)

백1·3이 탄력이 풍부한 응수. 그러나 흑4·6으로 계속 조여서 백이 갑갑합니다. 백11 이하는 무리로 흑22 다음 백의 응수가 없습니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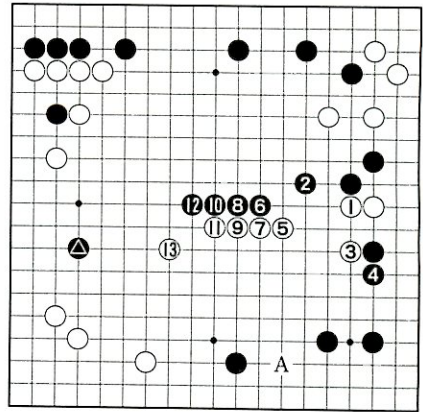
8도



8도(실전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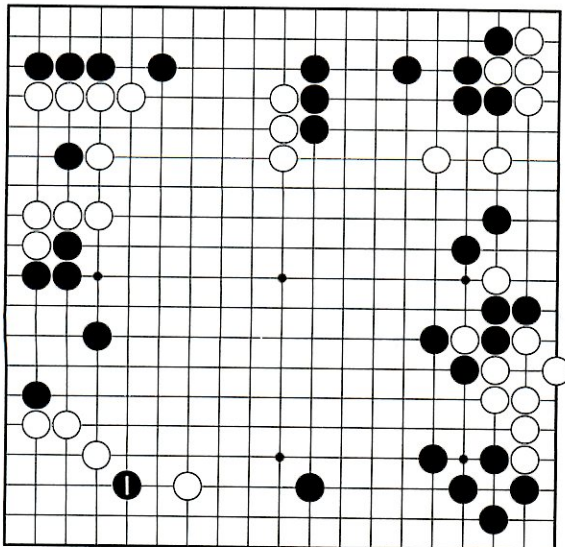
실전에서는 백1로 두었지만 11까지 후수로 싸지기를 뜨고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백의 고전의 원인은...

9도



9도(백의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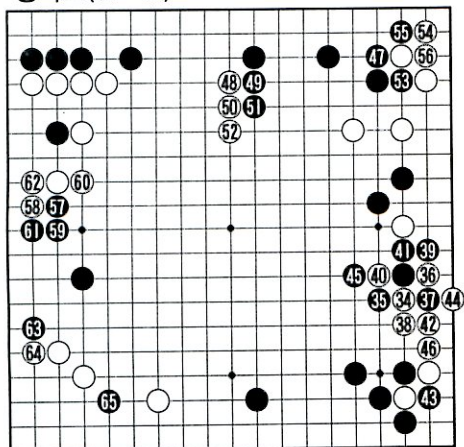
장면도 백1·3의 응수타진은 흑4의 응수를 불러서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은 그냥 본도 백1·3으로 나가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13 다음 흑▲의 공격과 A의 침입을 맞보아 백이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장면도 II

바둑이 더 진행된 국면입니다. 아직 미생인 좌변 흑돌을 효과적으로 보강하려고 흑로 응수 타진 한 장면입니다. 형세가 불리한 백으로서는 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경과도(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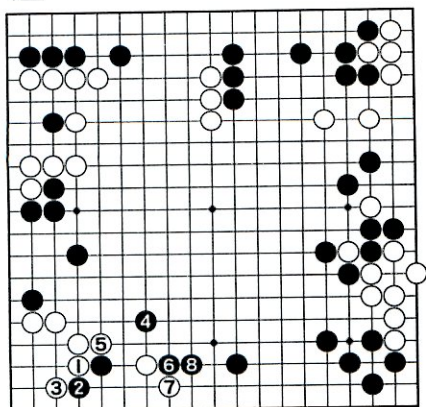
경과도(34~65)

백48은 상변 흑의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흑57은 좋은 백점으로 흑63까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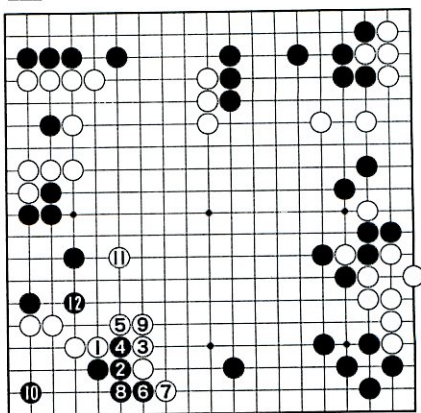
1도(백 최악)

백1로 받는 것은 흑4가 절호의 씌움으로 백5로 받을 때 흑6·8로 막히게 됩니다. 이 결과는 백이 가장 나쁜 그림입니다.

1도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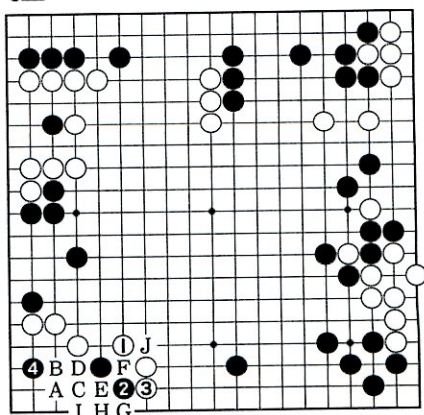
2도(백 망함)

백1·3으로 두는 것은 흑4 이하 10까지 손쉽게 살아 버립니다. 백11로 좌변 흑을 씌우면 흑12로 결코 공격당할 말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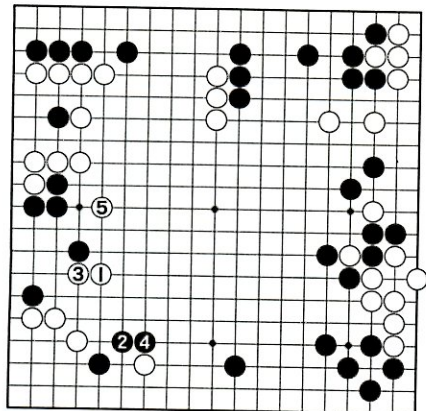
3도(백 속수무책)

백1로 씌우는 것은 흑2·4로 다음 백의 후속수단이 없습니다. 바로 응수하는 것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A로 치중해서 흑을 잡으려는 것은 흑J로 끊겨 백 곤란.

3도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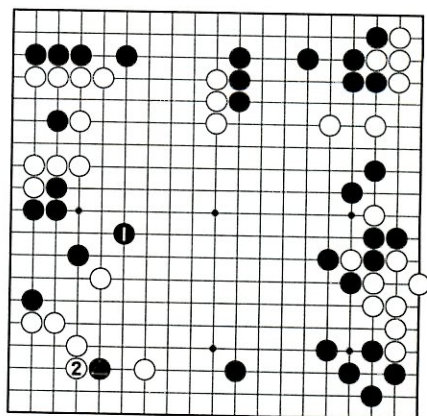
4도(백의 최선)

백1로 좌변의 흑돌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백의 최선입니다. 흑2·4로 반발하는 것은 백3·5로 우변을 잡아 버립니다.

5도(흑 괴로움)

흑1로 좌변의 흑을 살리고 3으로 하변 흑을 움직이면 백2·4로 흑을 양곤마로 쫓아서 여전히 흑이 괴롭습니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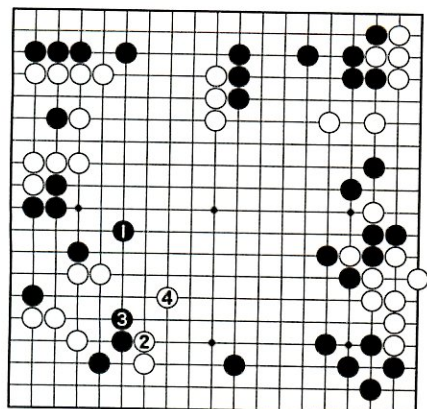
6도(백 성공)

따라서 흑은 1로 좌변을 살리는 것이 정수지만 백2로 하변을 받으면 다음 흑의 응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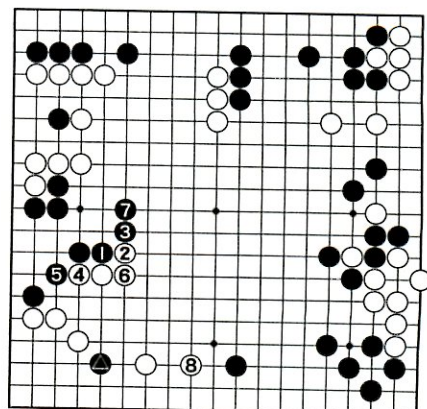
7도(크게 성공한 실전진행)

흑1은 의문수로 7까지 좌변이 사는 동안 백8을 당해 흑▲가 자연스럽게 죽어 멋지게 돼 버렸습니다. 응수타진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한판입니다. (8)

5도



7도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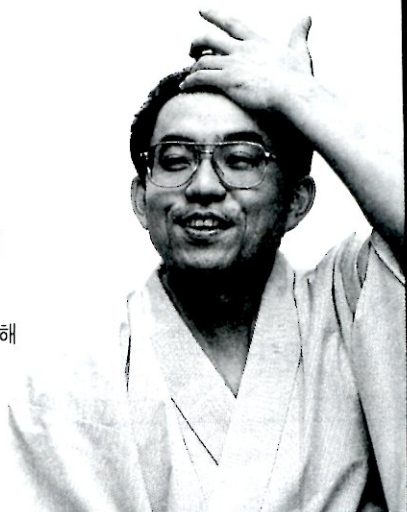
뉴우주류

월간『바둑』 창간 30주년을 맞아 한국의 바둑팬들에게 제 바둑을 소개하게 돼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저의 실전보 중 ‘우주류’다운 특징이 잘 드러난 장면들을 추려 돌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중앙에 멋진 ‘우주’를 건설해 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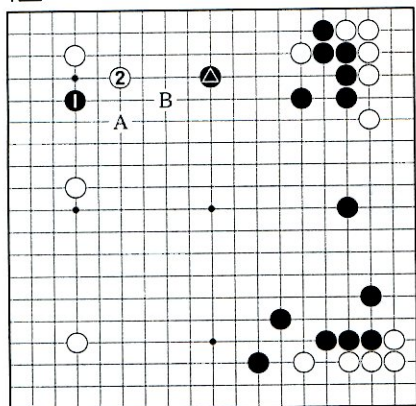
□ 정리/무라카미 아키라(村上明)



1도(차단됨)

부분만을 두고 말한다면 흑1이 보통 두는 수이나 백2로 받게 되면서 흑▲와 흑1을 잇는 선이 끊겨서 대세력의 구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흑A로 두더라도 백B로 머리를 내밀게 되어 재미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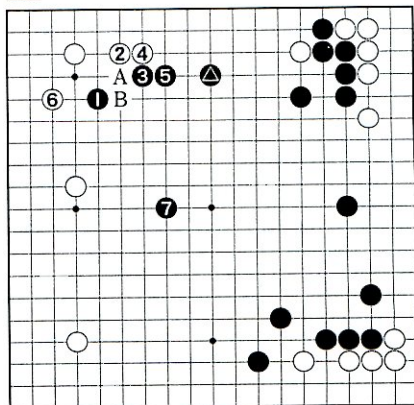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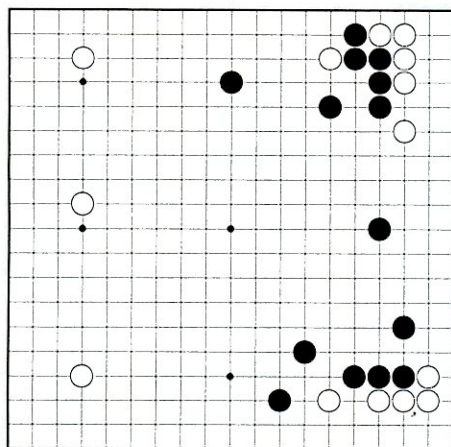


2도(대세력으로)

나는 흑1로 두었습니다. 백A에는 흑B로 두어 흑▲와 연결하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백2로 두었기 때문에 흑3·5로 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백6에서는 흑7. 착점한 흑돌들이 모두 대세력을 형성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도





장면도 I (흑차례)

아와지 슈조(淡路修三) 九단과의 바둑으로 나의 흑번입니다.

물론 3연성 포석입니다. 우변에서 중앙에 걸쳐 대세력을 쌓아 놓았습니다. 흑의 다음 수는? 좌상귀의 백이 소목이어서 굳힘수를 방해하고 싶지만 대세력의 구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상식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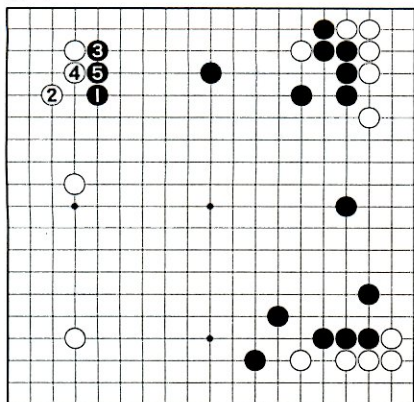
3도(이상형)

흑1에 대해 백2로 받는다면 흑3으로 붙여서 호조. 백4에는 흑5로 두툼한 벽이 생겨 상변에 아주 훌륭한 세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흑의 이상형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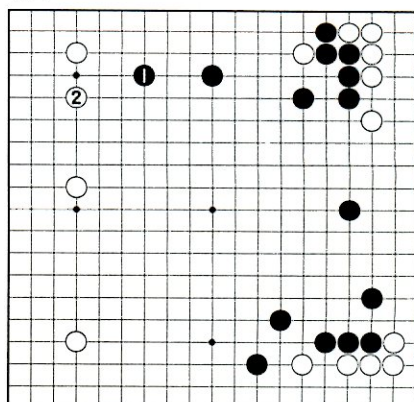
4도(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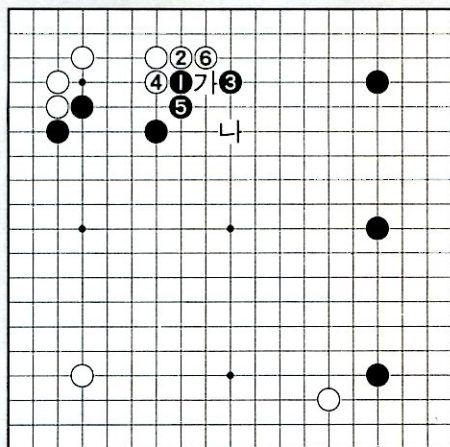
상변의 모양을 넓히려면 흑1로 벌리는 수이나 백2의 한칸 굳힘수가 너무 당당합니다. 흑1은 중앙의 세와 관련시켜 볼 때 얇은 수입니다. 이 바둑에서는 상변보다는 중앙의 대세력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3도



4도





장면도Ⅱ (흑차레)

이 바둑은 수년 전에 고바야시 사토루(小林覺) 九단과 둔 바둑으로 나의 흑변.

국면에서 흑1로 어깨짚은 것은 가운데를 큰 모양으로 만들려는 작전. 흑의 다음 수는 상변과 관련되는 응수여야 합니다. 상변은 이 상태로 두는 것이 좋고 여기서 백가면 흑나. 이곳은 손빼 둔 상태로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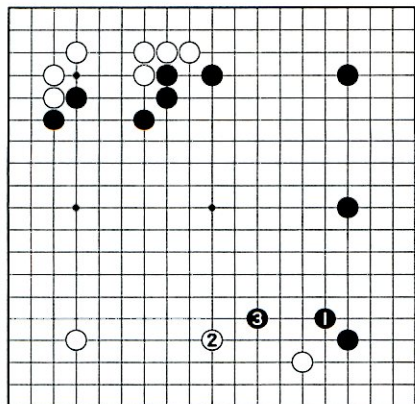
1도(마늘모로)

흑1의 마늘모를 택했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즐겨 쓰는 수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특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백2로 벌렸기 때문에 흑3으로 세를 퍼면서 백의 응수를 보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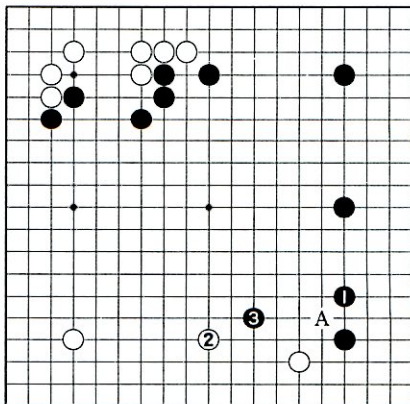
2도(차이점)

흑1 한칸이 보통입니다. 백2 때 흑3은 역시 좋은 수가 됩니다만 흑1의 돌은 A에 있는 편이 흑3과의 연결을 더 확실히 합니다. 단지 흑1과 A는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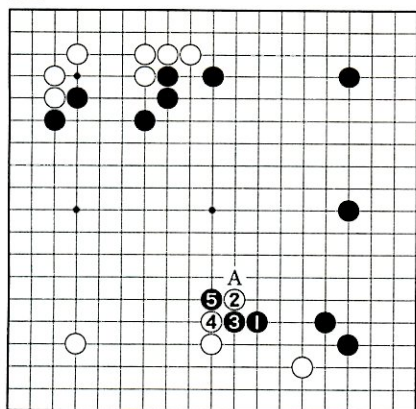
1도



2도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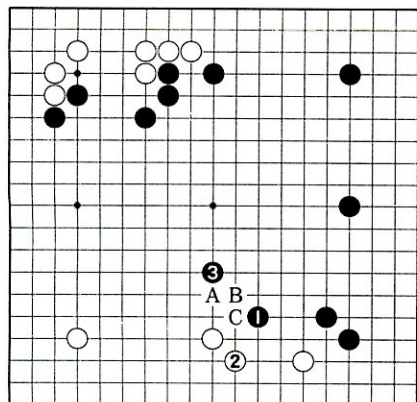
3도(환영)

백은 대세력을 거부하여 2로 중앙으로 두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흑3·5로 맞꿍습니다. 이 싸움은 흑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백2로 5에 뚫다면 흑A로 씹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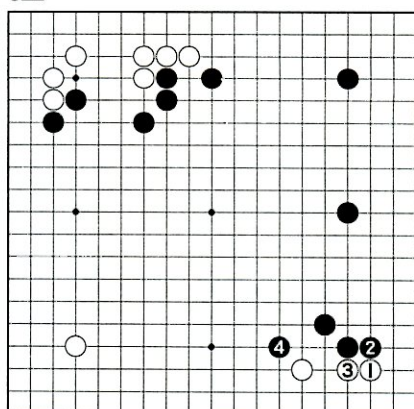
4도(예정)

만약 백2로 받는다면 흑3의 발전자로 둘 예정이었습니다. 이 수로 A에 날일자하는 수는 백의 강한 돌에 너무 접근하여 옅음이 노출됩니다. 흑3에 백B는 흑C로 나가 끊어서 싸울 만한 형국.

4도



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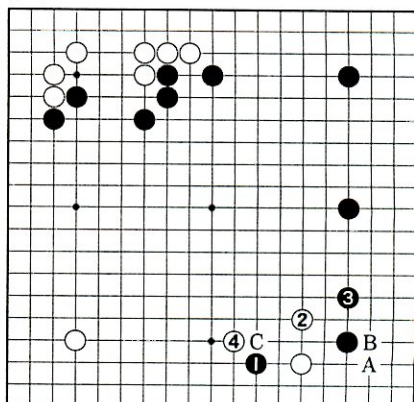
5도(주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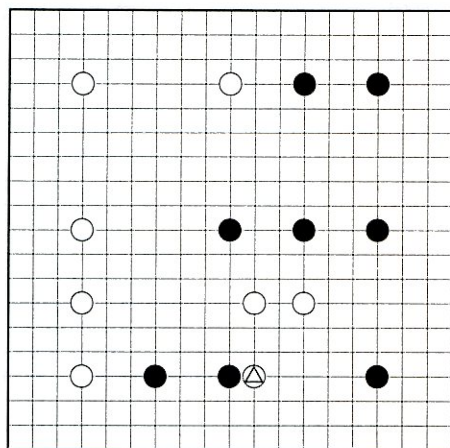
흑의 마늘모에 백1로 3·3에 들어온다면 흑2, 백3 때 흑4로 씹은 수가 안성맞춤이 됩니다. 이것은 흑이 마늘모를 두었을 때부터의 주문입니다.

6도(한칸 협공)

맨 처음 흑1로 한칸 협공하는 것은 백A로 들어와 준다면 흑B로 막아서 이상형이 되나 백2로 머리를 내밀게 되어 대세력작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백2는 C로 붙이는 수도 있을 듯합니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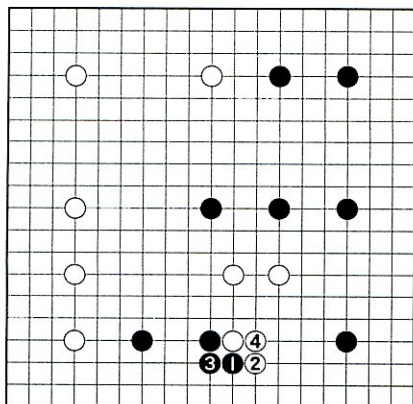
장면도Ⅲ(흑차례)

후지사와(藤澤秀行) 선생과의 바둑으로 이것도 나의 흑번. 후지사와 선생과 나의 바둑은 생각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세력의 바둑은 공격력이 없으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격문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백이 △로 붙여서 수습하려고 한 장면.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요?

1도(좋은 모양을 줌)

우선 흑1로 밑에서 짚었는데 백2로 막게 되어 후속수가 없습니다. 흑3에 잇는 정도인데 백4로 잇게 하여 되레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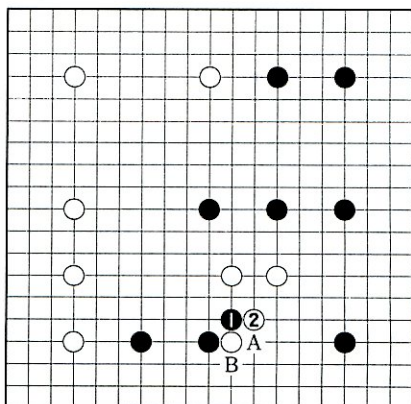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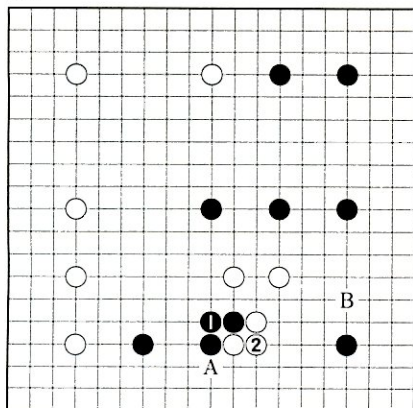
2도(다음이 문제)

공격한다면 흑1로 짚히는 수입니다. 백도 2로 짚혀 오겠지요. 문제는 이 다음. 예컨대 흑A로 끊는 것은 백B로 내려서게 되어 이것도 마땅한 후속수단이 없습니다.

2도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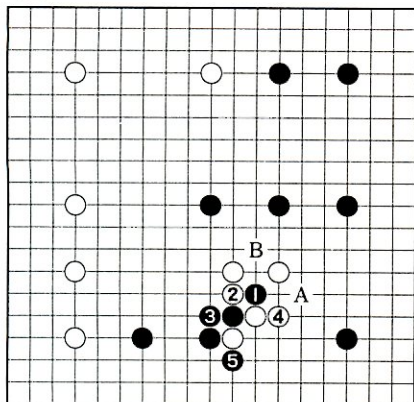
3도(느슨함)

냉정히 흑1로 잇는 것은 백2로 잇게 되어 공격방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망심하고 있다가는 백A로 점침당해 역으로 흑돌이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흑A는 백B로 두게 되는 것이 싫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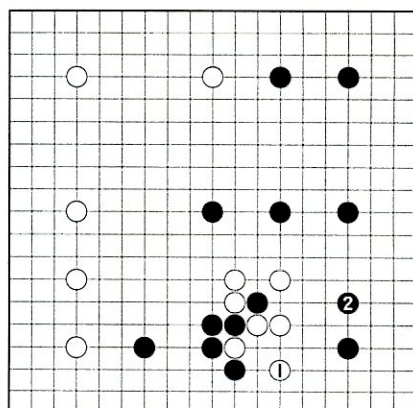
4도(사석)

흑1로 점힌 수가 고심 끝의 수입입니다. 부러 백2로 잡히지만 이 모양이라면 흑A, B의 두 곳에 들여다보는 수가 들어서 공격하기 쉬워집니다. 흑5가 기분좋은 물음.

4도



5도



5도(살려주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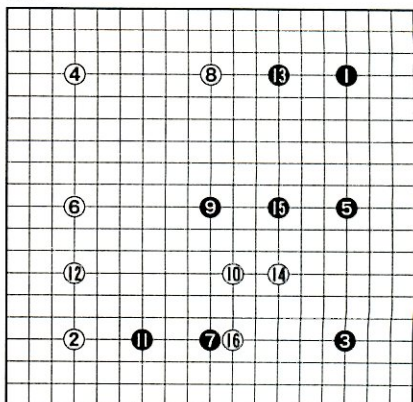
실전에서는 백1, 흑2와 같은 진행. 백은 아직 한집밖에 없는 상태. 백이 살기는 하겠지만 흑으로서는 조금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으면 만족입니다.

6도(수순)

장면도까지의 수순을 밝혀둡니다.

쌍방이 3연성에서 흑9까지는 후지사와 선생과의 바둑에서 몇 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8 때 흑9의 천원은 내가 좋아하는 수이므로 언제나 노타임으로 두었습니다.㉑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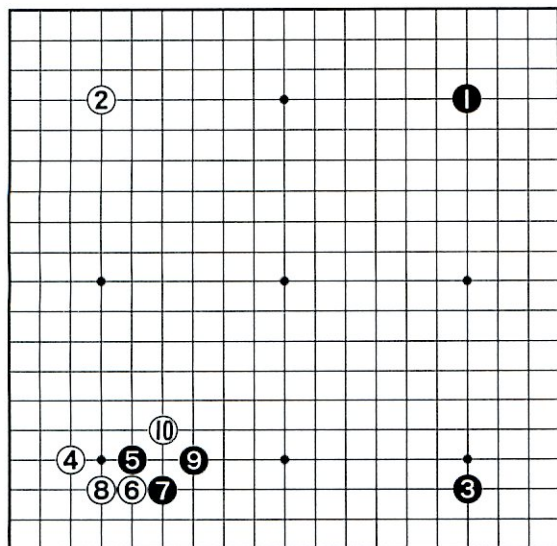


최규병의

초반 길라잡이

프로가 두었다고
무작정 따라두는
정석, 포석, 정형 뒤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수가 숨어 있습니다.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것은 하늘과 땅 차.
'식스맨' 최규병 八단이
길라잡이가 되어
마스터 작전에 돌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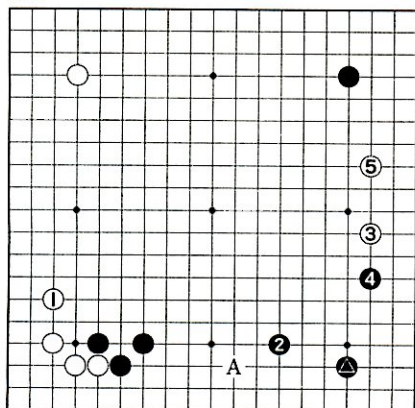
□ 정리/이용복(바둑기고가)



장면도(1~9)

제31기 왕위전 본선리그에서 싸움바둑으로 이름을 떨치는 정대상 七단과 겨룬 바둑입니다. 제가 백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화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뤄 약간은 지루한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이번엔 소목으로 장소와 분위기를 바꿔 보았습니다. 실전을 따라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도



1도(보통)

장면도 백10으로 그림처럼 1에 뛰면 ▲가 낮아서 흑A로 벌릴 기분은 안듭니다. 흑2로 하변을 키우고 백은 3으로 갈라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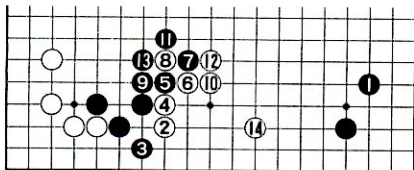
2도(둘 만하다)

흑1로 귀를 굳힐 수도 있습니다. 백은 2로 뛰어들겠지요. 흑도 13으로 뺄까낸 것이 보기보다 두터워 충분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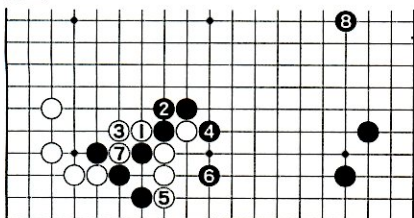
3도(우변도 큰 모양)

2도 백8로 그림처럼 1·3으로 두면 흑은 4·6·8로 우변에 모양을 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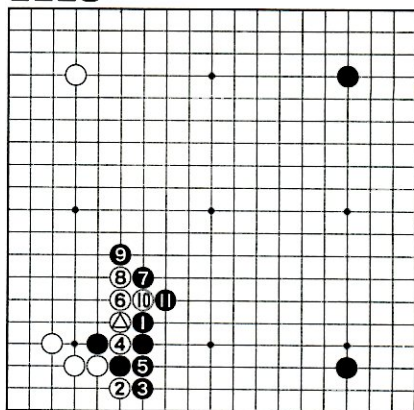
2도



3도



실전진행1



실전진행1(1~9)

백▲로 들여다보자 흑은 그냥 이어주지 않고 1로 막았습니다. 흑9가 기세 넘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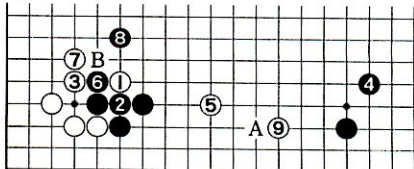
4도(활용당한 느낌)

백1에 바로 흑2로 이을 기분은 안듭니다. 흑4로 두면 백은 5·9로 자리를 잡습니다. 흑8로 A면 백B로 막아두어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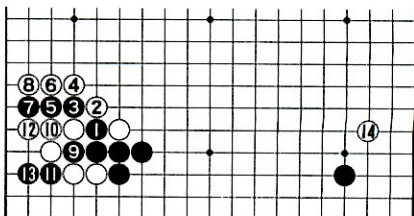
5도(둘 만하다)

흑1도 있습니다. 백2에 흑3으로 끊고 13까지 귀의 임자가 바뀌는데 서로 둘 만합니다. 백12로 13에 치면 후수를 잡게 돼 나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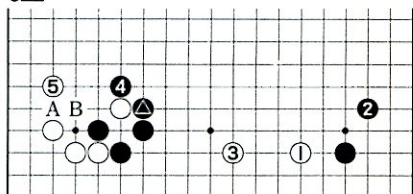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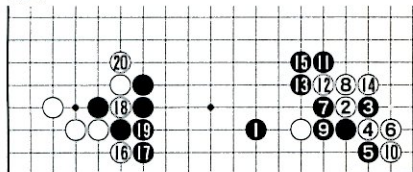
5도



6도



7도



6도(손빼)

흑▲때 손빼는 수도 있습니다(흑A면 백 B). 백1·3으로 하변에 빨리 터를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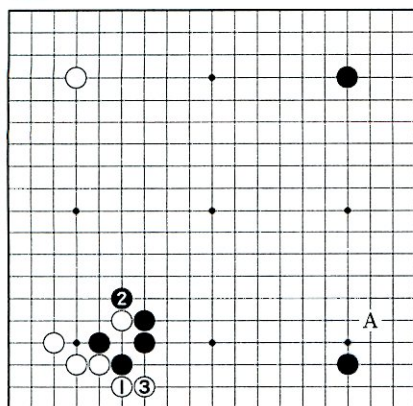
7도(백 충분)

흑도 6도가 싫다면 1로 공격할 겁니다. 백은 2·4로 수습합니다. 하변은 많은 돌이 투자된 모습이라 대단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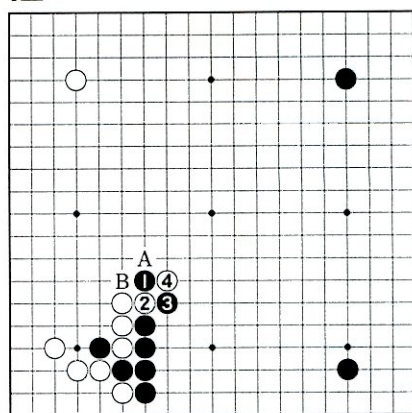
8도(흑 선택하기 힘들다)

백1에 흑2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3 다음이 마땅치 않습니다. 흑A로 굳혀도 백3 때문에 하변으로 발전하기가 힘들니다.

8도



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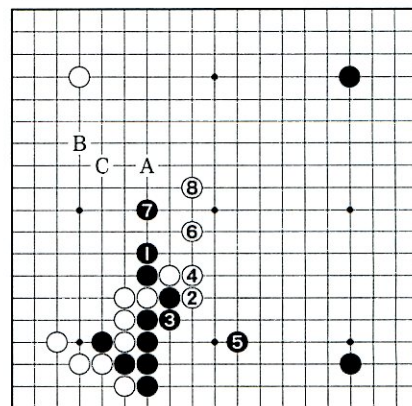
9도(싸움을 걸다)

흑1로 한발 앞서 가자고 할 때 백이 당장 싸움을 걸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백4로 끊습니다. 다음 흑은 A나 B 둘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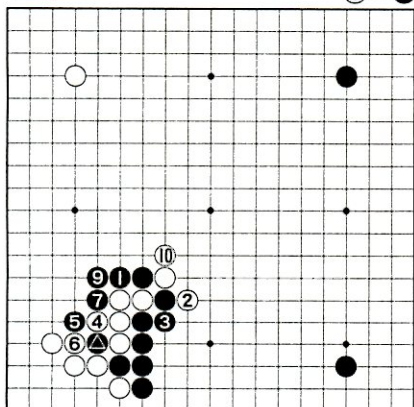
10도(좌변에서 싸움)

먼저 흑1로 뺄으면 백2·4로 중앙싸움을 준비합니다. 흑은 하변을 지키고 중앙으로 뛰는데 전투는 좌변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백8 다음 흑A면 무난하고 먼저 흑B로 걸치면 백C로 갈라와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10도



1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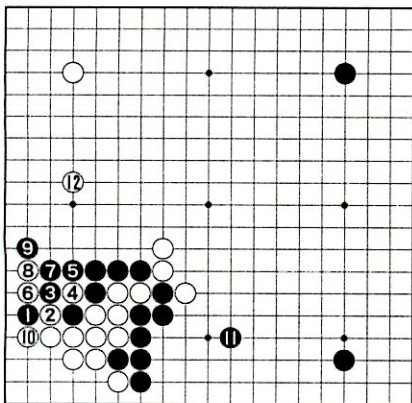
11도(최선)

흑1에 밀어 볼까요? 백2로 몰아두고 4로 잡아두는 것이 올바른 수. 흑은 5·7을 활용해 둡니다. 초점은 중앙싸움이니까 백10으로 뺀어 힘을 모아두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후 좌변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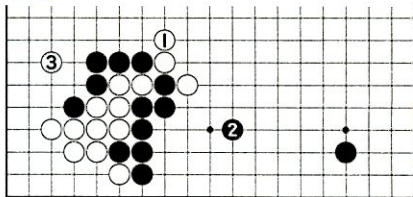
12도(흑도 두텁다)

이어서 흑은 1로 뛰고 귀의 백이 어떻게 나올지 봅니다. 백2면 흑은 9까지 선수로 처리하고 11로 하변을 지킵니다. 백이 좌변을 먼저 공격하지만 흑도 두터워 둘 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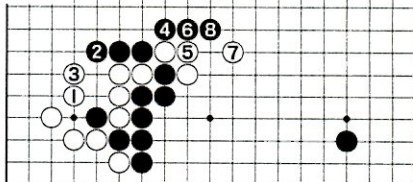
12도



13도



14도



13도(흑 쫓겨 괴롭다)

백1 때 흑2로 하변을 먼저 지키면 백3을 당해 흑이 쫓깁니다. 이건 괴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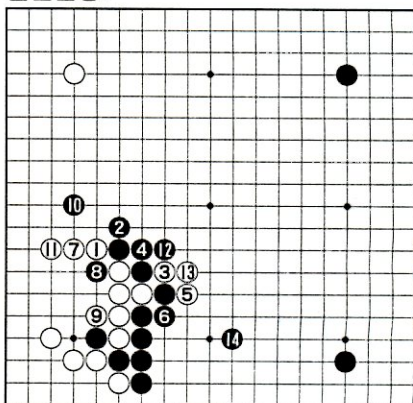
14도(흑 좋음)

11도 백4로 그림처럼 1로 잡는 것은 나쁩니다. 흑2로 뺀은 다음 4부터 중앙을 눌러가는 자세가 힘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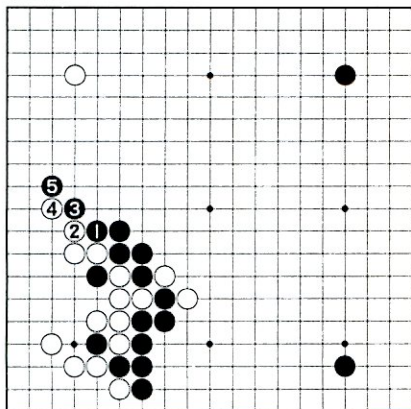
실전진행2(1~14)

백이 귀를 크게 넣었고 흑은 중앙을 봉쇄했는데 최선의 수순이 아니었습니다. 백11, 흑14가 틀렸습니다.

실전진행2



1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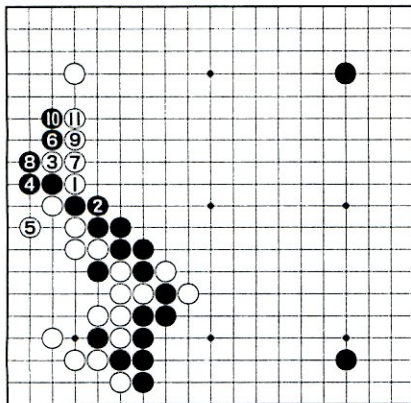
15도(통할까?)

흑1로 막는 것은 옛날 정석입니다. 백2면 흑3·5로 이단짓히는 것이 얼핏 통렬해 보입니다. 예전엔 이래선 흑이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 정말로 통할까요?

16도(백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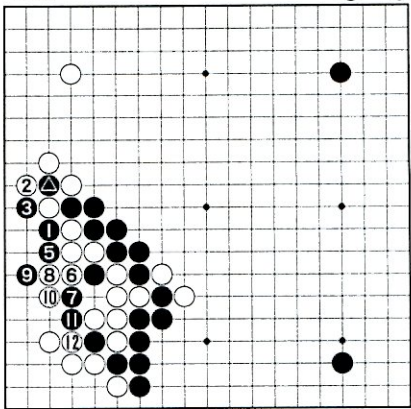
집을 먹고 뒤로 물러서면 안되죠. 백1·3으로 강하게 반발합니다. 흑4로 뺄으면 5로 지킵니다. 흑이 좌변에서 사는 일이야 문제가 안되지만 백은 9·11로 두텁게 눌러 막아 좋습니다.

16도



17도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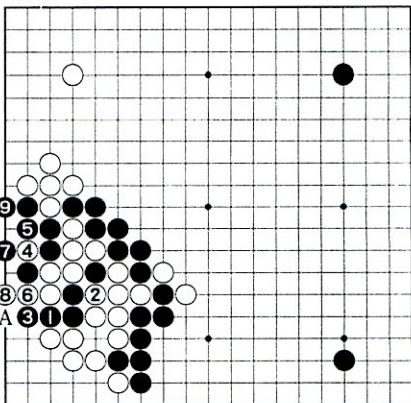
17도(조심조심)

흑이 △를 버리고 백집 속에서 수를 내자고 나왔습니다. 백도 뒷수가 꼭 매워져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흑7·9에 연단수를 안 당하려면 백8·10으로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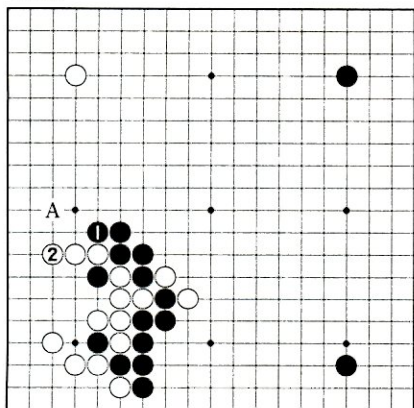
18도(살아도 망함)

흑1·3으로 물고 나옵니다. 백은 4에 끊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8에 내리면 흑 A로 몰려 연단수가 되어 큰일납니다. 흑9로 살았으나 이견 수를 내고 망한 모습입니다.

18도



1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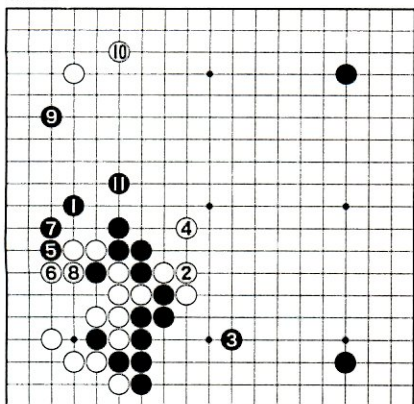
19도(백1로도 괜찮다)

위의 그림은 복잡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흑1에 가만히 백2로 지켜도 좋습니다. 다음 흑A로 두는 것은 발이 느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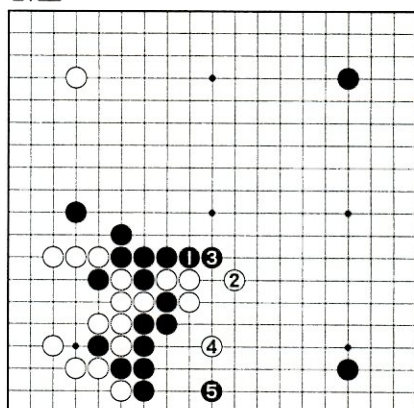
20도(발이 느림)

그렇바엔 흑도 1로 두고 다음 5에 붙이는 수를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실전진행2에서 백11은 모양이긴 해도 발이 느렸습니다. 지금처럼 2·4로 중앙을 빨리 움직일 자리였습니다.

20도



2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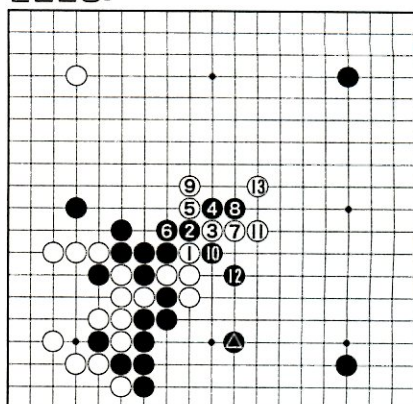
21도(힘의 요처)

왜냐하면 흑1 자리가 서로 힘의 요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이 놀리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중앙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요.

실전진행3(1~13)

따라서 흑▲가 급소를 놓친 실수였습니다. 거꾸로 백1에 손이 돌아왔습니다. 백13까지 바뀌치기가 되었는데 이 결과는 중앙을 차지한 백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가운데 백 낙점이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실전진행3





‘호선?’ 부담이 큼니다’

본지 주최 프로·아마 오픈토너먼트의 1회전이 시작됐다.

포인트는 ‘호선’이라는 치수.

프로쪽은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1회전 8국을 전승하고픈 프로,

반타작이 목표인 아마군.

일단 4국중 1국은 아마군이 건졌다.

팬들은 그런 파격에서 흥미를 만끽한다.

월간『바둑』 특별기획

’97프로 : 아마오픈토너먼트 본선회전

백 6단 박 영 훈

흑 2단 김 만 수

〈제한시간 각 1시간 30분, 덤 5집반, ’97. 3. 26, 한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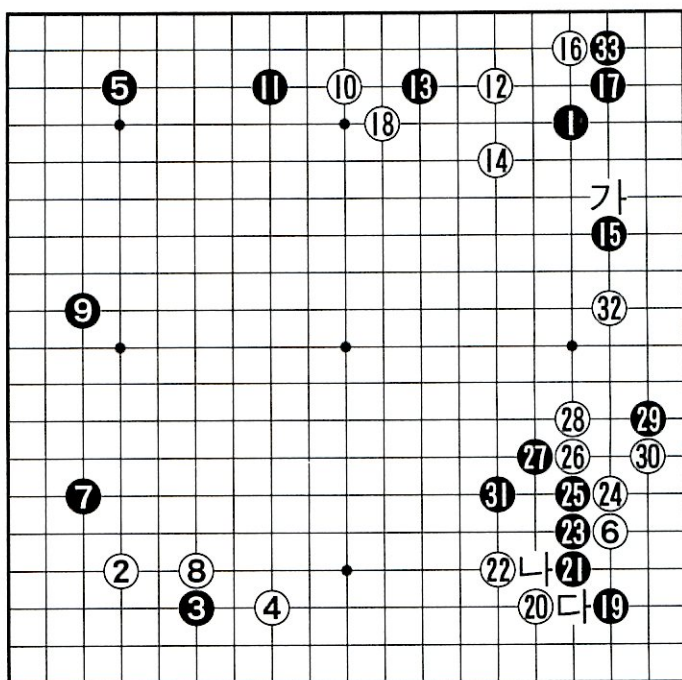
☐ 관전기/공윤성(바둑기고가)

☐ 자전해설/김만수 2단



1~33

호선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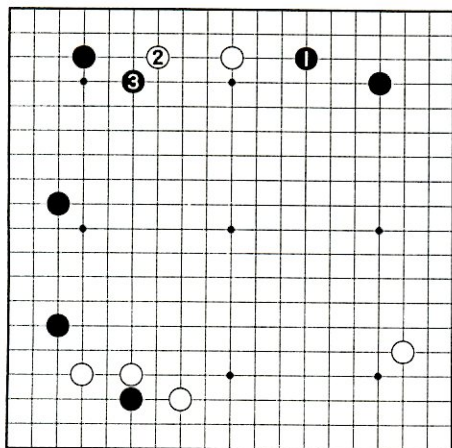
프로와 아마가 ‘호선’으로 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격’이다. 평소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보면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특별기획’이다. 그러면 왜 그런 기획을 한국기원측에선 마련한 것일까? 그것은 갈수록 소외돼가는 아마추어에 대한 배려요, 품음이다. 물론 흥미적 측면도 배제치 않았다. 종전처럼 평범한 것 갖고는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이슈가 되지 못한다. 뭔가 ‘쇼킹’한 것이 아니고선 도무지 까다로운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바둑을 둔다는 자체가 프로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한편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쳇말로 ‘이

기면 본전, 지면 망신’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기면 스타, 저도 본전’은 아마의 입장임은 불문가지. 그렇다면 이 기획에 앞서 뭔가 선행조건이 따라야 한다. 그 교육정책이 ‘입단 3년차 내의 2단 이하’의 프로다. 물론 이 기획이 성립되기까지 전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조건으로 기획 자체가 성립불가인 현실이요, 그렇다고 그 이하의 조건으로 흥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기에 적절하고 최선이였다고 보여진다.

이날 특이한 것은 돌을 가린 결과 프로측이 모두 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호선대국이라지만 프로가 흑을 잡고 두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 가뜰이나 어깨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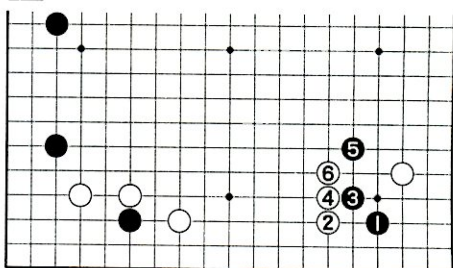
힘이 들어가 있는 프로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될까 우려된다. 둘을 가린 결과가 지금과 정반대였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대국장의 분위기도 오늘같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6 외쪽은 박영훈 6단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착점이고 흑7·9 ‘미니 중국식’은 미리 구상해둔 포진. 다음 백10 갈라치기가 당연할 때 흑11 쪽 다가섬은 생소하다. 보통 1도 흑1로 다가서고 백2 두칸벌릴 때 흑3으로 씌우는 진행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만수 두 단 “도는 너무 많이 두어진 길이라 뺄 것 같아서 한 번 틀어본 것입니다.” 흑15도 마찬가지. 거의 날일자가 보통이나 백16에는 흑17로 받아 간격이 좋고 백16으로 그냥 18로 잡아도 흑은 16에 지켜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한 신수감이다.

흑19는 외목에서 가장 온건한 걸침. 나
로 느슨하게 걸치는 것은 백2로 상대에
실리를 제공하는 것이 싫고 2도 흑1로 걸
치는 것은 백2 협공이 적절. 6까지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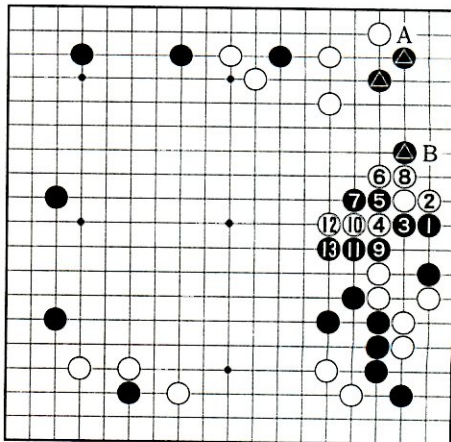
25



백진이 좋아진다.

백20은 가장 급박한 협공인데 어땠을까. 흑21에서 백32까지 일단락인데 뭔가 하변과 좌변의 백 모양이 허술하다. 흑이 33으로 자중했으니 망정이지 3도 흑1로 대뜸 수를 내려갔으면 13까지 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상귀 흑▲는 A와 B가 맞보기로 안전. 그렇다면 흑은 이 수단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간과한 것일까, 다음보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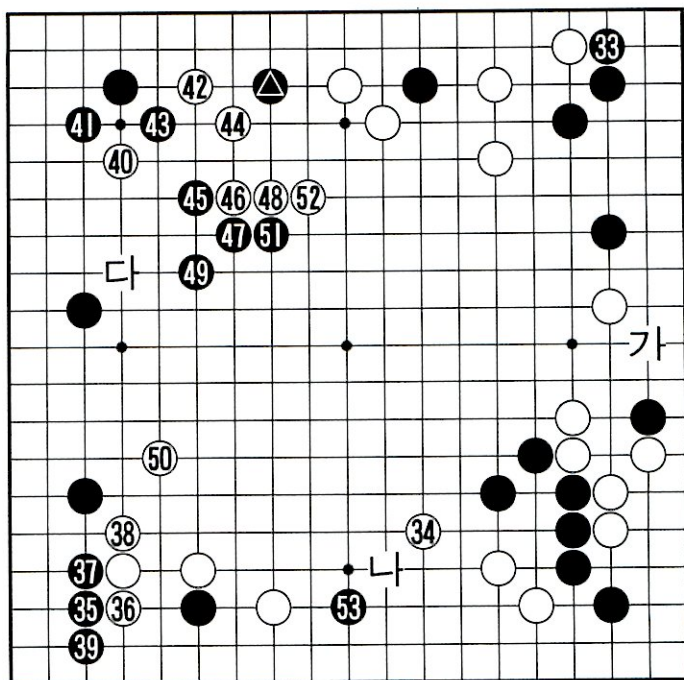
35





33~53

차 세 대 선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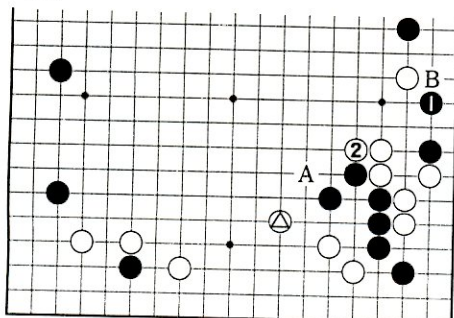
이번 기획에 참가한 프로들은 연구생출신들로 말이 二단 이하지 몇몇은 이미 본선을 내집 드나들 듯하는 기사들이다. 특히 이 판의 김二단은 그 중에서도 단연 톱클래스. 작년 한해 성적은 45승 21패로 五단 이하 다승과 승률 부문에서 6위와 8위에 각각 랭크되었다. 올해들어 월간『바둑』3월호에 소개되었듯이 박카스배 천원전에서 거목 서봉수 九단을 꺾고 본선에 오르는 등 이미 3개의 본선티켓을 확보해 둔 상태. 앞으로 몇 개의 본선티켓 추가가 예상되며 본선에서의 활약도 기대되는 바 크다. 유망한 차세대 선두주자임은 말할 나위없겠다.

이에 맞서는 박6단은 이번 ‘아마10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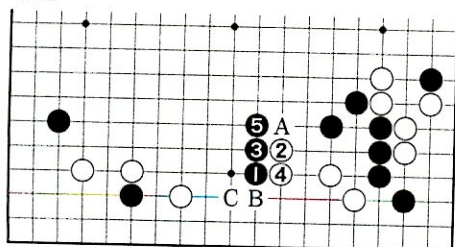
이 나온 스타로 명실공히 아마대표 1위의 자격으로 이번 기획에 나섰다. 작년 세계 청소년바둑선수권전에서 우승,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번 아마10강전에선 전국의 내로라하는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당당히 아마정상에 깃발을 꽂았다. 이는 지난 '79년 학초배에서 13세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한 유창혁 九단의 기록을 18년만에 갱 것으로 비록 현재 연구생들이 일반바둑대회 출전이 금지돼 있긴 하지만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물이 오를대로 오른 박6단이 대선배격인 김二단을 맞아 어느 정도 선전해줄지 이 판에 대한 관심이 여느 판보다 지대하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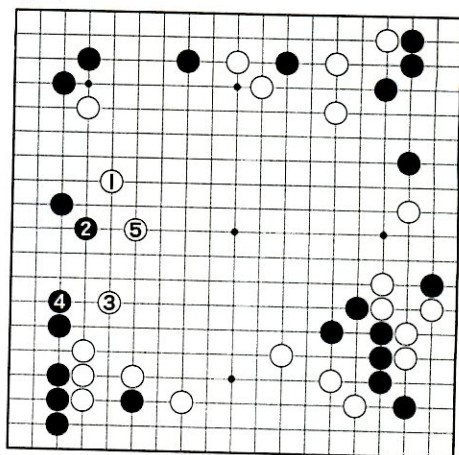
5도



가의 수단을 모를 리 없는 김二段이 흑 33을 둔 것은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던 것. 즉 이렇게 튼튼히 지켜놓고 다음 백이 나췌 지키면 그때 가를 결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김二段 “백34가 미처 예상치 못한 좋은 수였어요. 이 수로 인해 가에 침입하는 수가 잘 안됩니다. 가령 4도 흑1이면 이젠 백2로 둡니다. 백△로 인해 A의 봉쇄와 B의 막음을 맞습니다. 흑은 여하튼 A의 봉쇄를 피해야 되는데 백은 선수를 잡아 B로 막게 되겠죠”며 이렇 줄 알았다면 흑33으론 당장 5도 흑1로 하변을 갈라칠 자리라며 후회했다. 백은 2·4로 정비하는 정도. 백4로 A에 뺨는 것은 흑4 꼬부림을 당해 견딜 수 없다. 흑은 유유히 5로 뺨어 만족. 다음 백은 계속해서 B로 쫓혀 안정해

6도



야 하는데 흑은 C로 막아 자연스럽게 하변을 파괴할 수 있었다.

백34는 프로의 의표를 찌른 일석이조의 멋진 감각이었고 박6단의 천재성이 엿보이는 일작. 김二段도 나중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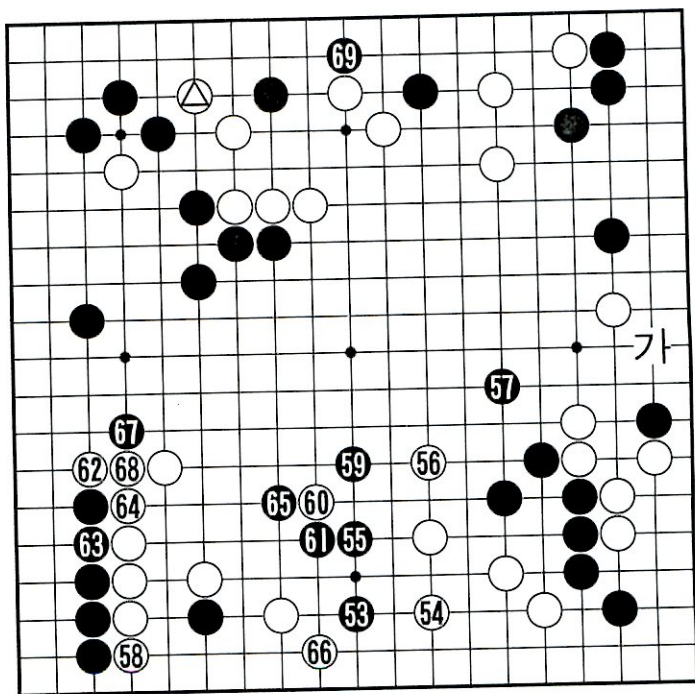
흑35의 시급한 침입에 이어 백40도 시급한 걸침. 즉 두 곳은 맞보기의 의미가 짙다. 그런데 흑41 때 백42는 무언가. 검토실의 정대상 七단은 단호히 말한다. “따질 것없이 49까지 결과를 보면 백40과 흑△를 맞바꾼 꼴인데 이전 누가 봐도 백의 적자 교환이다”며 백46으로는 약간 무리지만 지금이라도 다에 두어 일전불사를 외칠 자리라고 정七단은 안타까워 했다.

국후 김二段도 백42로는 6도 백1의 곳이 적절했다고 지적했고 5까지 백이 활발하다고 했다.



53~69

연이은 실착



프로와 아마의 호선대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88년 월간『바둑』주최 '태풍대결'이 그것. 당시 아마추어는 입단의 문이 닫혀 있던 암울한 시기였다. 오직 입단의 꿈을 갖고 청춘을 바둑에 바쳐왔던 당시 아마고수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이었으며 갈수록 아마고수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 뭔가 숨통을 터 주지 않으면 그들의 욕구불만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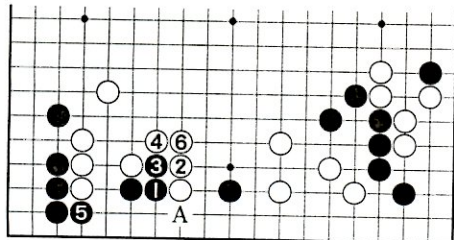
이에 월간『바둑』이 앞장서 그들의 갈증에 명분을 만들어 준 기획이 바로 태풍대결이었던 것이다. 아마측 입장에서선 고대하던 좋은 기회였다. 오직 실력만이 입단의 문을 다시금 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

쇠라고 확신하고 프로측을 밀어붙였다. 당시 프로대표로 출전한 신예들은 이창호 2단, 유창혁 3단 등 쟁쟁한 멤버들이었으나 아마대표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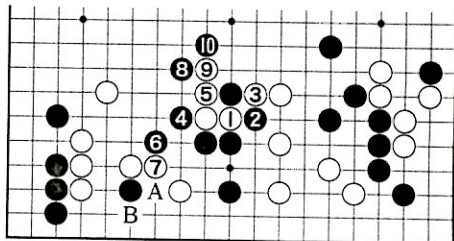
비록 4강전에선 프로 일색이 되었지만 8강전까지는 '반타작'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 기획의 반향으로 아마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여론도 아마측에게 쏠리게 됨으로써 열망하던 입단의 문도 그해 겨울 기어코 열리게 되었다.

전보 백 ㉞는 이 판에서 가장 질타를 많이 받은 수였다. 그로 인해 형세는 어느새 흑쪽으로 기울었고 또한 상대가 상대인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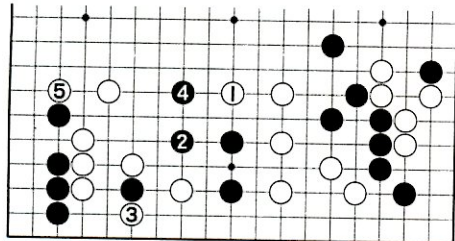
7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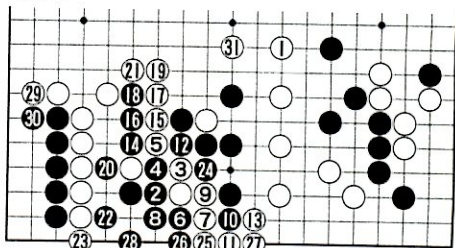
9도



8도



10도



컴 흑의 낙승이 기대된 것은 사실. 그러나 바둑이란 묘한 것으로 앞으로도 무수히 흑 백간 승부의 고비를 맞게 된다.

흑53은 회심의 한수로 침입의 급소. 백54는 침착한 응수. 그런데 여기서부터 김二段은 알기 쉬운 길을 외면하고 어렵게 국면을 풀어가고 있었다. 그 시발점이 흑55. 7도가 알기 쉬웠다. 흑1로 치받아 5까지 선수로 실리를 땀겨둔다. 하변 백집은 위에서 깎는 맛도 있고 흑A로 찌혀 잇는 것도 있어 별 게 아니었던 것.

김二段이 흑55로 뛰어나간 것은 백56을 기다려 흑57에 뛰게 되면 가의 노림이 노골화되므로 백이 우변에 가일수할 때 하변 좌측 백말을 공략하자는 의도였는데 흑57은 불행히도 우변에 대해서 선수가 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보에서 설명하겠다.

어쨌든 백으로선 찬스가 주어졌는데 58

이 대완착. 무조건 8도 백1로 씌워갈 자리였다. 흑2 때 백3으로 자연스레 지키고 5까지 백이 물흐르는 듯한 진행으로 국면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백60도 흑17에 반발할 수 없다면 두지 않음만 못했다. 즉 9도 백1로 반발하는 것은 흑10까지 오히려 흑의 모양만 갖춰주는 꼴이 된다. 백7을 손빼는 흑7, 백A, 흑B로 크게 당한다.

흑이 65로 모양을 갖추자 불안을 느낀 백은 66으로 하변을 보강했는데 이것이 또 한 완착. 10도 백1로 뒤틀 곳이다. 흑2 이하 수단은 당장 안된다. 28까지 살 순 있어도 백31이면 오히려 흑말만 잡히는 꼴. 따라서 흑2는 현재로선 요원한 뒷맛일 수밖에 없었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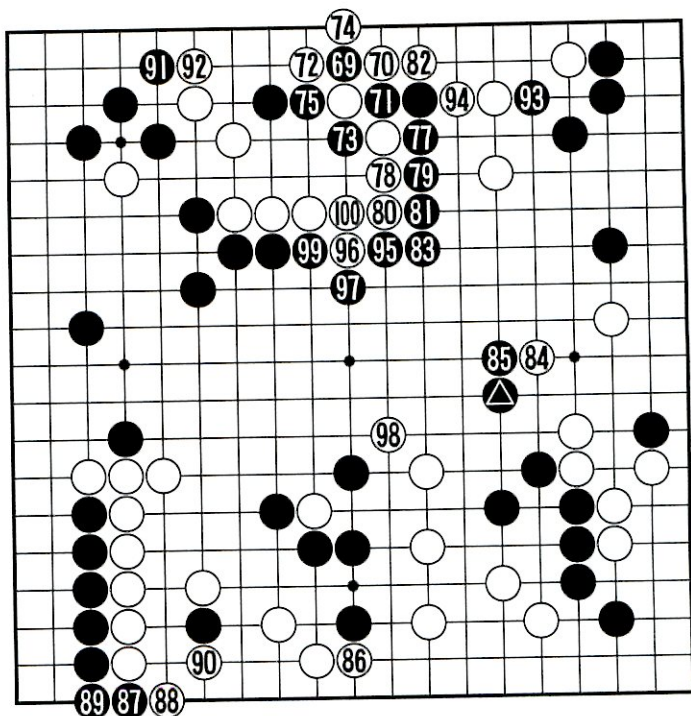
박6단의 연이은 실착. 아직은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69~100

76...69

프로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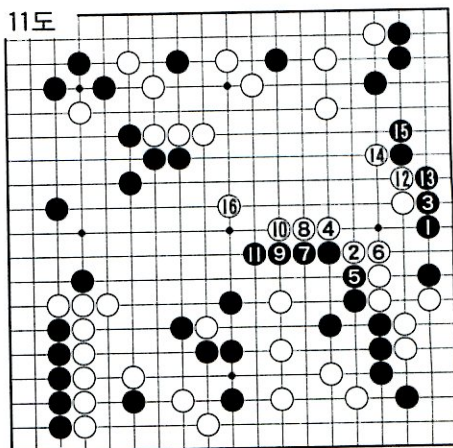


전보 흑▲가 왜 우변 백진에 대해 선수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11도 흑1에 백은 2로 붙이는 타개의 수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흑이 3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백은 4 이하 10까지 죽죽 밀어놓고 12~16으로 모양새를 갖추면 중앙 백집이 줄지에 불어난다. 흑으로선 굵어부스럼격이 되고 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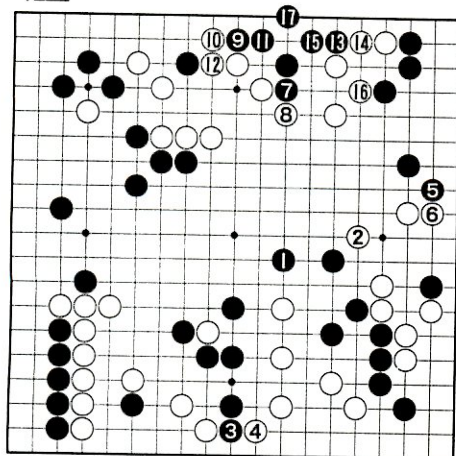
어쨌든 지금 국면이 흑으로서도 깨끗이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찬스였다. 그런데 흑69가 문제의 한수. 꽤나 시간을 들인 수였는데 국후 김2단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변에서 무언가 수가 날 것 같아 둔 것인데 결과는 최악이었어요”라며 자책했다.

또한 김2단은 흑69의 시점에서 형세가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갑자기 조급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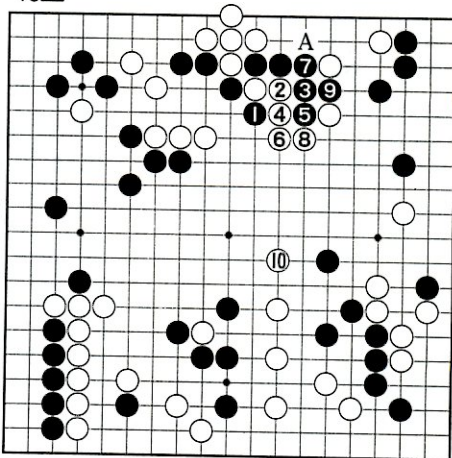
11도



12도



1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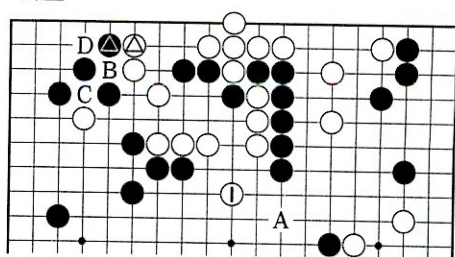


이 들었다 한다. 그래서 상변에서 수를 내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평소 김二段답지 않은 말이지만 그만큼 이 대국에 임하는 김二段의 부담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부담감이 흑69와 같은 조급함으로 표출되었다고나 할까.

흑으로서 국면을 알기 쉽게 마무리해 나가는 코스가 12도다. 흑1이 일단 요처. 이제 백2 가일수는 생략할 수 없다. 그레놓고 흑3·5로 득을 취한 뒤 흑7·9로 움직일 자리. 17까지 깨끗이 산다. 그랬으면 백은 대변에 집부죽증에 걸리게 되고 딱히 승부를 걸만한 곳도 없어 흑의 낙승이 예상되었던 것.

70 이하 백으로서도 최강의 저항이다. 흑77 이하는 속수의 의미가 짙지만 어쩔 수 없었던 듯. 둘의 행마상으로는 13도 흑1 쪽에서 몰아가는 것이 정수. 그러면 흑9 때 백10이 요처가 된다. 백의 등이 두터워진 만큼 미생인 하변 흑말 양쪽이 얹히기 십상이다. A로 넘는 끝내기도 남아 있고

1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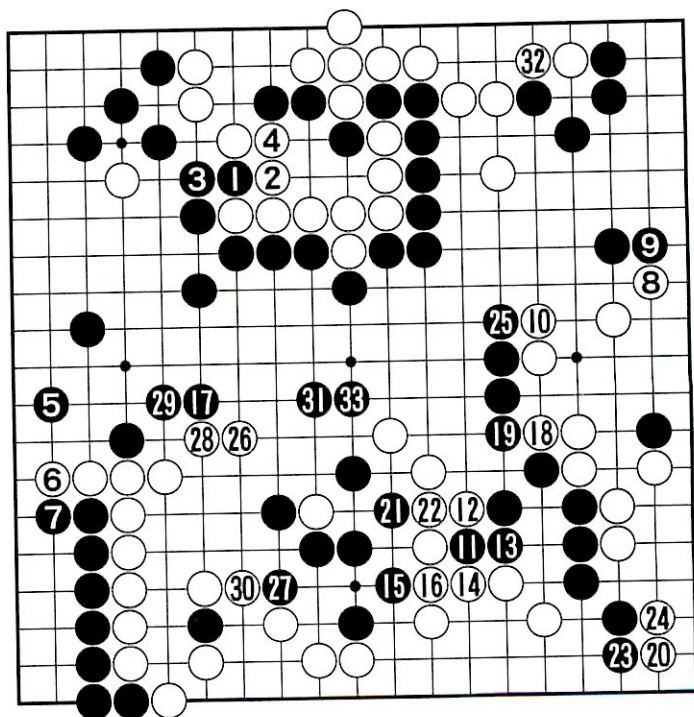
83으로 겨우 머리를 내민 것으로는 흑으로서 한 것이 없는 모습. 이제 백84는 기민. 그레놓고 백86으로 넘었는데 이것이 준패착감이었다. 무조건 14도 백1로 뛰어나갈 자리. 다음 백A가 통렬해 흑이 뭔가 보강할 때 유유히 끝내기해 나갔으면 이 판은 백이 쉽게 지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다음 실전처럼 흑▲, 백△가 되었던라도 백B가 들어 흑C, 백D의 부수입도 보장되는 상황.

흑이 기민하게 87·89 역끝내기에 이어 91·93 기분좋은 선수활용을 한 뒤 95~99까지 틀어막으니 흑 우세의 국면으로 돌아서 버렸다.



101~133

한수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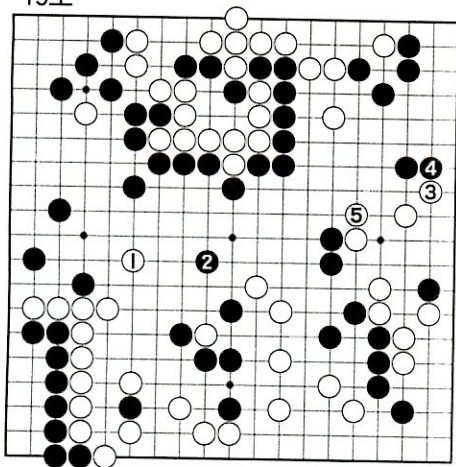
이즈음 네 판 중 이미 두 판은 승부가 난 상태. 예상 외로 프로와 아마간 1:1 박빙이다. 프로 측엔 백대현 2단이 승점을 올렸고 아마 측엔 최철수 6단이 '일'을 냈다. 아마의 응원단에선 "한 건 했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다른 두 판은 어찌 될 지 모르지만 일단 아마가 1승을 거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실 이번 기획을 보면서 내심 우려한 것이 아마 측이 전멸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기획 자체가 흥미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다음기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초조해진 것은 프로 측이다. 김2단도 그것을 이는지 우세한 국면임에도 표정이 굳어 있다. 흑이 우세한 국면이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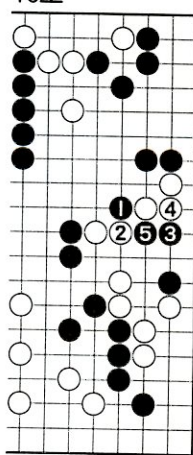
지만 보기보단 살얼음판이다. 김2단도 국후 흑백간 찬스도 많이 놓쳤지만 흐름상 흑이 여유로워야 하는데 의외로 미세한 국면이어서 내심 초조했었다고 고백했다.

흑이 1·3 기본종은 선수활용 후 5·7 끝내기로 판을 좁혀갈 때 당연해 보이는 백8·10 끝내기가 결국 패착이 되고 만다. 15도 백1이 놓칠 수 없는 요처였다. 이때 아직 하변 흑말이 미생이므로 흑2 가일수는 생략키 힘들다. 그레놓고 백3·5 끝내기를 해갔으면 흑이 약간 두텁긴 하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국면이었다 한다. 백5를 손빼면 16도 흑1~5의 수단이 있다. 따라서 백을 17도 1·3으로 받아야 하는데 흑4까지 많이 당한다. 끝까지 백에게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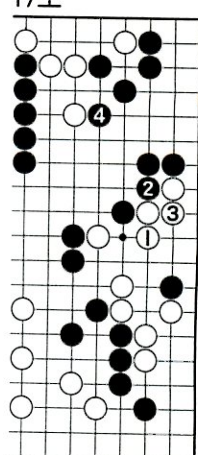
15도



16도



17도



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 판의 미스터리였다.

그러나 흑17이 결국 놓이게 되어서는 이제 더이상 승부처는 없어졌다. 33까지 흑승이 확정된 순간이다.

제6보

흑35 이하는 불필요한 손찌검. 51에 져서 백124, 흑가였으면 승부처는 더 벌어질 수 있었다. 백44 이하 백이 끝내기에서 맹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비록 때는 지나갔지만 프로를 상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박6단의 대국 태도가 대견스럽다. 결과는 반면 10집. 덤을 제하고 4집반을 백이 졌다. 정말 잘 싸운 한판이었다.

국후 박6단의 부친 박광호(서울방송 편성제작부장, 아마5단) 씨도 아들이 대견한지 어깨를 두드리며 "잘 됐다. 김사범님한테 한수 잘 배웠어. 수고했다"며 위로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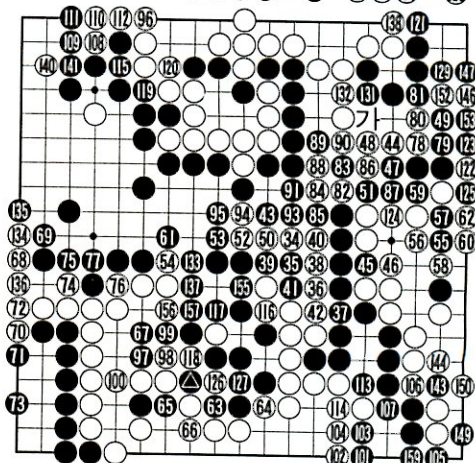
승자인 김2단은 다른 대국은 복기로 떠들썩한데 돌을 재빨리 쓸어담고 충충히 대국장을 빠져나갔다. 결과를 떠나 그만큼

부담감이 컸다는 것일까? 박6단은 현재 '야전수업'에 전념한다고 한다. 어찌됐던 하루속히 프로가 되어 대성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259수 끝, 흑 4집반승

6보

134~259 92...83 128...127 130...125 139 145 151 153...△ 142 146 154...126





프로 : 아마 '호선 맞대결' 스타트 최철수, 김강근에 역전승 '스타탄생'

프로신예의 패기인가, 아마정상의 관록인가? 프로기사와 아마기사가 총호선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97프로 : 아마 오픈토너먼트'가 개막됐다.

월간『바둑』특별기획으로 선보인 '97프로 : 아마 오픈토너먼트'는 그동안 치수고치기 방식으로 열리던 프로 : 아마대항전을 혁신, 아가가 프로에 호선으로 도전하는 일종의 탐험대결이며 프로 측에서 볼 때 위험대결 성격의 특별이벤트.

프로신예와 아마정상이 맞겨루는 이번 프로 : 아마 오픈토너는 침체된 아마바둑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프로바둑에는 신선한 자극을 주며 바둑팬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호선에 단판승부인 토너먼트 방식(16강전)에 3회전(준결승)까지는 프로와 아마의 대국료를 차등 지급하지만 결승에 오르면 우승 500만원, 준우승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여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프로 : 아마의 오픈토너는 지난 88년 본지 특별기획 '태풍대결'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당시 프로군의 김동엽 3단이 우승하고 아마군이 8강전에서 전멸하긴 했어도 1회전(16강전)에서 안관욱 6단(현 프로 4단)이 현재 세계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창호 9단을 꺾는 등 4명이 2회전에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프로의 패기와 아마의 관록 대결

9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에서 아마군은 96년 성적을 토대로 아마강자를 초청한 제 18회 아마10강전에서 8위까지의 상위 입상자로 구성됐다. 프로군은 비록 2단 이하(백대현 3단은 선발 이후 승단) 3년차 이하로 한정했지만 '9단 잡는 킬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승부에 관한 한 뒤지지 않는 신진 고수들이다. 따라서 호선이라면 프로군이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단판 승부인 점을 감안하면 아마군에게도 승산은 있다.

94년부터 재개된 프로 : 아마대항전은 프로정상과 아마정상의 치수는 두점으로 결론이 난 상황. 그렇다면 프로신예와 아마정상의 치수는?

3월 26일 열린 1회전에서는 예상대로 프로군이 세판을 이기고 한판을 졌다. 프로군은

백대현 3단이 이용만 6단을 맞아 17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이현욱 2단이 김동섭 7단을 223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 프로군의 주장격인 김만수 2단과 전국아마10강전 우승자로 최연소 전국대회 우승기록(11세)을 세운 박영훈 6단의 대표대결에서는 접전 끝에 김2단이 249수 만에 흑 4집반승을 거뒀다. 아마군에서는 최철수 6단이 김강근 初段과 치열한 난타전을 벌인 끝에 19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아마군의 첫 8강 진출자로 체면을 세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스타로 발돋움한 최6단은 72년 롯데배 최고위전에서 우승한 이래 23년 만인 95년 제13회 아마대왕전에서 우승, 전국무대 정상에 컴백한 부산 출신의 재야강호. 이번 대회 최고령 출전자이기도 한 최6단은 아마10강전에서 4위를 차지, 출전권을 획득했다.

어쨌든 이번 1회전 결과는 아마군으로서는 완패를 면했으나 1차 고비를 넘긴 셈이고, 프로군으로서는 3승을 올렸지만 양이 차지 않는 성적표. 특히 다음 1회전 네 판 중에는 여류도 2명이 포함돼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과연 아마군이 어디까지 치고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구 기자〉

'97 프로 : 아마 오픈토너먼트 대진표(16강전)

김															
김				최				백				이			
김만수 2단		박영훈 6단		이세돌 初단		유정성 5단		김강근 初단		최철수 6단		윤영선 初단		조병탁 7단	
백대현 3단				이용만 6단				안달훈 初단				박영진 7단			
이현욱 2단				김동섭 7단				이영선 初단				심우섭 6단			

'97 프로·아마 오픈토너먼트 개막!

전통과 권위를 쌓아온 본지 주최의 프로·아마대항전이 획기적인 변신을 꾀합니다. 그간의 대항전 형식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오픈 토너먼트 방식으로 변경, 진행합니다. 총 호선의 치수로 겨루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비교와 친선가교 역할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본지에 독점 게재될 기보와 뉴스는 또한번 장안의 화제를 모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① 일 시 : 1997년 3월~11월 (1회전 2~4월 24일(목) 오후 2시)

② 장 소 : 1회전은 한국기원 대회장, 2회전부터는 지방 순회 예정

③ 진행방식 : 16강 오픈토너먼트

1회전은 프로를 시드에 배정하고 아마를 추첨.

대국료는 3회전까지 프로, 아마 별도 지급. 결승전은 일괄 지급.

④ 대국방식 : 치수-총호선, 제한시간-각 1시간 30분(1분 초읽기 3회)

⑤ 대 국 료 : 우승-500만원, 준우승-200만원

3회전-(프로)100만원, (아마)60만원

2회전-(프로) 60만원, (아마)40만원

1회전-(프로) 30만원, (아마)20만원

⑥ 선수선발 : 프로, 아마 각 8인 총 16인

(프로)연구생 출신,二段 이하, 입단 년수 3년이하, 96년 승률순, 여류2인 승률기준.

(아마)제18회 전국아마10강전 상위입상자 8인(9, 10위는 예비후보)

⑦ 기보게재 : 월간『바둑』 97년 5월호부터 12월호까지 게재.

●주최 : (재)한국기원

●주관 : 월간『바둑』

〈프로〉



김만수 二단

〈아마〉



박영훈 6단

〈프로〉



이세돌 初단

〈아마〉



유경성 5단



김강근 初단



최철수 6단



윤영선 初단



조병탁 7단



백대현 三단



이용만 6단



안달훈 初단



박영진 7단



이현욱 二단



김동섭 7단



이영신 初단



심우섭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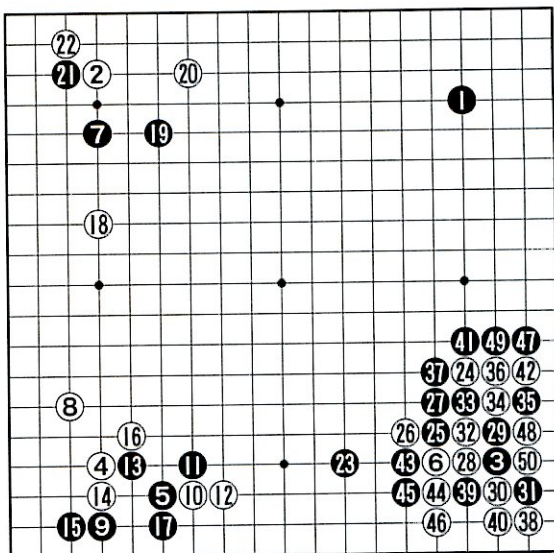
제 1 보 1~50

백 6단 최 철 수
흑 初단 김 강 근

〈제한시간 각1시간 30분, 덤5집반,
'97. 3. 26, 한국기원〉

〈제1보〉

흑20·31이 호수로 흑51까지 흑
이 두터운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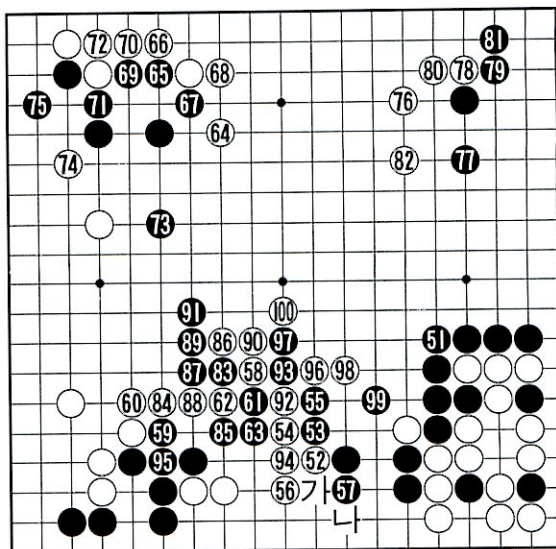


제 2 보 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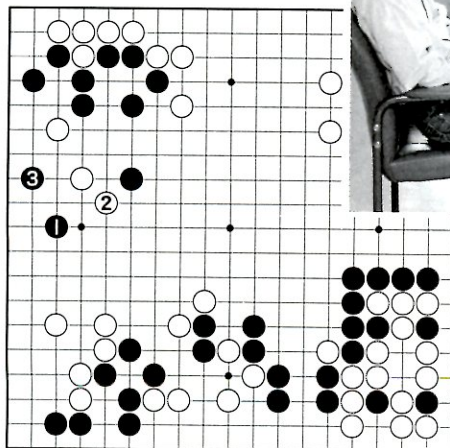
〈제2보〉

백56이 실착. 백57, 흑가, 백94,
흑나, 백92로 둘 곳. 흑61로 끊겨
백 비세.

흑83이 실착. 참고도 흑1로 뛰
어들었으면 흑이 우세였다.



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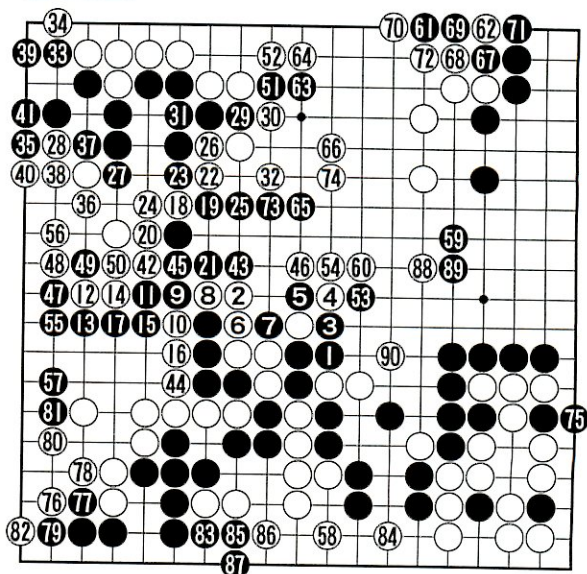


제3보 101~190

〈제3보〉

백18의 차단이 통렬하다. 백40까지 선수로 안정하고 백58로 하변 백을 살려서는 백 우세.

백90으로 중앙 흑말이 잡혀서는 승부 끝.



190수 끝, 백 불계승

제1보 1~100

백 6단 이 용 만
흑 3단 백 대 현

〈제한시간 각1시간 30분, 덤5집반,
'97. 3. 26, 한국기원〉

〈제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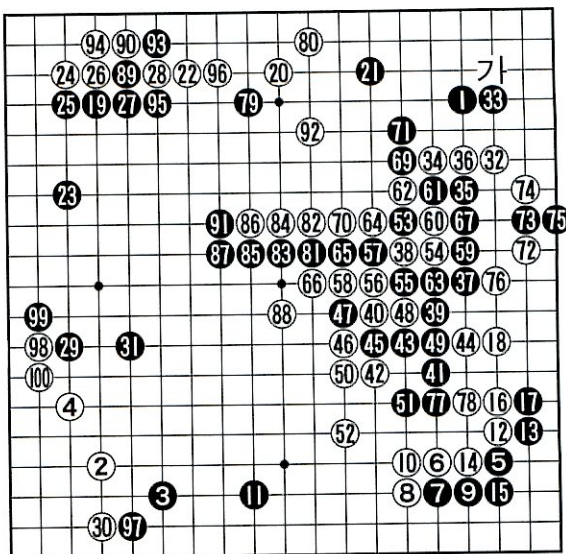
흑19까지 흑의 발빠른 포석.

백32는 거의 3·3이 보통. 흑

35·37의 침입이 통렬해 백 곤란.

흑43이 묘수로 백44가 불가피 할
때 흑53의 연이은 묘수로 흑71까지
백 석점을 잡아서 승부 끝.

6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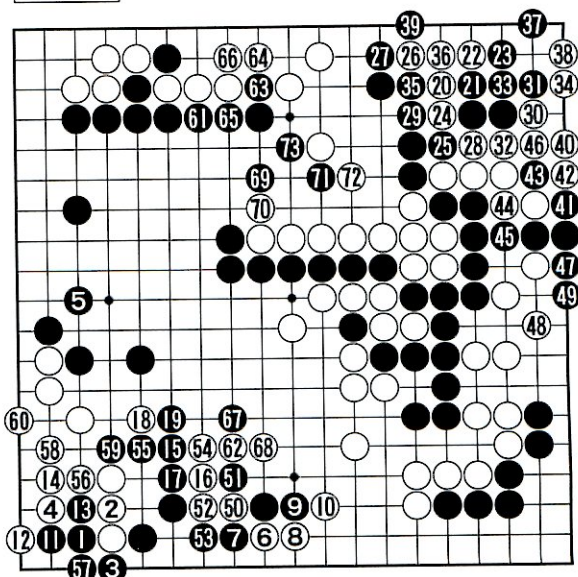
제2보 101~173

〈제2보〉

백20 이하 백46까지 한수 늘어진
패가 났으나 팻감 부족으로 형세
부동.

흑71·73으로 승부 결정.

흑 완승국.



173수 끝, 흑 불계승

제 1 보 1~100

백 7단 김 동 섭
흑 2단 이 현 옥

〈제한시간 각1시간 50분, 덤5집반,
'97. 3. 26, 한국기원〉

〈제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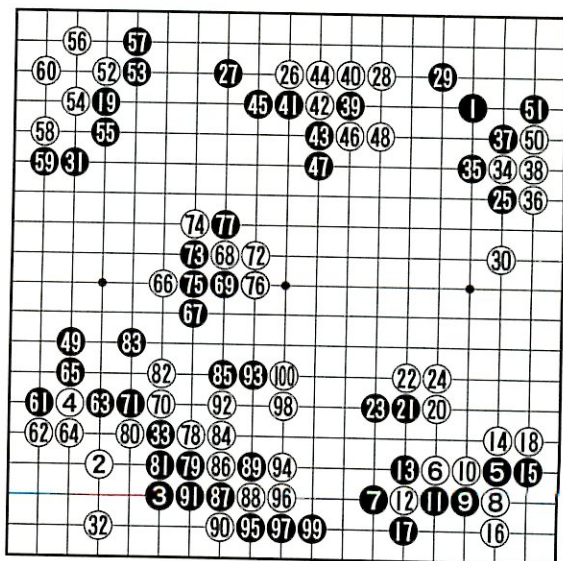
백14는 17이 정석으로 백18까지
손해.

흑39·41은 두터운 수법으로 흑
47까지 선수하고 흑49로 선착해 흑
호조의 국면.

백50은 악수 교환.

백66의 삭감에 흑67·69가 호수
로 흑77 끊어 흑 승세.

백78 이하는 승부수이나 흑99까
지 별무실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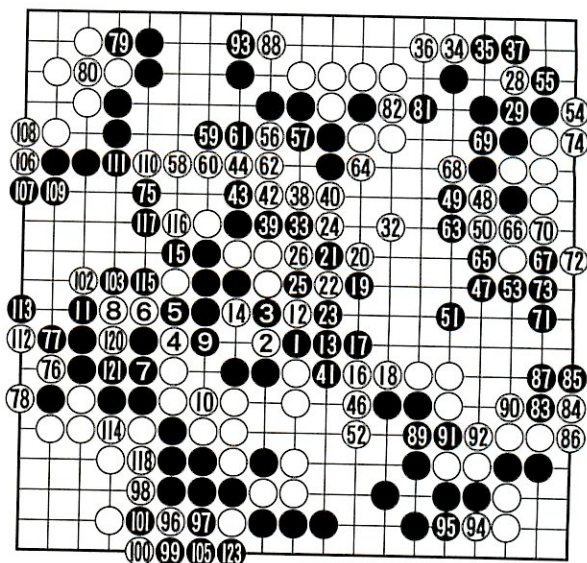
제 2 보 101~223

〈제2보〉

흑33에 끊겨서는 승부 끝.

흑 완승국.

27 45... 3 30... 12 31... 22
104 122... 96 119... 101



223수 끝, 흑 불계승



유승엽의 통신바둑 여행



1. 컴퓨터 통신 바둑 소개
2. 통신 바둑을 위한 준비사항
3. 천리안 바둑(1)
4. 천리안 바둑(2)
5. 하이텔 바둑(1)
6. 하이텔 바둑(2)
7. 나우누리 바둑(1)
8. 유니텔 바둑(1)
9. 유니텔 바둑(2)
10. 유니텔 바둑(3)
11. 인터넷 바둑
12. 미래의 통신 바둑

5. 하이텔 바둑(1)

하이텔은 현재까지 4대 통신사 중에서 바둑 서비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92년 3월 유창혁 九단 대 이창호 九단의 기념 대국을 개최하면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기술인 생중계와 해설을 하여 많은 바둑 애호가들을 통신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93년초에는 한국이동통신배 배달 왕기전을 당시 국내 최대규모로 출범시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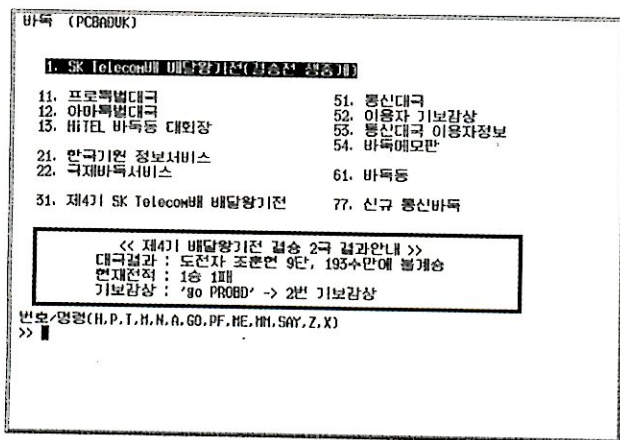
92년 4월 1일 통신 대국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 하이텔은 처음에는 대국자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요즘은 1일 대국량이 약 2,000국이 훨씬 넘어, 세계 최대 대국량을 자랑하는 통신 기원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필자는 대국자들 가운데서 최고수로 통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유단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아마 5단이 수십 명, 심지어는 아마 6단, 7단 등의 아마 최고수들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하이텔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용요금이 싸다는 것 때문이다. 가입비 10,000원에 한 달 이용요금은 9,900원이다. 아무리 대국을 많이 하더라도 전화요금만 내면 더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없다.

값싼 이용 요금, 수많은 이용자 등의 범용성 때문에 하이텔은 자체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전용 에뮬레이터가 여러 개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도와주고 있다.

이번 달은 그에 앞서 범용 에뮬레이터인 이야기를 사용한 대국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1〉

현재의 하이텔 바둑 서비스 초기 화면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메뉴가 있거나 새로운 게시판이 있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모습을 바꾼다.

하이텔 바둑 서비스 화면

하이텔에서 바둑 서비스의 인덱스는 'P-CBADUK'이다. 그냥 'BADUK'은 바둑 동호회가 사용하는 인덱스이다.

혹시 인덱스가 무엇이나고 묻는 초보자가 있을까 봐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인덱스는 GO 명령어를 사용하여 한 번에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즉 하이텔의 어느 화면에서라도 'GO PCBADUK'이라고 치면 곧바로 〈그림1〉의 화면이 뜬다.

사족을 달아서 조금 설명을 더 하면 '통신대국'은 'PCBADUKIN', '바둑메모판'은 'BADUKMEMO', '한국기원 정보서비스'는 'KBA' 등이다.

〈그림1〉에서 'SK-Telecom배 배달왕기전(결승전 생중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하이텔이 주최하고 있는 SK-Telecom배 배달왕기전(현재 진행중인 제4기 대회까지는 한국이동통신배 배달왕기전으로 칭함)을 생중계 해 주는 곳이다.

프로특별대국은 이창호 九단 : 류시훈 七단 대국, 또는 보해킵 결승전 대국 등을 중

계하는 게시판이다. 당연히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 '11'이라고 번호를 치면 된다.

게시판 메뉴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은 사실 '77.신규 통신바둑'이다.

하이텔 바둑은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버그(프로그램 에러)가 너무 많고 또 대국실이 너무 적어서(현재 100개) 이용자들의 불평을 사왔었다.

92년 4월 처음 시스템이 완성된 후 간간이 간헐적으로 조금씩 수정을 했음에도 이용자들의 불평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번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재개발한 것이다.

아직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기능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현재 보다 훨씬 향상된 기능을 자랑하는 하이텔 바둑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게시판 성격은 제목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터이므로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통신대국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통신대국 (PCBADUKIN) - 대국 (1 / 1)

[대기실] 6 명	
cho0410 (조만성) 8급	PowerDot(김도영) 2급
ryusy (유승엽) 5단	H0H07 (최기원) 12급
KORI (형석진) 5급	kinokk (김종국) 4급

대기실(H:도움말) > 0
대기실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국실 개설중입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74 번 대국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유승엽(ryusy 5단)님이 들어왔습니다.

대국파트너의 입장을 1분간 기다립니다.
대국파트너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조형실(/H,/P,/SH,/ST,/ST,/SH)
강영구(Hankang 1급)님이 대국을 요청합니다.

대국을 하시겠습니까? (Y/N) ==>

(그림2)

'SW' 명령어로 대기실 명단을 확인한 후 'O'로 대국실을 개설한 화면이다. 계속해서 어떤 이용자가 방 번호를 치고 요청했을 때까지의 화면이다.

알면 편리한 명령어

통신대국을 하려면 반드시 앞의 게시판 화면 중 '53.통신대국 이용자정보'에 들어서 자신의 기력을 세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51이라고 쳐서 '통신대국'의 화면으로 들어오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기력을 등록하면 자신이 수정할 때까지 통신상에서의 승패가 항상 자료로 남는다. 자신의 대국 승패를 관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것 때문에 패국을 남기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폐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통신대국실에 입장을 하면 이제부터는 약간의 명령어를 암기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이야기는 바둑 대국을 위한 전용 에뮬레이터가 아니므로 정확한 명령어 사용은 필수다.

그 중 대기실 상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다.

SW : 대기실 상황. 어떤 대국실에 들어가 지 않고 대기실에만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 조회

ST : 대국실 상황. 현재 개설된 대국실의

정보 리스트. 한 대국실에 두 명이 있으면 현재 대국 중인 것이고 한 명밖에 없으면 대국대기 상태이므로 대국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번호를 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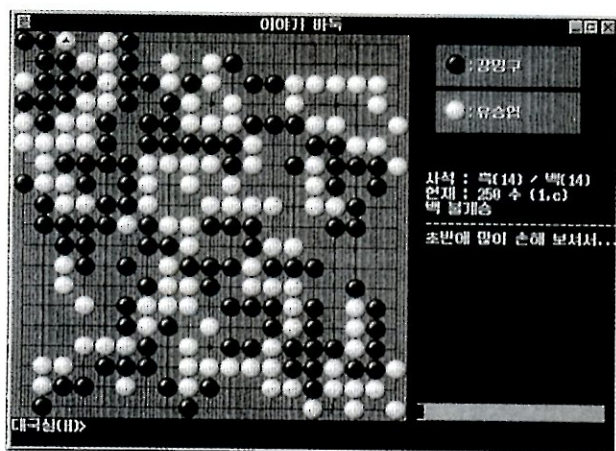
SI : 대국 준비중인 대기실/대국실 상황.

SW와 ST를 합한 명령어다.

O : 대국실을 개설. 현재 원하는 비어 있는 대국실이 없을 경우 본인이 새로 대국실을 개설하는 명령어다. 단, 대국실이 10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00개가 개설되어 있으면 신규 오픈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명령어가 몇 개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H'를 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관전을 하고 싶을 때는 양쪽 대국자가 다 있는 번호를 치면 된다. 이때 천리안과의 차이는 대국자와 대화가 안된다는 것, 오로지 기보 감상만이 가능하다.



〈그림3〉

이야기를 통한 바둑 서비스의 화면이다. 수려한 그래픽이 돋보인다. 마우스를 지원하는 것이 장점인데 만약 좌표를 직접 치려면 천리안과는 달리 '4,N'과 같이 숫자와 알파벳 사이에 점표 또는 빈 칸이 하나 있어야 한다.

유려한 컬러 그래픽의 바둑 화면

하이텔은 워낙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언급한다.

먼저 대국대기실에서 명령어는 다른 것은 대기실과 거의 같고 꼭 알아 두어야 할 명령어는 다음 두 가지다.

/P,/Q : 대국대기실 종료. 마냥 기다려도 상대가 입장하지 않을 때 이 명령어를 치면 위의 화면으로 빠져 나온다.

/IN userID : 특정 이용자를 대국실로 초대. 대국하고 싶은 특정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다.

위 명령어에서 나타나듯이 일단 대국대기실 상태로 들어오면 대화와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명령어 앞에 '/'를 쳐야만 명령어로 인식될 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국실에서의 명령어는 훨씬 많은데 역시 필수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한다.

/Z : 화면 재구성. 화면이 깨져서 알아보

기 힘들었을 때 사용하면 화면을 복구시켜 준다.

/AG : 한 수 무르기 신청. 통신의 특성상 착점 미스로 무를 수 있는데 예외에 벗어나므로 가끔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 : 착수종료 알림.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이후 공배를 매우고 사석 지정을 해야 한다.

/D + 사석 중의 하나의 좌표 : 사석 확인 요구 /BI + 하나의 빅을 이루는 모든 공배의 좌표 : 빅 확인 요구 /V : 불계패 인정 /G : 계가 신청

대국실에서의 대부분의 명령어는 이쪽에서 명령어를 치면 상대에게 동의하는 메시지가 날라 가서 상대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상 다소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명령어를 통한 하이텔 통신바둑에 대해서 알아 봤다. 다음 달에는 전용 에뮬레이터를 통한 대국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차민수 四단의

인터넷 바둑영웅



안녕하세요! 차민수입니다. 지난 호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Hi! Any1 game?

Hi! I'm 3d. How fast do u want?

지금까지 가릴 것만 가린 속옷 차림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의관을 갖춰보심이 어떨지... 흰 드레스 셔츠에 넥타이, 때로는 커프스버튼으로 멋을 내는 것도 좋겠지요? 패셔너블한 화술로 국제바둑의 멋쟁이가 되세요!

KEY SENTENCE

Chadol : Who is leading ?

Alice : It is hopeless 4 b now. Maybe time to resign.

DIALOGUE /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GAME...

*48 Game is titled : Tongyang cup final 2nd, Cho Hun-Hyun 9D(W) vs. Kobayashi Satoru 9D(B)

- ① Chadol : Hi, every1 ! Who is leading ?
(하이, 에브리원 ! 후 이즈 리딩 ?)
- ② Alice : B attacked Cho's group but b's group is also too weak to kill w's group.
(블랙 어택트 조즈 그룹 벌 블랙즈 그룹 이즈 올소 투 워 투 킬 화이트즈 그룹)
- ③ Chadol : IC. Then, Cho seems good ?
(아이 씨. 텐, 조 심즈 굿 ?)
- ④ Kimchi : I don't see any hope 4 b in this game. W will win.
(아이 돈트 씨 애니 호프 포 블랙 인 디스 게임. 화이트 윌 윈.)
- ⑤ Chadol : Look ! Cho connected his groups with bamboo's joint.
(룩 ! 조 커넥티드 히즈 그룹즈 윗 뱀부 조인트)
- ⑥ Alice : It is hopeless 4 b now. Maybe time to resign.
(잇 이즈 호프레스 포 블랙 나우. 메이비 타임 투 리자인)
- ⑦ Kimchi : Oh, Poor b !
(오우, 푸어 블랙 !)

대화/형세에 대해 얘기할 때...

차돌 : 안녕하세요, 여러분 ! 누가 이기고 있나요?

앨리스 : 흑이 조(백)九단의 대마를 공격했지만 흑도 백 대마를 잡기엔 너무 약해요

차돌 : 알겠어요. 그럼 조九단이 좋아보이나요?

김치 : 흑한테는 전혀 희망이 안 보이네요. 백이 이길거예요.

차돌 : 보세요 ! 조九단이 쌍립으로 대마를 연결했어요.

앨리스 : 이제 흑이 가망없어요. 던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차돌 : 오우, 불쌍한 흑 !

차돌 씨가 국제바둑에 들어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동양증권배 결승 제2국을 하고 있습니다. 신난 차돌씨가 obs 48을 두드리니 마침 앨리스 양과 김치 씨도 있네요. 살짝 들여다볼까요?

*48번 대국실, 대국명 : 동양증권배 결승 제2국, 조훈현(백) 대 고바야시 사토루(흑)

대국을 관전하기 위해서는 OBS 방번호명령어를 사용합니다. obs는 observe의 준말입니다.

① 국제바둑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Who is the underdog ? (누가 불리합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everyone을 every1으로 쓰고 있죠?

② 관전자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kibitz 대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국자들의 모니터에는 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③ I see를 줄인 말입니다.

④ 백은 w, 흑은 b로 쓰고 있습니다.

⑤ bamboo's joint는 쌍립이라는 말입니다. 대나무의 단단한 마디를 떠올리시면 쉽게 연상되죠?

⑥ for를 4로 썼습니다. resign이란 표현, 기억나시죠.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⑦ 좋은 바둑이었던 1국을 놓치더니 2국마저 금이 간 고바야시 사토루 九단, 이대로 진다면 불쌍하긴 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Good bye !”

(재)한국기원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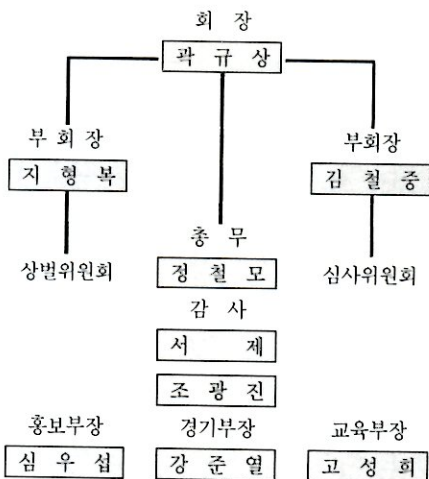
	NO	지 원 명	원 장	지도사법	전 화	F A X	지 원 소 재 지
서울	1	강동 지원	양상국	양상국	(02)423-3453	423-3453	송파구 신천동 장미종합상가 B동 303호
	2	강북 지원	김철우		(02)908-6101		강북구 우이동 83-1 제원빌딩 201호
	3	강서 지원	윤종섭	윤종섭	(02)696-9582	696-9582	강서구 화곡6동 986-5 회반B/D 303·304호
	4	금천 지원	우해주	양상국	(02)893-3318		금천구 시흥동 890-10 두성B/D 403호
	5	도봉 지원	허장희	허장희	(02)3491-1532	3491-7209	도봉구 방학동 산92 청구아파트단지 3층 305호
	6	서대문지원	김도상	장두진	(02)355-1125		서대문구 홍은동 48-84
	7	서초 지원	권갑용	권갑용	(02)537-0451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상가APT K동 302호
	8	성북 지원	손환수	장수영	(02)915-2406		성북구 정릉동 414-10호
	9	압구정지원	장시영	고재희	(02)547-6146	547-6146	강남구 신사동 613-16 2층
	10	양천 지원	임학재	김동엽	(02)648-7689	644-3417	양천구 신정2동 129-16
	11	잠실 지원	최상희	이계훈	(02)424-7752	424-7753	송파구 잠실동 19 중동1단지APT 관리소2층
	12	중랑 지원	손원기	정수현	(02)432-6179		중랑구 신내동 502-5 대명프라자 404, 405호
경기	13	분당 지원	장영일		(03)21711-754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1 그랜드프라자 302호
	14	산본 지원	김동호	김승준	(03)431-92-9739		군포시 산본동 1130번지 군포프라자 704
	15	수원 지원	정우영	유병호	(03)31252-2784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42-2
	16	안산 지원	정만우	한상영	(03)451-401-5252	401-5252	안산시 고잔동 541-2 남양빌딩 411호
	17	의왕 지원	이장연	이상철	(03)431-25-5508	25-5508	의왕시 내손2동 643-4 서광상가 3층
	18	일산 지원	차수권	차수권	(03)441912-6344		주엽동 83 레이크쇼펜타 5층
	19	중산 지원	고석재	나종훈	(03)441977-8286		고양시 중산택지개발지구 17-1블록 숲샘빌딩 602
	20	평택 지원	김기현	김기현	(03)31657-8828		평택시 평택동 68-2
	21	평촌 지원	허 윤	김수영	(03)431-86-5758		안양시 동안구 1054-234 제일상가 3층 304호
	22	부평 지원	구계근	장두진	(03)3525-9655		인천시 북구 부평5동 159-26
	23	부천 지원	윤희일	한관옥	(03)21675-7599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8번지
	24	광명 지원	설인우	박상돈	(02)809-7663		광명시 하안동 상업지역 33-5 태경B/D 502호
부산	25	인천 동양	조갑호	조대현	(032)425-0456		인천시 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408번지
	26	부산 지원	민한식	임신근	(051)469-8768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000-11 광장빌딩 3층
	27	부산동래지원	박암남		(051)557-3348	566-9880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210-63
	28	부산사하지원	김성수	이기섭	(051)205-5600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484-2
	29	부산 서면	윤봉섭	김종준	(051)805-3481	805-3481	부산시 진구 부전2동 187-15번지
	30	춘천 지원	서동열	김윤태	(0361) 52-1331	56-5856	춘천시 중앙동 37-25
충청	31	대전 지원	황옥연	김학수	(042)257-9854	257-9854	대전시 중구 선화2동 142-12
	32	대전동부지원	문석원	김 원	(042)627-9795		대전시 대덕구 종리동 189-11
	33	서산 지원	허기남	김수장	(0435)665-4374	665-4374	충남 서산시 동문동 904번지
	34	대전 동구	박태종	강만우	(042)274-1091		대전시 동구 용운동 431-7
	35	조치원지원	남기운	이홍열	(0415)865-5248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0-19
	36	충북 지원	예경남		(0431) 68-5326	68-53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56-10
	37	고성 지원	허종을	김기현	(0556) 73-4274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대리 48-1
	38	김해 지원	유두상	박진열	(0525) 21-5414		경남 김해시 어방동 531-5
	39	대구 지원	박진형	하찬식	(053)784-6607	781-4827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60-10
	40	마산 지원	구규환	박진열	(0551) 43-5311	43-5311	경남 마산시 합포구 서성동 84-2 가산빌딩3층
	41	울산 지원	이창수	양재호	(0522) 65-1357	65-1357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619-17 아트빌딩
	42	진주 지원	이희관	문명근	(0591) 42-5665	42-5665	경남 진주시 동성동 4-37
전라	43	진해 지원	팽관주	박진열	(0533) 44-6453		경남 진해시 충무동6가 801-3
	44	충무 지원	김순애	강문철	(0557)645-4882		경남 충무시 서호동 177-53
	45	포항 지원	하영구	김수영	(0562) 42-2642	42-2642	경북 포항시 중앙동 48-1
	46	광주 지원	오규철	오규철	(062)675-3448	675-2635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85-4
	47	순천 지원	강유원	오규철	(0661)722-5338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62-2
	48	전남 지원	윤수경	염찬수	(062)222-1805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19-16 금양회관 5층
	49	전주 지원	오대식	경동식	(0652) 84-8094	32-53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70-3
	50	제주 지원	박영수	윤기현	(064) 53-7737		제주시 삼도1동 100-5



한국기원인가

전국우수바둑교실

한국기원이 인가한 바둑교실은
귀택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예의와 도덕을 동양문화의 정수인
바둑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안심하고 맡겨보십시오.



전국바둑교실협회 T : 291-2858 F : 298-0461

서울강동지부(지부장: 지형복)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서울	강동구 석림	원재근	488-7413	72동 99-4
	강동구 신동	지형복	485-0649	둔촌동 주공(4)내 종합상가 3층 317호
	강동구 고덕	오하영	428-0456	고덕1동 643-2
	강동구 현대	신현동	481-1186	명일동 248-5
	강동구 명인	최화경	475-7757	전도1동 237-3 송별당 2층
	강동구 신명	선명강	483-5765	둔촌동 30-4 현대(3) 상가내 201호
	송파구 수암	김우영	423-7696	잠실구 55단지 중앙쇼핑 312
	송파구 올림픽	경지문	404-8151	방이동 신수촌(4) 중심상가 320호
	송파구 영재	안창남	423-3548	잠실7동 아시아신수촌상가C동 2층
	송파구 영리	김명호	402-4747	마천2동 113-8
하남시	송리	최희진	791-8359	장수동 부영(3)상가 306호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손원기)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서울	강원구 구의	박상택	453-9978	구의동 220-30
	강원구 동그라미	김재용	457-3377	구의동 541 현대(3)단지 상가내 308호
	강원구 가양	오종성	455-1268	저양3동 553-44
	강원구 화랑	김동성	458-0008	종곡동 92-9 청성B/D 301호
	강원구 화양	정기근	457-7972	화양동 2-30
	송원구 금란	손원기	432-6179	신내동 517-8 대명프라자 4층 404
	노원구 영재	최화용	934-9172	상계2동 581-6 동진상가 3층 9호
	도봉구 일류	신우섭	990-6115	창동 333-2 한성B/D 504호
	경기 구리시	한국바둑	62-5925	수택동 425-22

서울서부지부(지부장: 전제홍)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서울	양천구 영재	윤승림	643-9175	목동 신사거리 55단지 B상가
	한국영재	이광태	606-6819	신원7동 986-7 소명프라자 402호
	신목	박노금	652-7500	목동 12단지 A상가 307호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서울	목동수양	전제홍	647-7871	양천구 신정동 1021-9 현대프라자 B/D 406호
	서경	안현길	653-2515	목동 7단지 925번지 A상가 208호
	영등포 영재	김정만	845-7237	신길6동 4501 우동상가 2층
	영등포 가람	김종훈	633-1557	당산동 4가 31-2 3층 2호
	강서구 청송	홍장표	603-6812	화곡5동 78-5 남양빌딩 5층
	강서구 청석	최병준	607-6133	화곡3동 1043-25
	강서구 우리	정예경	665-9000	병화동 도시개발(3) 6단지상가 2층
	강서구 영재	김용상	659-9839	기양동 가양지구 1-5 6BL
	동대문 동촌	이원균	658-7775	돈암동 13-1 부영상가 2층 207호
	동대문 동한	엄기권	608-2233	화곡2동 849-2
구로구	동남	원백희	686-8768	개봉동 403-54
	신영	박희재	889-4911	구로1동 685-440 신영상가 302호
	김종훈	김종훈	686-6815	고척1동 141-1 가든상가 304호
	관악구 명랑	이현모	878-8980	봉천3동 1000 현대(3)단지내 A상가 3층 7호
	관악구 관악	고영걸	873-2310	봉천동 1629-1 덕원B/D 4층
	동작구 영아	김한근	599-9838	서당동 1131번지 영아상가 2층 301호
	동산	전정기	814-4168	노량진2동 312-43
	용산구 이촌	이현욱	794-6068	동부이촌동 301-3 삼익상가 3층
	금천구 제일	유용희	807-3972	시흥5동 912번지

서울강남지부(지부장: 김상순)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서울	강남구 신경	원익진	544-3338	신사동 639-3
	강남구 은파	조광진	552-1179	대치2동 316 은파종합상가 B-218
	강남구 개원	김상순	579-9714	개포3동 주공1단지 유치원 3층
	강남구 명문	이선용	573-5748	도곡동 420-9
	강남구 윤선생	유영삼	226-9479	인원동 687-3 301호
	강남구 개포중앙	송희순	445-5231	개포동 186-3 삼우B/D 301호
	서초구 우면	전정수	523-8246	방배3동 1021-6
	과천시 과천	김지영	503-0572	방배동 병상종합상가 310

서울북부지부(지부장: 정철모)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서울	사대문	홍백	336-8946	홍계동 325-21
	은평구	서정영재	352-3192	역삼동 56-1 역삼B/D 2층
	마포구	한빛	384-2770	갈매동 435-42층
	강서구	김홍량	712-8837	도화동 182-11(삼정상가) 1층
경기	고양시	한대	302-7081	중동 26-45 현대상가 405호
	광명시	김대봉	912-1848	주엽동 강산마을 49-1 동부건영상가 302호
	성남시	김경중	972-0134	평산동 756-17번지 2층
	안양시	박상호	976-7338	일산동 131-1 종산코아 501호
과천시	해성	김용원	944-6819	금문동 아들리 36-30 열린B/D 2층

경기중부지부(지부장: 고성희)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인천	남구	김종성	426-7023	주안동 165-5
	서구	김수만	873-9500	주안동 1309번지
	남동구	한국	464-2300	구월동 341-15 남동농협 옆
	북동구	신종학	578-5361	가리2동 29-2 범양상가 3층 3호
경기	안양시	이성희	562-5373	마전동 872번지 북화상가 12층
	목포	이성희	501-2446	관산동 367번지
	계양구	공영식	546-9492	효성2동 230-1(효성 뉴서울 5차상가) 207호
	부천시	김재규	501-4100	산곡동 255-1 뉴서울(1)차상가
강화	현대	홍순옥	679-2885	원종동 372-5
	영광	윤영철	653-1128	삼곡동 617-157
	고성	고성희	344-7676	역곡동 83-16
	신동	임시택	682-0389	고강동 399-2 아세아B/D 3층
강화	한마음	이근원	934-2131	원미구 중동 11-2 보람마을 동남상가 3층

경기동부지부(지부장: 진세영)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경기	상남시	동아	712-6683	경자동 117번지 한55단지 세오명교육센터 4층
	한마음	신승학	713-8265	경자동 우성11차상가 우성상가 303호
	금호	진세영	711-1799	분당구 수배동 양재마을 금호상가 2층
	광명시	장명진	706-7340	분당구 아남동 309 광미마을 (한복) 근린상가 226호
안산시	오름	황재욱	717-8863	분당구 구미동 206-5 현대프라자 5층

경기서부지부(지부장: 서제)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경기	광명시	장명진	617-4530	철산동 13단지 마상가
	다래	오영호	892-6045	화안동 중심상업업무지구 2-3호 다래빌딩 403호
	철산	장준교	683-1667	철산동 12단지 상업업무지구 기린빌딩 402호
	한진	남궁윤	686-3682	광명동 158-798 선영B/D 4층
안산시	제일	서제	401-8996	원미동 446-1 해성B/D 304호

서울	동대문	박정훈	405-1122	선부동 1067-30 서울빌딩 6층
	서대문	최환수	409-9922	분오동 819-15
	강서구	김태남	492-9287	원곡동 822-2
	마포구	김태남	84-2882	고전동 672-1 중앙상가 303호
시흥시	오름	김태성	87-3434	선부동 1076-5 해비리프라자 409호
	오름	김태성	691-3887	신원동 772번지 1호
	오름	김태성	694-0621	선부동 453-2 국민B/D 3층
	오름	김태성	692-7962	은행동 9B 3·6L 세화프라자 302호

경기남부지부(지부장: 김왕년)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경기	안양시	석박	88-7237	비산동 255-1
	안양시	박단	69-4666	비산동 17-4
	안양시	김기종	84-5757	관양동 1306-1 현대캐슬 2층
	안양시	유남호	82-6486	평촌동 초안리 부영3차 상가 405호
군포시	안양시	박단	87-2623	비산동 421-87
	안양시	한남수	21-0430	관양동 1490
	안양시	조계봉	69-5469	비산동 85-7호
	안양시	최현재	42-8247	관양구 안양3동 956-1
안양시	안양시	고성락	29-7300	당동 709-41 럭키B/D 304호
	안양시	임병만	97-3227	공대동 1348-3 럭키교육원 3층
	안양시	배영란	96-0331	선부동 가이5단지 교육센터 304호
	안양시	김동만	95-9600	선부동 1068 신도시 12단지 한양상가 302호

대전중부지부(지부장: 안승창)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대전	수원시	홍희식	211-7857	권선구 대안동 삼성1차 종합상가 210호
	화서	김동규	48-6226	경안구 화서동 211-8
	노석	노석현	212-5066	권선구 대안동 삼성1차상가 2층
	이동	이동용	41-2181	경안구 영화동 424-1
대전	구운	노석호	291-7355	권선구 구운동 406
	노송	김왕년	255-5456	경안구 장자동 383 병마상가 301호
	세류동수원	강동우	34-4696	권선구 세류3동 845번지
	아수	홍종걸	212-3223	관양구 우안동 95-1
대전	꿈나무	황정호	39-5488	권선구 권선동 1265번지 유원보성③ 근린상가 201호
	한국	박종오	212-0784	관양구 대안2동 한국① 1차상가 265호
	평택시	소사	655-0810	북동동 38-1
	문안동	이재환	36-4695	유원구 김광정리 321-8
안성군	안성	김경수	74-1413	안성읍 열리 408-2

대전서부지부(지부장: 안승창)

지역	교실명	원장	전화	소재지
대전	대덕구	김주영	627-0650	중리동 363-28
	고수	이태권	626-3657	병동 27-2 유지빌딩 302호
	제일	남광우	486-2600	단양동 1021
	경성	김태민	523-0347	감마동 1414번지
대전	문정	김성호	486-7799	상원동 1163번지
	한아름	김영호	486-5321-2	평원동 한아름상가 310호
	황제	조금원	527-1100	대동 220번지 롯데③상가 307호
	은이	안승창	541-6017	가수원동 774-16

		다 오	오학근	489-5255	월령동 292-2 다오아울링가 46호
		경 남	김영만	533-4767	서구 도마동 221번지 경남상가 63호
중 구	유성구	한 발	염태하	522-8975	유전동 197-6
		한 늘	이윤규	525-7537	오학동 163-1
		유 성	김동근	861-6151	어은동 116-5번지
		정 채	현정환	882-7746	진민동 329-2
		친 민	상기민	882-5212	진민동 368-10
		한 생	홍관선	882-1339	신성동 209-6
		한 가	심흥택	931-9179	봉산동 158-13
		대 산	은동기	932-6200	송강동 195-15
충남	논산시	영 규	김형기	736-2784	논산시 내동 1064
충북	청주시	유 랑	조이환	213-0378	상당구 유랑동 654-1

강원지부 (지부장: 이덕록)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강원	강릉시	최 고 수	배희선	42-9362 옥천동 102-5
	우 등	한 천	651-4253	포남동 1658-5
동해시	경 수	이덕록	33-7749	천곡동 1044-7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이원훈)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대구	수성구	범 이	이원훈	743-7676 범어동 138-2
	달서구	송 립	김주봉	626-5388 송현동 102-15
	동 구	영 채	남영우	984-3215 볼로동 1156-3
경북	구미시	송 양	이석목	456-2198 도량동 792-66 2층
	구미시	선 경	정대관	481-8301 선산읍 동부리 537
	김천시	이 만 수	이만수	434-6550 남산동 23-13

전북지부 (지부장: 김삼배)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온 다 라	김우재	223-2337 완산구 호가동 1가 상산타운상가 3층 206호
		이 정 옥	이정옥	224-0434 호가동 1가 564-6
군산시	우 리	고은영	465-9460	나운동 827-11
	조 그 단	고병환	445-1337	조운동 20-41 구암동 현대빌딩 입구
익산시	대 국	김숙민	833-4824	무송동 1049 시청상가 302호
	후 백	김삼배	834-3480	영동동 626-9 동신빌딩 정문 앞
김제시	박 치 선	박치선	45-4642	요충동 94-8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김정열)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광주	남 구	장 일	김남일	673-8945 봉선동 라인플러스 1차상가
	서 구	정 일	정일	473-3841 화정동 633-10·11호
	영 채	노성일	363-0404	제2동 729-1
	금호영채	김진태	575-0462	금호동 737-18
	동 구	광주화양	김준태	261-6510 무암동 908-13 3층
북 구	꿈 나 무	강현구	266-4494	오지동 578-12호
	광주오로	강형식	264-3319	각화동 216번지
	문 흥	김준규	265-7410	문흥동 1003-7
	세 종	김정열	526-6777	운암동 65-17
	친 원	김형석	266-6669	무암동 601-11
	예 술	신미숙	267-2664	문흥동 787-5 주공상가 2층
광안구	금호중앙	정환근	376-8157	금호동 742-3
	운 남	김승근	955-6588	운남동 387-22 삼산로 상가 301호
전남	여천시	한 성	전종태	83-5509 여산동 439-9
	목포시	유 달	문희호	76-0966 신진동 314-1
	순천시	연 황	전근태	722-7865 연황동 1359-4

	금 당	윤성호	722-6742	금당택지지구 중흥2차상가 2-1
	화순군	코스모스	차광선	374-2782 화순읍 평리리 321 비류상가 2층

영남부산지부 甲 (지부장: 정성재)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부산	동래구	영 채	김봉중	502-8290 사직동 46-1 국민시장 입구
	북 구	화명바둑	백동준	333-2431 화명동 1549 6층 1번 복구보진소 옆
		대 열	김배원	341-0726 단석3동 럭키2차상가
금정구	명 문	민현숙	526-9816	서동 530-331
	푸른교실	서유용	581-5259	구서동 747-10
	토 토	박세봉	581-2065	남산동 115-30 럭키남산 3상가 5동 22호
부산진	한 열	한홍보	897-8908	당감3동 516
	한 섬	이동훈	865-3679	개금1동 540-159 29/4
	영 채	김일범	819-4171	연지동 162-2
해운대	대 송	정성재	701-9000	좌동 1288 대동3 상가 311, 312호
	영 채	김영삼	742-4541	금2동 1521-19 2316호
	꿈 나 무	박승준	521-9373	반송3동 275-17
	대 맥	이옥자	529-7770	반여1동 145-36 그린상가 33호
	대 명	이정환	701-1339	신시가지 대동상가 4층 413호
	대 송	김신선	781-8418	제송2동 1153-17 47/2
	마 리 나	백학남	747-0465	수1동 338번지 대우마리나 2차상가 207호
	세 섬	김이석	701-1124	좌동 신시가지 10-4B·L 백산2차상가 304·305호
기장군	송 리	신영진	721-5230	기장군 동부리 330-3
김해시	삼 방	최원진	37-1746	삼방동 685-2
	영 채	임원규	214-7040	외원121 대동312동불사불가 1-3
마산시	경 석	김정만	41-8070	합포구 동성동 245번지
양산시	대 명	정현태	387-9504	중앙읍 평리리 451-2 새마을2층
	영 채	최정민	389-0354	불금읍 평리리 674-10
울산시	삼 열	박수현	92-9572	중구 북산동 189-2 15/4

영남부산지부 乙 (지부장: 이정상)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부산	연제구	명 문	이상준	759-8828 연산동 397-50 토목관공 22동 앞
		대 명	박홍호	752-8595 연산9동 57-31
		석 송	하명근	867-1871 연산2동 787-7
사하구	송 마	강원경	208-3113	당리동 316-41
	수 채	이경수	266-0410	다대동 294-5 현대축열 열
	수 채	정한일	294-4781	취정동 530번지 26호 8동 5번
	하 남	김원희	292-0210	신원동 588-5
수영구	뉴 제 능	박동식	752-3887	광안2동 144-3 소호맨빌 앞
	현대여인	주성민	753-1831	수영동 518번지
남 구	정 성	황정준	632-5662	김천동 170-2 12/1
	경 성	김명미	758-7861	말미동 806-1
	영 채	권병식	656-2466	문현4동 1073-4
	꿈 나 무	조광부	626-5156	흥회1동 245-1
영도구	명 인	이상진	417-8513	영선동 374번지 5
	청 학	고순성	417-3041	청학동 222번지 3/2 2층
사상구	대 명	이정상	314-6168	모래2동 1367-2 우성3 101동 앞
	대 한	윤영진	314-8667	학성동 574-28
	수련여인	신상용	322-8169	주례1동 421-6 10동 6번
	한 신	박명출	301-4235	삼락동 418-11 재배 한신 3

제주지부

지 역	교실명	원장	전 화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강 순 관	강순관	44-8157 신제주군 제3지구 13BL 대원1차 302호

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⑭ BTV프로듀서 안성문 씨 편



나는 '1급'이다(그 때문에 이 글을 쓰겠지만). 부연하면 1급 중에서도 센 편에 들 것이다. 쟁쟁한 1급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광구 선배, 한국일보의 박영철 선배 등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는 한 나하고의 '만원빵'에는 선뜻 응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 때문인지 나보다 먼저 이 난에 등장한 이윤희 선배같은 사람은(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포커의 프로다) 나를 부를때 '안빠로, 안빠로' 한다. 간혹 서봉수 9단 같은 '진짜 프로' 앞에서도 나를 그렇게 불러 쥐구멍을 찾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는 그 호칭을 뿌듯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현재 바둑으로 밥을 먹고 있으니 프로의 한 조건은 갖추고 있는 셈이고, 무엇보다도 이 선배가 볼때야 내가 신출귀몰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니 바둑동네의 1급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동네, 예를 들어 골프의 경우는 수준급 아마추어, 소위 '싱글'이라도 사람마다 핸디(일종의 치수)가 다르다. 개인의 능력이 계량화되고 세분화돼 있어 혼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둑동네는 다르다. 쉽게 말해 위의 선배들도 1급이고 나도 1급이다. 진골(프로)이 못 되었으니 다들 6두품들인 것인데 더 이상이 없다 보니 같은 6두품 사이에도 격차가 나고 혼돈이 생긴다.

바둑TV에서도 이걸 고민해야 할 걸림돌로 작용한다. 내가 맡은 'BTV초대석'의 경우, 사회각계의 명사들이 출연해 대국을 갖는 프로그램인데 출연자의 실력 측정 때문에 매번 애를 먹는다. 예컨대 같은 5단이라도 '실력 5단'과 '공로 5단'이 있기 때문

에 선불리 대국을 주선했다가는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생기기 십상이다. 또 4단이 5단보다 센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내 경우는 그래서 출연자에게 프로기사와 대국해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두었는지를 사전에 물어본다. 그 결과 프로기사에게 석점이면 5단, 낙점이면 4단, 5점이면 3단... 대강 이런 식으로 판단해 대국을 주선헌 되는데 현재로서는 별 무리없이 가고 있다. 같은 치수라도 상대한 프로기사가 어떻게 두어 주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프로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중학 시절

서론이 길어졌다. 앞서 ‘프로’ 얘기를 했으니 내가 한때 프로가 될 뻔 했다는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고 기억한다.

당시 충암중학교에 다니던 나는 약하나마 1급 행세를 하고 있었고, 자연히 바둑부 지도사범이었던 김수영 7단의 눈에 들게 되었다. 그때 중학생 중에서 1급을 둔 사람은 1년 후배인 재호(양재호 9단)와 나 정도였다.

매일같이 바둑실에서 사는 나의 열의를 가상히 여겼던지 김수영 7단은 나를 흔쾌히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추천해 주었다. 단,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내가 프로기사가 될 수 있다니...’ 어린 마음에도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던 것 같다. 주위는 온통 무지개빛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 사카다(坂田榮男)와 대국을 하는 조치훈의 모습만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나의 꿈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킬 궁리는 안하고 배고픈 길을 자청해서 가겠다는 집안의 반응은 의외로 단호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이 선하다. 나는 끝끝내 허락해 달라고 우겼고, 해도 해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집에서는 내게 최후의 선고를 내려 버렸다.

“계속 프로기사가 되겠다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릴 테다.”

아,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다. 가문의 종손인 나를 호적에서 지우다니. 순간 내 눈앞에는 A자를 아로새긴 주홍글씨의 여주인공과 만신창이가 된 파계송의 모습이 차례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루터의 파문’에 버금가는 중벌이었다.

결국 나는 집안의 반대에 굴복했다. 그때 연구생으로 들어간 재호는 지금 잘 나가는 9단이 되었고,

요즘은 집에서도 가끔 그때 일을 화제로 떠올린다. ‘어차피 바둑으로 먹고 살 줄 알았으면 그때 원대로 내버려 둘 것을’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떠나간 배요, 앞질러진 물이다. 그리고 그때 집안의 반대가 과연 틀렸는가 하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로의 길은 험난한 길이다. 연구생이 된다고 해서 프로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설

사 프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첩첩산중이다.

나라고 해서 특별히 뾰족한 재주가 있으리라는 법도 없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바둑계는 가난했다. 집안의 반대는 그 시절로서는 타당한 것이었다. 그래도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3 때의 일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 앞뒤가 다소 뒤바뀐 느낌이지만 내가 바둑을 배운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바둑이 갑자기 나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가을 무렵이었다.

내가 어릴적 동네의 어른들은 시간만 나면 마당너른 집(우리는 형만네라고 불렀다)에 모여 바둑판을 벌였다. 늘 그래왔으니 새삼스러운 광경도 아니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이상했다. 형만이 아버지가 아끼는, 대나무로 짠 노란 바둑판이 내 눈에 쏙 들어왔던 것이다. 더구나 그 위에서 춤추는 흑백의 기묘한 형상이란.

나는 흰돌과 검은 돌이 그려내는 기하학적인 형상에 금세 빠져들었다. 누우면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였고, 밥먹을 때면 밥그릇으로 단수를 궁리하다가 뭐냐고 혼나기 일쑤였다.

용암시장 입구의 백련기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겨울방학 무렵이었다. 그 무렵 나는 꽤 어려운 축도 몰면서 동네 아저씨들로부터 축망받는(?) 기제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만족치 않고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친구와 더불어 간 곳이 백련기원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백련기원의 원장 김동송(金東松) 할아버지(나는 그렇게 불렀다)는 한때 대한기원협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바둑계의 원로였다.

훗날 바둑잡지에 초기의 바둑인생이 소개되기도 한, 어찌보면 바둑계의 산 증인같은 분이었는데 이 분을 만난 것은 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분에게서 제대로 바둑을 배웠다. 처음엔 아홉점을 놓고도 만방으로 깨졌지만 차츰 늘어 이듬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다섯점을 놓고 버티는 정도가 됐다. 더불어 바둑을 둘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돌을 놓기 전에는 절대 찢그럭거리면 안 된다는 대국의 기초예절도 배웠다.

백련기원의 주 고객은 시장에서 푸주간을 하거나 생선을 파는, 장사하는 아저씨들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곳에는 문자 그대로 '시장의 활력'이 항상 넘쳐났는데 처음의 나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었다.

나만 잤다 하면 어른들은 반색을 하며 덤벼들었고(때로는 누가 먼저 둘 것인가를 놓고 다투기도 했다), 그 때문에 내 용돈은 전부 담배값으로 나가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나는 즐기차게 그곳을 나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도 나는 진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용돈을 털리면 하는 수 없이 집까지 30분 가량을 걸어와야 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돌림빵 당한 것이 원통해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걸어 온 적도 있었다.



▲ 제11회 학생왕위전(78년) 시상식이 끝나고
(왼쪽부터) 최준(1위), 안재성(2위), 박문홍(3위), 필자(4위), 김혜순(장려상)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마음’ 즉, 강한 승부욕이 바둑이 느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없다면, 그래서 지고 나서도 분해 하지 않는다면 1급, 적어도 센 1급이 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바둑계에 들어와서 알게 된 프로기사들. 조훈현 九단이나 서봉수 九단 등이 방면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둑은 말할 것도 없고 카드를 하든 마작을 하든 아무튼 모든 게임에서 프로란 사람들은 치열했다. 하물며 오천원짜리 장기 한판을 두더라도 그랬다. 졌을 때 죽고 싶은 심정. 이 마음이 없으면 바둑은 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이다. 요즘은 어디서나 쉽게 바둑책을 구할 수 있고 비디오 교재도 많지만 내가 배울 때만 해도 책다운 책이 별로 없었다. 일본의 사카다 九단이나 린 하이펑(林海峰) 九단이 지은 것을 번역한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나마 손뾰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의 가장 좋은 교재는 월간『바둑』이었다. 프로들의 수준높은 기보를 접하고 정석, 포석을 종합적으로 배우기에는 그만한 책이 없었다. 다행히 내가 다닐 무렵 총암의 바둑실에는 구하기 힘든 과월호 월간『바둑』이 빠짐없이 비치돼 있었다.

나는 때로 기보도 봐 보고 권경언 五단의 「바둑과 손자병법」도 읽어 보곤 했지만 후배 재호(양재호 九단)의 경우는 달랐다. 월간『바둑』 맨 뒷편의 해외기보를 펼쳐놓고는 웬종일 그것과 씨름을 했다. 어떤 때는 단 한판을 놓고 하루 종일 놓았다 뜯었다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나는 보기만 해도 지겨워서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바둑』지는 재미있다. 한 번 손에 잡으면 여간해선 놓지를 못한다. 기보 해설이 약간 어려운 게 흠이지만 모르더라도 계속 따라가 보면 어느 날인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의미를 알게 된다.

나는 월간「바둑」과 병행해서 5급 때부터 일본의 「위기연감」을 보았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바둑연감」이 나와 있지만 5급 짜리가 「바둑연감」을 본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해되는 기보가 어느 하나라도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 방법으로 1급이 되었다. 기보는 최근의 유행 정석이나 포석, 끝내기 등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지식의 보고다.

딱딱함이 덜할 뿐 아니라 프로들의 생생한 호흡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함도 덜하다. 유창혁 九단이 어릴적 어머니가 오려준 신문기보로 바둑을 배웠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내 생각에 기보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교과서는 없다.

바둑의 진보로만 본다면, 나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그러니까 배운 지 1년 6개월 만에 1급이 되었다. 남들에 비하면 빨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학교 공부는 내팽개쳐다시피 했으니 별 대단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후 운 좋게 충암으로 동계 진학해 학력고사 전날까지 바둑을 두는 미친 짓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1급이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학과 공부는 제쳐놓고 내리 4년을 바둑부에서 사는 정신나간 짓을 반복하고 나서야 1급이 세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바둑도 1급이 되려면 한번은 미쳐야 한다. 나는 정도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미치지 않으면 바둑은 늘지 않는다.

못 다한 이야기들

짧은 지면 속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 빼놓으면 안 될 중요한 페이지들이 몽텅이로 넘어간 느낌이다. 눈을 감으면 실루엣처럼 되살아나는 그 아스라한 기억들.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수영 사범의 손을 잡고 바둑실에 처음 왔던 까만 눈망울의 유창혁 얘기를 못했고, 자전거를 끌고 수색의 언덕배기 우리 집을 오르내리던 재호의 얘기도 못했으며, 긴긴 겨울밤을 불기없는 바둑실에서 홀로 지새웠던 만우형(강만우 七단) 얘기도 하지 못했다.

그뿐인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회관의 식당 탁자를 몰래 업어(?)와서는 바둑탁자로 둔갑시킨 일, 도쿄에서 도쿄대와의 정기교류전을 앞두고 몰래 빠져 나와 밤새도록 'interesting movie' (?)를 보던 일(다음날의 결과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거꾸로 도쿄대생들이 서울에 왔을 때 토종 해장국집으로 데려가 한 술갈도 못 뜨게 만든 다음 완승을 거둔 일 등등은 지금 아니면 고백할 기회가 없는데 실마리도 꺼내지 못했다. 특히 '충암'의 얘기는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제대로 한 번 써 볼 작정이다.

이제 바둑TV에 들어온 지도 2년이 다 되어 간다. 충암 바둑실에서 서울대 바둑부로, 다시 해동화제에서 실업자로, 실업자에서 바둑신문을 거쳐 프리랜서 관전기자로, 그리고 다시 바둑TV로 스스로 생각해도 짧은 시간에 많이도 이곳 저곳을 전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천적으로 방랑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중국은 지금 세대교체중!

일별 것 같던
창하오(常昊)가 결국 해냈다.
중국 철옹성 마샤오춘에게
강력한 세대교체 독촉장을 던졌다.
천원을 쟁취한 창하오,
대군을 몰고 자금성을 공략한다.
다음 목표는?



해외기보/중국 천원전 도전5번기 제4국
백 천원 마샤오춘(馬曉春)
흑 도전자 창하오(常昊)

〈제한시간 각 3시간, 덤 5집반, '97. 3. 9, 중국 상하이〉

☐ 해설/김인 9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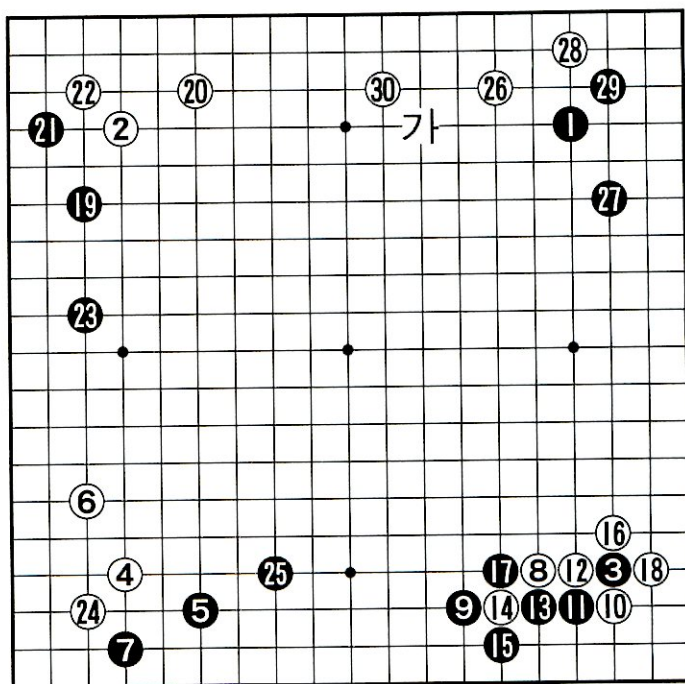
☐ 글/박장배(바둑기고가)



제 1 보

1~30

괄목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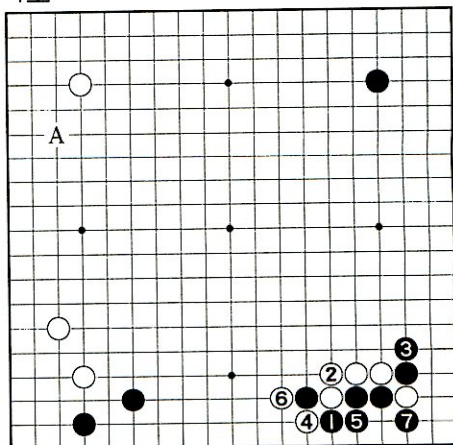
중국바둑계가 요즘 새로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5년 이상 철옹성을 자랑하던 마 샤오춘(馬曉春)의 일인독주 체제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마九단의 하향세는 작년 각종 세계 대회에서의 극심한 부진 속에 급속히 두드러졌으며 급기야는 국내기전에서 저우 허양(周鶴洋) 七단의 '96전국대회' 우승과 샤오 웨이강(邵煒剛) 七단의 'NEC컵' 우승 등 신예들의 은밀한 입성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엔 창 하오(常昊) 七단이 마 샤오춘 요새에 공격의 나팔을 불고 쳐들어 왔다.

천원전 도전5번기. 1승 1패에서 도전자

1도



창7단이 제3국을 이김으로써 마9단은 막판에 몰려, 제4국을 맞은 셈이다.

우하귀에서 백8로 걸쳐서 이하 백18까지의 정석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좋은 듯 하지만 실전에서는 흑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김인 9단의 평.

흑15 때 1도와 같이 그냥 백2로 잇는 것을 흑3을 허용하여 이하 7까지 좋지 않다. 더구나 A의 죽머리까지 이용당하고.

그래서 백16의 단수는 절대이며 계속해서 흑17로 2도 4로 늘면 백5 이하 13까지 하면 흑의 위치가 낮은 반면 백의 우변이 빛난다고.

3도 흑2로 위에서 모는 변화도 있는데 이하 10까지 정석이고 백11로 걸쳐 나뉘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은 축관계가 있어 다소 미묘한 데가 있다. 즉 4도와 같이 백7로 꼬부리는 변화인데 이하 25까지 백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구도라는 게 김인 9단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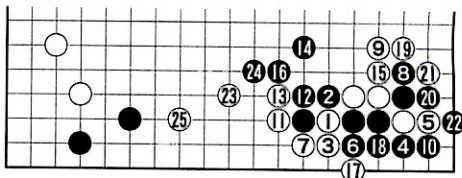
한편 흑으로서는 한번 배석일 경우 5도처럼 백1로 붙여왔을 때 흑2·4로 응수해 놓고 백5 때 흑6·8로 붙여뺏는 방법도 일

책이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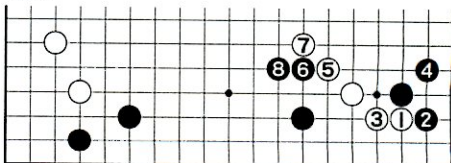
창7단은 흑19로 걸쳤다. 넓은 쪽인 20의 곳을 마다하고 이쪽을 택한 것은 취향. 물론 상대의 기풍을 예상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백20을 요즘 유행하는 한칸협공으로 6도와 같은 구도가 된다면 한판의 바둑이지만 이 경우는 7도와 같이 흑3 다음 5로 어깨짚어 이하의 수순이 백으로선 불만이라고 한다.

흑25로 한번 흑진이 자리를 잡을 때 상변에서의 백26·30은 이른바 ‘마 샤오춘류’. 포석이론대로라면 백30으로 가에 높이 가야할 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9단의 독특한 취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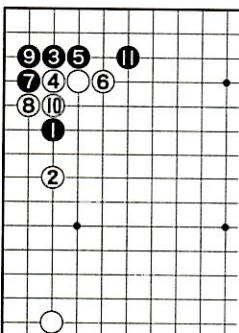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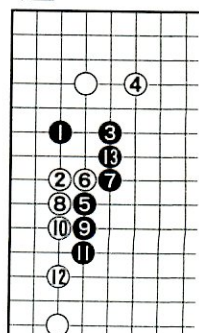
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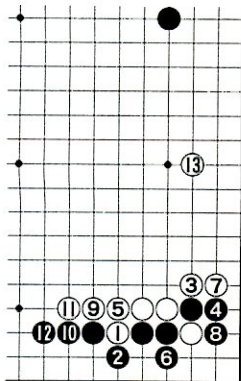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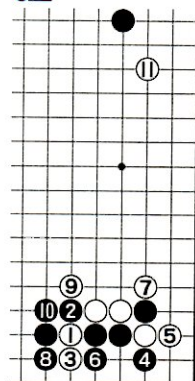
7도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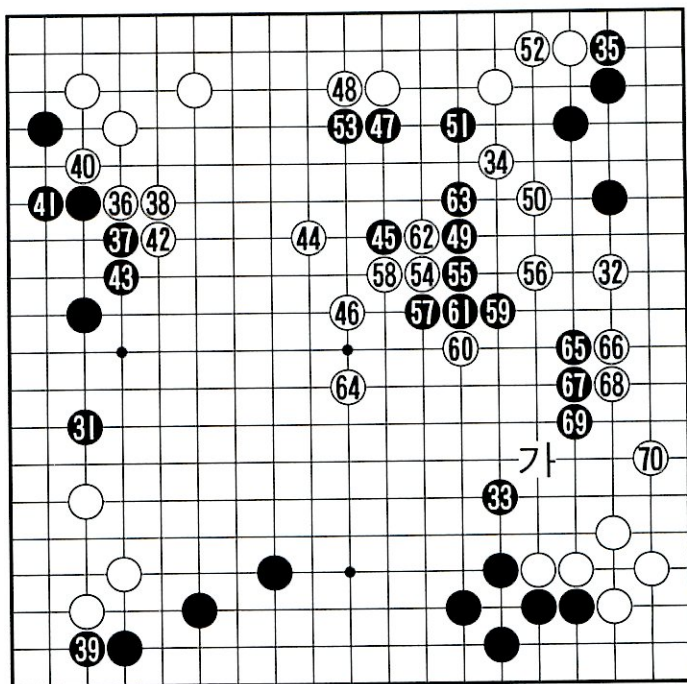


3도





이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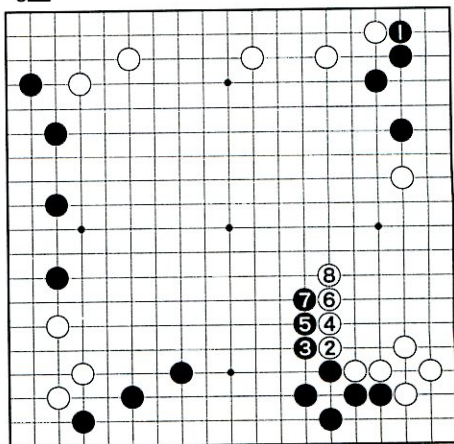


흑31은 백39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면 흑33이 자연스런 흐름. 마九단은 이것을 거부한다. 백32는 거꾸로 흑35로 강요하는 모습. 8도 흑1이면 물론 백2 이하 8까지 백이 바라던 대로 된다.

그러므로 흑33은 당연한 수. 백34 때 흑은 비로소 35로 귀를 지켰는데 지금와서 좌하귀를 백39로 막아 살아둘 수는 없게 됐다. 백은 34를 둔 만큼 이젠 상변을 확대하는 작전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같이 백이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은 분위기는 백에게 실수가 있었다기보다는 흐름이 백보다는 흑쪽을 타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듯이 보인다.

“마九단이 흑33을 예상치 못했을 리 없

8도



고 백32는 여러 가지 복선을 내포하고 있다.”

김九단은 일련의 백의 수순에 있어 그 흐름을 성급하게 진단하지 않는 눈치. 백32는 장차 가의 곳 호처와 연계할 수 있을을 덧붙인다.

백36・38로 붙여 뺐었을 때 흑39는 큰 곳이며 공격의 급소. 그러나 백도 40으로 한방 알리고 42로 밀어 상변을 최대한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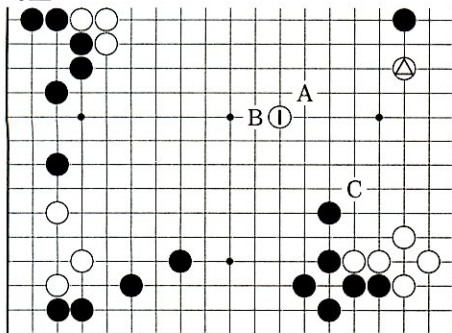
그러나 백44에 대하여 김九단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백44는 상변을 구축하는데 좋은 곳이지만 흑45・47의 삭감수순이 절묘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 9도 백1이나 A 또는 B 등 이 언저리를 두고 싶다.”

김九단은 9도 백1 등의 수가 상변과 우변 백C를 동시에 보고 있어 백△와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다는 데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후 흑의 삼각책에 따라 영판 다른 국면전제가 되겠지만 실전보다는 낫다고 본 것.

흑45 때 백46으로 상변 집을 확보하려는 것은 가령 10도 흑6까지 중앙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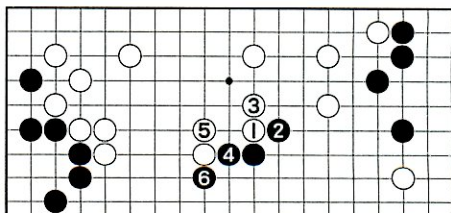
흑47에 백이 48로 받은 것은 굴복 같지만 그렇다고 반발하는 것도 전도가 불확실할 뿐이다. 그 반발이란 53으로 찢히는 수가 대표적인데 흑이 쉽게 타개해 버리면 자칫 꺾데기만 남기 쉽다.

흑49까지 틀을 잡아서 이미 공격의 사정권을 벗어난 셈. 백50이 불가피할 때 흑51, 백52의 교환은 실리상 손해지만 중앙 쪽으로는 흑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두터움을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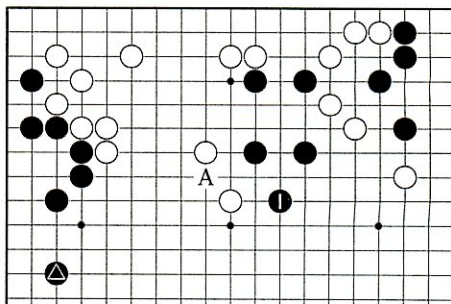
흑53이 의문수. 절호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흑에게 찬물을 끼얹은 수였다. 이 수로는 11도 흑1로 지켜두어야 했다는 것이 김九단의 주장. 이 수는 나중 흑A로 건너 붙이는 수를 남겨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좌변 흑△가 축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흑의 자랑.

백54 이하 64까지의 역습으로 주도권은 잠시 백의 수중에 들어간 인상이다.

10도



1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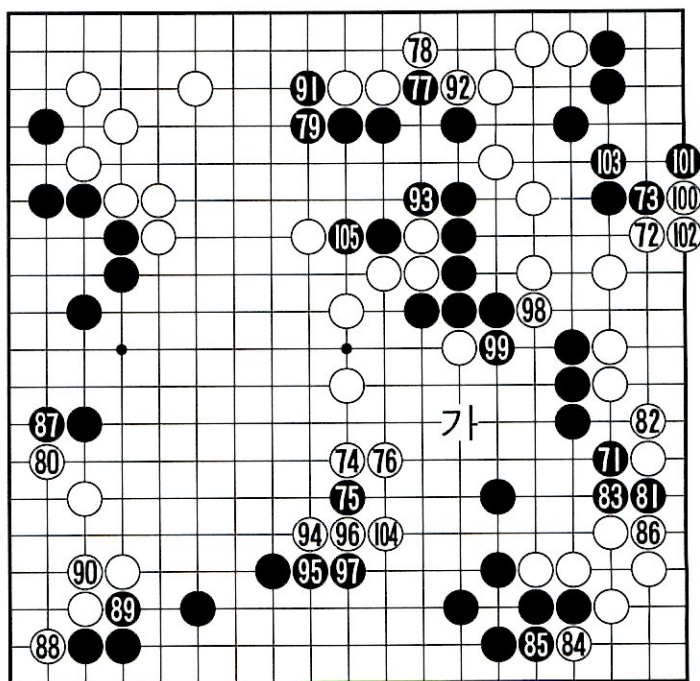




제 3 보

71~105

국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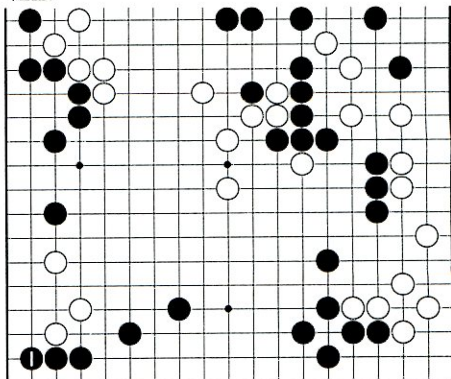


창七단이 마九단에게 도전한 것은 95년 대국수전(大國手戰)에서 한 번 있었다. 당시 비록 2승 3패로 타이틀을 따는데는 실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선전했었다는 것이 중평. 과연 이 천원전에서 기필코 타이틀 쟁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창七단은 한때 ‘중국의 이창호’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마九단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선두주자. 76년생으로 이창호 九단보다 한 살 아래지만 86년 이九단과 같이 입단해서 95년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었고 중·일슈퍼대항전서 5, 6연승을 올리는 등 국제적으로도 스타덤에 오른 정상급신예다.

수년 안에 마九단을 무너뜨리고 정상에 설 수 있다면 이름이 비슷한 ‘중국의 이창호’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그만의 별명을

12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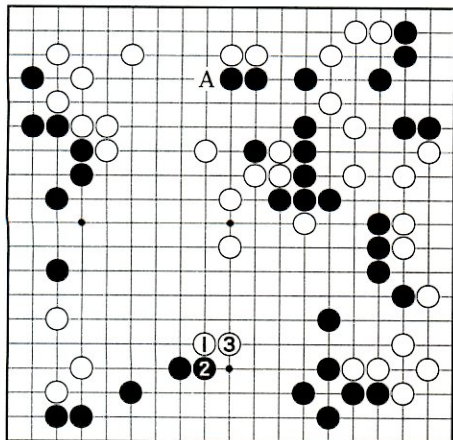
전보에서 흑이 의문수를 두긴 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흑이 압도적인 우세를 확보할 찬스, 아니 어쩌면 흑이 아주 쉽게 국면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 뿐 형세가 뒤바뀐 것은 아니었다.

한데 흑71이 완착. 김인 九단은 이 수로 12도와 같이 흑1로 빠져 좌하귀의 백을 공격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좌하귀는 잡자는 것보다는 ‘공즉여득’의 기리를 따르자는 것.

흑의 완착에 여유를 만끽하자는 것일까. 백은 74 한칸으로 뒷집지면서 호기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이 수로는 당연히 13도와 같이 백1 어깨짚는 수로 바짝 눌러두어야 했다는 것이 김 九단의 주장이다. 그렇게 해 놓고 A로 젖혔으면 백의 역전 무드였다는 것. 좌하귀와 백은 14도 흑1로 공격당해도 백2·4·6으로 타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흑75 백의 머리를 들이받은 수가 기민한 수로 백의 완착을 단숨에 응징하고 있다.

13도



그리고는 반면 최대의 곳인 흑77·79로 상변을 유린해버린다. 또다시 국세는 흑 쪽으로 반전되고 있다.

백74는 분명 마 九단의 실기였다. 세계대회를 제패하고 그 명성을 드날리던 마 九단의 정평있는 정밀한 숨씨가 전혀 아닌 것이다.

“요즘의 마 九단은 중요한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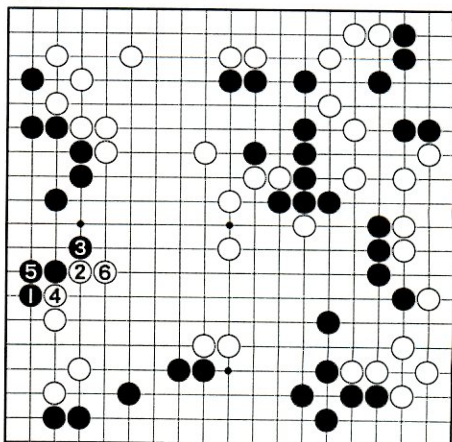
김인 九단은 마 九단이 세계대회에서 이창호 九단에 연전연패를 하면서 승부에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고 귀뜸.

흑81·83은 창 九단의 권리. 백86을 보고 흑87로 여유롭다. 흑91도 큰 곳. 백94·96도 이제와선 가장 큰 곳이 된다.

그런데 백98은 무슨 뜻일까. 김 九단은 이 수에도 의문을 표한다. 나중 백가면 집될 자리를 흑99와 교환한 것은 분명 손해라는 것이다.

백104가 마지막 최대의 큰 곳. 이 수는 다음보에서 보듯이 기분좋은 후속타를 보장하게 된다.

1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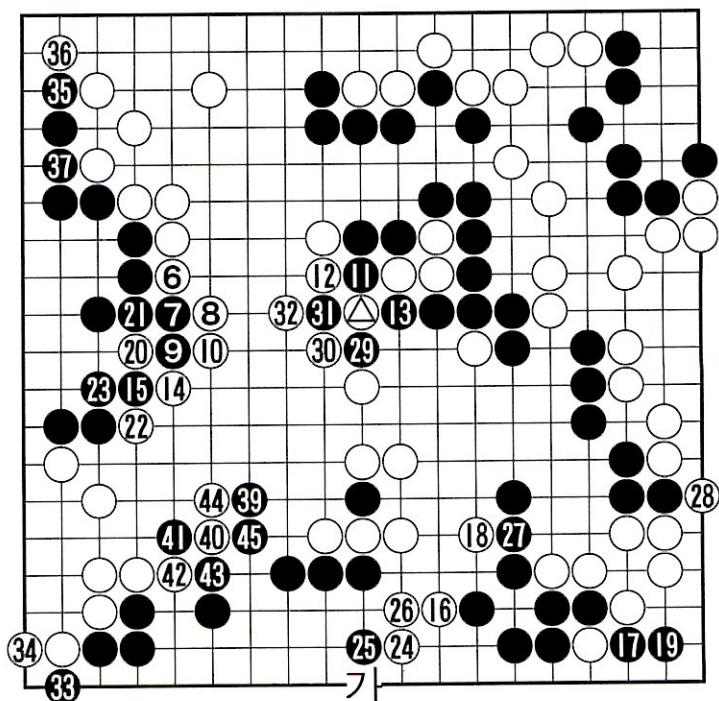




106~145

38...△

패착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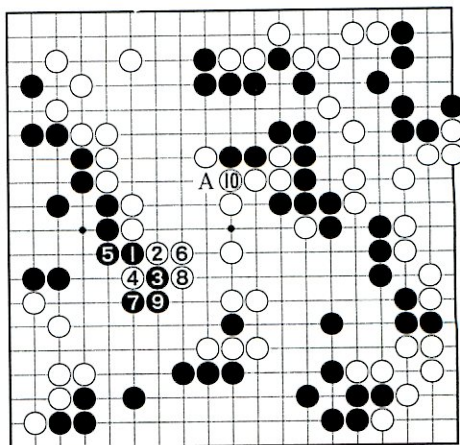
백6은 급소로 중앙에 어느 정도 집을 확보하느냐가 마지막 승부로 되고 있다. 백은 우선 8・10으로 중앙쪽 경계를 최대한 확보한다. 아직 좌하쪽 경계선이 결정되지 않고 있고 집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백으로선 이곳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창九단은 흑11・13으로 백 석점을 들어냈다. 물론 작지 않은 곳. 그러나 이 끝내기가 승부를 아주 미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흑11로는 15도 흑1・3으로 이단젓힐 자리다. 만일 백이 4・6으로 두면 이하 9까지 좌변과 하변이 달라진다. 또한 수순 중 백6으로 7에 늘면 흑A로 젓혀 중앙 백

진에서 다양한 뒷맛을 노릴 수가 있다.”

15도



김인 九단은 흑11이 결국 백14·22의 단수를 불러 계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듯했다. 사실 15도 흑3의 짓힘으로 16도 흑1·3으로 짓히고 뺀어도 집으로 별 차이는 없다. 역시 백14·22의 두방이 예상외로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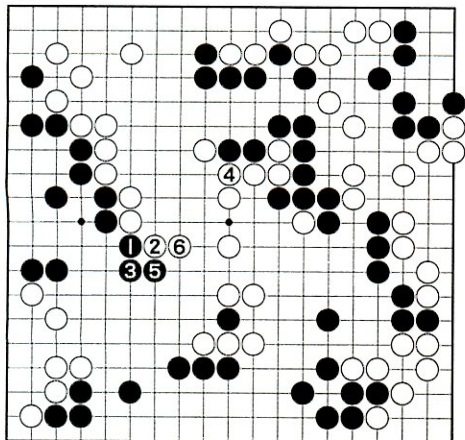
형세는 다시금 미세해졌다. 종반으로 흘러갈수록 승부는 반집을 다투는 극미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백16. 이 수가 이 바둑의 패착이라는 결론. 아마도 마九단의 순간적인 착각일 듯 싶는데 김인 九단은 17도의 그림을 보이며 그 착각의 배경을 설명한다.

“백16은 17도 흑1로 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두어진 수다. 만일 끊는다면 백6 다음 흑이 A로 또 끊어야 하는데 백B면 촉촉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전처럼 바로 C로 끊음으로써 17도의 수순은 환상이 돼 버린다.”

결국 백28까지 우하귀가 철저히 유린되었다. 하변을 뚫었다고는 하지만 우하에서의 손실이 더 컸던 것이다.

1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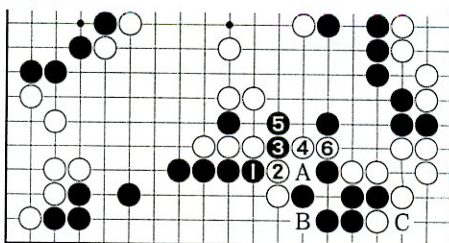
그러면 백16은 어떻게 두어야 할까. 김인 九단은 18도의 수순을 펼쳐 보인다. 백5·7의 수순이 절묘하다. 이하 13까지면 아주 미세한 계가바둑의 양상이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백26이 또 실수. 당연히 가로 찢어야 했다. 이 두 개의 실수로 백은 돌이킬 수 없는 열세에 빠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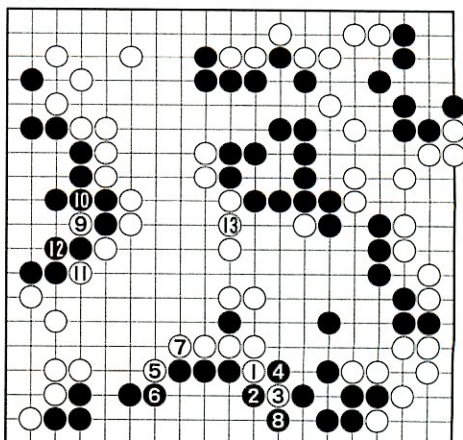
선수를 잡은 창七단은 흑29·31로 선수이득을 취한 후 선수로써 흑35·37. 반상 최대의 큰 곳을 차지하며 승세를 굳혀간다.

백38의 패때림에 흑39 또한 생략할 수 없는 곳.

17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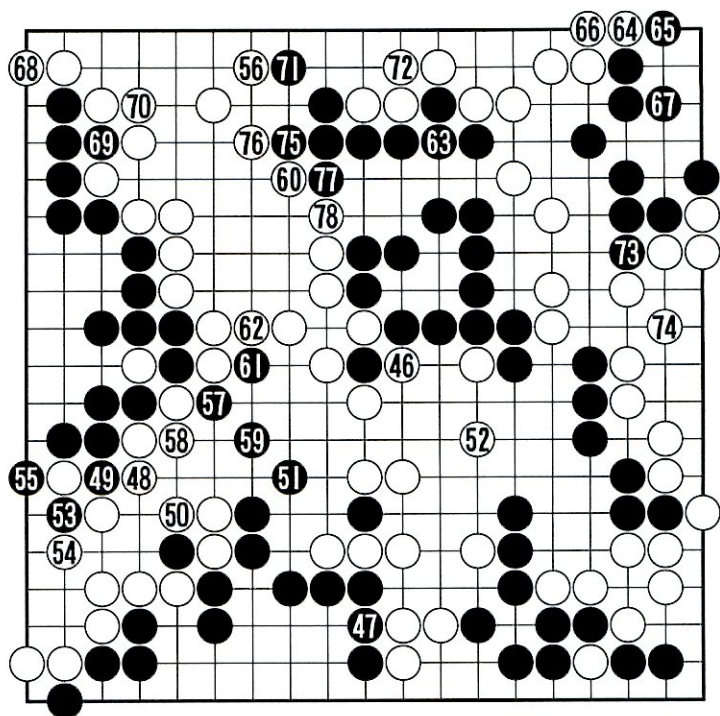


18도





비몽사몽



백50 때 흑51, 백52를 교환한 후 흑53은 8집짜리의 큰 곳. 만일 이 곳을 백이 잇는다면 좌변 흑쪽으로 짓히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가치가 또한 큰 것이다.

흑71 때 백72는 또 뭔가. 이쯤에서 마九단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 같다. 상변 백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같이 공배와 다름없는 수를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김九단은 머리를 젖는다.

형세판단의 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비몽사몽간에 떨어진 망발(?). 전해온 기보에 소비시간이 없으니 이 또한 알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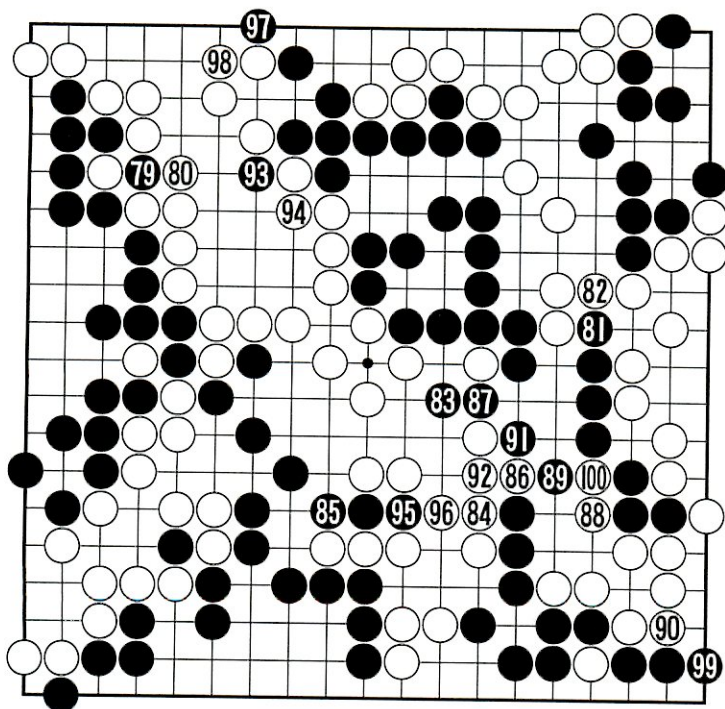
백72는 76으로 두어야 그나마 승부를

줄일 수 있었다. 백72는 다음보에서 보듯 흑97 때 백98로 양보를 해야 했으므로 비록 승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투석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九단은 만일 백이 72를 제대로 두어 끝내기까지 갔다면 반면 8, 9집 승부였을 것이라고 평했다.

중요한 고비마다 실수가 연이어지는 마九단의 비독, 분명 요즘 그의 슬럼프는 보통이 아님이 확실한 것 같다.

이로써 창 하오 七단은 3:1로 천원 마 사오춘 九단을 물리치고 대망의 타이틀 보유자가 됐다. 창七단의 천원 획득은 중국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요구한다. 창 하오를 조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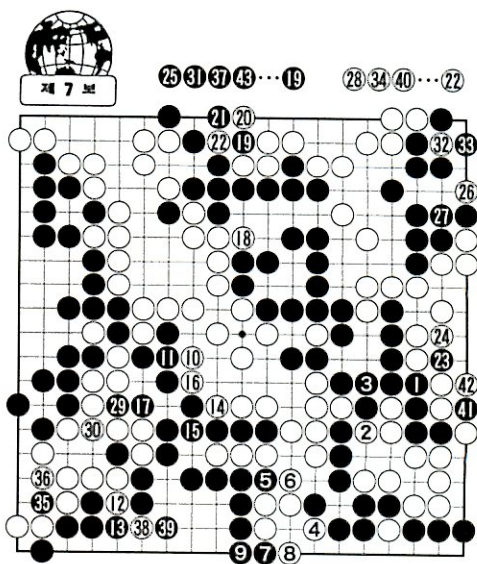
정상임박

창 하오 七단은 95년 도전기에서의 실패를 깨끗이 설욕하면서 타이틀을 장악하는 한편 6관왕 마九단의 일각을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다. 이창호 九단과 빼담은 용모와 젊은 패기. 그가 중국의 정상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해도 크게 어긋난 생각은 아닐 듯싶다.

한편 마九단은 세계대회 부진이 국내대회에서도 이어진 듯한 인상으로 하루빨리 정상급 기량을 과시해줬으면 하는 희망이다.

국내대회 부진을 세계대회에서 단숨에 씻어버리는 조훈현·서봉수 九단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

243수 끝, 흑 불계승





지구촌 소식

일 본

제35기 십단전

가토, 2:2 벼랑끝 추격

2:2, 타이틀을 향한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10일 도쿄(東京) 시하코네(箱根)에서 열린 제35기 십단(十段)전 도전5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가토 마사오(加藤正夫) 九단이 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 九단을 상대로 308수까지 가는 접전끝에 흑 반집승을 거두며 막판 추격에 나섰다.



가토 九단

또한 가토 九단은 3월 31일 일본기원에서 벌어진 제

52기 본인방(本因坊)전 본선리그에서 양 자원(楊嘉源) 七단을 133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종합전적 6승 1패로 도전자가 됐다.

가토 九단은 지난 50기 때에도 본인방전 도전권을 따냈으나 조치훈 九단에게 1승 4패로 패퇴한 바 있다. 본인방전은 현재 조치훈 九단이 8연패를 기록 중이다.

제19기 학성전

고바야시, 재기 나섰다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 九단이 타이틀 무대에 복귀했다.

3월 24일 일본기원에서 벌어진 제19기 학성(鶴聖)전 결승전에서 고바야시 九단이 가토 마사오(加藤正夫)



고바야시 九단

九단을 맞아 14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타이틀을 획득했다.

일본항공 주최로 열리는 학성전은 선수권전이며 우승상금은 510만엔(한화 약 3,700만원)이다.

제2기 JT배 성좌전 요다, 류시훈 꺾고 타이틀 차지

3월 22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3기 JT배 성좌(星座)전 결승전에서 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 九단이 류시훈 七단을 맞아 224수 만에 백1집반승을 거두고 타이틀을 획득해 십단, 기성(碁聖)



요다 九단

聖)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결승전이 치러진 일본기원 2층 대강당에서는 바둑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시다 요시오(石田芳夫) 九단의 진행으로 공개해설회가 열렸다.

제44기 NHK배 왕 리청, 삼세번 만의 우승

왕 리청(王立誠) 九단이 3월 22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제44기 NHK배 결승전에서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 九단을 맞아 233수 만에 흑 7집반승을 거두고 첫 우승컵을 안았다.

그동안 이 대회에서 준우승만 두 번을 차지하는 등



왕 리청 九단

우승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왕九단은 이번 우승으로 그동안의 불운을 말끔히 씻었다.

한편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 九단과 우메자와 유카리(梅澤由香理) 初단이 공개해설회를 진행, 큰 인기를 모았다.

제12기 NEC준영 토너먼트 양 자위엔, 대회 첫 우승

양 자위엔(楊嘉源) 七단이 3월 1일 도쿄(東京) 시에서 열린 제12기 NEC준영(俊英)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강호 야마다 기미오(山田規三生) 七단을 꺾고 결

승에 올라 파란을 일으킨 여류기사 니시다 데루미(西田榮美) 五단을 128수 만에 백불계로 이겨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양七단은 1970년 대만 태

생의 기사로 82년에 도입, 85년에 입단했으며 95년 이후 3년 연속 본인방 리그에 진출했고 올해에는 명인전 본선에도 오르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제3기 우정배 샤오 웨이강 등 본선멤버 확정

3월 19일 제3기 우정(友情)배 예선전이 끝났다.

샤오 웨이강(邵煒剛) 八단의 NEC컵 우승, 창하오(常昊) 七단의 천원 획득 등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신예 기사들의 돌풍이 계속됐다.

샤오 웨이강·창 하오 八단, 루오 시허(羅洗河) 六단, 위 평(余平) 五단이 각

각 4연승으로 본선리그에 진출했으며 九단 중에서는 우자오이(吳肇毅) 九단 만이 홀로 본선에 올랐을 뿐 네 웨이핑(聶衛平)·류 샤오광(劉小光)·장 원둥(張文東) 九단 등은 모두 탈락했다.

이로써 예선전을 거친 5명의 기사와 전년도 대회 우승자 마 샤오춘(馬曉春) 九

단, 준우승자 위 빈(俞斌) 九단, 그리고 96년 전국여류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리춘화(黎春華) 三단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본선리그 조가 편성됐다.

우승자에게는 인민폐 6만 원(한화 약 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97년 승단대회 세계 두 번째 여류 九단 탄생

펑 윈(豐雲) 八단이 九단으로 승단, 루이 나이웨이(芮乃偉) 九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여류 九단이 탄생했다.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항조우(杭州) 시에서 열린 '97년 승단대회'에서 펑 八단은 4월 4일 양 스하이(楊士海) 七단에게 승리해 총 31국 중 평균 67.5점을 얻음으



펑 윈 九단

로써 지난 95년 八단에 오른 지 채 3년도 안돼 또다시 승

단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번 승단대회를 통해 샤오 웨이강(邵煒剛)·창 하오(常昊)·양 스하이·장 쉰(張璇) 七단 등 4명의 기사가 八단으로 승단했으며 승단대회와 함께 열린 정단(定段)대회에는 142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12명의 청소년 선수가 프로 初단의 자격을 얻었다.

제3기 패왕전 왕레이, 패왕이 보인다

왕레이(王磊) 六단이 패왕을 향해 패속 질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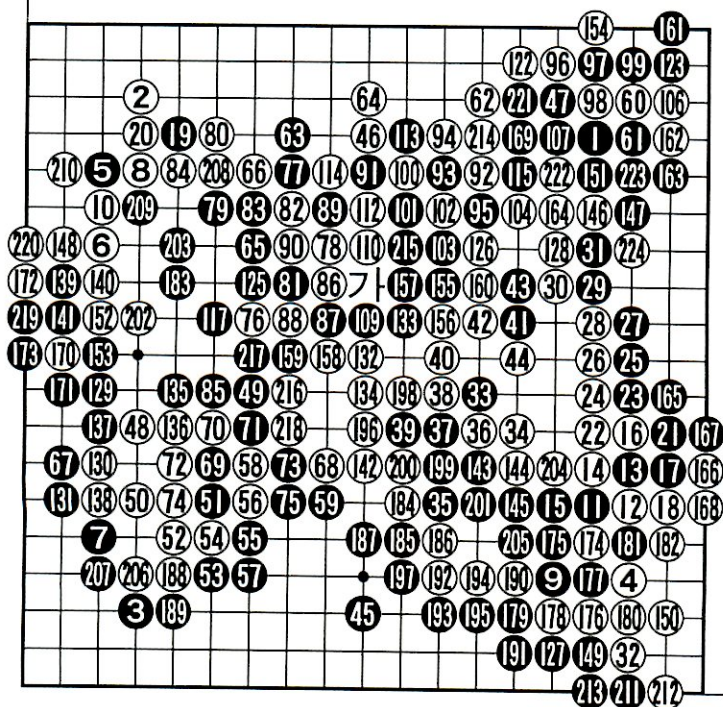
4월 9일 중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벌어진 제3기 패왕전 도전7번기 제2국에서 왕六단은 패왕 마 샤오춘(馬

曉春) 九단을 상대로 22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둬 2:0으로 앞서 나가게 됐다.

이날 대국에서 실리가 부족한 왕 레이 六단은 상변 흑 대마에 대한 공격에 나섰으나 백 90이 실수로 형세를

불리. 그러나 흑 101수가 패착으로 가 쪽에서 때렸으면 순조롭게 연결됐을 것이다. 이후 패싸움에서 백이 이득을 얻어 형세를 만회했다.

제3기 패왕전 도전2국



백 六단
왕 레이
(王磊)
흑 九단
마 샤오춘
(馬曉春)

〈'97. 4. 9, 중국기원〉

224수 끝, 백 불계승

05 11 21... 93
06 12 22... 102
16... 100 119... 69
120... 51

유럽그랑프리대회, 도시마다 열풍

유럽대륙을 순회하며 벌어지고 있는 후지쓰그랑프리대회가 갈수록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일본 후지쓰사가 후원하고 유럽바둑연맹(E.G.F)이 주최하는 후지쓰그랑프리대회는 유럽 여권 소지자에게 한해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매 연말이 되면 각 그랑프리

대회 상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매긴 랭킹을 바탕으로 최종 결승 토너먼트를 치러 입상자를 가린다.

유럽그랑프리대회는 올해 현재 런던·프라하·브라티슬라바·비인 시 등 4개 도시에서 열렸으며 앞으로 파리 부활절대회, 독일 마스터즈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3월 22, 23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인 시에서 열린 비인 그랑프리대회에서는 10개국에서 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알렉세이 라자레프(Alexei Lazarev) 6단이 6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 유럽그랑프리 랭킹(3월 27일 기준)

- | | |
|--------------------------|------------------------------|
| 1. Vladimir Daneck(체코) | 11. Emil Nijhuis(네덜란드) |
| 2. Victor Bogdanov(러시아) | 12. Murakami shigeru(일본) |
| 3. Alexei Lazarev(러시아) | 13. Alister Wall(영국) |
| 4. Cristian Pop(루마니아) | 14. David Holecek(체코) |
| 5. Guo Juan(네덜란드) | 15. Ksper Hornbaek(덴마크) |
| 6. Rdeck Nechanicky(체코) | 16. Sorin Gherman(루마니아) |
| 7. Andrei Gomenyuk(러시아) | 17. Leon Matoh(슬로바키아) |
| 8. Matthew Macfadyen(영국) | 18. Miyakawa wataru(일본) |
| 9. Dmitrii Jatsenko(러시아) | 19. Arkadiy Bogatskii(우크라이나) |
| 10. Thomas heshe(덴마크) | 20. 이혁(한국) |

제1회 미국-대만 프로슈퍼바둑대회 미국, 대만에 9승 4패로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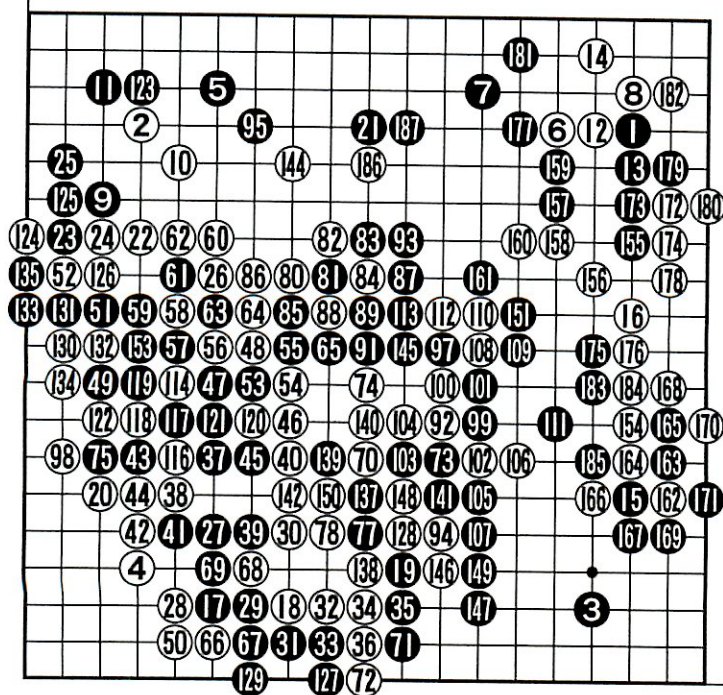
3월 29일 차민수 四단이 제1회 미국-대만 프로슈퍼바둑대회 제13전에서 대만의 다이 자쑤(戴嘉伸) 三품에게 승리, 미국은 대만에 종합전적 9 : 4의 압도적인 승차로 앞서 나가게 됐다.

지난 해 12월에 출범한 이 대회는 대만의 차아친(加欽)사와 잉창치 교육기금 후원으로 인터넷 바둑 서비스를 이용해 양국에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출전, 진로배와 같은 녹아웃제 토너먼트

로 진행되며 대회는 모든 선수들이 두 순배를 돌 때까지 계속된다.

이로써 대만은 저우 권쑤(周俊勳) 六품 한 사람 만이 남게 됐으며 차민수 四단과 대국을 치를 예정이다.

제1회 미국-대만 프로슈퍼바둑대회 제13전



백 三품

다이 자쑤

(戴嘉伸)

흑 四단

차민수

〈'97. 3. 29,
인터넷 통신대국〉

187수 끝, 흑 불계승

76 96 136 152... 68

79 115 143... 63

90... 81



이 코너는 세계 유일의 바둑전문 케이블TV인 B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안내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BTV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난입니다.
(채널48)

BTV와 함께 체계적인 바둑 학습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 바둑TV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바둑을 배우는 재미를 더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지난 호에 소개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기획된 5월의 새 프로그램들은 고수가 되기를 염원하는 바둑 중급자들에게 바둑전문채널인 BTV의 진가를 재차 느끼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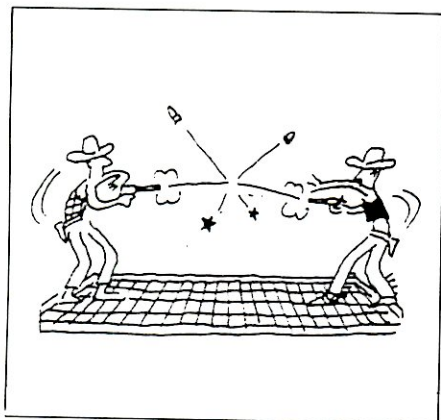
동아리 바둑잔치

·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11시

먼저 신설 대국 프로그램으로는 바둑에 애

착을 갖고 있는 일반 아마추어 바둑팬들이 기원이나 직장에 모여 만든 바둑동아리끼리 실력을 겨뤄 보는 「동아리 바둑잔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아마강자가 참여하지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들로만 구성된 바둑동아리들이 3명 1팀으로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아마추어 바둑동호회들 간의 경쟁력 강화와 교류의 장 마련에 기획 의의를 두었다. 「동아리 바둑잔치」는 시청자들에게 대국 감상의 재미와 아울러 동호회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것이다.



신바람 속력행마

· 방송시간 매주 목·금요일 저녁 7시~7시 20분

바둑에서 세력과 실리의 조화는 중요하다. 발빠르게만 행마하면 실리에서 앞서지만 잃어지고, 두터움만 고집하면 대세에 밀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행마의 요령을 바로 알아야 국면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마법의 모든 것을 알아 보는 「신바람 속력행마」는 3단계의 코너로 만들어져 방송될 예정인데 초반 포석이 끝난 뒤 중반 행마를 공부하는 「기본행마법특강」과 문제의 장면에서 좋은 행마와 나쁜 행마를 구분하는 「만점행마, 뺑점행마」, 그리고 프로의 속력행마를 실전보에서 익히는 「실전 속력행마」로 구성된다.



특선 해외바둑

· 방송시간 : 매주 저녁 토요일 7시 30분~9시
· 진행 : 김성래 初단, 해설 : 노영하 八단

국제기전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바둑을 꺾기 위한 일본과 중국

의 연구열이 대단하다고 한다.

국제대회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요즘 '타도 한국'을 외치며 한국의 실전적인 바둑을 연구하고 유망 신예들을 육성하는 한편 신정석이나 신수를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일본은 막부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바둑사를 지닌 만큼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 역시 마샤오춘(馬曉春) 九단의 일인 천하가 그동안 힘을 축적해 온 중견 기사나 신예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등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의 바둑 동향을 알아 보며 각기 개성이 다른 일본과 중국의 바둑을 해설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이 「특선 해외바둑」이다.

BTV 기력측정실

국내 바둑 애호가 중 70% 이상이 5급에서 10급 사이의 중·저급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들의 경우 바둑에 대한 열정은 고급 기력자 못지 않으나 아마고단자나 프로기사와의 대국 기회 또는 레슨을 받을 기회가 없어 자신의 기력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기력에 호기심과 의문을 갖고 있는 바둑 애호가들을

초대, 단계별로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급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BTV 기력측정실」이다.

‘나는 몇 급일까? 나는 과연 프로와 몇 점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을 위해 프로와의 급수측정대국으로 평균 급수를 정하고, 포석부터 중반, 사활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정확한 기력 평가를 받고 나면 한국기원인허 급증을 인허해 준다.



동양증권배 결승전 생방송

바둑텔레비전은 한·일 대결의 빅카드이자 전통의 세계 기전인 제8기 동양증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전 1, 2, 3국을 생중계하여 바둑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결승까지 올라 온 조훈현 九단과 고바야시 사토루(小林覺) 九단의 결승5번기는 모두 한국기원 BTV스튜디오에서 벌어질 예정.

결승전은 장수영 九단과 고광명 四단의 명쾌한 해설로 시시각각 변하는 형세를 중계했는데 한국기원 2층에 마련된 공개해설장과 검토실에서 바둑TV를 지켜보고 있던 바둑팬들은 1, 2국 모두 조훈현 九단이 불리했던 형세를 역전시키고 박진감 넘치는 대국을 전개해 짜릿한 실황 중계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바둑팬들에게 세계바둑대회 결승전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안겨 준 BTV는 계속해서 빅 이벤트를 유치해 바둑붐을 조성할 예정.

(기사제공/BTV 최지환 PD)

5월 BTV 방송 편성표

※방송시간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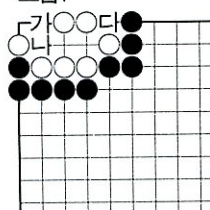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서봉수의천하하점	바둑손자병법
10:00						속임수는 없다	
10:30	기력테스트	탈출동네바둑			바둑이 보인다		
11:30	명승부열전(3방)		마법의 점바둑 (3방)	장기 국수전 (3방)	초등학교 바둑왕 (3방)	BTV기력측정실(재)	
	바둑을 배웁시다					바둑을 배웁시다(재)	
12:00	서봉수의 천하하점(3방)	바둑손자병법(3방)				신바람 속력행마(재)	
초점국 퍼레이드 or BTV특집(재)							
13:30	정석과 변화(3방)			필승 중반의 비결(3방)		제2회	주긴바둑소식(재)
14:00	제2회지승배 아마최강전 (재)	특선 해외바둑 1 (재)	시도대항 바둑최강전 (재)		동아리 바둑잔치 (재)	기업리쓰배 직장인 최강전(재)	BTV 초대석 (재)
15:30	필승! 중반의 비결(재)		일기쉬운 초반30수(재)		장기국수전 (4방)	마법의 점바둑 (재)	초등학교 바둑왕 (재)
16:00	BTV기력측정실(3방)		명승부열전(재)				
17:00	바둑이 보인다(재)				바둑시대 바둑이야기(재)	기력테스트(재)	현성요수풀이(재)
17:30	초점국퍼레이드 or BTV특집(3방)						
19:00	환상3급 여행		기력테스트	신바람 속력행마 바둑을 배웁시다		일기쉬운 초반30수	
19:30	마법의 점바둑	장기국수전 (재)	초등학교 바둑왕	BTV기력 측정실		명승부열전	
21:00	일기 쉬운 초반 30수		필승 중반의 비결		제2회 기업리쓰배 직장인 최강전	주긴바둑소식	바둑시대바둑이야기
21:30	시도대항 바둑최강전		동아리 바둑잔치	BTV 초대석	제2회 기업리쓰배 직장인 최강전	현성요수풀이	제2회 지승배 아마 최강전
23:00						특선 해외바둑 1	
초점국퍼레이드 or BTV특집							
00:30	신바람 속력행마		바둑시대 바둑이야기	서봉수의 천하하점(재)	바둑손자병법(재)	정석과 변화(재)	
01:00	속임수는 없다		속임수는 없다(재)				
03:00	제2회 기업리쓰배 직장인 최강전(3방)	제2회 지승배 아마 최강전 (3방)	CH46 남과 여	동아리 바둑잔치 (3방)	특선 해외바둑 2 (재)	시도대항 바둑최강전 (3방)	
	탈출동네 바둑			환상3급 여행			
04:30	특선 해외바둑 1(3방)	서봉수의 천하하점 바둑손자병법(3방)	속임수는 없다(3방)	특선 해외바둑 2 (3방)	BTV 초대석 (3방)	동아리 바둑잔치 (4방)	마법의 점바둑 (4방)
	명승부열전(4방)						

· 각 문제도의 해답은 「바둑TV 현상묘수풀이」 해설 및 추첨일에 BTV를 통해 방송됩니다.

※ 문제는 모두 흑 차례입니다.

1주분/마감 5월 1일
문제해설 및 추첨/5월 2일

초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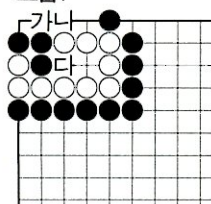
※ 문제의 정답을 관계엽서에 적어 BTV로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곳 :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CBS 6층 비독텔레비전 현상요수품이 담당자 앞
- 상품 : 월간『바둑』 6개월정기구독권 2명(한국기원)
천하수담CD롬 2명(한글과 컴퓨터),
동남아 4박5일 여행권 1명(코오롱비디오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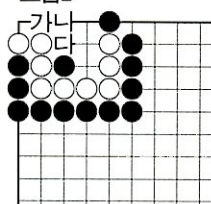
3주분/마감 5월 15일

문제해설 및 추첨/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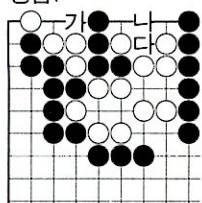
초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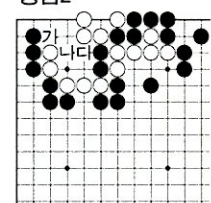
초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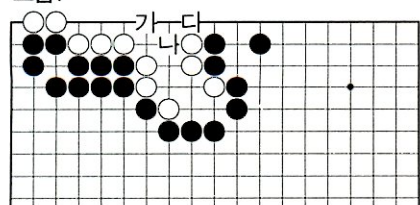
중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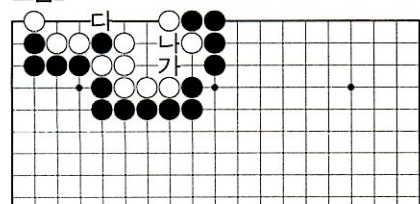
중급2



고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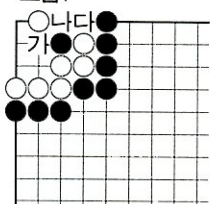
고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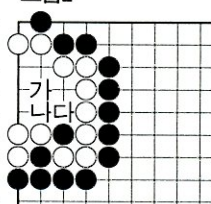
1주분/마감 5월 22일

문제해설 및 추첨/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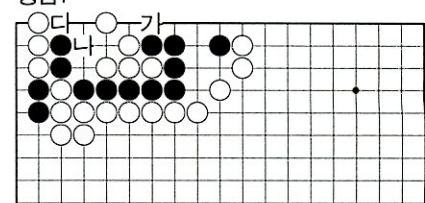
초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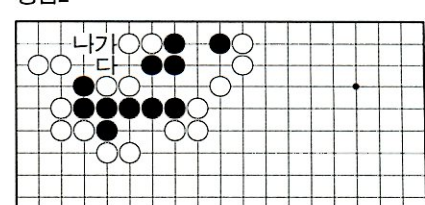
초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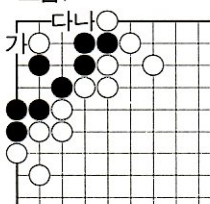
중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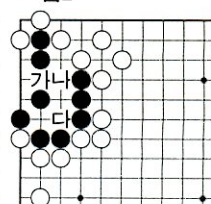
중급2



고급1



고급2



제9회 목석배 영남지역바둑대회

* 월간바둑총판 *

서 울	로 : 한일서적	737-3491
종 료	구 : 수 송 사	326-1866
마 포 · 용 산	진 영 사	712-5824
은 평 · 서 대문	상문서적	307-2918
도봉구 · 노원	도 봉 사	997-6700
성 일	북 : 중앙문화	946-0587
동 대 문	합 동 사	439-1127
성 일	동 : 신진도서	462-4987
송 파	갑실서적	443-7938
강 서 동	건국도서	203-4413
조 : 성 우 사		576-1653
강 남	희 망 사	554-5680
동 작 · 관 약	한글문화사	885-1007
영 동 포	보 람 사	847-1100
구 로	문 영 사	834-8340
강 서 · 양 원	양 서 사	699-0839
	보 문 당	498-2293
	한일도서	730-8791
	유 영 사	774-9141

경기도

인 고	천 : 경인도서	032)884-5588
구 리	대 일	034)977-4428
의 정	리 : 동원서적	0346) 63-4621
평 태	북 : 회동도서	0351)876-6304
성 태	백 : 경기문고	0333) 53-0524
수 남	영광도서	0342)757-5850
안 원	원 : 흥원도서	0331)257-5756
운 양	대동서점	0343) 47-7000
	산 : 대동서점	0345)409-6400
	천 : 해림서적	0357) 32-5345

강원도

통 지	황지서점	0395) 52-3931
죽 호	대백서점	0394) 31-3951
춘 천	태양서점	0361) 55-1148
원 주	학우서점	0371)764-6366
강 룡	영동서적	0391)645-3361
속 초	문우당서점	0392)635-8056

충청도

청 주	셀 터 사	0431) 60-9472
충 주	문 화 당	0441)847-4386
계 천	경북서점	0443) 2-3816
천 안	동방서적	0417) 63-3313
대 전	청 립 사	042)254-6799
논 산	보문서점	0461) 32-3156

부산 · 대구

부 산	산 : 셀 터 사	051)468-3610
	남부총판	051)756-2727
	동부총판	051)527-6047
	북 부 사	051)895-4841
대 구	구 : 희망서적	053)425-7733
	대동도서	053)426-2357

경상도

마 산	경 동	0551) 41-8134
울 산	치용서점	0522) 67-1303
진 주	동아서점	0591) 43-1454
김 해	교 학 사	0525) 33-2335
포 향	예지서점	0562) 73-4870
천 룡	꽃동산서점	0547)434-8900
영 주	대한서점	0572) 32-8590
동 통	스콜서점	0571) 57-9110
안 경	주 : 동화서점	0561) 2-4108
봉 영	통영서적	0557) 43-5785

전라도

광 주	주 : 남도서적	062)526-6610
순 천	천 : 일광서점	0661) 52-4414
여 주	수 : 태양서점	0662) 62-2111
목 포	포 : 동 아	0631) 44-1902
군 산	산 : 동아서적	0654)452-7620
이 리	리 : 삼 일 사	0653)856-0314
진 주	주 : 합동서적	0652) 84-7085

제주도

제 주	주 : 광장서점	064) 32-1234
-----	----------	--------------

① 일시: 1997. 6. 21(토) 13:00~6. 22(2일간)

② 장소: 서면 88기원, 롯데기원

③ 참가자격: 영남지역 바둑아마동호인

④ 대회진행

- 1) 6월 21일 14:00 예선리그(4인 1조, 각조 1명 본선진출)
6월 22일 10:00 본선토너먼트 2차전 및 결승전(장소: 88기원)

2) 총호선, 덤 5집반

3) 제한시간 각 30분

4) 2자 동률시 승자승 원칙, 3자 동률시 추첨

5) 기타: 제반 사항은 한국기원 규정에 따름

⑤ 참가금: 15,000원

⑥ 접수처: 88기원(Tel : 051-804-1255)

접수방법: 직접 또는 전화접수 가능

⑦ 접수마감: 1997년 6월 20일 20시까지

⑧ 시 상

- 우 승: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준우승: 상금 100만원
- 3 위: 상금 60만원
- 4 위: 상금 40만원
- 5~8위: 상금 20만원
- 감투상: 2명 부상(10만원 상당)

⑨ 기 타

지방 거주자는 참가신청시 반드시 거주 지역을 명기하기 바람
대국개시 후 20분 이상 지각시 기권패 처리함
대국개시 1시간 후 초읽기 30초 3회 실시
기타 의문사항은 참가접수처에 문의 바람.
초청기사: 차수권 4단

● 주최 · 주관: 목 석 회

● 후 원: 수영병원

제13회 오리온배쟁탈 전국어린이바둑대회

① 일 시 : 예선—1997년 5월 11일(일) 오전 10 : 00

본선—1997년 5월 18일(일) 오전 10 : 00

② 대회장소 및 접수처 : 별첨

③ 참가자격 : 전국의 초동학생 이하 어린이로 9급 이상인 자

④ 신청기간 : 1997년 4월 25일(금)~5월 7일(수) 오후 5 : 00(선착순 마감)

⑤ 참가구분 : 1) 최강부(3급이상 학년 제한없음) 2) 고학년부(5·6학년)
3) 중학년부(3·4학년) 4) 저학년부(1·2학년 및 미취학 아동)

⑥ 경기방법 : 1) 각부별 총호선(덤5집만)

2) 제한시간—당일발표

⑦ 시상내역

	최강부	고학년부	중학년부	저학년부
우 승—	상패 및 장학금 (50만원)	상패 및 장학금 (40만원)	상패 및 장학금 (30만원)	상패 및 장학금 (20만원)
준우승—	상패 및 장학금 (40만원)	상패 및 장학금 (30만원)	상패 및 장학금 (20만원)	상패 및 장학금 (15만원)
3 위—	상장 및 장학금 (30만원)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상장 및 장학금 (15만원)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4 위—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상장 및 장학금 (15만원)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상장 및 장학금 (8만원)

※ 각조5위~16위까지 입상자에게는 부상 시상. 기타 사항은 본원 관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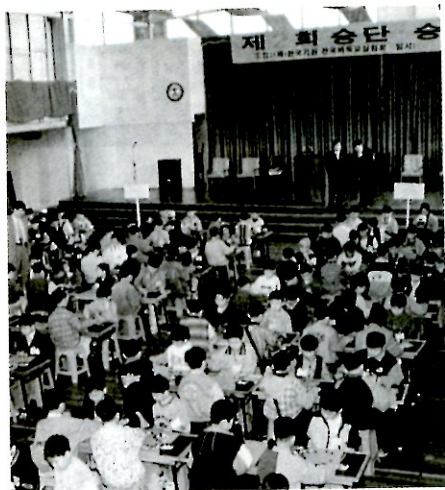
※ 최강부는 차기대회부터는 아마유단자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모든 참가자는 아마단·급 인허증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음.

【각 지역 선발 인원 및 장소·접수처】

지 역	대회장소	선 발 인 수		접 수 처	전화번호
		최강부	기타부		
서울·경기 인천·강원	보 라 매 공 원	18명	32명× 3부문	(한국기원) 성동구 홍익동 315	299-2173 293-1159
충남·충북	전바협 대전지부	5명	11명× 3부문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774-16	042) 541-6017
전남·전북	전바협 광주지부	4명	10명× 3부문	광주시 북구 운암동 65-17	062) 526-6777
부산·경남 경북·제주	전바협 부산지부	5명	11명× 3부문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46-1 국민시장 입구	051) 502-8260

●주 최 : 동양제과 주식회사
●주 관 : (재)한국기원

이창호의 대를 이을 한국기원 연구생을 모집합니다



바둑문화의 향상 발전과 바둑 보급을 위한 전문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본원에서 운영중인 2군연구생 대기자 선발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① 일시 및 장소 : 1997년 6월 7일 15:00, 한국기원 본원

② 선발인원 : 〇〇명

③ 자격조건 :

- ① 전문기사 추천 또는 전국대회 16강 이상 입상자
- ②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

④ 제출서류 : 연구생가입원, 주민등록등본 1부, 입상증명서

⑤ 마 감 : 1997년 5월 30일

⑥ 원서접수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15 (재)한국기원
총무부(T. 299-1292) ☎ 133-030
연구생 담당



재단법인 한국기원

'97년 5월호 단 · 급인정시험 (마감 매월 20일)

변동유무란 <input type="checkbox"/> 싶은 기력	우편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인정받고	급	총	※ 신규 또는 주소나 기력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변동유무란에 √ 표를 해주십시오.		
	단	점				

※ 정답에 표를 해주시시오(1~4번)

1. 포석1:가 나 다 라 마

점수

3. 중반1:가 나 다 라 마

점수

2. 포석2:가 나 다 라 마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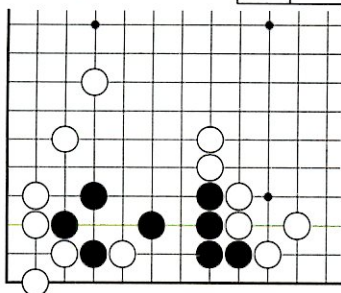
4. 중반2:가 나 다 라 마

점수

※ 정답수순을 적어 주십시오(5~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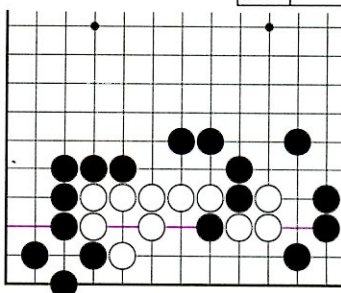
5. 수읽기1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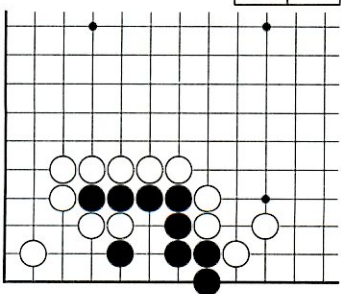
6. 수읽기2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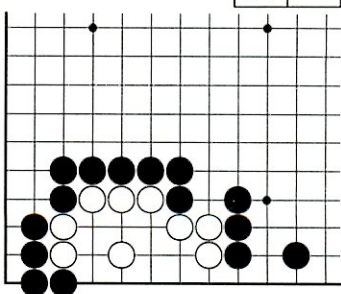
7. 사활1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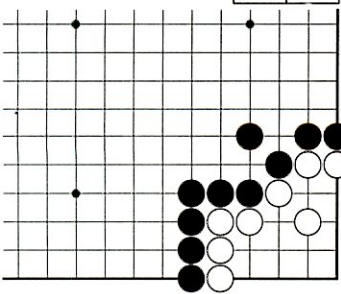
8. 사활2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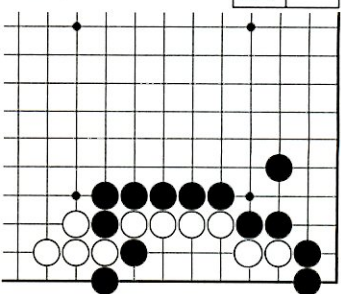
9. 끝내기1

점수



10. 끝내기2

점수



독자의견 투고란

1. 지난 달 월간『바둑』에서 가장 유익했던 난은?

()

2. 지난 달 월간『바둑』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난은?

()

3. 이런 코너가 생겼으면...

()

4. 편집부에 한 마디...

()

☐ 바둑에 관한 궁금증을 「바둑도우미」가 풀어드립니다. 평소 바둑을 두다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내 주십시오. 바둑판 위에서의 변화는 아래 기보 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대국보나 바둑에 관한 제안, 문예작품, 그림 등도 환영합니다.

PC통신 참여 (하이텔 : GO KBA → '묻고 답하기' 천리안 : GO GIBO → '바둑광장'
유니텔 : GO KBA → '바둑여론광장')

☐ 독자의견투고란을 보내주시는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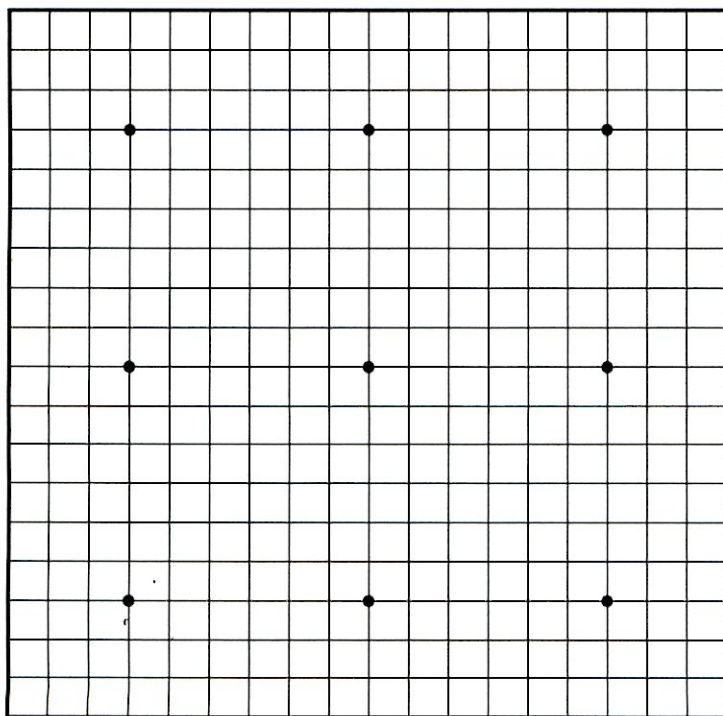
백 :

흑 :

일 시 :

장 소 :

결 과 :



아마단 가족



이 난에 발표되는 아마단 가족
은 프로기사의 심사를 받아 단
위를 인정받은 분이나 각종 바
둑대회의 입상자 및 바둑계 발
전에 힘써주신 분들(기증단)
의 명단입니다.

5단

- 김갑태 : 서울 양천구 신정2동 현대A 101동
1506호
- 김제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장호연립
207호 6/5
- 남재덕 : 서울 금천구 시흥1동 108-76
- 송희순 : 서울 강남구 개포3동 187번지 주공A
501동 902호
- 신형국 :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A 3동
1505호
- 이경노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A 6동 1106호
- 이용호 : 서울 동작구 사당동 91-139
- 이인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271-23
- 이일남 : 경남 울산시 중구 남외동 424-1
- 조영관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14-2 강릉기원
- 조용민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72-34
조용민 치과의원
- 조인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월동 보성2차A
106동 905호
- 최성창 : 서울 종로구 재동 110-250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박홍섭

4단

- 안인모 :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64-1
한일타운 204-2201

3단

- 고광채 : 서울 중랑구 상봉동 건영A 213동 904호
- 윤관대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58-51 금호A
101동 603호
- 이홍용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2리
803-113
- 조정린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주공A 803동
705호

구본균

2단

- 김문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A 116동 201호

초단

- 고준현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 315동
1002호
- 김선걸 : 전남 목포시 용해동 청아A 103동 301호
- 김철화 : 충남 공주시 증동 132-3
- 노서균 : 전남 목포시 용당1동 종원골드하이츠
1208호
- 박용직 : 서울 강동구 길2동 현대A 102동 307호

수담이 있는 곳 한국기원 평촌지원



안양·평촌지역의 바둑명소

모

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모든
기원이 즐거운 기분으로
바둑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격조 높은 바둑에 얼굴
찌그리는 분위기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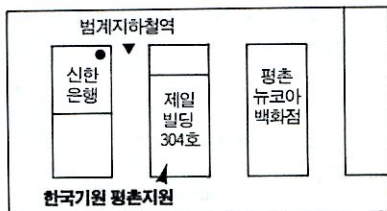
내집처럼 편안하게, 벗을 만나듯 친근감 있게 둘 수
있는 곳, 한국기원 평촌지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장 허 윤 6단

뉴코아 백화점 옆 제일빌딩 304호

**TEL 0343)
86 - 5758**





현상표수품이

응모요령

- ▷ 응모는 반드시 본지 권중에 첨부된 「응모용 엽서」에 한합니다.
- ▷ 해답표기는 수순·숫자를 적은 다음 흑돌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백돌은 빨간색으로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사활결과를 써 넣으십시오.

마 감

▷ 1997년 5월 20일

▷ 당첨자 발표는 월간『바둑』 '97년 7월호에 발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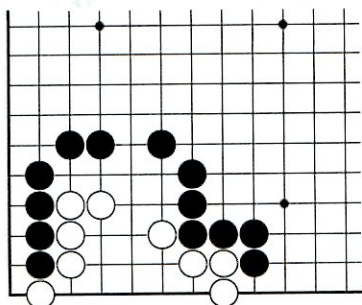
보 낼 곳

133-030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15 (재)한국기원 월간『바둑』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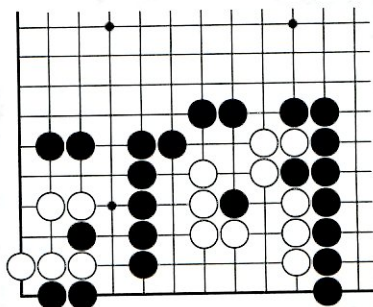
A제 흑차레

출제 조대현 八단



B제 흑차레

출제 안달훈 初단



문제도 풀고 상품도 타고

현상요수품이 당첨자께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 당첨자는 모두 택으로
우승해 드립니다.

※ 상품 발송상 필요하니
응모엽서에 반드시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스승 조남철 (2명)
(재)한국기원 제공
(299-2173)



천하바둑 (1명)
한글과 컴퓨터
제공(639-8003~5)



**한국대표기사
최호합죽선 (2명)**
(재)한국기원
제공(299-2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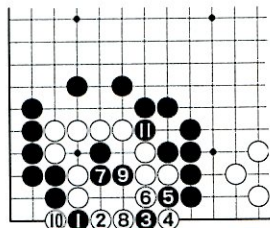
**축하
합니다**



양상국 바둑특강
이찬우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9
천하바둑
김명국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2동 989-12 10/1
한국대표기사최호합죽선
천명희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5 591번지
이상욱 : 노원구 중계3동 시영A 410동 303호
나의 스승 조남철
양옥식 : 인천광역시 가좌4동 308-309 주공A 109동 401호
전종대 : 경남 창원시 도계동 100B3L 404호



출제/조대현 八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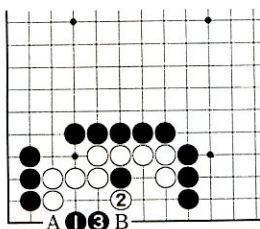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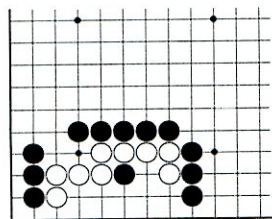


정정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현상묘수 풀이」 A제(출제 장수영 九단)는 위의 정답도와 함께 답이 두 개이므로 정정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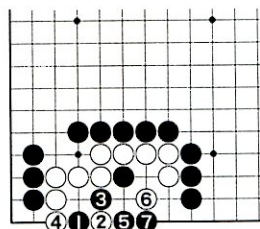
A제 흑차례

정답 · 백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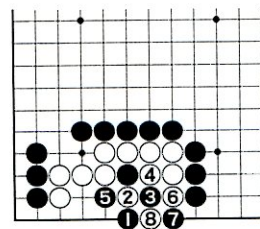
정답도

흑1 치중이 의외의 급소. 백2로 한점을 잡으면 흑3이 묘수로 A와 B를 맞보아 백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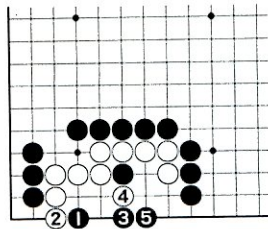
2도(변화2)

백2로 안쪽에서 막아도 흑3·5로 백 한점을 잡으면 양쪽으로 넘어가는 수를 맞보아 역시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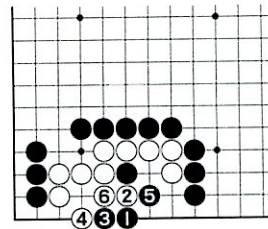
4도(패)

백2에 흑은 3으로 버티는 것이 최강이나 백4·6으로 간단히 응수하여 백8까지 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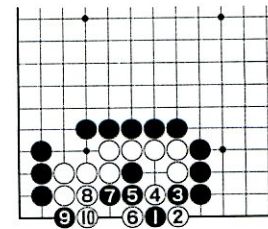
1도(변화1)

백2로 막아 버티면 흑3의 비마달리기로 응수가 없다. 백4로 한점을 잡으면 흑5로 늘어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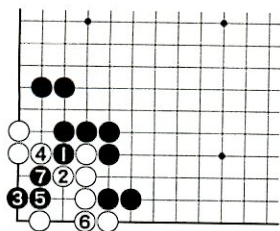
3도(실패)

흑1 비마달리기가 급소처럼 보이지만 백2로 잡으면 다음이 없다. 흑3에는 백4·6으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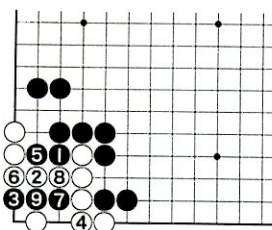
5도(빅)

흑1의 날일자는 백2로 건너붙여 안된다. 흑5·7이 강수이나 백8이면 빅이 되므로 역시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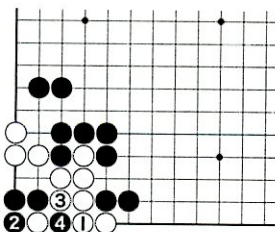
정답도

흑1로 밀어 두고 3에 치중하는 것이 급소. 백4·6이면 흑5·7로 양자충이 돼 백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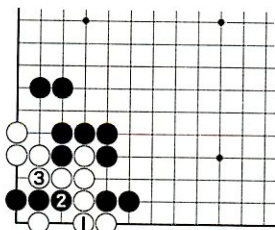
1도(변화)

백2로 비껴서 받아도 흑3 치중이면 대책이 없다. 백4면 흑5·7·9 연타로 역시 백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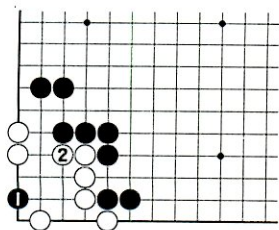
2도(패)

정답도 수순 중 본도 백1로 이을 때 흑2로 두는 것은 백3으로 패가 되므로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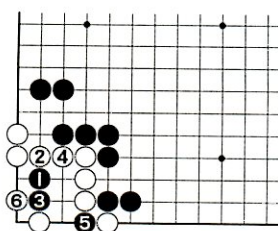
3도(빅)

백1 때 수순을 바꿔 흑2로 먼저 두는 것도 백3으로 이어 빅이 되므로 역시 실패.



4도(실패1)

흑1로 그냥 치중하는 것은 백2로 궁도를 넓힐 때 응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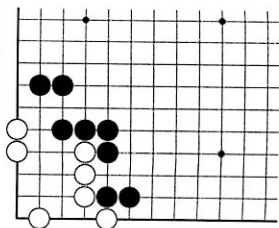
5도(실패2)

흑1 치중도 백2·4로 궁도를 넓히면 다음 응수가 없다. 흑5 먹여침에는 백6으로 그만.



출제/권효진 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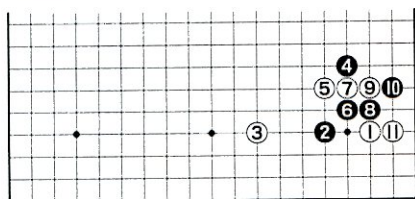
B제 흑차례 정답 · 백 죽음





여류국수 윤영선의 바둑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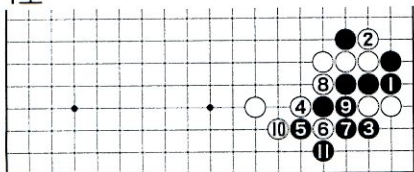
바둑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평소 대국 중에 생긴 의문,
 상수에게 억울하게 당한 꿈수 대책법,
 정석과 맥의 분석이나 자신의 실전 대국보 등
 바둑에 관한 어떤 궁금증도 보내 주시면
 「바둑도우미」 윤영선 1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편지, 엽서,
 또는 독자투고용지를 이용하시거나
 PC통신(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팩스(299-0572)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질문도 I
 소목정석에서 백이 11로 두어오자 난
 감했습니다.

(채남식(회사원·3단)충북 청주시 용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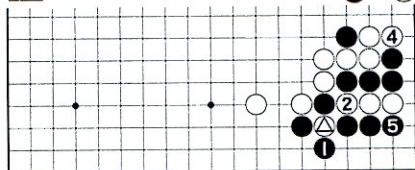
1도



1도(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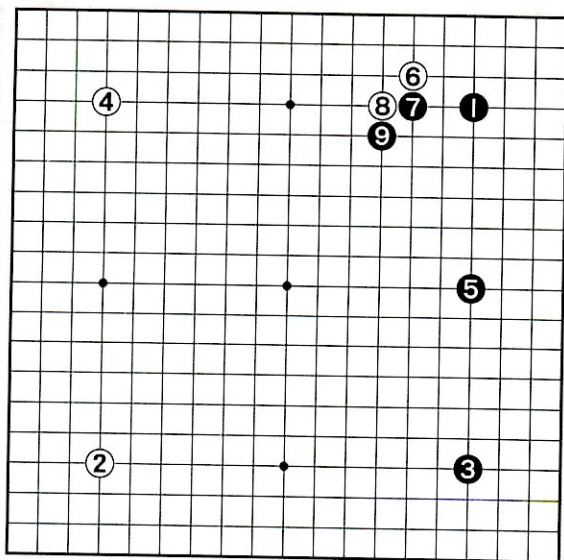
흑1로 잇고 11까지 기본정석의 모양입니다.

2도



2도(흑 안 좋음)

1도의 흑9 대신 1로 두면 백4의 막음이 선수가 되어 흑이 안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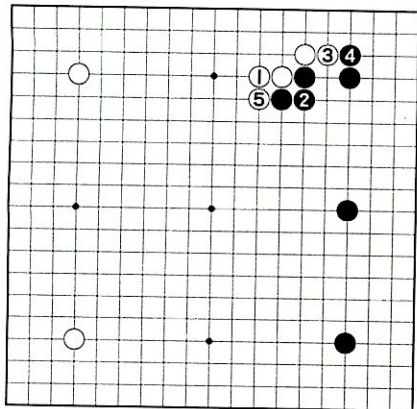


질문도 II

백6의 걸침에 대해 흑7로 붙이자 백이 되짚혀 왔습니다. 어떻게 응수해야 합니까?

〈오영수(학생·1급)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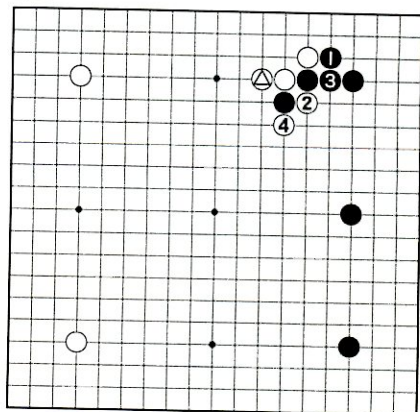
1도



1도(간명)

백1로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간명한 수법으로 백이 좋습니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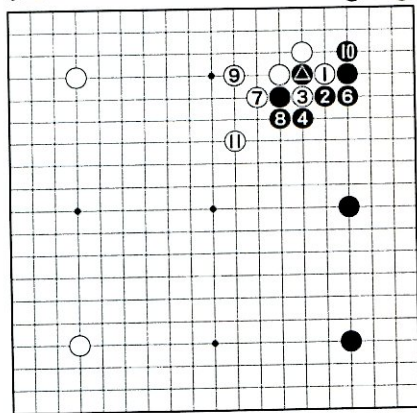


2도(백 유리)

백△로 늘었을 때 흑1이면 백2·4로 흑한점을 잡아 백이 유리합니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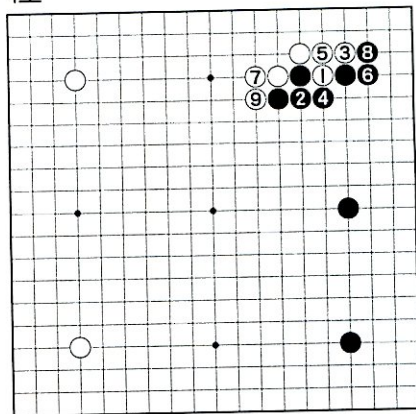
⑤...▲



3도(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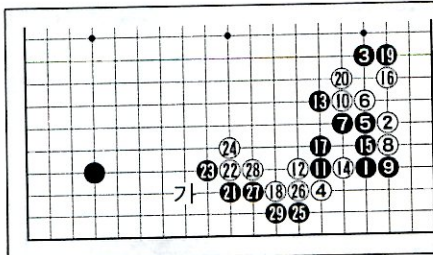
백1로 단수칠 때 흑이 막으면 백11까지 서로 둘 만합니다.

4도



4도(백 흥분)

백1로 단수칠 때 흑2로 이으면 백9까지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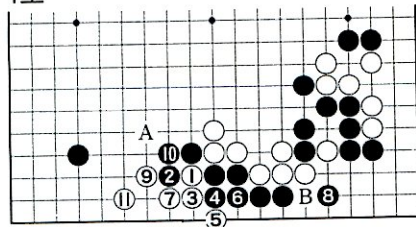


질문도Ⅲ

화점정석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흑29로 가에 호구치지 않고 넘어온 장면입니다. 백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황성은(학생·2급)양천구 신정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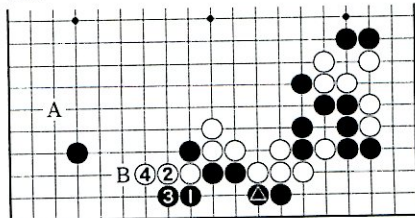
1도



1도(흑 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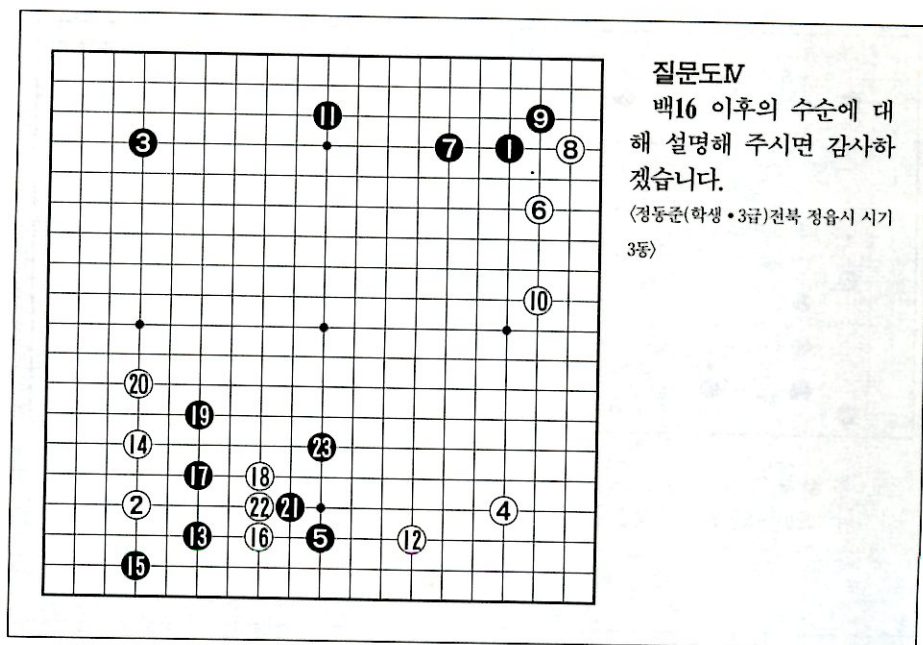
백1로 끊는 한수. 백11까지 A와 B가 맞보기로 흑이 망한 결과입니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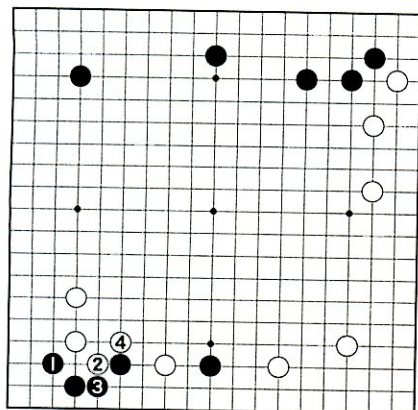


2도(백 호조)

백이 밀으로 단수치면 계속 늘어 백 호조. 백A와 흑B가 교환됐을 때는 ▲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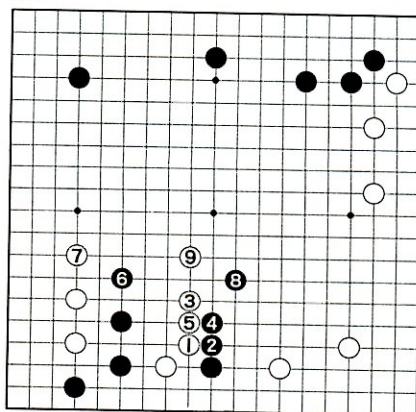
1도



1도(흑 불만)

실전의 흑17로 흑1에 두면 백2·4로 막혀서 흑의 불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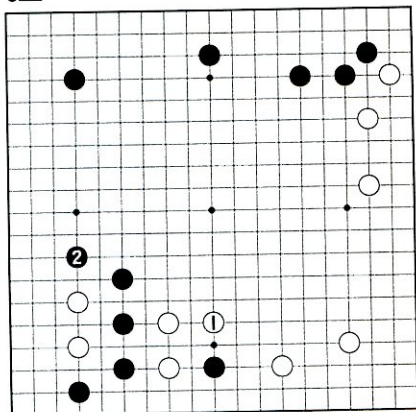
2도



2도(변화)

실전의 백18로는 백1과 같이 둘 수도 있습니다. 백9까지 서로 어려운 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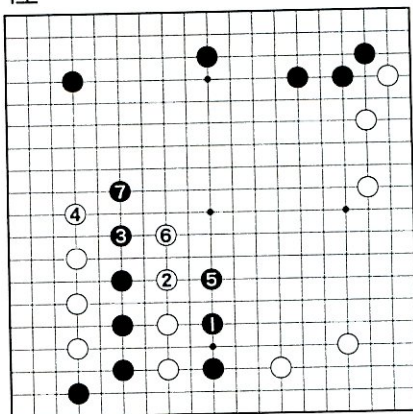
3도



3도(혹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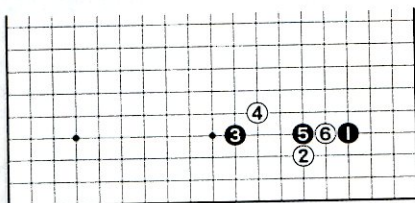
실전의 백20을 안 받으면 흑2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45



4도(호각)

실전의 흑21은 속수로 그냥 한칸뛰는 것이
정수. 흑7까지 호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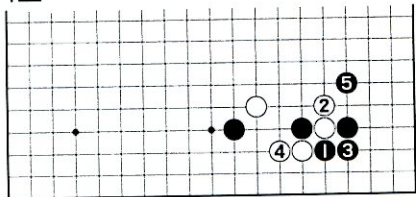


질문도 V

화점 두칸협공정석에서 백4·6으로 두자
난감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응수방법은 무
엇입니까?

〈김성(KBS·3단)영등포구 여의도동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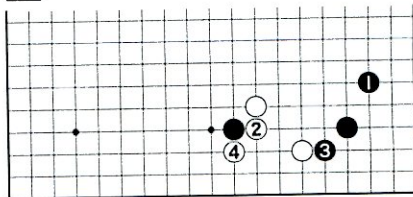
15



1도(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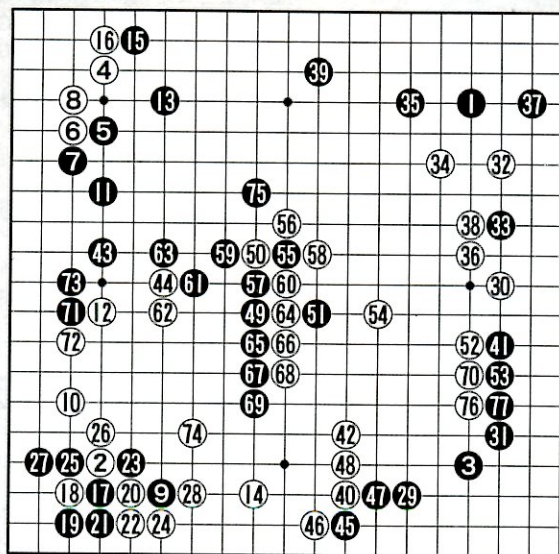
혹1로 밑으로 단수치고 5까지 두는 것이 가장 간명한 수법입니다.

25



2도(흑 충분)

질문도 흑5로는 흑1과 같이 둘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보

백 이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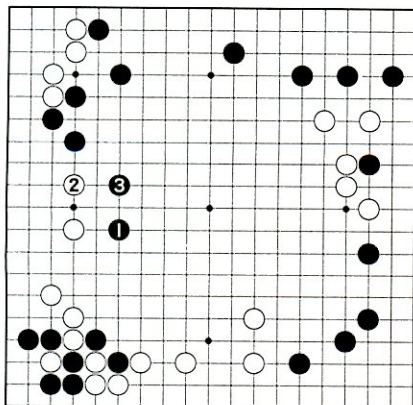
흑 강현중

77수 다음 줄임, 흑 13집반승

〈강현중(학생·2급)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흑45·47은 시기상조.
흑54가 방향착오로 백58
자리에 두어서 공격할 자
리. 흑57은 백58로 두어야
했습니다. 백70은 완착으
로 상변에 침입했으면 백
이 편한 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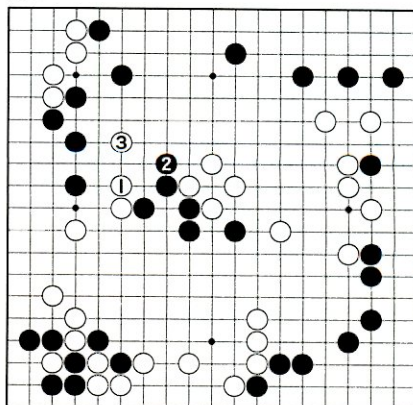
1도



1도(삭감)

실전의 43은 백44의 빛나는 자리를 허용
해 불만. 흑1 정도로 삭감할 자리입니다.

2도



2도(절대)

백62는 백1로 뺀고 볼 자리. 흑2 때 백3으
로 공격했으면 흑이 어려웠습니다.

도소리 글소리

바둑옴부즈만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바둑」지를 읽고 느낀 점이나 바둑계에 전하고 싶은 의견, 궁금한 점을 편지나 PC통신으로 보내주십시오(유니텔 : GO KBA→「바둑어론광장」, 천리안 : GO GIBO→41번 「바둑광장」, 하이텔 : GO KBA→「물고 답하기」). 의견이 채택된 분들에게는 한국기원에서 발간하는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

바둑에 관한 의견, 문예작품, 컷 등도 환영합니다.

바둑옴부즈만

◆월간「바둑」을 꾸준히 모아 오고 있는데 1975년 이전에 발간된 호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군요. 한국기원에서 월간「바둑」 창간호부터 1974년까지의 과월호를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명국/광주시 남구 주월 2동 989-12 10/1

(편집자) 평소 월간「바둑」에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1975년 이전에 발간된 월간「바둑」지는 한국기원 자료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는 자료 소장용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의 과월호는 한국기원 영업부를 통해 구입하실 수가 있으나 그 이상 오래된 과월호는 사실상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집을 위한 과월호는 따로 소장하고 계신 분과의 연락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바둑」을 보다 보니 올해 들어 부쩍 신선한 코너들이 눈에 띄는군요. 그중 「차민수 4단의 인터넷 바둑영어」를 아주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호에 실린 기사에는 생활 영어와는 다른 인터넷 바둑 대국실에서 실제 통용되는 「인터넷체」가 실려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썩 익숙치 못하다 보니 국내 통신을 통한 바둑은 즐기고 있으나 아직 인터넷을 통한 대국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익혀 놓은(?) 인터넷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철/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번지 LG영동빌딩 금융시스템 기술실

(편집자) 우리나라 컴퓨터 통신 바둑 인구가 2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년들 역시 「통신 바둑을 두기 위해 컴퓨터를 배운다」는 분들이 계속 정도로 통신 바둑의 인기는 날로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편집부에 서도 97년 1월호부터 「유승엽의 통신 바둑 여행」이라는 코너를 통해 통신 바둑에 대한 강좌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국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통신 대국 요령을 설명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대국도 다루게 됩니다. 인터넷 통신

대국에 관한 내용은 11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도 한 마디

강좌물을 늘려 주었으면

「바둑」지를 보다 보면 기보는 많은 편이지만 강좌물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좌물을 고루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강좌물의 양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초·중급자의 경우 어려운 프로들의 실전보 보다는 강좌를 통해 기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봉/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1-12

바둑 이벤트를 늘려야

바둑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영화 한 편이 개봉되더라도 주연 배우들의 사인회를 비롯해 인기 가수들의 공연, 주연 배우 닮은 사람 찾기 등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가 열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둑도 국제대회 같은 큰 대회의 경우 프로기사들의 지도다면기와 사인회 등이 열리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

를 좀 더 활성화시켜 팬들이 프로기사들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신승현/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한진건설(주) 국내토목팀

독자 문예작품란

부부 대국

「퇴근 시간」이란 짧막한 글을 써 본 적이 있다. 7~8년 전이다. 내용은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늘 늦는데 대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나이 탓인지 거의 일찍 귀가한다. 걸어서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서 낮이 긴 절기에는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 오는 편이다.

언젠가 남편 회사 직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우리가 평소 존경하던 상관 한 분께서 남편에게 물었다. “요즘 일찍 집에 들어가던데 주로 뭐하면서 보네요?” 남편의 대답이 “연속극 봐요.”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한 부인이 내게 “정말 연속극 보세요?” 하길래 그런 거 전혀 안 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웃었다.

지난 여름부터는 거의 매일 한 번씩 바둑을 둔다. 급수 차이가 워낙 커 처음에는 흑 아홉점을 화려하게 놓고 두었다. 그래도 만방으로 깨졌다. 남편이 ‘아생연후에 살타(我生然後殺他)’라고 가르쳐 줬다. 그래서 두집을 내기 쉬운 네 귀를 중심으로 겨우 두세 집 내면 백은 외곽을 쌓아서 흑의 숨통을 단단히 조여 온다.

중앙은 커녕 바로 옆집에 마실 갈 길마저 끊어지니 한두 귀에서 웅색하게 살아봐도 불개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보다 못한 남편은 또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지도한다.

과연 그렇긴 해도 강적 앞에서는 백을 못추기 마련이다. 죽은 흑돌의 시체가 즐비하다 보니 흑집을 다 메우고도 죽은 돌이 남아 빗쟁이 형국이 된다. 그러는 동안 당한 수모는 정말 눈물겨웠다.

“고수하고 한 번 두려면 양팔 뺄아 대령하는 것도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 법”이라 한다. 이번에도 지국이 참고 조용히 바둑만 둔다. 그 양말은 어차피 우리집 세탁물이다. 바둑두기를 그만 두겠다는 말만 안하면 됐다.

15년쯤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같은 동네에 바둑 친구가 있었다.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 데리고 한 집에 모여서 하루종일 둔 적도 많았다. 김치담글 때도 배추를 두 집 것을 같이 소금에 절여 놓고 바둑을 뒀다. 헤어질 때면 적당히 절여졌다. 씻고 행귀 소쿠리에 담아 자기집 입맛대로 따로 양념에 버무리기만 했다.

주말에는 급수가 비슷한 남편들끼리 두고 또 급수가 비슷한 우리 여자들끼리 한밤중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둑을 두었다. 두 집 아이들은 옆방에 모두 모여 노느라 단 법석이었다. 그러다가 가끔 네 명이 함께 그야말로 연기 부부 대국을 했다.

우리집 남편이 한 번 두고 다음에 저쪽집 남편이 두면 그 다음 차례에 내가 두고 또 저쪽집 부인이 두는 식이다. 급수가 낮은 아내들이 엉망으로 두면 그나마 좋은 상황으로 호전시키려고 남편들이 곤혹스러워했다. 같은 편이라고 가르쳐 주면 두 명이 두는 효과밖에 안나므로 절대로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동네로 각 각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호시절이

끝났다. 그 이후로 같이 둘 상대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기원에 갈 수도 없고 결국 남편만 붙잡고 두자고 할 밖에. 일마간 상대를 해 주던 남편은 고수 바둑 모양 버린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그 후 10년 이상 우리집에는 바둑판이 사라졌다.

지난 여름 어찌다가 바둑판을 다시 내놓게 됐다. 이번에는 그래도 남편이 그때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태도로 대국에 임해 준다. ‘두점머리는 두드려라’, ‘좌 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꼭사공은 산다’, ‘오궁도화는 죽는다’ 등 여러 가지 바둑 격언을 동원한 남편의 훌륭한 지도 대국 덕분에 일곱점까지 성장했다. 그러던 하루는 남편이 풀이 죽어 늦게 돌아왔다.

귀가 길에 자기보다 급수가 낮은 친구와 기원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연속해서 지고 말았단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고수 바둑 모양 버린 장본인이 나라고 할까봐 얼른 내가 선수를 쳤다. “당신 나이에 바둑 잘 둔다고 이창호 되나요? 마누라 바둑 지도나 열심히 하면 손해는 안 볼 거예요. 대개 무슨 교육이든 제자보다 스승이 더 열심히 법이라죠” 했더니 놀랍게도 “그래 보자”는 것이 아닌가.

내 생전에 백돌을 잡고 남편과 대국하겠다는 야심은 애시당초 없다. 다만 네 귀에 흑 녀집을 소박하게 놓고 둘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남편에게 잘 숙성된 포도주 한 병과 예쁜 꽃 한 송이를 선물하리라.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 한 장과 함께. 도원화/주부(전 영동포종학교 교사)



공배를 메우면서

● 조훈현 · 서봉수 · 서능욱 九단, 하찬식 · 정수현 · 최규병 八단, 김수영 七단, 한철균 · 김승준 五단, 차민수 四단, 이영신 · 윤영선 初段 등 프로기사 여러분, 국장님 이하 한국기원 전 직원들, 세계바둑 식구들, 바둑361 식구들, 조병탁 7단, 양현모 사범 - 나 의 결혼을 물심양면으로 축하해 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끝끝내 피부며 까치집 머리를 화사하게 단장시켜줄 미용실 언니(?)께도 미리 감사의 말을 전한다. <준>

● 30. 쿨릿세움의 계단을 오르며 황재와 포도와 김투사를 떠올릴 때 누구는 기보 급수와 행장을 논한다. 곤돌라 사공의 푸치니를 들으며 오징어먹물 리조토와 5백불짜리 주방장 특선 생선요리를 즐길 때 누구는 백백한 3천원짜리 김치볶음밥을 물로 간신히 목구멍에 우겨넣는다. 음프라우에 올라 세상 가득한 흰빛을 가슴에 새길 때 누구는 흰 교정지를 눈에 담는다.(충렬되도록). 책상 머리 앞에 붙은 폭탄선언카드. 선물 앞에 안들면 진짜 폭탄 맛을 줄 아시오. 그대 <모>

● 眞實과 現實이 파도라마처럼 交叉하는 바둑판. 마감을 앞두고 承俊은 폭탄선언과 함께 유럽으로 뺑소니치고 應聖은 깃털처럼 일본으로 날고, 몇 안되는 식구가 그나마 보이지 않아 집 부족증에 걸렸다. "結婚中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出張中이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證人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歷史는 眞實을 가리지 않는 眞實과 現實을 외면한 眞實의 記錄에 지나지 않는다. <구>

● 봄 오는 것이 아깝다. 곧 가버릴 것이니까. 깃털미풍이 뺨에 묻는다. 잡아 둘 수 없어 분하다. 시간의 끈을 놓치선 낭패다. 하나 이미 담세게 끌려간다. 올림푸스 렌즈만 믿을 뿐이다. 그것도 안되면 '龍의 눈물'에 나오시는 丹山부원군에게 매달리자. 아이의 가정환경조사에 '積善之家 必有餘慶'의 가훈을 적었다. 한없이 관대해지자. 후지쓰베 캄페도 내 탓만 같다. <욱>

● '바둑' 6월호 예고

동양증권배 최종전(조훈현 · 고바야시 사토루)/후지쓰베 본선(유창혁 · 조지훈)/일본 십단전 도전기(요다 · 가토)/프로 · 아마 오픈토너 1회전/여류입단대회

■ (재) 한국기원 대표 : 291-4001 • 이사장실 : 299-1290 • 사무국장실 : 299-1291 • 『바둑』편집부 : 299-2170~1, FAX : 299-0572 • 자매지 편집부 : 291-7241 • 영업부 : 299-2172, FAX : 299-0573 • 광고부 : 3661-2750, FAX : 3661-2751 • 총무부 : 299-1292~3 • 사업부 : 299-1294~5, FAX : 299-0571 • 보급부 : 299-2173 • 홍보부 : 291-0019, 298-9764, FAX : 297-0986 • 출판부 : 297-0987 • 판매장 : 291-1912 • 기사실 : 295-8001, FAX : 299-0570 • 여성바둑연맹 : 296-2344 • 종로회관 : 722-8039 • 바둑음성정보 : 700-711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기보 · 기사 · 사진 등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사할 수 없다.

정가 : 5,000원

월간 바둑

1997년 5월호
제35권 제5호(통권 제358호)

총 제/김우중
발 행 인/원재현
편 집 인/정동식
인 쇄 인/민재기

편 집 장/이영옥
수석기자/이성구
취재기자/양형모 · 구승준
사진기자/이혜성
편집서무/강효숙

영업과장/이석주
출판영업/신대섭 · 김은영 · 김진숙

광고부장/김종섭

발 행 처/(재)한국기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15번지
(우편번호 133-030)

인 쇄 처/정문사문화(주)
사 식/우정기획(278-0269)

1967년 7월 7일 등록(라906호)
1968년 6월 18일 국유철도특별취급증인
제108호

1997년 4월 20일 인쇄
1997년 5월 1일 발행



자동차 사고는 물론



스키



등산



하이킹



야유회



목공일



출장



테니스



배낭여행



전기



해외여행



해수욕



축구



정원손질



장도리질



야구



지붕수리



골프



농구



목욕



뉘시



요리



사진촬영



이사



기차여행



집안청소



캠핑 중 사고 까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상해를 보상합니다.

신상품

삼성화재 누구나 안심보험

• 온갖 상해를 보상받습니다. • 의료비에 입원일당까지 지급받습니다.
• 이자로 보상받고 원금은 되돌려 받습니다. • 후유장애 시 소득보상금까지
지급받습니다. • 단체가입 시 최고 3%까지 할인받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 본사종합안내센터 02-777-7000(대표전화) 080-900-7114(수신자부담)

• 강북본부 270-1700 • 강남본부 553-7114 • 강서본부 320-7114 • 경인본부 0331)30-1104 • 충청본부 042)220-5022
• 호남본부 062)220-8000 • 부산본부 051)461-8400 • 대구본부 053)250-6114

SAMSUNG

삼성화재

맛과 향이
좋아야죠,
껌인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롯데껌—
그 이유는 뛰어난 맛과 향에 있습니다.

오래 씹어도 부드럽고 맛과 향이 좋은 껌—

롯데껌은 세계60개국에 수출되어 세계인이 즐겨 씹는 껌입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